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박사학위논문

여성 안보의식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송명진

여성 안보의식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Women'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 Focusing on Survey Results from Roh Tae-woo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송명진

여성 안보의식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오 수 열

이 논문을 군사학 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 사 학 과

송 명 진

송명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 | | | | |
|-----|-------|----|-----|-----|
| 위원장 | 충남대학교 | 교수 | 길병옥 | (인) |
| 위원 | 경남대학교 | 교수 | 신미식 | (인) |
| 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김재철 | (인) |
| 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김병현 | (인) |
| 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오수열 | (인) |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 1. 연구의 범위..... | 4 |
| 2. 연구의 방법..... | 6 |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17 |
| 1. 국민 안보의식 관련 연구..... | 17 |
| 2. 여성 안보의식 관련 연구..... | 24 |
| 제2장 관련 개념 및 연구의 흐름도..... | 27 |
| 제1절 국가안보와 안보의식의 개념 및 상관성..... | 27 |
| 1. 국가안보의 개념..... | 27 |
| 2. 안보의식의 개념..... | 29 |
| 3. 국가안보와 안보의식의 상관성..... | 31 |
| 제2절 여성 안보의식과 국가안보..... | 35 |
| 1. 여성 안보의식의 개념 및 중요성..... | 35 |
| 2. 여성 안보의식과 국가안보의 관계..... | 38 |
| 제3절 연구의 흐름도..... | 40 |
| 제3장 안보의식 조사결과 분석..... | 43 |
| 제1절 역대 정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 분석..... | 43 |

| | |
|--|-----|
| 1. 노태우 정부(1989)..... | 43 |
| 2. 문민정부(1995)..... | 46 |
| 3. 국민의 정부(1999)..... | 49 |
| 4. 참여 정부(2004)..... | 52 |
| 5. 이명박 정부(2009)..... | 56 |
| 6. 박근혜 정부(2014)..... | 59 |
| 제2절 역대 정부의 안보의식 성별차 분석..... | 63 |
| 1. 노태우 정부(1989)..... | 63 |
| 2. 문민정부(1995)..... | 74 |
| 3. 국민의 정부(1999)..... | 86 |
| 4. 참여 정부(2004)..... | 95 |
| 5. 이명박 정부(2009)..... | 114 |
| 6. 박근혜 정부(2014)..... | 133 |
| 제3절 안보의식 성별차 분석 결과..... | 153 |
| 1. 평균값과의 격차로 본 조사결과 분석..... | 153 |
| 2. ‘모름’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남녀 수 분석..... | 154 |
| 3. 진보 정권 vs. 보수 정권의 남녀 안보의식 비교..... | 155 |
| 4. 남녀 안보의식 차이..... | 162 |
| 5. 여성 안보의식수준 분석 결과..... | 176 |
| 제4장 여성 안보의식 제고방안..... | 179 |
| 제1절 안보 및 국방 관련분야 여성인력의 확대..... | 179 |
| 1. 조직 내부에서의 인식 변화 필요..... | 181 |
| 2. 병과선택 범위와 진급기회 확대, 전역자 인센티브 부여 | 182 |

| | |
|--|-----|
| 3. 예비군 및 전역자 활용, 민방위 활동과 민·관·군 통합훈련····· | 184 |
| 4.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 185 |
| 제2절 안보관 함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186 |
| 1.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부 연계, 안보관 함양 프로그램 시행····· | 186 |
| 2. 군 관련 행사시 여성 초대, 군 입대 설명회 개최····· | 188 |
| 3. 20대 여성 대상 최소 기초 군사훈련 참가 제도화····· | 190 |
| 제3절 여성 안보전문가 육성 및 안보정책 참여 확대····· | 190 |
| 1. 여성 안보전문가 육성····· | 190 |
| 2. 여성의 안보정책 참여 확대····· | 191 |
| 3. 안보적 측면에서 여성 활용 비전 설계 및 추진····· | 192 |
| | |
| 제5장 결론····· | 193 |
| | |
| 참고문헌····· | 195 |

표 목 차

| | |
|---|----|
| <표 1-1> 역대 정부 출범 2년차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개요.. | 6 |
| <표 1-2>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설문 문항 분석 - 공통문항.. | 7 |
| <표 1-3>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설문 문항 분석 - 상이문항.. | 9 |
| <표 1-4> 안보의식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 11 |
| <표 1-5>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 | 12 |
| <표 3-1> 1989년 국민안보의식조사 설문 문항..... | 44 |
| <표 3-2> 1989년 국민안보의식조사 분석 결과..... | 45 |
| <표 3-3> 1995년 국민안보의식조사 설문 문항..... | 47 |
| <표 3-4> 1999년 국민안보의식조사 설문 문항..... | 50 |
| <표 3-5> 2004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설문 문항..... | 53 |
| <표 3-6> 2009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설문 문항..... | 56 |
| <표 3-7> 2014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설문 문항..... | 60 |
| <표 3-8>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64 |
| <표 3-9>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66 |
| <표 3-10>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67 |
| <표 3-11>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68 |
| <표 3-12>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69 |
| <표 3-13>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70 |
| <표 3-14>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71 |
| <표 3-15>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72 |
| <표 3-16>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73 |
| <표 3-17>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74 |
| <표 3-18>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75 |
| <표 3-19>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76 |
| <표 3-20>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77 |
| <표 3-21>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78 |

| | |
|-------------------------------|-----|
| <표 3-22>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79 |
| <표 3-23>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80 |
| <표 3-24>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81 |
| <표 3-25>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82 |
| <표 3-26>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83 |
| <표 3-27>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84 |
| <표 3-28>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85 |
| <표 3-29>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86 |
| <표 3-30>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87 |
| <표 3-31>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88 |
| <표 3-32>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89 |
| <표 3-33>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90 |
| <표 3-34>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91 |
| <표 3-35>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91 |
| <표 3-36>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92 |
| <표 3-37>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93 |
| <표 3-38>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94 |
| <표 3-39>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95 |
| <표 3-40>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96 |
| <표 3-41>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97 |
| <표 3-42>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98 |
| <표 3-43>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99 |
| <표 3-44>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100 |
| <표 3-45>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101 |
| <표 3-46>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102 |
| <표 3-47>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103 |
| <표 3-48>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104 |
| <표 3-49>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105 |

| | |
|-------------------------------|-----|
| <표 3-50>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106 |
| <표 3-51> 설문 문항 13에 대한 답변..... | 107 |
| <표 3-52> 설문 문항 14에 대한 답변..... | 108 |
| <표 3-53> 설문 문항 15에 대한 답변..... | 109 |
| <표 3-54> 설문 문항 16에 대한 답변..... | 110 |
| <표 3-55> 설문 문항 17에 대한 답변..... | 111 |
| <표 3-56> 설문 문항 18에 대한 답변..... | 112 |
| <표 3-57> 설문 문항 19에 대한 답변..... | 113 |
| <표 3-58>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114 |
| <표 3-59>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115 |
| <표 3-60>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116 |
| <표 3-61>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117 |
| <표 3-62>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118 |
| <표 3-63>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119 |
| <표 3-64>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120 |
| <표 3-65>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121 |
| <표 3-66>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122 |
| <표 3-67>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123 |
| <표 3-68>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124 |
| <표 3-69>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125 |
| <표 3-70> 설문 문항 13에 대한 답변..... | 126 |
| <표 3-71> 설문 문항 14에 대한 답변..... | 127 |
| <표 3-72> 설문 문항 15에 대한 답변..... | 128 |
| <표 3-73> 설문 문항 16에 대한 답변..... | 129 |
| <표 3-74> 설문 문항 17에 대한 답변..... | 130 |
| <표 3-75> 설문 문항 18에 대한 답변..... | 131 |
| <표 3-76> 설문 문항 19에 대한 답변..... | 132 |
| <표 3-77>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133 |

| | |
|---|-----|
| <표 3-78>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134 |
| <표 3-79>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135 |
| <표 3-80>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136 |
| <표 3-81>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137 |
| <표 3-82>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138 |
| <표 3-83>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139 |
| <표 3-84>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140 |
| <표 3-85>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141 |
| <표 3-86>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142 |
| <표 3-87>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143 |
| <표 3-88>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144 |
| <표 3-89> 설문 문항 13에 대한 답변..... | 145 |
| <표 3-90> 설문 문항 14에 대한 답변..... | 146 |
| <표 3-91> 설문 문항 15에 대한 답변..... | 147 |
| <표 3-92> 설문 문항 16에 대한 답변..... | 148 |
| <표 3-93> 설문 문항 17에 대한 답변..... | 149 |
| <표 3-94> 설문 문항 18에 대한 답변..... | 150 |
| <표 3-95> 설문 문항 19에 대한 답변..... | 151 |
| <표 3-96> 설문 문항 20에 대한 답변..... | 152 |
| <표 3-97> ‘모름’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54 |
| <표 3-98>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58 |
| <표 3-99>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59 |
| <표 3-100> ‘주한미군 철수시기’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0 |
| <표 3-101> ‘국방비 수준’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1 |
| <표 3-102>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3 |
| <표 3-103> ‘국민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4 |
| <표 3-104> ‘본인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5 |
| <표 3-105>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6 |

| | |
|---|-----|
| <표 3-106> ‘북한의 전쟁(군사적) 도발 가능성’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7 |
| <표 3-107>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8 |
| <표 3-108> ‘한·미동맹 관계’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69 |
| <표 3-109> ‘주한미군의 중요성’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70 |
| <표 3-110>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71 |
| <표 3-111>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72 |
| <표 3-112> ‘국방비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73 |
| <표 3-113>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174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2-1> 연구의 흐름도..... | 41 |
| <그림 3-1> 설문 문항 1에 대해 항목별 ‘아주 높다’를 선택한 남녀 비율.. | 65 |
| <그림 3-2>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66 |
| <그림 3-3> 설문 문항 3에 대해 항목별 ‘아주 그렇다’를 선택한 남녀 비율.. | 67 |
| <그림 3-4>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68 |
| <그림 3-5>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69 |
| <그림 3-6>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0 |
| <그림 3-7>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1 |
| <그림 3-8>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2 |
| <그림 3-9>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3 |
| <그림 3-10>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4 |
| <그림 3-11>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5 |
| <그림 3-12>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6 |
| <그림 3-13>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7 |
| <그림 3-14>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8 |
| <그림 3-15>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79 |
| <그림 3-16>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0 |
| <그림 3-17>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1 |
| <그림 3-18>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2 |
| <그림 3-19>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3 |
| <그림 3-20>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4 |
| <그림 3-21>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5 |
| <그림 3-22>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6 |
| <그림 3-23>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7 |
| <그림 3-24>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8 |
| <그림 3-25>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89 |

| | |
|---------------------------------------|-----|
| <그림 3-26>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0 |
| <그림 3-27>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1 |
| <그림 3-28>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2 |
| <그림 3-29>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3 |
| <그림 3-30>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3 |
| <그림 3-31>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4 |
| <그림 3-32>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5 |
| <그림 3-33>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6 |
| <그림 3-34>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7 |
| <그림 3-35>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8 |
| <그림 3-36>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99 |
| <그림 3-37>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0 |
| <그림 3-38>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1 |
| <그림 3-39>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2 |
| <그림 3-40>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3 |
| <그림 3-41>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4 |
| <그림 3-42>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5 |
| <그림 3-43>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6 |
| <그림 3-44> 설문 문항 1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7 |
| <그림 3-45> 설문 문항 1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8 |
| <그림 3-46> 설문 문항 1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09 |
| <그림 3-47> 설문 문항 1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0 |
| <그림 3-48> 설문 문항 1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1 |
| <그림 3-49> 설문 문항 1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2 |
| <그림 3-50> 설문 문항 1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3 |
| <그림 3-51>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4 |
| <그림 3-52>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5 |
| <그림 3-53>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6 |

| | | |
|-----------|-----------------------------|-----|
| <그림 3-54> |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7 |
| <그림 3-55> |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8 |
| <그림 3-56> |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19 |
| <그림 3-57> |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0 |
| <그림 3-58> |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1 |
| <그림 3-59> |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2 |
| <그림 3-60> |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3 |
| <그림 3-61> |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4 |
| <그림 3-62> |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5 |
| <그림 3-63> | 설문 문항 1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6 |
| <그림 3-64> | 설문 문항 1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7 |
| <그림 3-65> | 설문 문항 1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8 |
| <그림 3-66> | 설문 문항 1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29 |
| <그림 3-67> | 설문 문항 1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0 |
| <그림 3-68> | 설문 문항 1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1 |
| <그림 3-69> | 설문 문항 1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2 |
| <그림 3-70> |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3 |
| <그림 3-71> |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4 |
| <그림 3-72> |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5 |
| <그림 3-73> |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6 |
| <그림 3-74> |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7 |
| <그림 3-75> |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8 |
| <그림 3-76> |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39 |
| <그림 3-77> |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0 |
| <그림 3-78> |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1 |
| <그림 3-79> |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2 |
| <그림 3-80> |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3 |
| <그림 3-81> |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4 |

| | |
|---|-----|
| <그림 3-82> 설문 문항 1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5 |
| <그림 3-83> 설문 문항 1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6 |
| <그림 3-84> 설문 문항 1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7 |
| <그림 3-85> 설문 문항 1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8 |
| <그림 3-86> 설문 문항 1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49 |
| <그림 3-87> 설문 문항 1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50 |
| <그림 3-88> 설문 문항 1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51 |
| <그림 3-89> 설문 문항 2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152 |
| <그림 3-90>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59 |
| <그림 3-91>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0 |
| <그림 3-92> ‘주한미군 철수시기’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1 |
| <그림 3-93> ‘국방비 수준’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2 |
| <그림 3-94>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3 |
| <그림 3-95> ‘국민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4 |
| <그림 3-96> ‘본인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5 |
| <그림 3-97>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6 |
| <그림 3-98> ‘북한의 전쟁(군사적) 도발 가능성’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7 |
| <그림 3-99>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8 |
| <그림 3-100> ‘한·미동맹 관계’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69 |
| <그림 3-101> ‘주한미군의 중요성’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70 |
| <그림 3-102>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71 |
| <그림 3-103>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72 |
| <그림 3-104> ‘국방비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73 |
| <그림 3-105>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 174 |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Women'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 Focusing on Survey Results from Roh Tae-woo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

Song, Myung-jin

Advisor : Prof. Oh Soo-yul, Ph.D.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women'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by analyzing differences of recognition between men and women. 'Pan-national security awareness survey' conducted by Institute for Security Affairs Research of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 used for this study. In particular, results conducted in 1989, 1995, 1999, 2004, 2009 and 2014 were analyzed. The chosen years were every government's second year(except 1995) since 1988. The second years of new governments mean that new policies about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are spread and national consensus on the related matters can be 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umber of women's answers as "Don't know" or "Know a little" about the provided national security issues were more than men's. The ratio of women'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matters was different from men's. These results show that we need improvement plans of women'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matters in different ways with men. The reasons are inferred as follows. First, women are free from military duty in South Korea. Second, women have different interest rate on military or national security issues from men. Third, a lot of women are likely to discontinue career due to housework or child rearing. Four, the ratio of women officials are lower than men in the fields of national security or military. Fifth, middle or high school curriculum

about national security matters are not general. Sixth, national security education for women are not nationally provided.

There are reasons why women'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are needed. First, in the matter of national security, there is no barrier for men or women and every society member should pay attention to national security matters because there is nothing left for the people who lose their nation. Second, women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families. Therefore, they need to educate their children with desirable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Third, women's participations in the fields of policy-making or military affairs are getting more. Fourth, as a female birth rate is higher than male, women can influence a lot more areas than before. Fifth, female students or graduates who want to be female officers are getting more every year.

To improve women's recogn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female workforce should be expanded in the fields of national defense or national security. Women reserve forces can be used in many areas and variety of female groups in different areas can also be used for improving women's recogn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matters. Internet society and social media activities are also helpful and security tour programs to the front areas such as Panmunjom can be good ways, too.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focuses on only one source, which was conducted by Institute for Security Affairs Research of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t is hard to be the representative nature. Second, this study did not provide concrete statistics that can prove valuable differences. Third, data from every second year of new governments are not enough to generalize results of the whole government periods.

* Key words : National security Affairs, women's recognition, former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national security matter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가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통상적인 의미의 ‘국가안보’라고 한다면, 안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안보의식’일 것이다. 국가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을 때 안보의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 물론 국가안보와 국민 안보의식이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 즉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5개국 중 4개국(독일, 베트남, 예멘, 중국)은 통일을 이루었으나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남북의 팽팽한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도 수차례 대남도발을 감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시기에 도 서해 5도 등지에서 군사도발을 일으켰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2013년에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5년 8월에는 DMZ 지뢰 도발을 자행하면서 남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2016년에는 연초부터 제4차 핵실험, 9월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음은 물론 수십 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2017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의 한 공항에서 대낮에 피살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지대함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국제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한국을 지정학적 이유로 세계에서 그루지야(Gruziya) 다음으로 안보여건이 가장 위험한 국가로 보았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SS)가 2011년에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¹⁾ 최근 북한의 화성 15형 시험발사(2017년 11월 29일) 이후 하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1) 김충남·문순보,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13), p. 34.

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²⁾

더구나 북한 외에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주변 국가들의 안보·국방정책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질서는 시시각각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³⁾를 둘러싼 미-일-중의 이해관계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드는 아직도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이며,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국제 테러조직 IS⁴⁾의 범죄로부터도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안보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어떠한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이 크게 늘었고,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시에도 전역 연기 신청자가 100여 명에 달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 위기시 자신의安危를 뒤로 하면서까지 국가방위를 위해 희생하려는 신(新)안보세대⁵⁾ 또는 P세대⁶⁾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희망 장병들에 한해 전역 연기가 가능하도록 ‘자발적 전역연기’ 근거 법안까지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또한 2016년 6·25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 83.7%가 전쟁발발시 참전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참전의지를 밝힌 것과 같다고 하겠다.⁷⁾

한간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우려하는 목

2) SBS, 2017년 12월 4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2743&plink=ORI&cooper=NAVER(검색일 : 2017년 12월 7일).

3)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7일, 사드 발사대(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313&cid=59087&categoryId=59087>(검색일 : 2017년 5월 2일).

4) IS(Islamic State)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2014년 6월 29일 개명한 단체. 2003년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조직으로 출발, 이라크에서 각종 테러활동을 벌이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거점을 시리아로 옮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활동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2646&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 2017년 11월 1일).

5)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새롭게 변하여 해병대와 해군 특전병 등에 자원 입대 지원자가 크게 늘어났고, 그러한 20대들을 일컬어 ‘신(新)안보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됨. 네이버 오픈국어사전

6) ‘P세대’의 의미는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고, 애국심(Patriotism)을 발휘하고 있는 20대 젊은 층을 지칭. 애국적인 태도 외에 진보·보수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실용(Pragmatism)적인 자세를 보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Power & Peace)는 신념을 지니고 국방의 의무를 유쾌하게(Pleasant)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개성(Personality) 세대임.” 중앙일보, 2011년 3월 29일.

7) 한국경제, 2016년 6월 23일, <http://hei.hankyung.com/hub01/201606238223I>(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소리가 높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안보불감증이 더욱 증대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신(新) 안보세대의 등장과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정전체제 하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우려하며, 안보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의식에 있어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 또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국방이나 안보를 특정 성(性)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시대가 지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여성의 불모지대로 여겨졌던 군사 및 국방 분야에 여성 진출자가 확대되는 지금, 여성의 안보의식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고, 앞으로 어떠한지 정확한 현상 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은 국가안보를 위해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활동에 나선 여성 인구수는 2000년대에 40%이던 것이 2015년에는 51.9%에 이르며 고용시장의 우면파위를 대변해 주고 있다.⁸⁾ 2015년 기준으로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16.8%로 2005년 7.9% 대비 8.9% 상승한 바 있고⁹⁾ 2013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2016년 5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중 51석을 여성이 차지하였고¹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5년 내 64%로 높이는 방안이 발표되었다.¹¹⁾ 여성의 정치참여를 따져봤을 때, 투표권 행사에서 남녀 간의 격차는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바도 있다.¹²⁾

100% 지원제로 운영되는 한국군의 여군 수 또한 2016년 초 기준 9,750여 명에 달하나 연말에는 1만 490명을 기록해 ‘여군 1만 명 시대’에 돌입하였다.¹³⁾ 그만큼 남성 위주의 편중된 사회구조에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각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성별을 떠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여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안보의식은 어떠한가? 안보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대상으로 한 이옥연(2004)¹⁴⁾, 전상조(2014)¹⁵⁾, 양

8) 한경비즈니스, 2015년 1월 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6459>(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9) 주계선,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 69.

10) 신동아, 2016년 6월 17일, <http://shindonga.donga.com/3/all/13/534872/1>(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11) 중앙일보, 2017년 11월 21일, <http://news.joins.com/article/22135033>(검색일 : 2017년 11월 23일).

12) 김민정 외,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 지향적 투표형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서울 : 한국정치학회, 2003년), pp. 89-110.

13) 헤럴드경제, 2016년 3월 30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30000331>(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14) 이옥연,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담론,” 『국방연구』 47권 2호(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12), p. 217.

15) 전상조, “대학생의 안보의식 영향요인과 성별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군사논단』 2014년 겨울호(서

동안·강길진·강옥경(2011)¹⁶⁾ 등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안보의식이 남성보다 낮거나 남녀의 답변율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의 역사상 여성들이 개인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구국운동을 했다는 증거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발발과 함께 국방의 의무가 없었던 여성들이 나라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군에 자원입대해 육·해·공군의 여군 및 간호장교로 활동하거나 군번도 받지 않은 채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등의 형태로 참전해 국가수호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¹⁷⁾ 단순히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거나 나라 지키는 일은 남성들의 몫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다. 어찌면 이들은 남성보다 더 강인한 의지와 애국심의 소유자였을 것이며,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했기에 가족을 뒤로 하고 용기 있게 나서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 수많은 외침과 60년 넘게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하에서 국가안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를 초월하는 국가생존의 문제이며, 남녀 구분 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보의식, 특히 여성 안보의식의 중요성과 제고의 필요성을 전제로 1989년 이후 수립된 매 정부의 집권 2년차(문민정부의 경우 3년차)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보의식에서 성별차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성별차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성별차가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알아보고 연구 결과 확인된 여성 안보의식 결과를 기준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해 1989년, 1995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1989년은 노태우 정부 2년차, 1995년은 문민정부 3년차, 1999년은 국민의 정부 2년차, 2004년은 참여정부 2년

출 : 한국군사학회, 2014), p. 219.

16) 양동안·강길진·강옥경, “국가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도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1년 11월 15일), p. 8.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여군 참전사』 (서울 : 국방부, 2012), p. 66.

차이며, 2009년은 이명박 정부 2년차, 2014년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이다. 문민정부를 제외하고 민주화 이후 구성된 정부의 2년차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활용한 이유는 새 정부 구성 후 사회 각 분야, 특히 국방 및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파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안보 정책의 특징이 나타나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문민정부의 경우, 2년차 자료(1994)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¹⁸⁾ 3년차 자료(1995)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별로 국민 안보의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특히 유사 문항에 대해 성별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정부별로는 어떻게 같거나 또 다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안보정책 발전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마다 다양한 안보의식 조사가 시행되지만, 그 중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안보의식 조사 중 1년 단위로 유사 주제를 선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둘째, 축적된 자료가 아직까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 다단계 무선층화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응답자가 성별, 연령대, 거주지, 직업, 학력, 생활수준, 소득, 군복무 경험, 종교라는 9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있어 특히 성별에 따른 응답률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였다.

안보 관련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 위주로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기관의 안보의식조사는 국민 안보의식을 전반적으로 객관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난 28년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안보의식 조사는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된다.¹⁹⁾

그러나 198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한 조사결과를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과 지면이 제한되고,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역대 정부 2년차 조사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선정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다.

연구의 범위가 되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의 조사시기와 대상, 기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자료담당 책임자에게 문의한 결과 1994년도 조사결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2016. 8)

19) 김관호·김순태, “국민 안보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결과(1989년~2013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7권 3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pp. 141-142.

<표 1-1> 역대 정부 출범 2년차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개요

| 구분 | 조사 시기 | 대상(일반국민) | 조사기관 |
|--------|-------|----------------------------|---------------|
| 노태우 정부 | 1989년 | 만 15세 이상 성인 남 643명, 여 557명 | 서강대 언론사회문제연구소 |
| 문민정부 | 1995년 | 만 18세 이상 성인 남 713명, 여 498명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 국민의 정부 | 1999년 | 만 18세 이상 성인 남 704명, 여 467명 | |
| 참여 정부 | 2004년 | 만 20세 이상 성인 남 614명, 여 586명 | 현대리서치연구소 |
| 이명박 정부 | 2009년 | 만 19세 이상 성인 남 778명, 여 483명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 박근혜 정부 | 2014년 | 만 19세 이상 성인 남 720명, 여 480명 | 현대리서치연구소 |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발췌, 저자가 재정리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연령과 남녀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특히 노태우 정부에서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모두 높은 것이 특징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대상연도의 전체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은 46.45, 41.12, 38.88, 48.83, 38.30, 40.00%이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시기는 이명박 정부(2009년)였고, 가장 높게는 참여 정부(2004)였다. 대한민국 인구 통계상 여초현상이 2015년 6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향후 설문 조사시 이를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989년부터 매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를 시행하여 조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는데, 조사 목적은 “안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²⁰⁾고 밝히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평가하는 측면보다 국민이 총화 단결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안보의식 측면이 중요시된다는 취지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²¹⁾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2차 자료)

2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p. 1.

21) 정영진, “민주화 이후 한국 안보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정치 박사 논문(서울 : 중앙대학교, 2013), p. 1.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성별 요인’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방대학교에서 안보의식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후부터 각 정부 2년차(문민정부의 경우 3년차)에 실시한 자료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원자료의 경우 표본 설계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근거한 다단계 층화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가 안보 문제에 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설문조사는 모든 문항에 대해 성별 비교가 가능했으며, 그 중 안보의식의 성별차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고, 정부별 공통되는 문항과 새로 포함되거나 빠진 문항을 찾아내어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먼저 정부별 공통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2>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설문 문항 분석 - 공통문항

| 구분 | 설문 주제 | 비고 |
|----------------|------------------------------|----------|
| 2개 정부 공통 문항 | 북한 사회에 관한 평가 | '89.'09년 |
| | 북한 주민들의 그들 사회에 대한 만족도 | '89.'09년 |
| | 통일을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89.'95년 |
| | 북한의 남침시 전쟁의 결과 | '95.'99년 |
| |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 러시아의 행동 | '95.'04년 |
| | 북한의 통일전략 | '89.'95년 |
| | 국방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접하는 경로 | '95.'99년 |
| | 군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의 공정성 | '89.'95년 |
| | 군인의 사회적 계층 | '89.'95년 |
| | 남한의 위기상황시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 | '95.'99년 |
|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입장 | '99.'04년 |
| | 한반도 전쟁의 결과 | '95.'99년 |
| | 병역대체제도에 대한 태도 | '99.'04년 |
| | 가장 필요한 병역대체제도 | '99.'04년 |
| | 국방정책의 인지 경로 | '95.'99년 |
| | 한·미동맹 저해요인 | '04.'14년 |
| | 병영내 악습퇴치 노력 | '99.'04년 |
| | 병영내 악습 수준 | '99.'04년 |
| | 대체복무제도 | '99.'04년 |
| |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전쟁 억제력 | '04.'14년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이유 | '04.'14년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 '04.'14년 |
| |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 | '04.'09년 |
| 병역제도 | '04.'09년 | |

| | | |
|----------------|------------------------------------|--------------------------|
| | 군 복무자의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한 생각 | '04.'09년 |
| |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 '09.'14년 |
| | 향후 국방비 투자가 필요한 분야 | '09.'14년 |
| 3개 정부 공통 문항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 '89.'95.'04년 |
| |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생각 | '89.'04.'14년 |
| |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대외적인 요인 | '95.'99.'14년 |
| |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내요인 | '95.'99.'14년 |
| | 북한의 남침시 방식 | '89.'95.'99년 |
| |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경수로, 식량, 비료)에 대한 의견 | '99.'04.'09년 |
| |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 | '04.'09.'14년 |
| | 군 전력증강 사업 결정의 공정성 | '04.'09.'14년 |
| | 타 부처 대비 국방예산의 효율성 | '04.'09.'14년 |
| | 안보위협을 줄이는 방안 | '04.'09.'14년 |
| | 다양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생각 | '04.'09.'14년 |
| 4개 정부 공통 문항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 '89.'99.'04.'14년 |
|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89.'95.'99.'04년 |
| | 남북한 경제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 | '89.'99.'04.'09년 |
| | 군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 '89.'95.'99.'04년 |
| |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89.'95.'99.'04년 |
| | 국군에 대한 생각 | '89.'95.'99.'04년 |
| | 군대의 사기는 어느 정도 | '89.'95.'99.'04년 |
| | 군의 사회봉사적(국민교육도장) 역할 | '89.'95.'99.'04년 |
| | 안전보장을 위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국가 | '95.'04.'09.'14년 |
| | 안전보장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 | '95.'04.'09.'14년 |
| | 남북한 군사력(무기·장비, 정신력, 교육훈련, 후생복지) 비교 | '89.'95.'99.'04년 |
| | 과거와 비교한 병무 부조리 평가 | '99.'04.'09.'14년 |
| | 군 관련 보도의 공정성 | '89.'95.'99.'04년 |
| | 국방비 운용 상태 | '89.'95.'99.'04년 |
| | 경제적 측면의 중요 국가 | '95.'04.'09.'14년 |
| | 안보적 측면의 중요 국가 | '95.'04.'09.'14년 |
| | 국민 안보의식 수준 | '99.'04.'09.'14년 |
| 5개 정부 공통 문항 | 미군 주둔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 '89.'95.'99.'04.'09년 |
| |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생각 | '95.'99.'04.'09.'14년 |
| 6개 정부 공통 문항 | 미군 주둔(주한미군)에 대한 생각 | '89.'95.'99.'04.'09.'14년 |
| | 현재 국방비 수준 | |
| | 국방에 관한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 |
| | 국방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발췌, 저자가 재정리

<표 1-3>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설문 문항 분석 - 상이문항

| 구 분 | 설문 주제 |
|-------------------------|---|
| <p>노태우 정부(1989)</p> | <p>공산권 국가들과 교류 추진시 중요한 나라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얻는 이익 북한, 소련, 중국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 및 사실성 최근 북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생각 북한 남침시 일본의 지원에 대한 생각 용산 미군시설의 잔류 문제 북한의 쌍방 병력감축 제안에 대한 생각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평양 세계청년축전에 우리 대학생들의 참가 의견 남북한 대화 창구에 대한 생각 국가안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주관식) 북한의 남침시 우리의 현재 능력 여러 사회적 불안 원인의 심각성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 최근 학생 및 노동자의 시위양상에 대한 생각</p> |
| <p>문민정부 (1995)</p> | <p>한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중점적인 사항 주변 4대강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미·일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시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 미·일·중·러와의 남북한 동시외교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 문제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국군의 능력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공정성 한·일 안보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중점적인 사항 국방예산 운영의 공개성 국방예산의 지출 분야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 군의 시설, 작전과 개인의 이익</p> |
| <p>국민의 정부(1999)</p> | <p>미북접촉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한 국민의 인식 5년 내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 예측 대량 탈북사태 대응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식 남북통일 실현시기 예측</p> |

| | |
|--|---|
| | <p> 바람직한 통일유형 실현성 높은 통일유형 현역복무 기피 이유 충효예에 대한 태도 국가를 위한 개인희생 감수 업무수행을 위한 사생활 희생에 대한 태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태도 상급자와 다른 자신의 주장 성공을 위한 불의한 행위에 대한 태도 외국 이민에 대한 태도 군 홍보 매체에 대한 접촉 경험 군 홍보 매체가 가장 도움이 된 분야 </p> |
| <p> 참여 정부(2004) </p> | <p> 협력적 자주국방의 인식도, 인지형태, 지지도 주한미군 남쪽 이전, 사령부 이전에 대한 생각 정부의 SOFA 개정 노력 군 인사제도의 개선정도 우리 군의 병력수 적절성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과제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 인상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투자영역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일본의 태도 중국 군사력 증강의 영향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 이라크 추가 파병 찬반여부, 파병 이유 김정일 신뢰여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 안보교육의 필요성 전쟁 발생시 행동 국방일보 구독 장소 병역거부자 </p> |
| <p> 이명박 정부(2009) </p> | <p>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군 복무자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생각 병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생각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p> |

| | |
|-----------------|--|
| 박근혜 정부(2014)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한반도 통일 필요성 국방부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군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하지 않는 이유 대군 신뢰 확보 방법 향후 평화유지 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
|-----------------|--|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발췌, 저자가 재정리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정부별, 조사 연도별로 당시 중요시 또는 이슈화되는 사항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현안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정부별 비교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문항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설문 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상 응답자의 안보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표 1-3>에서 제시된 설문문항 중 안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문항들만 뽑아 재정리하였다.

<표 1-4> 안보의식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 구 분 | 안보의식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
|----------------------|--|
| 안보관 (국가안보 관련) | 1.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2.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4.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북한관 (북한 관련) | 5. 북한 정권 및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6.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7.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 8.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9.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0. 북한의 남침시 전쟁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동맹관 (한·미동맹 관련) | 11. 현재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12.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3.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14.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국방관 (국방정책 및 현안 관련) | 15.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6. 한국의 국방비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7. 국방에 관한 국방부 발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 | 18.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발췌, 저자가 재정리

연구를 위해 모든 설문 문항을 포함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고, 직접적으로 안보의식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 또한 제외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보의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표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1-5>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

| 구 분 | 설문 주제 |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답변 |
|-----------------------------|-----------------------|----------------------|
| 안보관 (국가안보 관련) | 1.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 불안정 |
| | 2. 국민 안보의식 수준 | 높다 |
| |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높다 |
| | 4. 전쟁참여 의지 | 적극적 |
| 북한관 (북한 관련) | 5. 북한 정권 및 주민에 대한 인식 | 부정적 |
| | 6. 북한 핵무기에 대한 인식 | 부정적 |
| | 7. 도발 가능성 | 높다 |
| | 8. 남북한 군사력 비교 | 한국 우세 |
| | 9.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 높다 |
| | 10. 북한의 남침시 전쟁 결과 | 남한 승리 |
| 동맹관 (한·미동맹 관련) | 11. 한·미 동맹 관계 | 긍정적 |
| | 12. 주한미군의 역할 인식(중요성) | 긍정적 |
| | 13.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 긍정적 |
| | 14.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견 | 부정적 |
| 국방관 (국방정책 및 현안 관련) | 15.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긍정적 |
| | 16.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 늘려야 함 |
| | 17. 국방부 발표의 신뢰도 | 긍정적 |
| | 18.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 긍정적 |

* 자료 : <표1-4>를 토대로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를 저자가 재정리

먼저 저자는 연구를 위해 전체 설문 문항을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국가 안보와 북한, 한·미동맹, 국방정책 및 현안이 그것이다. 이 주제를 크게 인식(觀) 개념으로 재분류하여 국가안보는 ‘안보관’, 북한은 ‘북한관’, 한·미동맹은 ‘동맹관’, 국방정책 및 현안은 ‘국방관’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설문문항을 작성할 때 각 문항을 성격별로 분류한 것에서 착안하였다.

저자는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방관에 포함되는 각각의 설문 문항에 대해 답변 경향을 분석해 안보의식의 높고 낮음을 재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안보관의 첫 번째 문항, ‘안보상황의 인식’의 경우 답변 당시의 안보상황을 불안정하다고 답변한 경우가 안정적이라고 답변한 경우보다 안보의식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북한관의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답변한 경우가 낮다고 답변한 경우보다 안보의식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표는 이렇게 답변에 따른 안보의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면 저자가 작성한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를 토대로 안보의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는 응답자의 ‘안보관’을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가지 문항을 선별하였다. 첫 번째 문항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전쟁 위협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적의 도발에 국가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무시한 조정은 결국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약용 선생의 “군대란 백 년 동안 쓰지 않을지라도 어느 하루라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교훈삼아 안보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안보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향후 안보의식 수준 평가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올바른 안보의식이란 “국민 각자가 안보위협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위기시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²²⁾

‘국민 안보의식 수준’과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안보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관심도가 낮고, 안보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안보와 관

22)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 334.

련한 이슈들이나 언론 보도에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할 소지가 크다. 반대로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평소 그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등 관련 여론형성에 기여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안보의식 수준과 안보의식은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전쟁참여 의지’의 경우, 전쟁이 나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안보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이며, 내 손으로 내 나라를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항이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이 클수록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국민들의 참전 의지 약화는 안보의지의 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북한관’으로, 북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변수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며, 응답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 안보와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안보위협 의 근원이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 정권 및 주민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그만큼 그들을 안보 위협요인으로 보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그들을 경계하며 언제 어떻게 도발해 올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안보의식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국제사회의 규제 노력과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맞서는 경우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뜻을 같이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6·25전쟁 이후로도 2,000여회가 넘는 도발을 일삼고 있고, 심지어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한창이었던 시기에도 수차례 도발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도발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뜻을 같이한다고 보이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감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든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등과 같은 낙관론 또는 방관론은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만연할 때 자연스레 국방태세는 약화되고 적으로 하여금 국방의 허점을 노리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가난한 나라(상대적 빈국)가 부유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경우, 주한미군 요인을 제외하고도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보는 것은 한국의 국방준비태세가 확고하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무기 개발에 치중하므로 상대적으로 열세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보의식이 높은 쪽과 연관성이 크며, 반면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보는 것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보의식이 낮은 쪽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당연히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뒤처진다고 보는 것이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기준하여 안보의식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의 경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25전쟁 이후 끊임없는 대남도발,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며 한반도 공산화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안보의식이 높은 쪽과 연결되며,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고 생각하거나 한국의 국방 및 경제력을 상대적으로 너무 과대평가하여 북한이 전쟁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방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므로 안보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남침시 전쟁 결과’의 경우, ‘남한 승리’의 경우는 6·25전쟁시 한국군과 UN군의 단결된 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의 강한 국방력과 국제사회의 하나된 목소리가 합해져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이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 승리’의 경우는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여 베트남과 같이 결국 우리나라 또한 공산화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므로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동맹관’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며 현재, 미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해 함께 맞서 싸워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 따라 향후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의식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먼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한·미동맹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6·25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과도 같은 동맹이 계속 이어져야 전쟁이 억제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계시키는 등 북한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는 입장이므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안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인식’의 경우, 그들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시하는 경우이다. 6·25전쟁 발발 한 해 전,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이 남침을 하였고, 베트남전 당시 주월미군 철수를 부르짖던 월남 국민들의 희망대로 주월미군이 철수하자 월맹군이 월남에 쳐들어와 베트남 전역을 공산화 통일시킨 사례가 있었고 필리핀은 자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 철수를 요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주둔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의 경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훈련을 통해 미군으로부터 작전, 전술, 교리적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연합작전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등 한국군 발전에 도움이 되며,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생각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은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북 간의 긴장 관계만 조성한다는 의견과 뜻을 같이 하므로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견’의 경우, 감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6·25전쟁 시 생면부지의 한국 땅을 찾아와 피와 땀을 나누며 한국군과 함께 싸웠던 혈맹으로서의 미군에 대한 고마움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과거 베트남에서 주월미군 철수 후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과 연결하여 볼 때 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감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북한의 주장처럼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한국을 식민지로 생각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므로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본다.

끝으로 ‘국방관’에서는 국방정책 및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방에 대한 우호적

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병역의무의 적극적 이행이나 국방정책 결정에 국민적 지원과 지지를 얻을 확률이 높고, 군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안보의식 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과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울릴 필요가 있다’는 답변의 경우는 안보의 최일선에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태세를 갖추는 군의 활동을 신뢰하며, 북한 위협과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향후 전쟁 상황의 변화로 국방비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되나, 부정적인 답변의 경우는 군을 신뢰하지 않고, 국방이나 안보유지, 군 발전에 지나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안보의식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방부 발표의 신뢰도’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경우는 국방부의 대군신뢰도 향상 노력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군을 믿고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높은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안보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이며, 아직도 폐쇄적이고 문턱이 높은 닫힌 군대로 인식하는 경우이므로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우는 과거 국민 교육의 도장으로서 문맹퇴치와 직업교육에 앞장섰던 것처럼 지금의 경우도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예이자 향후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군을 신뢰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높은 안보의식과 연결되나, 반대의 경우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인생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의 시간 또는 돈 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신의 인생과 향후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이므로, 낮은 안보의식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민 안보의식 관련 연구

많은 연구가들이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 때이다.²³⁾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타 기관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설문조사 내용(2차 자료)을 분석하여 이

23) 김관호·김순태, 앞의 글, pp. 123-124.

유와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또는 1회성 안보의식 설문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의 경우, 설문조사 문항의 주제는 국민들의 안보관,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의견, 통일관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울러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안보의식의 실체와 안보문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안보의식 성별차에 관한 연구 또한 일부 이루어졌다.

백주인²⁴⁾은 국내외 다양한 위협 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특히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보는 절실한 문제이나 국민 안보의식은 시스템의 부족, 안보 불신 분위기 등으로 인해 매우 저조한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에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2차 자료)를 분석하여 안보문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국민의식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국가 차원의 안보의식을 교육·관리·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인물역사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학생 안보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며 제도적 차원, 차원, 운영적 차원에서 국민 안보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양정훈²⁵⁾은 2000~2014년에 실시한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의 설문조사 결과(2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인의 나라사랑과 안보상황 인식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의식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국민 스스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25전쟁 발발년도를 청소년의 41.3%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점과 청소년의 35.8%만이 본인의 안보의식이 높다고 답한 점 등을 들어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 안보에 대한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와 입시위주의 교육, 편향된 역사교육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정부 안보정책의 일관성,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적 소통, 방송을 통한 올바른 여론 조성 등을 제고방안으로 들었다.

정영진²⁶⁾은 민주화 이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문화’²⁷⁾가 어떻게 변화와 지속성을 보여 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안보문화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국방대

24) 백주인, “국민 안보의식 향상 위한 정책 발전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서울 : 국방대학교, 2012), pp. 1-8.

25) 양정훈, “한국인의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현황과 과제,” 『한국보훈논총』 제14권 제2호(경기도 화성시 : 한국보훈학회, 2015), pp. 171-173.

26) 정영진, 앞의 글, p. 265-275.

27) 저자는 “안보문화는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안보에 대한 가치·신념·태도 등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정영진, 앞의 글, p. 265.

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내용(2차 자료)을 토대로 중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민안보의식 수준과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적개념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쟁 발발시 참여도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증가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주국방을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여부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성별에 따라 안보문화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 위협이나 안보 상황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안보의식이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참여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결론지으며 한국의 안보문화가 발전되기 위해서 여성 안보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시사하였다.

김관호·김순태²⁸⁾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자료(2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안보의식의 실체를 따져보고 안보문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별 안보의식 조사의 주요내용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위협 변화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인식, 국방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안보문화의 경향성을 도출해 내었다. 특히 세대별 안보의식 분석을 통해 과거에는 안보의식에 대한 인식이 연령층별로 뚜렷하게 구별되었으나 현재로 올수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징적인 현상으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20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았다.

이옥연²⁹⁾은 국가안보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 인식차이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2차 자료)에서 성별차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일관성은 있는지, 연관된 사안 간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의 인식차이는 국

28) 김관호·김순태, 앞의 글, p.

29) 이옥연, 앞의 글, p. 201.

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관점의 차이가 확인하지만 이후에는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나 국가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들었다. 남녀 모두 대중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관점을 가졌고, 안보상황 평가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엽적으로 관찰되는 성별차에 근거해 여성의 안보정책결정 참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였다.

독고순³⁰⁾은 2004년과 2005년,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차 자료)를 기초로 안보의식의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질문에 여성이 안보상황을 더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나라를 지키다’는 마음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참전하겠냐는 질문, 국방문제에 대한 관심, 군에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녀의 안보의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그 이유로는 경험적인 요소의 차이로 보았으며 상호간 소통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균열³¹⁾은 국방대학교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결과(2차 자료)를 토대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사이에 상당한 안보지각도의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그는 여자의 지각도가 남자보다 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유로는 “무지에 의한 지각정도의 둔감성”이라고 표현하였다. 남녀 차이 극복을 위해서는 여교사들에 대한 안보교육이 필요하고 안보 및 국가 관련 주제를 교육간 다룰 때에는 남녀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들은 모두 타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남녀의 국민 안보의식의 경향성, 특히 남녀 안보의식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김용현·박영주³²⁾는 국가정체성과 대학생 안보의식에 관련된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 412명을 대상(남성 240명, 여성 172명)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전반적 안보상

30) 독고순, “여성의 안보 참여”, 『국방정책연구』 19호(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p. 13-22.

31) 박균열,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14집(인천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4), pp. 202-203.

32) 김용현·박영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충북 청주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p. 11.

황에 대한 인식, 안보에 대한 관심 정도,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도, 국방정책 및 안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안보의식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았으며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국민 안보교육 강화와 군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안보의식의 성별차 분석은 없었다.

김태열³³⁾은 대학생들의 애국심·통일·안보 의식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 282명(남자 81명, 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보훈의식수준을 조사하였는데, 성별과 병역유무, 일반적 특성별, 특성별로 나누어 애국심, 보훈인물, 기념일 인식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관련된 보훈의식 수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남성의 경우는 군 복무를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념을 무장하는 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훈인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로 수학능력시험에 역사 과목이 미편성된 것과 역사 과목에서 반영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이성춘³⁴⁾은 대학생, 특히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학생들의 안보의식 비교 분석을 통해 군사학과 설치 여부와 개설에 따른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본인의 안보의식에 대한 의견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군사학과 설치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안보의식은 미설치 학교보다 군사학과 운용 학교에서 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확인하였다.

양동안·강길진·강옥경³⁵⁾의 안보의식 제고방안 관련 연구에서 여성의 안보의식이 남성보다 낮은 원인으로 남성의 경우는 군 복무를 통해 의식화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역사적 진실과 안보현실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데 반해 여성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중고교 시절 왜곡된 한국사 교육의 잔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아울러 여성의 생활지향성도 안보의식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남녀의 관점 차이가 심하지만, 이후에는 전반적 안보상황이나 국가안보 위협요인 식별에 있어서 차이가 좁혀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33) 김태열, “대학생들의 애국심·통일·안보 의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충북 청주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pp. 8-9.
 34) 이성춘,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분석,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충남 천안시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pp. 4250-4251.
 35) 양동안·강길진·강옥경, “국가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도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서울 : 국가보훈처, 2011), pp. 5-8.

김용현·박영주, 김태열, 이성춘, 양동안·강길진·강옥경의 연구는 자체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성별 요인에 따른 비교 분석에서 남녀의 안보의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공통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안보의식의 성별차와 더불어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양철호·정상완³⁶⁾은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³⁷⁾’를 관람한 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생 129명(남성 108명,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영화 관람 후 정부의 안보정책관련 발표를 신뢰하는가를 측정한 결과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하는 편으로 변화되었고, 전반적으로 정부와 언론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이, 학년의 경우 저학년의 경우가 영화 관람 후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것을 확인하면서 영화나 언론이 안보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백승도³⁸⁾는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차이가 안보의식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622명(남성 319명, 여성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보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안보상황’이 가장 컸고, 다음은 ‘참여도’, 다음은 ‘국방신뢰’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분석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안보의식을 더 높게 지각하고, 군복무를 경험한 학생,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 안보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안보의식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인을 바라보는 남녀 인식차이와 여성들이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군복무자의 경우는 군복무 경험이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증진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안보의식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았고 고학년은 급격한 인식의 개선 때문에 안보의식을 높게 지각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상조³⁹⁾는 대학생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별차 분석을 위해 전국 21개 대학교의 총 1,981명(남성 1,357명, 여성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국가체제

36) 양철호·정상완,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10권 제6호(충북 청주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pp. 160-165.

37)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피격사건을 주제로 정부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

38) 백승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충북 청주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pp. 111-115.

39) 전상조, 앞의 글, p. 210.

에 대한 지지도,’ ‘사회 안정에 대한 긍정성,’ ‘국방역량 강화 필요성,’ ‘사회·문화에 대한 자긍심,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심,’ ‘국제관계 개선의지,’ ‘북한 위협에 대한 위기감,’ ‘안보의식’을 주제로 설문 문항으로 작성하여 성별차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으며, 성별에 따른 안보의식 지각에서는 남성의 안보의식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로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양철호·정상완, 백승도, 전상조의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한반도 안보상황, 북한 위협 등의 요인이 안보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병행 실시한 남녀 안보의식 비교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 행위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기여도, 정치행위에서의 성별차에 관한 연구로, Holsti & Rosenau⁴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전·현직 정치 지도자 2,233명(남성 2,009명, 여성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보다 더 진보적(liberal)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녀의 가장 큰 의견차는 군(military service) 관련 사항으로 나타났다. 정치에는 남녀 모두 동등한 관심도를 보였으며, 남성은 국제적인 문제에, 여성은 국내 문제에 더욱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 행동에서 성인 남녀의 실질적인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남녀의 분명한 특성(character) 차이는 짙어진다고 보았다.

Wirls⁴¹⁾는 정치 행위(투표, 공적인 의견 표출)에서의 성별차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남녀의 차이 이면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1980년대 이전의 성별차에 대한 해석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만한 정치세력에 의해 성급하게 결론지어졌으며, 이후에도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성별차를 규정짓기 보다는 숫자 이면의 의미를 들여다보아야 함을 시사하였다.

끝으로 역대정부의 안보관 변천에 대해 살펴본 흥미로운 연구는 이상수⁴²⁾에 의해 이

40) Holsti, Ole & James Rosenau(1981), *The Foreign Policy Beliefs of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Journal of Politics(43: 326).

41) Wirls, Daniel(1986), *Reinterpreting the Gender Gap*, Public Opinion Quarterly(50).

42) 이상수, “역대정부의 대북 안보관 변천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논집』 제47집 1호(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pp. 128-130.

루어졌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을 안보관에 따라 반공이데올로기 중시(이승만~김영삼 정부), 민족화해와 포용 중시(김대중~노무현 정부), 실용주의 강조(이명박 정부)로 구분하여 각 정부의 안보관을 대북·동맹·국방·통일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시하던 정부 시절은 동맹정책(한미동맹)에서 빛을 발하였고 특히 박정희 정부 때 자주국방을 기치로 재래식 무기 증강과 국군 현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민족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북유화정책 추진,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간 평화무드 조성 및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위기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대북 실용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전대미문의 대규모 도발이 자행되어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 중 특히 안보의식의 성별차를 다룬 연구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안보의식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 성별차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단순한 성별의 차이로 규정짓는 것 보다는 군 복무 유무, 역사교육의 영향, 사회·경제적인 요소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여성 안보의식 관련 연구

여성 안보의식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 역사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여성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여성 안보의식의 중요성, 국방 분야 활용에 대한 연구, 둘째, 여성정책의 발전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국가안보에서 여성의 활약상과 국방 분야 활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영⁴³⁾은 한국 여성들이 특유의 기지를 발휘하여 고대 북방 침략 때부터 현재까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특히 6·25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원한 여군들의 활약상이 컸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항쟁의 역사 이면에 언제나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최근 여군인력 양성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참전 여군들에 대한 관심과 보상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3) 김성영, "6·25 참전 여군의 활약상과 국가안보," 『한국보훈논총』 제9권 제2호(경기도 화성시 : 한국보훈학회, 2010), pp. 56-65.

윤미숙⁴⁴⁾은 한국군이 당면한 인력난과 자원관리에 있어 효율을 피하고, 경직성과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유연성 있고 다원화된 군이 되기 위해서는 여군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병과별 여군 인력 확대와 상위 계급 진출 보장,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역할 부여 등 정책적인 측면의 보완과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권김현영⁴⁵⁾은 안보담론에서 주체와 타자는 보호하는 쪽(남성)과 보호받는 쪽(여성)으로 양분되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특히 더 남성은 군인,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아젠다도 남성에게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남성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안보와 같은 개념을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도출된 ‘모성적 사유’로 보아, 생존을 위해 폭력보다는 공존과 상호주체성을 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안보 유지를 위해 여성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백계근⁴⁶⁾은 군에서 여성 인력이 활용되어온 단계는 남성의 지원인력→남성 대체인력→남녀 동등인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군내 여성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과학기술 발달, 양성평등의 요구 증대 등이 주원인이며, 앞으로 여군 운영 발전 방안으로 여성 ROTC제, 병과 개방, 여성 병사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김현경⁴⁷⁾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력 부족현상, 주변국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위협 증대, 군 구조 개편,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을 이유로 국방 분야에 여성 인력의 확대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한국 여성은 과거 수많은 외침에 대항해 호국의지로 국가를 지켜왔고 특히 “가야의 무장여군, 신라시대의 원화제도, 임진왜란시 의병, 일제강점기 하 광복군”⁴⁸⁾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구군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6·25전쟁 발발시 예비역 중위였던 김현숙을 필두로 모집된 여자의용군과 여자 해병, 여자 항공병 등 자발적으로 입대하여 위기의 조국을 구하고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1만여 명이 넘는 여군이 안보 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국방참여가 확대될 경우 군내 ‘양

44) 윤미숙,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서울 : 국방대학교, 2010), pp. 37-50.

45) 권김현영, “평화의 정치학을 위한 모성적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7권(한국여성철학회, 2007), pp. 7-26.

46) 백계근, “여군 활용 활성화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서울 : 국방대학교, 2011), pp. 16-37.

47) 김현경, “한국여성의 국방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박사논문(경기도 수원시 : 경기대학교, 2015), pp. 81-85.

48) 위의 글, p. 82.

성통합형 신안보체계⁴⁹⁾가 구축되고 전통적인 성역할 체계가 조정되는 사회 분위기에 군도 편승해 나갈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의 발전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추순삼⁵⁰⁾은 1947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창설 이후 세계 각국의 여성 정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사회 참여나 성 차별 금지 등 여성 정책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나 공무원 수, 특히 상위직 진출이 늘어나는 등 채용이나 보직, 승진 등 인사 영역에서도 동등한 기회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국방, 안보분야에서도 여성 인력을 확대하고 복무기회 및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정자⁵¹⁾는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안보의 주체로서 여성, 특히 여성 지도자의 안보의식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전국 192개 여성 단체 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토대로 안보의식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안보문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였으며 그들의 안보지식 또한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한국의 안보상황과 군의 정신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안과 불신을 드러냈으며, 특히 40대 여성 지도자들이 더욱 강한 불안과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여성 지도자들은 스스로 안보에 관심이 낮고 안보지식이 부족하며 여성이 국방 분야에 접근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 차원의 여성안보정책 수립과 여성 참여율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안보의 객체이자 대상으로서 여겨지던 여성의 존재는 주체로 바뀌었고, 국가 위기 시에 여성의 역할이 컸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향후 여성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며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선행 연구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국방 분야에 여성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안보의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9) “군의 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군에 유입된 여성인력의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나아가 국방력을 제고시키는 것.” 김현경, 앞의 글. p. 148.

50) 추순삼, “여군인력의 복무 증진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서울 : 국방대학교, 2006), pp. 27-64.

51) 이정자, “한국 여성지도층의 안보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서울 : 국방대학교, 1995), pp. 58-63.

제 2 장 관련 개념 및 연구의 흐름도

제 1 절 국가안보와 안보의식의 개념 및 상관성

1. 국가안보의 개념

안보(security)의 사전적 의미는 ‘편안하게 보호되는 것’,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⁵²⁾ 라틴어의 securus 또는 securitas가 어원으로, se, 즉 ‘~이 없다’는 의미와 cure, 즉 ‘근심 또는 걱정’의 의미가 합해져 ‘근심 또는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일컫는다.⁵³⁾ 김열수(2013)⁵⁴⁾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안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의 위협은 비의도적인 위험(danger)이 아니라 의도적인 위협(threat)을 말한다.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2010)에서는 “안보란 안전보장의 줄임말로써 군사, 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제반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반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태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⁵⁾ 월퍼스(Arnold Wolfers)는 “안보란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주관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받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정의하였다.⁵⁶⁾

위와 같이 정의된 안보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수준별 안보 개념, 즉 개인안보, 국가안보, 국제안보, 정치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군사안보, 환경안보, 과학기술안보 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⁵⁷⁾ 이 중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52) 네이버 국어사전 ‘안보’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512&cid=42140&categoryId=42140>
(검색일 : 2017년 11월 10일)

53) 김열수, 『국가안보』 (경기도 : 법문사, 2013), p. 8.

54) 위의 책, p. 7.

55)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10), p. 25.

56)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p. 150.

57) 김열수, 위의 책, p. 9.

국가의 이익(국민,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것”, “국가 이익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된다.⁵⁸⁾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국가안보를 “The safety of a nation against threats such as terrorism, war, or espionage(테러나 전쟁, 첩보활동 같은 위협에 대한 국가의 안전).”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⁹⁾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홈페이지에서는 “security as reducing the risk to critical infrastructure by physical means or defense cyber measures to intrusions, attacks, or the effects of natural or manmade disasters(국가안보는 물리적 수단에 의한 중요 국가기반에 대한 위기를 줄이거나 사이버 수단에 의한 침입, 공격, 자연적 또는 인적 재난에 의한 피해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⁰⁾

또한 국가안보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의 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군사분야에 걸친 각종 각양의 직·간접적 위협을 억제·방지·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⁶¹⁾ 이영균(2002)은 국가안보는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안보정책 기능은 “한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거나 증진하는데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고 하였다.⁶²⁾

종합하자면 국가안보란 국가적 차원에서 내외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필수요소인데,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국가의 존재와 그 곳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를 국가의 ‘사활적 이익(survival interests)’이라고 한다.⁶³⁾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는 “국가생존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하였고,⁶⁴⁾ 애덤 스미스(Adam Smith)도 그의 저서

58) 김열수, 앞의 책, p. 10.

59) 옥스퍼드 영어사전 ‘national security’ 검색,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national_security (검색일 : 2017년 11월 1일).

60)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national security’ 검색, <https://www.dhs.gov/what-security-and-resilience>(검색일 : 2017년 5월 8일).

61)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10), p. 1.

62) 이영균, “입대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지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6(1): 47-74(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pp. 60-62.

63)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 20.

『국부론』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국방과 치안을 꼽았다.⁶⁵⁾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국가이익 중 물리적 안전, 즉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⁶⁶⁾

2. 안보의식의 개념

안보의식은 안보와 의식이 결합한 용어로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관련 정책 및 사안에 대해 갖게 되는 견해를 말한다. 협의로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로는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들에 대해 갖는 견해들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단순히 안보의 중요성을 넘어서 안보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⁶⁷⁾

또한 안보의식은 “한 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그 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가안보의 주체로서 국민의 안보의식은 외부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처능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⁶⁸⁾

김병조(1994)는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방에 대한 신뢰도, 국민으로서 자긍심, 국가안보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 안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회적 만족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 국제안보환경 인식 등의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국가의 대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⁶⁹⁾

최근의 안보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식까지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비군사적 위협요소에 대한 의식도 안보의식에 포함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일, 국제안보와 같은 국제정치의 요소도 안보의식에 포함하는데, 군사문제가 비단 북한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⁷⁰⁾

64) Nicholas Machiavelli, *The Prince* (Vineland, NJ: Hendricks House, 1961), p. 50.

65)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0), p. 208.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p. 39-40에서 재인용.

66)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 40.

67) 김종영·황중호·이규용,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전략논단』 9호(해병대 전략연구소, 2008), pp. 216-217.

68) 김병조,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국민안보의식 분석,” 『국방연구』, 37(2)(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4), p. 35.

69) 김재홍,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방위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6권 1호(광주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2), p. 68.

70) 김종영·황중호·이규용,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전략논단』. 9(해병대 전략연구소, 2008), pp. 218-219.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에 따라 안보의식의 의미도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사회 전반적 측면, 즉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 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의식도 포함하는 개념, 국제정치 요소(통일, 국제안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⁷¹⁾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안보의식이라고 할 때, 안보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높은 안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높은 안보의식을 많이 가질수록 안보가 굳건히 지켜질 확률이 높다고 할 때, 과연 낮은 안보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가치관을 높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치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영향을 받은 환경에 의해 사람의 가치체계는 형성되며,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세대가 정치 참여나 언론자유, 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도와 가치관을 가진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수영⁷²⁾은 잉글하트 교수⁷³⁾가 개발한 물질적·탈 물질적 가치 측정을 위한 문항을 토대로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1990년과 1996년에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조사결과 탈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한국 민주화는 물론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한 가치 또한 단순히 국방비나 첨단 무기와 같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와 같은 탈 물질적인 가치를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전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안보의식은 또한 군사사상, 즉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는 구심점으로서 군사발전의 근원이 되며, 전쟁관 및 전쟁수행 신념,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부터 한민족의 상무정신과 화랑도 정신, 의병 정신 등이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군사사상은 결국 높은 안보의식과 연관되며, 군사사상의 발전은 “평시에는 안보의식, 전시에는 전쟁수행의지 및 신념”을 통해 무형 전투력을 창출시킴으로써 가능하다.⁷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보의식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반 활동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알고자 하며, 안보와 관련된 정책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태도이자 안

71) 김종영·황중호·이규용, 앞의 글, pp. 218.

72) 어수영,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3권 3호(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6), pp. 128-129.

73) 미시간 대학교 정치사회학자로서 가치 변화 이론을 주창하면서 인간은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가 충족되고 나면 탈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고 주장.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67-69.

74) 김재철, “한(韓) 민족의 군사사상과 흥망성쇠의 교훈,” 『동북아연구』 Vol. 22 No. 2(광주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p. 23.

보의 위협에 대한 국가수호의지, 안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평소 올바른 군사사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보의식을 평가하기 위해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방관이라는 네 가지의 구분 기준을 갖고 설문조사 문항을 분류하였다. 각각의 개념들은 안보와 북한, 한·미동맹,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견해)을 의미한다.

3. 국가안보와 안보의식의 상관성

위에서 살펴 본 국가안보와 안보의식의 개념에 근거하여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 전에, 국가안보에 있어 안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학문적 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 자체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긴 하나⁷⁵⁾ 개념적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보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발전에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과연 국가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라든지 경제적 풍요, 복지 등과 같은 가치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한편 안보의식과 국가안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이 있는데, 먼저 부정하는 의견의 경우는 국민들이 외교·안보 분야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는 국민들의 일상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들의 의사 또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긍정하는 의견의 경우는 정책 결정자는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에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을 경우 여론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한다.⁷⁶⁾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 국가의 전력(국력)이 정치 전력, 경제전력, 군사전력, 사회·문화전력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외부의 위협 또는 침략,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군사전력이다. 군사전력은 흔히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뉘는데, 유형전력은 병력이나 무기, 물자와 같이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무형전력은 정신전력, 애국심, 사명감, 국가정체성, 안보의식 등 형체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힘을 말한다.⁷⁷⁾

군사전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유형전력에 무형전력이 더해져야 한다.⁷⁸⁾ 즉 드넓은

75) 정영진, 앞의 글, p. 2.

76) 김기정, “국민 안보의식 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회의 총서』, 4(7), 2004, pp. 61-84.

77) 김학욱, 『정신전력의 개발』 (서울 : 배영사, 1989), p. 9.

78) Ray S. Cline은 국력(P; Perceived power)=(C+E+M)×(S+W)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C(Critical Mass)

영토와 경제력, 군사력이 뒷받침되어도 국가전략이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하면 국가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며, 제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정신 또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펜(정신)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정신력(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과거 베트남전 당시 월남 소속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나, 그의 공격목표는 월맹이 아닌 월남의 대통령궁이었다는 사실과 월남 패망의 이유로 월남 국민의 해이한 반공의식과 대정부 불신, 반전 여론 등이 꼽히는 것을 보면 바람직한 국민 정신 또는 안보의식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1940년대 말 장제스 휘하의 국민당 정부군은 미국의 비호를 받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보다 장비나 보급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정신력에서 열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본토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⁷⁹⁾ 반대로 대한민국은 6·25전쟁 발발 초기, 남한 내에서 활동한 상당수의 공산세력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반공정책과 국민들의 일심 단결한 의지로 영토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무형전력으로 국민 안보의식 또한 포함시켜 볼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북한과 달리 국민의 자체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국민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무리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전쟁은 정부와 군만이 주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지원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총력전 형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데에는 국민 안보의식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루덴돌프⁸⁰⁾는 「총력전」에서 국가 총력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오늘날 전쟁은 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군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국민들의 정신적 능력, 즉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심리·선전전의 형태로 전 방위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⁸¹⁾

는 영토의 크기, 인구수를 E(Economy Capability)는 경제력, M(Military Power)은 군대의 규모와 조직·군사비 등을, S(Strategic Purpose)는 전략목표, W(Will to pursue national strategy)는 사회의 결속상태·국민정신을 의미한다. 정영진, 앞의 글, p. 2에서 재인용.

79)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 354.

80) 독일 제국의 군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후반부 독일 제국군의 실질적인 총 지휘관. 1935년에 『총력전론(Der Totale Krieg)』 저술.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은 전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안보정책 수립·추진에는 국민 여론이 반드시 포함되므로, 범국민적인 안보 공감대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직한 안보의식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충남·문순보(2013)는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에서 국가안보 역량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하였다.⁸²⁾

$$\text{국가안보 역량} = \text{객관적 능력(군사력, 경제력)} \times \text{안보전략(안보리더십, 정책, 외교력)} \times \text{국민정신(안보의식)} - \text{내적 취약성} + \text{동맹의 지원}$$

위 책의 저자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국민정신(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상무정신과 기사도(용기, 애국심, 희생정신 등), 중국이 국방을 중시하여 엄청난 비용과 희생도 마다않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 몽골항쟁시 우리나라의 상무정신을 예로 들었다.

같은 맥락으로 군사력에는 유형적 요소(병력, 무기, 장비, 물자 등) 외에도 무형적 요소(교육훈련, 전술전기, 사기, 군기 등)가 포함되어 있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형적 요소보다 오히려 싸워 이기겠다는 정신적 능력인 무형적 요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⁸³⁾ 이러한 무형적 요소에는 국민들이 군을 지지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안보의식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무형적 요소로서의 안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⁸⁴⁾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전력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히 클라우제비츠는 “물질이 칼집이라면 정신은 시퍼런 칼날”이라고 하며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정신력을 와해시켜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북한이 평상시에도 TV 및 라디오, 서적, 전단지,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중인 ‘사상전’ 또는 ‘심리전⁸⁵⁾’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해 바로 알고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북한관)

81) 민형기, “현대전에 있어서의 국민정신전력,” 『국회보』 332(서울 : 국회사무처, 94. 6), p. 68.

82)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p. 61-65.

83)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지침서』(서울 : 국방부, 1997), p. 24.

84)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전쟁철학자였던 클라우제비츠가 12년간 베를린 전쟁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정리해 집필하다 콜레라로 사망 후 부인이 원고를 정리하여 발간한 책

85) 영국의 군사평론가 풀러는 1920년에 “미래의 전쟁은 무기와 전장이 필요 없는 심리전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음. 국방일보, 2017년 12월 10일자,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2&bbbs_id=BBSMSTR_00000000128&ntt_writ_date=20171211(검색일 : 2017년 12월 19일).

이 필요하다. 과거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패한 대표적인 사례인 중국의 송나라, 국민당 정부, 남베트남의 경우만 보아도 적의 사상전에 국민의식이 패한 경우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안보’를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가 평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 국가안보 또한 평소에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안보 위기는 모두가 방심한 순간 찾아올 수 있으며, 과거 병자호란 당시 수십만 백성이 청나라에 노예로 끌려갔고, 임진왜란시 조선의 인구수가 1/4로 줄었었고, 6·25전쟁 시 민간인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안보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 수 있다.⁸⁶⁾

만약 일반 국민이 안보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시민단체 또한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거나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고 대중매체 또한 ‘알권리’를 내세워 왜곡된 정보를 사실인 양 그대로 보도하여 전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1인 미디어⁸⁷⁾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의 의견도 순식간에 공론화되어 충분히 안보나 대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개인의 안보 의식이 SNS 상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여론이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에서 내 나라를 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정신전력, 즉 안보의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 간의 사상전 대결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확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 대치상태가 6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 안보의식의 형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안보 및 국방정책, 즉 국가에 대한 자긍심, 소속감, 애국심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미국에 대한 태도, 60

86)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p. 22-23.

87) “1인 미디어는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며,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개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의견, 콘텐츠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온라인에 접속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들은 송신자이자 수신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미디어 채널로서의 기능을 한다.” 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855&cid=40942&categoryId=31752>(검색일 : 2017년 11월 12일).

년 넘게 대치하며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은 국민 안보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⁸⁾

국제사회의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좌우로 나뉜 사상 대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멸망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는 일에 사상논쟁 없이 하나 된 안보의식으로 뭉쳐 외부의 위협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여성 안보의식과 국가안보

1. 여성 안보의식의 개념 및 중요성

저자가 안보의식에 굳이 ‘여성’을 붙이게 된 이유는 안보나 국방이 여성과 소원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과 남성의 경우는 국방이 병력 의무 이행이라는 강제성이 부여된 분야인 반면 여성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도 생계유지나 가정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분야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 안보의식 또는 남성 위주의 안보의식과 여성 안보의식간에는 차이가 나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사전적으로 ‘여성 안보의식’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여성 의식 함양(consciousness raising)’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는 제2차 페미니즘 물결과 관련되어 “여성 해방 운동이 여성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채택한 사회 운동의 방법”⁸⁹⁾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 안보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고 하겠다. 심영희(2007)의 연구에서 ‘여성안보’의 개념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인간안보’⁹⁰⁾의 개념을 포괄하되 젠더화한 개념으로 ‘여성안보’를 보고 있다. 즉, 국가나 경제,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성주의적 시점에서 구분해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주의 입장에서 현실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남성 중심의 정치구조에 변혁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진다.⁹¹⁾ 또한 안김정애⁹²⁾는 여성안보를 ‘군사적·경제적·성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88) 김충남·문순보, 앞의 책, pp. 329-330.

89) 네이버 두산백과 ‘여성 의식 함양’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40502&cid=40942&categoryId=31637>(검색일 : 2017년 11월 13일).

90)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안보를 비판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짐. 심영희 외, 『세계화와 여성안보』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7), pp. 33-35.

91) 심영희 외, 위의 책, pp. 35-36.

범주로 나누어 남성에게 의해 정립된 군사주의의 개념이나 폭력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여성안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다루는 여성안보의 개념은 여성을 안보의 대상, 즉 지켜져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기한 내·외부로부터의 국가적 위협에 대해 여성이 가져야 할 안보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황영주⁹³⁾는 그의 연구에서 ‘페미니즘 안보연구’라는 개념을 다루었는데 “젠더와 젠더 관계 자체가 안보 및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작동된다”고 보고 “안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전쟁이나 국제적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정폭력, 강간, 빈곤, 젠더 종속 및 환경 파괴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였다. 용어 자체의 번역으로는 ‘여성 안보의식’과 ‘페미니즘 안보’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후자의 경우 국제안보에 있어 여성과는 무관하거나 여성을 제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남성주의적 안보논리에서 초래되는 경쟁과 지배의 개념보다는 상호 화해와 평화의 논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여성 안보의식’과 연관 지어 보면, 여성의 안보의식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고순⁹⁴⁾은 ‘여성 안보의식’을 다루면서 과거 단순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의 개념이 정치, 외교, 경제 등 국가의 총체적 능력과 직결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성도 안보의 분담 주체로서 국가 위기시 국가가 총체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바탕이 안보의식임을 역설하였다.

앞에서 국가안보와 안보의식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듯이 국민 안보의식이 높을수록 국가의 안전이 지켜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안보의식 또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안보는 국가를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 남성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성이 배제될 수도 없다. 국가가 힘이 없고 안보가 흔들렸을 때 국민들이 당했던 고통과 수모는 역사가 말해준다. 고려시대, 청의 불모로 끌려갔던 수많은 여성과 어린 아이들, 일제 강점기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모진 수모를 겪었던 꽃다운 젊은 여성들이 고통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대로 알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최근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역할 확대라는

92) 심영희 외, 위의 책, pp. 71-72.

93) 황영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서울대학교 세계정치』 19권(서울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3). pp. 37-39.

94) 독고순, 앞의 글. pp. 12-13.

차원에서 안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아직 여성의 몫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 특히 어머니가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성장, 나아가 민주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계간 학술지 ‘사회과교육’에 따르면 교과 공부보다는 부모와의 대화와 독서활동이 사회 교과목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⁹⁵⁾ 위 연구 결과가 비단 사회 과목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 문제에서도 부모로서 여성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여론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투표 등)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스터카드에서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여성의 경제 경영 분야 진출 정도 수치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가정 경제력과 고등 교육기관 진학률은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하였다.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나 국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안보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여성 정치인의 수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최초 여성 대통령이며, 최근 선출된 더불어 민주당 대표(추미애) 또한 여성이다. 여성 국회의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는 공론화의 강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계된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⁹⁷⁾ 이처럼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높은 안보의식을 가져야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인구의 남녀 성비(性比)가 2015년 6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초(女超) 현상을 보임에 따라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이기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펼 필요가 있다. 향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도 남녀 성비를 고려해 남녀 동등한 수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95) 경향신문, 2016년 7월 2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41323001&code=940100(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96) 국민일보, 2016년 8월 3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97046&code=61141111&cp=nv>(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97) 이미경·임혜란, “한국 여성정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창립 50주년 학술대회 발표(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2000), p. 185.

다섯째, 여군의 수 증가와 여군 희망자의 수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안보관을 겸비한 여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016년 들어 여군 1만 명 시대에 돌입한 한국군은 향후 8%까지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⁹⁸⁾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여학생의 경쟁률도 2016년 8월 현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고 2016년 기준, 육군 사관학교는 30명의 여생도 모집에 2175명이 몰려 72.5대 1을 기록하였고, 공군사관학교는 20명 모집에 1671명이 몰려 83.6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해군사관학교는 17명 모집에 1114명이 지원해 65.5대 1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취업난과 최근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의 영향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군무원 시험에서도 남녀 불문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⁹⁹⁾ 이렇듯 여성이 국방 관련 직종에 보이는 관심도가 늘어나고 국방 인력으로 선정되면 대부분 간부 계급인 만큼 병사들에게 모범이 되고 제대로 된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가진 인원을 선발하는 일이 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여성의 안보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자는 ‘여성 안보의식’이라는 용어를 “안보의 주체로서 여성이 평시에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위기 시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앞장서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그 중요성과 제고의 필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다.

2. 여성 안보의식과 국가안보의 관계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가사 일을 분담하고 출산과 양육을 전담하는 반면, 남성은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생활의 전반을 주도하며 경제활동을 도맡았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 하에 나라를 지키는 일은 자연스레 남성의 역할로 규정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여성의 호국 활동은 면면이 이어졌다.

백제 건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소서노¹⁰⁰⁾는 여성의 몸으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다. 신라시대 3명의 여왕은 전쟁을 주도하였고, 화랑도도 남모와 준정¹⁰¹⁾이

98)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6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0513292334411&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99) 동아일보, 2016년 8월 1일, <http://news.donga.com/3/all/20160801/79502411/2>(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100) 단재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는 “소서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 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기록됨.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433&cid=59015&categoryId=59015>(검색일 : 2017년 12월 21일).

라는 두 여인을 뽑아 훈련시키고 300명을 지휘하게 한 데서 유래하였다. 고구려 시대, 당나라의 침략시 연개소문의 여동생 연수영¹⁰²⁾이 활약하여 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거란에 맞선 대몽항쟁시에도 여성이 호국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해주산에서 아녀자들이 해주치마에 돌을 나르며 구국에 앞장섰고, 적장을 꺼안고 강물에 투신한 논개¹⁰³⁾, 왜구의 정보를 캐내어 관군에게 소상히 알리고 자결한 장소사¹⁰⁴⁾ 등의 남모르는 활약이 있었다. 일제치하 항일운동에도 여성이 참가하였는데 ‘안사람 의병단’의 윤희순¹⁰⁵⁾,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에 앞장선 여성들,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여성들 등 여성 고유의 임무뿐만 아니라 남성 못지않은 구국활동을 해나갔다. 광복 후 국가의 최대 위기였던 6·25전쟁 당시 여성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받았다. 의용군, 해병, 항공병, 간호는 물론이고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며 나라를 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¹⁰⁶⁾

이처럼 국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성들은 나라 지키는 일에 남녀 따로 없다는 심정으로 발 벗고 나서서 나라를 지켜내는데 일조하였다. 과연 이들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여성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무관심했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보호받기만을 원했다면 지금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이면 모두 안보의식이 높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안보의식이 높은 여성이 국가수호에 발 벗고 앞장설 것이라는 가정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오

101) “신라의 원화(源花). 진흥왕 37년(576)에 미녀(美女) 2명을 뽑아 원화로 삼을 때,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 선발되어 각각 3백여 명의 무리를 거느림.”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5352&cid=41826&categoryId=41826>(검색일 : 2017년 12월 21일).

102) 연개소문의 이복 누이동생으로 연개소문이 군사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울 때 낭자군(娘子軍)을 이끌고 조력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장수. 황원갑, 『연수영』(경기 수원 : 바움, 2010), pp. 4-5.

103)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경희(崔慶會)의 후처로 임진왜란 때 최경희가 전사하자 일본군이 축석루에서 벌이는 잔치에 참석해 일본군 장수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였음.”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7521&cid=40942&categoryId=33383>(검색일 : 2017년 12월 2일).

104) 조선시대 평창 군수였던 권두문(權斗文)의 아내로 임진왜란시 노성산이 함락되자 평창강에 뛰어내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절을 지켜냄 연합뉴스, 2015년 3월 1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1/0200000000AKR20150311060800062HTML?input=1195m>(검색일 : 2017년 12월 8일).

105)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로 시아버지 유흥석(柳弘錫)이 의병으로 출정하자 의병들에게 음식과 옷을 조달하는 한편 ‘안사람 의병가’ 등을 창작 보급하여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진력, 여성들의 의병활동 독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9219&mobile&cid=40942&categoryId=33384>(검색일 : 2017년 12월 9일).

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19-23.

늘날과 같이 여초 현상의 가속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다양화되는 시기에 안보의식이 높은 여성이 많아져야 국내외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더욱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병력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지므로, 남성 위주의 병력 유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징집 대상인 20세 남자 인구는 2012년 38만 2천여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2020년에는 33만여 명으로 예상된다.¹⁰⁷⁾

안보의식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보고, 이를 국가안보와 연관 지으려는 의도에 반감을 가지는 의견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안보의식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 여성의 안보의식이라고 한정짓게 되면 오히려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생각하거나 여성의 안보의식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특성과 기타 요인들로 인해 안보를 바라보는 의식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직시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근법 보다는 여성의 특성에 맞는 안보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구분한 것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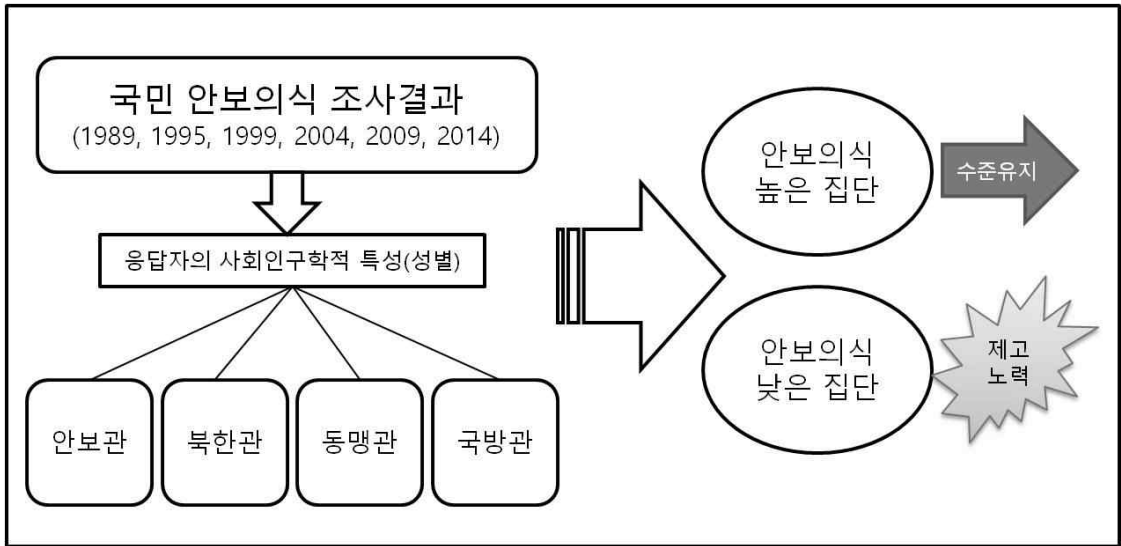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특히 성별 비교를 위해 역대 정부 2년차(문민정부의 경우 3년차)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집중 분석하였다. 전체 설문내용을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방관’으로 구분하여 남녀의 안보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항을 파트별 3~4문항씩 선별하여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를 구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남녀 응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안보의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07) 조승연,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와 국방정책,” 『군사발전연구』 7권 1호(광주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3), pp. 29-30.

<그림 2-1> 연구의 흐름도



* 자료 : 저자가 자체 정리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방대학교에서 1989년, 1995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 요인에 따라 안보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보의식 측정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가관으로 구분하여 총 18문항(유사 문항이 있을 경우 21문항)에 대해 남녀의 답변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 안보의식이 낮은 경우,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흐름이다.

설문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항의 성격을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방관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각 연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분류하였던 기준을 토대로 가장 연관성이 큰 문항들을 재분류하였다. 즉, 안보관은 안보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 국민 안보의식 수준 및 개별 안보의식 수준, 전쟁발발시 참여 의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선별하였고, 북한관은 북한 정권 및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북한이 도발할 것인지,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어떠한지, 남침시 전쟁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동맹관은 한·미동맹의 관계와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한지, 주한미군을 감축시켜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국방관은 국방예산 사용이 효율적인지, 한국의 국방비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국방부 발표를 신뢰할 만한 것인지,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문사항들을 토대로 성별에 따른 안보의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평균 응답률과의 비교를 통해 남녀 응답률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남녀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질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소위 진보 정권(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과 보수 정권(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간 남녀 응답률에 있어 어떠한 특성,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여성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제 3 장 안보의식 조사결과 분석

제 1 절 역대 정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 분석

1. 노태우 정부(1989)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989년 6월에 처음으로 국민안보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시기는 1988년에 수립된 노태우 정권의 2년차가 되는 해이다. 안보문제연구소에서는 국민안보의식조사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 조사는 국민의 안보의식 실상을 파악하여, 오늘의 안보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초자료와 안보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자는 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안보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위협 못지않게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안보역량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데서 발휘되고, 안보정책 역시 국민의 안보여론의 수렴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한 범국민적인 안보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¹⁰⁸⁾

위 기술을 통해 당시 북한이라는 외부 위협과 함께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불안정 요인, 반체제 운동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에 대해 건전한 안보의식 정착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를 위해 설계한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5세 이상 60세 이하 120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총 643명(53.5%), 여성이 557명(46.4%)로 약 5.5대 4.5가 되도록 하였으며,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추출하였다.¹⁰⁹⁾

설문 문항은 국가안보(3), 국방(4), 군대(4), 우리 사회(3), 북한 사회(4), 통일(5), 북방외교(5), 우방국 관계(6), 기타(11)로 구분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기타의 경우는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문항이었다. 기타를 제외하고 설문 문항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8)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서울 :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6), pp. 2-3.

109) 최창섭 등, 위의 책, p. 75.

<표 3-1> 1989년 국민안보의식조사 설문 문항

| 구분 | 설문 내용(요약) |
|--------|------------------------------|
| 국가안보 | ‘국가안보’에 대한 인상 |
| | 북한의 남침시 우리의 현재 능력 |
| | 국방에 관한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
| 국방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 | 현재 국방비수준 |
| | 북한의 쌍방 병력감축 제안에 대한 생각 |
| | 우리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한 생각 |
| 군대 | 군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
| | 군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 국군에 대한 생각 |
| | 군대의 사기는 어느 정도 |
| 우리 사회 | 여러 사회적 불안 원인의 심각성 |
| |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 |
| | 최근 학생 및 노동자의 시위양상에 대한 생각 |
| 북한 사회 | 북한사회에 관한 평가 |
| | 북한주민들의 그들 사회에 대한 만족도 |
| | 최근 북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생각 |
|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
| 통일 | 남북한 경제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 |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 | 통일을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 | 평양 세계청년축전에 우리 대학생들의 참가 의견 |
| | 남북한 대화 창구에 대한 생각 |
| 북방 외교 |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 추진시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 |
| |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얻는 이익 |
| | 북한, 소련, 중국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 |
| | 위 질문의 답변 중 순위 1로 응답한 내용의 사실성 |
| | 위 질문의 답변 중 순위 2로 응답한 내용의 사실성 |
| 우방국 관계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
| | 북한 남침시 일본의 지원에 대한 생각 |
| | 미군 주둔에 대한 생각 |
| | 용산 미군시설의 잔류 문제 |
| | 미군 주둔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
| |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생각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노태우 정권의 특징적인 경향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북방정책이며, 이를 통해 북방 삼각관계(소련, 중공 및 북한)의 약화를 도모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저의를 상실케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설문 문항에도 반영되어 ‘북방 외교’ 파트가 안보의식 조사에 포함되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제력을 기초로 민주화를 활발히 추진했던 시기였으므로, 북한에 대한 시각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¹¹⁰⁾ 아울러 소련의 병력 감축과 중공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어느 때보다 미군의 작전권 이양을 요구하는 주장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미군을 제외했을 때를 고려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묻는 질문과 남북한 간 병력 감축 제의,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의견도 포함되었다.¹¹¹⁾ 해방 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가 겪는 사회 불안과 사회에 대한 만족도, 학생 및 노동자의 폭력을 수반한 의사표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었다.¹¹²⁾ 자유기재 형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질문도 포함되었다.

조사 자료를 통해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밝힌 긍정적인 사실과 부정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표 3-2> 1989년 국민안보의식조사 분석 결과

| |
|--|
| <p><긍정적인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남침시 초기는 불리하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 다수 - 북한의 실상 바르게 이해 - 학생 또는 노동자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 양상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 - 주한미군의 중요성 제대로 인식, 최근 일각의 반미, 미군철수 주장이 국익에 역행함을 우려 - 통일문제에 대해 남북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식 <p><부정적인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 - 군사력은 북한보다 열세하나 군사비는 줄여야 한다는 인식 - 군에 대한 신뢰성, 친근감 저조 -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막연한 동경심 상존 -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에 대해 매스컴에서 얻는 지식에 대한 신뢰도 저조 - 우리 사회의 욕구불만과 불신풍조가 사회 불안 가중 -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국과의 관계를 왜곡 비방하는 선동에 영향을 받음 - 통일에 대한 비논리적, 감상적, 성급한 접근과 기대 상존 |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110) 최창섭 등, 앞의 책, pp. 23-25.

111) 최창섭 등, 앞의 책, pp. 36-37.

112) 최창섭 등, 앞의 책, pp. 55-57.

위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태우 정부에서 강조하는 안보 논리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남침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와 군에 대한 신뢰도 증진,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60.7%)의 국민이 대내적 문제(안정, 이념, 정치발전 등)로 생각하였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26.5%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한의 군사력 감축 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10.5%, 미군시설 이전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표출한 비율도 각각 10.6%, 13.2%로 나타났다.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또한 불신에 가까운 견해(‘그저 그렇다’와 ‘불신한다’)가 50.3%를 차지하였다. ‘군대’에 대해 가지는 인상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인 항목은 48.7%,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항목은 60.1%를 차지하였다.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교류는 이산가족 상호방문이나 남북한 긴장완화, 상호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통일을 위해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화통일 의지포기, 남북한 간 각종 교류 확대, 북한 민주화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공산권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언론이라고 답한 의견이 월등하였으나 과장 또는 왜곡될 확률이 20~27%라고 답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철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8%를 차지하였고, 용산의 미군시설에 대해서도 이동 또는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안보 개념에 있어서부터 현재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과반수를 넘지는 않으나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며 통일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과 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군의 홍보활동이나 대군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언론의 신뢰도 향상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문민정부(1995)

다음으로 1995년 8월에 실시한 문민정부의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론조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경제적으로 대륙 단위의 블록 경제화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하며,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였다.¹¹³⁾

안보문제연구소에서는 본 조사의 목적으로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보의 잠재적 위기가 내재한 현재의 환경 속에서 안보의식은 새로운 각도와 시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존재한다……. 군은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안보관과 대안들을 제시할 때 비로소 일반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향후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하는데 필요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¹¹⁴⁾

여론조사를 위해 각 하위부분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체계 이론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으며, 한국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설정하고, 그 하위체계를 정치, 경제, 사회, 국가안보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의 요소를 군사력, 국방정책, 국방예산으로 설정하여 서로간의 상호작용성을 강조하였다.¹¹⁵⁾

조사를 위한 표본의 모집단은 제주도 제외, 전국 6개 특별 및 직할시, 8개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256명으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211부이다. 이 중 남자는 713명(58.9%), 여자는 498명(41.1%)이다.

설문 문항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평가(4), 주변국가에 대한 평가(8), 북한에 대한 평가(6),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3), 국방정책에 대한 평가(5), 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10), 사회 인구학적 특성(5)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표로 재구성하였다.

<표 3-3> 1995년 국민안보의식조사 설문 문항

| 구 분 | 설문 내용(요약) |
|------|--------------------------|
| 국가안보 | 한국의 국가안전보장 상황 |
| | 안전보장의 대외적인 위협요인 |
| | 안전보장의 국내적인 위협요인 |
| | 안전보장의 중점 대책분야 |
| 주변국가 | 안보에 유리한 국가와 불리한 국가 |
|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
| |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과 동북아 질서 |

113)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 서강대학교, 1995. 8), p. 1.

114) 위의 책, pp. 3-4.

115) 위의 책, pp. 8-10.

| | |
|--------------------|---|
|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남북한 동시외교와 통일 |
| | 주한 미군의 역할 |
| | 주한 미군의 유지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 문제 |
| |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위한 중점 분야 |
|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처방안 |
| 북한 | 북한의 위협 요인 |
| | 북한의 남침 요인 |
| | 북한의 남침 방식 |
| | 북한사회의 남침과 그 결과 |
| | 북한의 남침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 |
| | 북한의 통일 방식 |
| 남북한 군사력 | 북한 등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군의 대처능력 |
| | 국방역량증진을 위한 주요 분야 |
| | 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 비교(무기·장비, 정신력, 교육훈련, 후생복지) |
| 국방정책 | 국방정책에 대한 신뢰도 |
| | 국방정책에 대한 인지경로 |
| | 국방예산의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성 |
| | 국방부 부담에 대한 평가 |
| | 국방비 지출의 주요 분야 |
| 군 | 군인(장교)의 사회적 계층 |
| | 군대의 병영시설과 생활수준 |
| | 군대의 병영생활수준 향상방안 |
| | 군사기밀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
| | 군사시설, 군작전과 개인의 재산, 이익 |
| | 한국사회에 대한 군대의 영향 |
| | 징병제도의 공정성 |
| | 사회생활에 대한 군 복무 경험의 영향 |
| | 국토방위 이외의 군의 사회봉사적 역할 |
| 군 및 국방관련 언론의 보도 양식 |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가안보상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대의 위협요인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제무역 분쟁’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내 위협요인은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이 꼽혔다.¹¹⁶⁾

주변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고의 우방국이자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답변은 ‘미국의 국가이익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주한 미군 유지비 분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¹¹⁷⁾

116)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147-148.

117)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148-149.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요인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가장 우세하였고, 북한의 전쟁 도발의 경우,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경우’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꼽았으며, 남침 방식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면적 남침’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북한의 남침 결과 ‘초기에는 어려우나 결국 한국군이 승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하였다.¹¹⁸⁾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는 무기 및 장비, 정신력, 교육훈련 등은 북한이 우위이고, 후생복지 면에서만 남한이 우위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군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신뢰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고, 징병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국방예산 운영의 공개성 측면에서 ‘전혀 공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우세였고, 규모 면에서는 ‘현재가 적절하다’라는 답변이 많았다.¹¹⁹⁾

군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각각 37%, 34.7%로 나타났다.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영향력은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¹²⁰⁾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는 미국에 대해 우방국으로서 위기시 함께 하여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은 있으나, 동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 유지비 또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감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주한 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은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이중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징병제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한국의 안보에 꼭 필요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반감이 상시 뜨거운 감자처럼 고질적인 문제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며 국방정책 측면에서도 징병제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방예산의 공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3. 국민의 정부(1999)

다음으로 국민의 정부 2년차(1999년)에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살펴보겠다. 당시 국내외 안보환경은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동서간의 긴장은 완화되었으나 이라크 사태, 코소보 사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경쟁 등 국지전(局地戰)이 증가하였으며,

118)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149-150.

119)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151-152.

120)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153-154.

국제연합(UN) 조차도 이러한 국지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국 또는 주변 이해국의 개입이 빈번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지전의 확대는 지구상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더 큰 시사점을 던지며,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쟁 억지력 확보가 시급함을 내포하였다. 당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대치,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의지가 관철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북한 당국이 남한 당국과 직접 협상하도록 대화의 테이블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발생한 병무비리 문제로 국민적 의무인 병역제도가 불신을 받고 있으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들이 별다른 피해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토대로 안보의식 조사를 통해 실제 안보 현실과 국민의식과의 간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¹²¹⁾

조사를 위해 선정된 응답자는 서울 등 8개 지역(제주도 제외)의 만 18세 이상 남 704명(60.1%), 여 467명(39.9%)로, 총 1171명이었으며, 설문문항은 안보현안(16), 남북문제(2), 북한의 군사적 위협(4),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4), 통일방안(3), 군과 사회(5), 직업군인(2), 병역제도(4), 세대 간의 의식비교(7), 국방정보의 수집(4)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4> 1999년 국민안보의식조사 설문 문항

| 구분 | 설문 내용(요약) |
|------|------------------------------|
| 안보현안 | 국가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판단 |
| |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국민 안보의식 |
| | 남북한 민간교류의 남북관계 개선 기여 판단 |
| |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
| | 대북 경수로 지원에 대한 의견 |
| |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의견 |
| | 대북 비료지원에 대한 의견 |
| | 북한과의 무역투자 확대에 대한 의견 |
| | 북한과의 민간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 |
| | 미북 접촉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 | 남한의 위기상황시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 |
|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입장 |
| | 미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 |

121)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 서강대학교, 1999. 8), pp. 1-4.

| | |
|-------------|-------------------------------|
| |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 |
| | 중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 |
| | 러시아에 대한 국민의 인식 |
| 남북문제 | 5년 내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 예측 |
| | 대량 탈북사태 대응 |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북한의 무력도발 방법 |
|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
| | 한반도 전쟁의 결과 |
| |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식 |
|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 |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견해 |
| |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군 현대화에 대한 입장 |
| | 국방비 수준 평가 |
| 통일방안 | 남북통일 실현 시기 예측 |
| | 바람직한 통일유형 |
| | 실현성 높은 통일유형 |
| 군과 사회 |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 |
| | 군생활의 이점 |
| | 현역복무 기피 이유 |
| | 군의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태도 |
| | 군의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분야 |
| 직업군인 | 직업군인들의 사기에 대한 평가 |
| | 가족이나 친지가 직업군인이 되고자 할 경우의 태도 |
| 병역제도 | 과거와 비교한 병무 부조리 평가 |
| | 병역대체제도에 대한 태도 |
| | 가장 필요한 병역대체제도 |
| | 병역대체제도 중 우선적으로 폐지할 분야 |
| 세대 간의 의식비교 | 충효예에 대한 태도 |
| | 국가를 위한 개인희생 감수 |
| | 업무수행을 위한 사생활 희생에 대한 태도 |
|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태도 |
| | 상급자와 다른 자신의 주장 |
| | 성공을 위한 불의한 행위에 대한 태도 |
| | 외국 이민에 대한 태도 |
| 국방정보의 수집 | 국방정책의 인지 경로 |
| | 군 홍보 매체에 대한 접촉 경험 |
| | 국방부 발표의 국방 및 안보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도 |
| | 군 홍보 매체가 가장 도움이 된 분야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정치적 안정, 경제위기 극복에 충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치인들의 국론분열이 심각함을 지적하

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본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 지지와 미국의 긍정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한 안보의 주된 위협 요인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꼽았으나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주한 미군을 제외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뒤쳐진 것으로 꼽았고, 군 현대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방비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계속 주둔’을 꼽는 의견이 많았으나, 주한미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병역대체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공익근무요원’제도 대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군의 인적 자원 및 군인의 사기 측면에서, 젊은 층들은 직업군인에 대해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군에서 확보할 확률 또한 낮아지게 되므로, 군인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군 홍보매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¹²²⁾

4. 참여 정부(2004)

다음으로 2004년 실시한 참여 정부의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 정부 2년차였던 2004년, 대내외 분위기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3. 12 국회 의결, 5. 14 헌법 재판소 기각 결정), 이라크 파병과 함께 이라크 무장 세력에 납치된 김선일 씨 피살사건,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연쇄 살인범 유영철 체포 등 굵직한 국내외 사건사고가 있었다.

이 시기에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의 핵심은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 변화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과 대내적으로는 국방개혁과 이라크 파병 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이었다.¹²³⁾

참여 정부 2년차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의 대상은 총 1,200명으로, 거주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을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한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중 남성 614명(51.2%), 여성 586명(48.8%)이었으며, 설문문항은 한·미동맹과 협력적 자주국방(12), 국방정책 및 국방개혁(11), 국방예산(4), 북한 및 주변국의 안보위협(8),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및 이라크파병(7), 국민 안보의식(19)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2)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167-173.

123) 김관호·김순태, 앞의 글, p. 133.

<표 3-5> 2004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설문 문항

| 구 분 | 설문 내용(요약) |
|-----------------|-------------------------|
| 한·미동맹과 협력적 자주국방 | '협력적 자주국방'의 인식도 |
| | '협력적 자주국방'의 인지형태 |
| | '협력적 자주국방'의 지지도 |
| | 주한미군의 중요성 |
|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 | 주한미군 철수 |
| | 주한미군 남쪽 이전 |
| |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 |
| | 정부의 SOFA 개정 노력 |
| |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
| | 한미동맹 저해요인 |
| |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 |
| 국방정책 및 국방개혁 | 국방부 발표의 신뢰도 |
| | 군 관련 보도의 공정성 |
| | 병영내 악습퇴치노력 |
| | 병영내 악습수준 |
| | 대체복무제도 |
| | 병영부조리 수준 |
| | 군 인사제도의 개선정도 |
| | 군 전력증강 사업결정의 공정성 |
| | 국방비 운용상태 |
| |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전쟁 억제력 |
| | 우리군의 병력 수 |
| |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과제 |
| 국방예산 | 국방비 수준 |
| |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인상 |
| | 타 부처 대비 국방예산의 효율성 |
| |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투자영역 |
| 북한 및 주변국의 안보위협 | 국방백서의 '주적' 명시 |
| | 북한의 도발가능성 |
| |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 |
| |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태도 |
| |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의 태도 |
| |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태도 |
| | 한반도 위기상황시 러시아의 태도 |
| | 안보위협을 줄이는 방안 |
| | 일본 군사력 증강의 영향 |
| | 중국 군사력 증강의 영향 |
| 유엔 | 경제적 측면의 중요국가 |
| | 안보적 측면의 중요국가 |
| 유엔 | 평화유지활동 |

| | |
|-------------------------|-------------------------|
| 평화유지활동(PKO) 및 이라크 파병 | PKO 임무수행 국가 |
| |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칭송 |
| | 이라크 파병 부대 |
| | 이라크 추가 파병 찬반여부 |
| | 이라크 추가 파병 이유 |
| 국민 안보의식 | 가족/친지의 이라크 지원 |
| | 안보상황에 관한 인식 |
| |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
| | 바람직한 대북지원 정책 |
| | 김정일 신뢰여부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이유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
| |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국외 상황 |
| |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국내 상황 |
| | 국민 안보의식 수준 |
| | 귀하의 안보의식 수준 |
| | 안보교육의 필요성 |
| | 전쟁 발생 시 행동 |
| | 국방일보 구독 장소 |
| | 병역제도 |
| 병역거부자 | |
| 군복무 경험과 사회생활 | |
| 가족/친지의 직업군인 지원 | |
| 군 가산점 |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들어서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 ‘이해하고 있다’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의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지지도 또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반대 또는 모른다는 답변이 17%에 달하였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이 앞서있다’는 응답은 46.3%, ‘한국이 앞서있다’는 응답은 19%였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정착시 철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정부의 SOFA 개정 노력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1.5%를 차지하였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한·미동맹 저해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39.3%를 차지하였다.

국방부의 제반 발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군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다’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병영내 학습 수준이나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국방비 운용 상태와 타 부처 대비 국방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답변이 각각 45.3%, 51.1%로 가장 많았다. 우리군의 병력 수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다’를 선택하였다.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인상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다.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명시해야 한다’와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향후 5년 이내 북한이 도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낮다’는 의견이 70.9%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와 ‘높다’가 각각 50.5%, 43.2%를 차지하였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경우 ‘남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경제적,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로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보다 높게 나왔고, 가족/친지의 이라크 지원에 대해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와 ‘만류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46%와 44.2%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김정일 신뢰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69.2%로 높았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을 묻는 질문에는 ‘위협이 된다’라는 답변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상황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내 상황으로는 ‘국내 정치의 불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낮다’라는 응답이 38.2%, ‘높다’는 응답이 20.4%였다. 귀하의 안보의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높다’가 30.3%, ‘낮다’가 22.8%를 차지하였다. 안보문제에 대한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로 매우 높았고, 전쟁 발생 시 행동의 경우, ‘후방에서 지원하겠다’와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가 각각 41.1%, 21.8%를 차지하였다.

군 복무 경험과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한다’가 ‘반대한다’ 보다 51.9%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살펴보건데, 참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며,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불편하긴 하나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 미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대북 억제력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특히 예산 분야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증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 안보의식과 본인의 안보의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앞으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5. 이명박 정부(2009)

다음으로 2009년에 실시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대내외 분위기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이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대청해전, 용산재개발 철거민 참사,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 나로호 발사와 궤도진입 실패, 미국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 시대’ 개막, 신종플루 공포 확산, 일본 하토야마 집권, 중국 신장 위구르 유혈 충돌로 197명 사망 등이 있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안보의식 여론조사는 진보 성향의 이전 두 정부와의 차별성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 보수정권에 부합하는 국방현안문제 해결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아울러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와 같은 병역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¹²⁴⁾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1,201명(전문가 60명 제외)으로, 남 778명(61.7%), 여 483명(38.3%)이었으며, 설문문항은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2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10), 북한(10),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5),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17)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2009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설문 문항

| 구 분 | 설문 내용(요약) |
|-----------------|----------------------------------|
|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요소 |
|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 |
| |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
|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
|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
| |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 |
|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
|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
| |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남침) 발생시 미·일·중·러의 태도 |

124) 김관호·김순태, 앞의 글, p. 135.

| | | | | |
|----------------|--|---|---|---|
| | 일·중·러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래(5년 이후) 미·일·중·러와의 관계 전망 | | | |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미동맹 관계 한·미동맹 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필요성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지 능력의 변화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 | | |
| | 북한 |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 | | |
| | |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군 복무자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생각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한 생각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병영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생각 | |
| | | |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 일반 매스컴의 군 관련 보도에 대한 공정성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한국의 국방비 수준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 현재 병력의 수에 대한 생각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효과 국방개혁 추진 필요성 다양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생각 한국군의 해외파병 이유 향후 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향후 평화유지활동 대비 필요성 국제테러 위협 가능성 국방 홍보매체 접촉 빈도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2%는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국민 안보의식 수준은 응답자의 37.8%가 ‘낮다’고 응답해 ‘높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은 33.9%가 ‘높다’고 응답해 ‘낮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 요소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체제불안’이 꼽혔고, 국내 요소로는 ‘국내 정치의 불안’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라는 응답이 47.6%,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4.7%를 차지하였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83.3%)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고 응답하였고, 한·미동맹 발전에 대해서는 군사동맹 강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73.6%로 매우 높았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해 ‘그렇다’라는 의견이 36.6%로 ‘아니다’보다 7.4% 높았고,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75.3%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상태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이 앞서있다’라는 응답은 45.7%, ‘북한이 앞서있다’라는 응답은 32.4%였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함’이 31.4%,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함’이 29.4%를 차지하였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2.7%가 북한 정권에 대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답하였고,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16.7%였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40.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37.7%로 나타났다.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79.6%는 한국안보에 ‘위협적이다’는 의견을 택하였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9.7%였다.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34.9%, ‘없다’는 의견이 65.1%로 나타났다.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관련해서는 국민개병제에 대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찬성’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53.3%로 ‘많아졌다’보다 7.5% 높았다.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성이 ‘보통’이라는

의견이 41.%, ‘신뢰한다’가 30.3%를 차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8.7%를 차지하였다. 마스크의 군 관련 보도에 대해 ‘편파적이다’라는 의견이 29.6%로 ‘공정하다’는 의견(21.6%)보다 더 높았다. 현 국방비 운용 상태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비효율적’(31.8%)이 선택되었다.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가 37.3%로 ‘줄여야 한다’(13.7%)보다 높았으며,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전쟁 발발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북한 핵의 위험성은 크게 느끼면서도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국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신뢰성이 매우 저조하였고, 언론보도 또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많았다. 국방비 사용 또한 효율성이 의심받는 수준으로, 향후 국방에 대한 홍보 확대와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 공감대 형성이 절박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6. 박근혜 정부(2014)

다음으로 2014년에 실시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대내외 분위기는, 국제유가 폭락(5년 만에 최저), 미-쿠바 국교 정상화(53년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볼라 공포 확산, IS 세력 확대, 미 퍼거슨 사태로 흑백갈등 확대, 홍콩주민 10만 명의 민주화 시위, 세월호 참사로 304명 사망 또는 실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 군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한중 FTA 타결(2년 6개월만) 등의 일들이 있었다.

이 기간에 실시한 안보의식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와 유사성을 가지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군에 대한 신뢰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¹²⁵⁾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1,200명(전문가 60명 제외)으로, 남 720명(60.0%), 여 480명(40.0%)이었으며, 설문문항은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 사항(14), 한·미동맹과 주한미군(11), 북한 관련 사항(17),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6),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23)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5) 김관호·김순태, 앞의 글, p. 136.

<표 3-7> 2014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설문 문항

| 구 분 | 설문 내용(요약) |
|-----------------|--|
|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 | 6·25전쟁이 발발한 연도, 주체 |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요인 |
| |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 |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 |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
| |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
| |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
| |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남침) 발생 시 미·일·중·러의 태도 |
| |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 |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 |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미동맹 관계 |
| |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
| |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 |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
| |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
| |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
| | 주한미군 주둔시기 |
| |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
|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
| |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
| 북한 관련 사항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
| |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 |
| |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 |
| |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
| |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
| |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
| |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
| | 금강산 관광 재개 |
| |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
| |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
|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
| |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
| 한반도 통일 전망 | |
| 통일비용 지불 의향 | |
| | 한반도 통일 방식 |

| | |
|--------------------------|------------------------------|
| |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
|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인지도 |
|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
| | 병영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 |
| |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도 |
|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
| | 병영문화 개선 방안 |
| |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
|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
| | 군에 대한 신뢰도 |
| |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
| | 전투형 군대 육성 정착에 대한 의견 |
|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
|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
| | 한국의 국방비 수준 |
|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
| |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 | 대군 신뢰 확보 방법 |
| |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 |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
| |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 | 향후 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
| | 위험 지역 파병 |
|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 |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
| |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및 접촉 빈도 |
| |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
| | 국방부 및 군의 현재 이미지 |
| 군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 |
|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 |
| 국방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 경험 |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2.5%가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불안정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안정적’이라는 답변은 19.6%였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낮다’라는 답변이 43.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은 ‘높다’라는 응답이 32%, ‘낮다’라는 응답이 22.1%를 차지하였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 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체제불안’이 각각 61.1%, 50.9%를 차지하였다. 국내 요인은 ‘국내 정치의 불안’이 5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 안보의식 해이’가 43.3%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으로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높았고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는 22.7%를 차지하였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하여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은 66.2%로 '불편'하다는 응답보다 59.9% 높게 나타났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그렇다'는 응답은 43.5%였으며,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중요하다'가 75.1%로 '중요하지 않음'(2.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우위'라는 응답은 28.1%로 '북한우위'(46.6%)라는 응답보다 낮았다.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다.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1.8%로 압도적이었고,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5.5%,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15.3%를 차지하였다.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5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19.8%)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36.1%로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는 답변이 38.8%로 가장 우세하였으며 '낮음'은 34.3%였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답변은 82.3%로 압도적이었다.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에 관련하여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36.5%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28.5%로 나타났다. 군의 병영문화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5%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이 43.2%로 나타났다.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군에 대한 신뢰도 또한 '신뢰하지 않음'이 37.8%,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였다.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이 49%,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17.8%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관해서는 '늘려야 함'이 32.2%, '줄여야 함'이 14.3%를 차지하였다.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3.6%로 '부정적'이라는 응답(1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살펴보건데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보수준 또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며, 본인 또한 그리 높은 수준의

안보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내·외 요인으로 북한 요인과 안보의식 해이를 각각 높게 꼽은 것으로 보아 연초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NLL 포격 도발, 무인기 정찰 등으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관련 설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대북 전쟁 억지력으로 주한미군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북한 관련 질문에서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을 달리 하고 있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남도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 및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지만, 군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 2 절 역대 정부의 안보의식 성별차 분석

역대 정부의 안보의식 성별차 분석을 위해 <표 1-5>에서 제시한 안보의식 분석도표를 토대로 각 정부에서 실시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안보의식 조사결과와 문항과 응답결과를 확인하였다.¹²⁶⁾ 대상 연도에 실시한 설문 문항이 중복되는 경우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2개 정부 이상 중복되는 문항을 안보의식 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선정하였고, 주제별 성격이 유사한 문항 또한 분석을 위해 포함하였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율은 모두 백분율(%)이며, 남녀 간 응답률의 차이, 평균과의 차이에 관한 분석은 저자의 주관적 견해이다.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의 조사 결과들은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어 비교시 포함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남녀 비교를 하되 X2 값과 P 값이 조사결과에 포함되도록 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1. 노태우 정부(1989)

먼저 노태우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보관

노태우 정부에서는 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본인 또는 국민 안보의식에 관한 질문

126)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에는 개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률만 기술되어 있어 성별 요인에 따른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교분석이 필요하였음. 따라서 남녀 응답률(수치)을 토대로 성별 요인만을 분석하여 표와 그림으로 재구성하였음.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지 않았고, “‘국가안보’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이라는 자유기재 형식의 질문만이 포함되었으므로, 성별차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나. 북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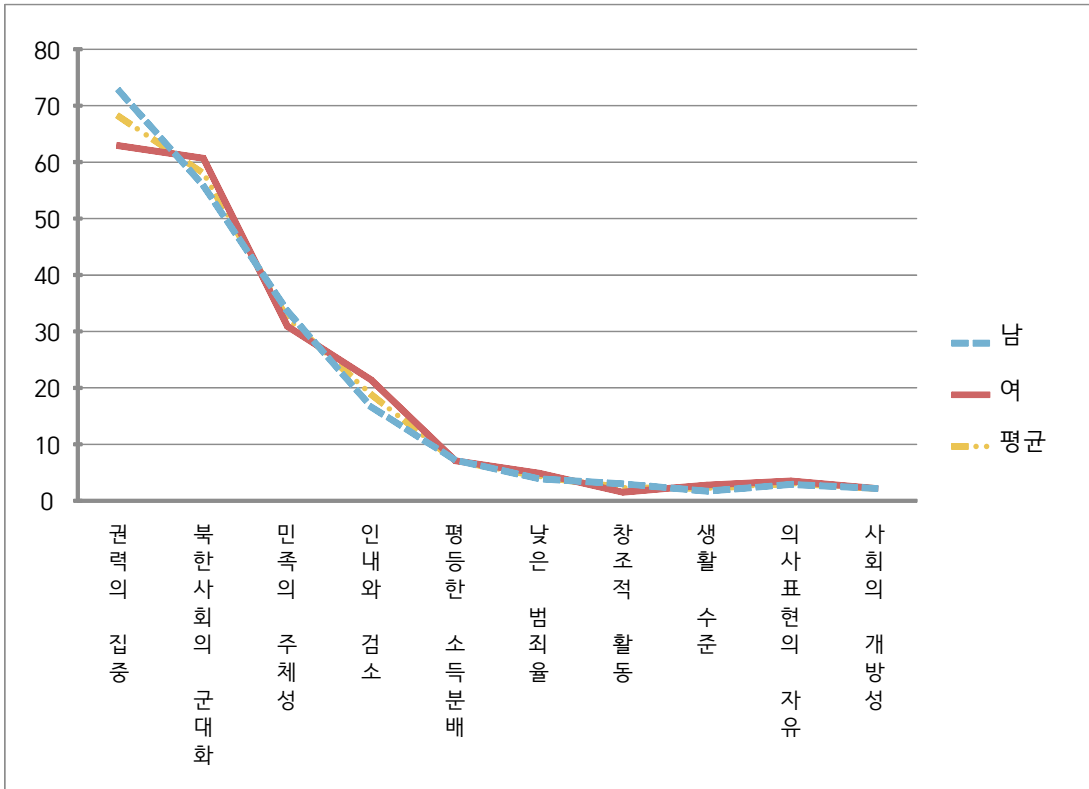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 : “귀하께서는 북한사회에 관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8>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구 분 | 성별 | 아주 높다 | 높은 편 | 그저 그럼 | 낮은 편 | 아주 낮다 |
|---|----|-------|------|-------|------|-------|
| 권력의 집중 (X ² =12.6, P=0.0055) | 남 | 72.5 | 21.2 | 3.7 | 2.7 | - |
| | 여 | 62.9 | 27.2 | 5.3 | 4.5 | - |
| | 평균 | 68.0 | 24.0 | 4.4 | 3.5 | - |
| 북한사회의 군대화 (X ² =3.3, P=0.3498) | 남 | 55.8 | 33.4 | 7.2 | 3.7 | - |
| | 여 | 60.7 | 29.2 | 7.1 | 3.0 | - |
| | 평균 | 58.0 | 31.5 | 7.1 | 3.4 | - |
| 민족의 주체성 (X ² =12.0, P=0.0174) | 남 | 33.6 | 35.2 | 14.8 | 8.3 | 8.1 |
| | 여 | 30.9 | 36.0 | 19.6 | 9.2 | 4.2 |
| | 평균 | 32.3 | 35.6 | 17.0 | 8.7 | 6.3 |
| 인내와 감소 (X ² =7.7, P=0.0143) | 남 | 16.6 | 40.2 | 29.4 | 8.2 | 5.6 |
| | 여 | 21.4 | 41.8 | 26.6 | 5.9 | 4.3 |
| | 평균 | 18.8 | 41.0 | 28.1 | 7.1 | 5.0 |
| 평등한 소득분배 (X ² =4.0, P=0.4038) | 남 | 7.2 | 21.5 | 21.2 | 23.9 | 26.2 |
| | 여 | 7.1 | 20.0 | 25.1 | 25.3 | 22.5 |
| | 평균 | 7.1 | 20.8 | 22.9 | 24.6 | 24.4 |
| 낮은 범죄율 (X ² =3.9, P=0.4151) | 남 | 3.9 | 14.2 | 31.2 | 34.5 | 16.2 |
| | 여 | 4.9 | 10.7 | 31.3 | 36.9 | 16.2 |
| | 평균 | 4.3 | 12.6 | 31.1 | 35.6 | 16.1 |
| 창조적 활동 (X ² =8.2, P=0.0862) | 남 | 3.0 | 4.0 | 23.6 | 35.0 | 34.2 |
| | 여 | 1.5 | 6.6 | 20.8 | 37.5 | 33.7 |
| | 평균 | 2.3 | 5.2 | 22.3 | 36.0 | 34.0 |
| 생활 수준 (X ² =8.0, P=0.0450) | 남 | 1.7 | 25.2 | 44.3 | 28.7 | - |
| | 여 | 2.8 | 19.1 | 45.1 | 33.0 | - |
| | 평균 | 2.2 | 22.3 | 44.6 | 30.5 | - |
| 의사표현의 자유 (X ² =0.6, P=0.8918) | 남 | 2.9 | 12.4 | 35.6 | 49.1 | - |
| | 여 | 3.5 | 12.2 | 34.2 | 50.1 | - |
| | 평균 | 3.1 | 12.3 | 35.0 | 49.4 | - |
| 사회의 개방성 (X ² =1.1, P=0.7753) | 남 | 2.2 | 9.5 | 36.2 | 52.0 | - |
| | 여 | 2.2 | 9.6 | 39.1 | 49.1 | - |
| | 평균 | 2.2 | 9.6 | 37.5 | 50.6 | -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 설문 문항 1에 대해 항목별 ‘아주 높다’를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사회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권력의 집중’과 ‘북한사회의 군대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전자, 여성의 경우는 전자와 후자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내와 검소’라는 다소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남녀 답변을 중 남녀가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 평균과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권력의 집중’의 경우 ‘아주 높다’와 ‘높은 편’이라고 답변한 남성의 비율은 평균과 +1.7% 차이가 있었고, 여성은 -1.9%의 차이가 있었다. ‘북한사회의 군대화’의 경우는 ‘아주 높다’와 ‘높은 편’이라는 답변에 대해 남성의 응답률과 평균값은 -0.7, 여성과는 일치하였다. 인내와 검소의 경우 ‘아주 높다’와 ‘높은 편’이라는 답변을 한 남성의 응답률은 평균과 -3%, 여성은 +3.2%의 차이를 나타냈다.

(2) 설문 문항 2 : “북한주민들은 그들 사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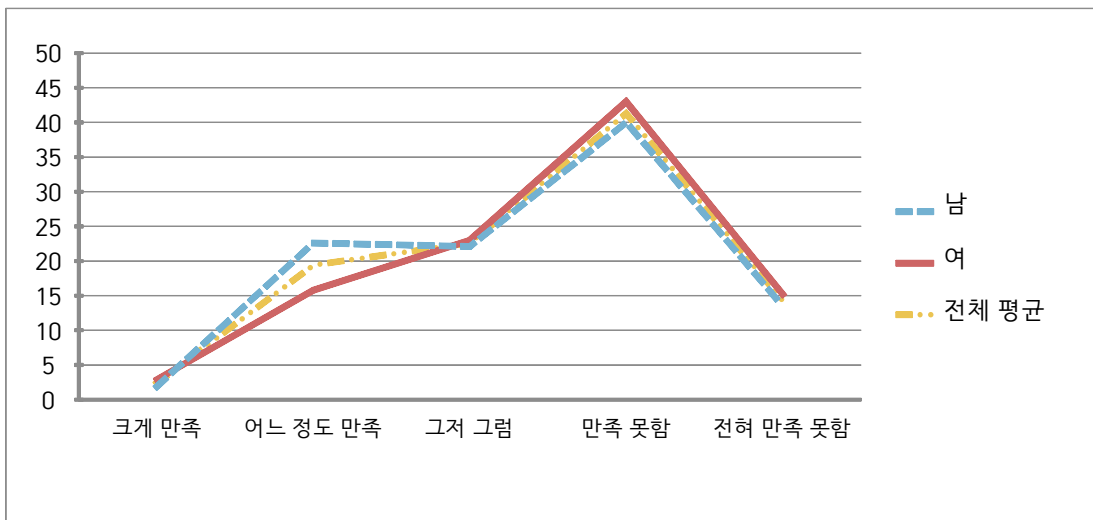
<표 3-9>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X²=9.7, P=0.0451)

| 구분 | 크게 만족 | 어느 정도 만족 | 그저 그럼 | 만족 못함 | 전혀 만족 못함 |
|-------|-------|----------|-------|-------|----------|
| 남 | 1.9 | 22.6 | 22.1 | 40.0 | 13.5 |
| 여 | 2.9 | 15.8 | 23.0 | 43.0 | 15.2 |
| 전체 평균 | 2.4 | 19.4 | 22.6 | 41.3 | 14.3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주민들의 그들 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만족 못함’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남성의 경우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이라는 답변 또한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전혀 만족 못함’ 또는 ‘만족 못함’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평균과의 비교를 보면, 남녀 모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만족 못함’의 경우 남성은 평균과 -1.3%, 여성은 +1.7%의 차이를 보였다. 남녀 차이가 가장 큰 폭을 보인 ‘어느 정도 만족’의 경우 평균과 남성은 +3.4%, 여성은 -3.6%의 차이를 보였다. 두 경우 모두 여성의 답변율이 남성보다 평균과 더 큰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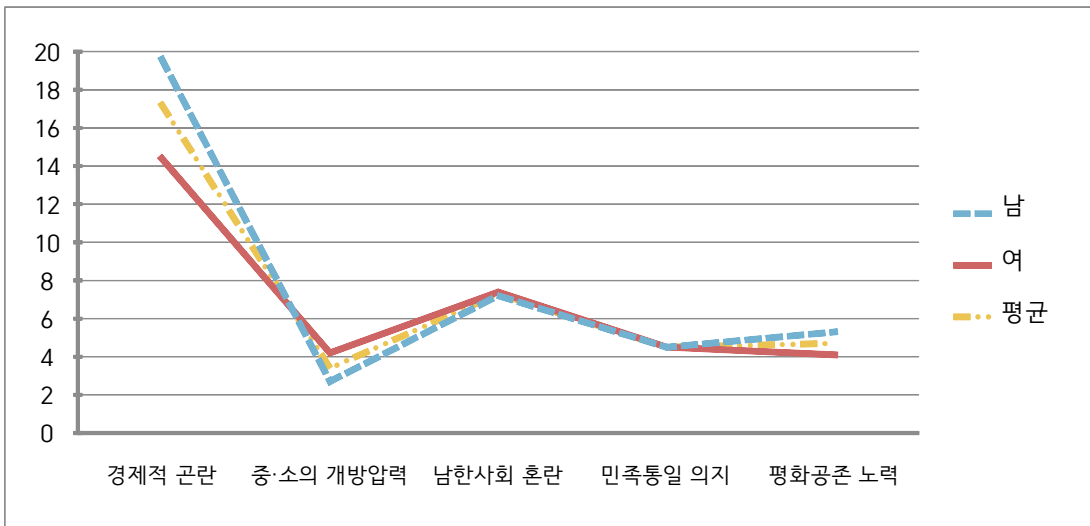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3 : “최근에 북한은 우리에게 남북한 단일팀 구성제의, 경제교류, 정주영씨 초청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10>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구분 | 성별 | 아주 그렇다 | 그런 편 | 그저 그렇 | 그렇지 않은 편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경제적 곤란 때문임 (X ² =15.8, P=0.0033) | 남 | 19.6 | 49.6 | 12.2 | 12.6 | 6.0 |
| | 여 | 14.4 | 46.3 | 18.7 | 15.7 | 4.9 |
| | 평균 | 17.2 | 48.0 | 15.2 | 14.1 | 5.4 |
| 중·소의 개방 압력 (X ² =3.0, P=0.5573) | 남 | 2.7 | 38.1 | 28.8 | 20.0 | 10.3 |
| | 여 | 4.2 | 36.8 | 30.2 | 20.4 | 8.5 |
| | 평균 | 3.4 | 37.4 | 29.4 | 20.1 | 9.4 |
| 남한사회 혼란의도 (X ² =26.8, P=0.0000) | 남 | 7.2 | 23.2 | 27.3 | 30.4 | 12.0 |
| | 여 | 7.4 | 33.5 | 30.1 | 21.9 | 7.1 |
| | 평균 | 7.3 | 27.8 | 26.3 | 26.3 | 9.8 |
| 민족통일의 의지 (X ² =0.6, P=0.9611) | 남 | 4.5 | 19.7 | 23.9 | 33.1 | 18.8 |
| | 여 | 4.5 | 21.5 | 23.6 | 31.8 | 18.5 |
| | 평균 | 4.5 | 20.6 | 23.7 | 32.4 | 18.6 |
| 평화공존의 노력 (X ² =1.1, P=0.8967) | 남 | 5.3 | 18.1 | 24.2 | 32.7 | 19.7 |
| | 여 | 4.1 | 18.4 | 25.1 | 33.5 | 18.9 |
| | 평균 | 4.7 | 18.2 | 24.6 | 33.0 | 19.3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 설문 문항 3에 대해 항목별 ‘아주 그렇다’를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최근 북한 변화의 움직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경제적 곤란’을 꼽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경제적 곤란’을 꼽았고, 여성의 경우 ‘중·소의 개방 압력’을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평화공존의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선택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평균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남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답변의 경우, ‘경제적 곤란’은 남성이 평균값과 +2.4%, 여성은 -2.8%의 차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과 다소 격차를 보였다. ‘중소의 개방 압력’이나 ‘평화공존의 노력’은 평균과 ±2%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4) 설문 문항 4 : “귀하께서는 현재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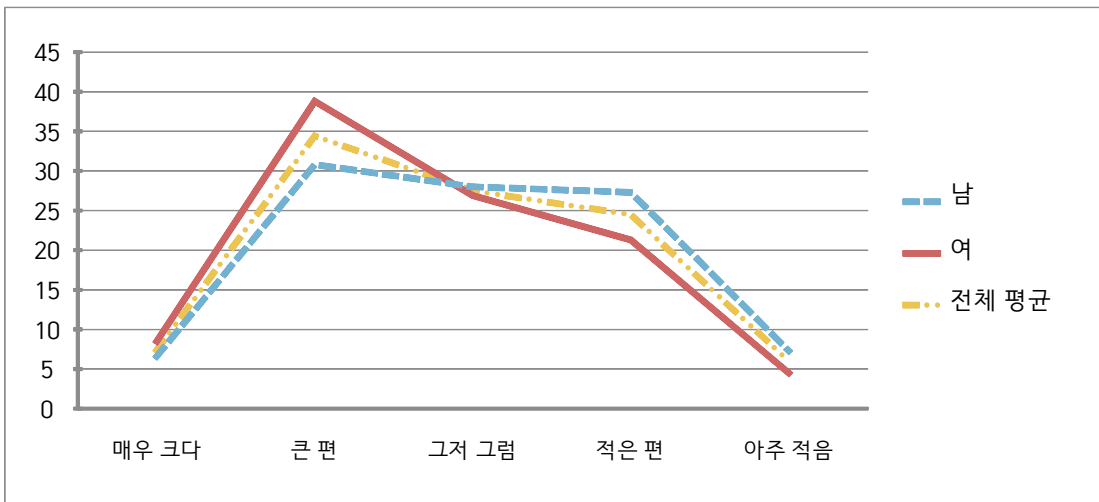
<표 3-11>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X²=15.5, P=0.0038)

| 구분 | 매우 크다 | 큰 편 | 그저 그렇 | 적은 편 | 아주 적음 |
|-------|-------|------|-------|------|-------|
| 남 | 6.6 | 30.8 | 28.0 | 27.3 | 7.3 |
| 여 | 8.5 | 38.8 | 26.9 | 21.3 | 4.5 |
| 전체 평균 | 7.4 | 34.4 | 27.5 | 24.5 | 6.0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가능성이 큰 쪽과 적은 쪽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률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가능성이 큰 쪽에 더 많이 답변하였다. 또한 남성은 가능성이 적은 편과 아주 적음에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평균값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크다’와 ‘큰 편’을 선택한 남성의 비율은 평균과 -4.4%, 여성은 +5.5%의 차이를 보였다. ‘적은 편’과 ‘아주 적음’은 남성이 +4.1%, 여성이 -4.7%로 평균과의 차이가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여성이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다. 동맹관

(1) 설문 문항 5 : “최근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미군의 우리나라 주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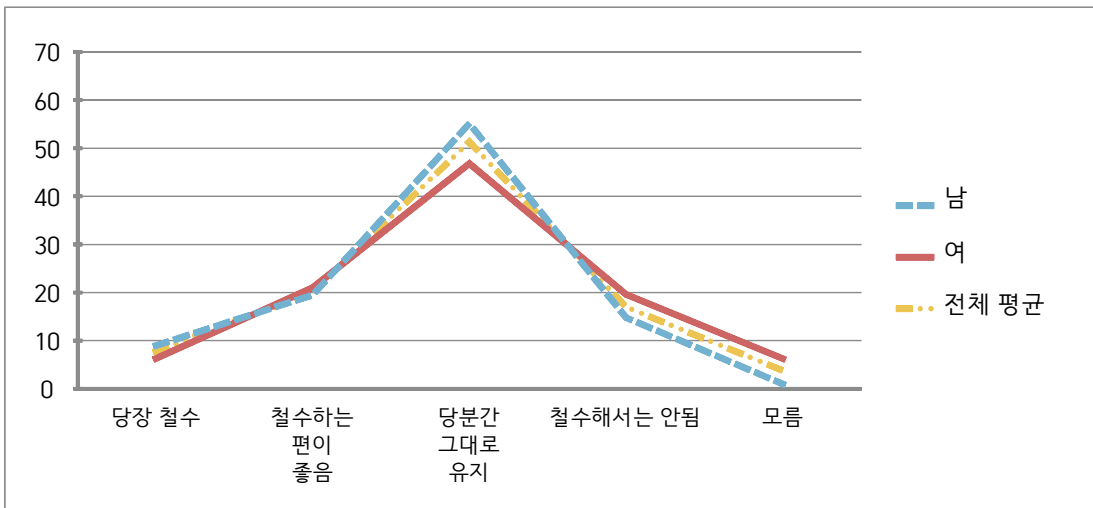
<표 3-12>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X²=29.2 P=0.0000)

| 구분 | 당장 철수 | 철수하는 편이 좋음 | 당분간 그대로 유지 | 철수해서는 안됨 | 모름 |
|-------|-------|------------|------------|----------|-----|
| 남 | 9.0 | 19.5 | 55.1 | 14.8 | 1.0 |
| 여 | 6.3 | 21.0 | 46.8 | 19.6 | 6.3 |
| 전체 평균 | 7.8 | 20.2 | 51.3 | 17.0 | 3.8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질문에 남성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선택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철수와 비철수에 대해 비슷한 비율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철수해서는 안 됨’과 ‘모름’의 경우 여성 답변자가 많이 선택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율을 보인 ‘당분간 그대로 유지’의 경우는 평균과의 격차가 남성은 +3.8, 여성은 -4.5로 여성이 평균값과 더 큰 격차를 보였다.

(2) 설문 문항 6 : “미군의 한국주둔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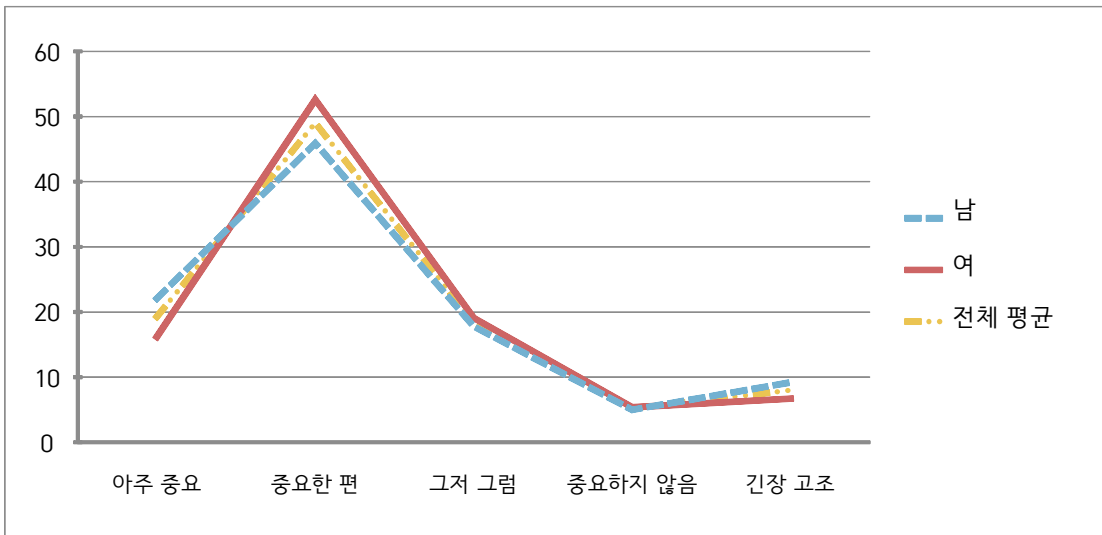
<표 3-13>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X²=10.8, P=0.0289)

| 구분 | 아주 중요 | 중요한 편 | 그저 그림 | 중요하지 않음 | 긴장 고조 |
|-------|-------|-------|-------|---------|-------|
| 남 | 22.1 | 45.9 | 17.8 | 5.0 | 9.2 |
| 여 | 16.2 | 52.6 | 19.1 | 5.4 | 6.7 |
| 전체 평균 | 19.3 | 49.0 | 18.4 | 5.2 | 8.0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 안보에 있어 미군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중요한 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아주 중요’라는 긍정적인 답변과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인 답변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저 그럼’이라는 답변은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1.3% 높았다. 남녀 답변율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편’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는 남성이 -3.1%, 여성이 +3.6%의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답변율과 평균값과의 격차가 남성보다 컸다.

(3) 설문 문항 7 :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귀하께서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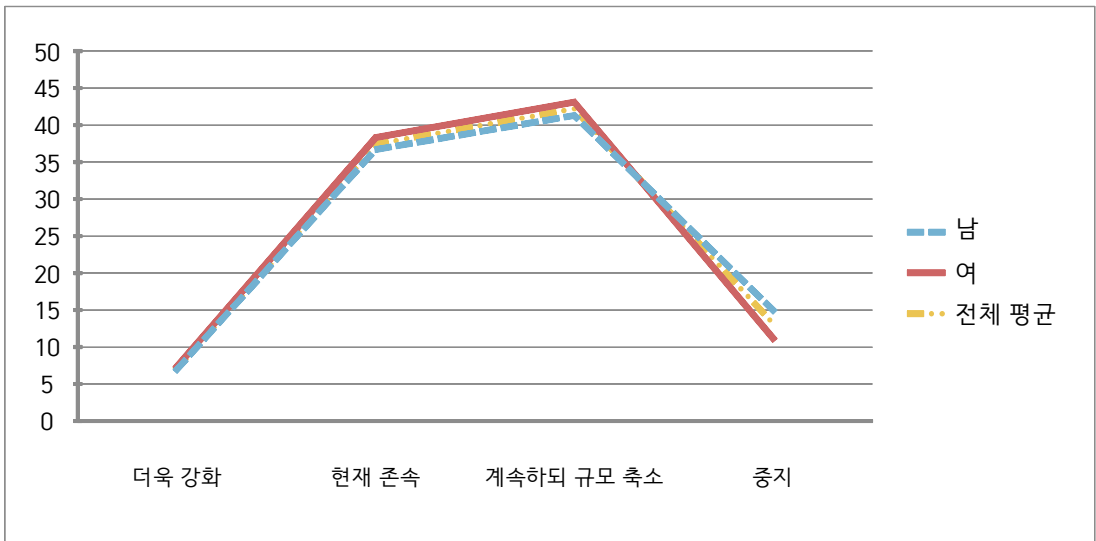
<표 3-14>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X²=3.7, P=0.2942)

| 구분 | 더욱 강화 | 현재 존속 | 계속하되 규모 축소 | 중지 |
|-------|-------|-------|------------|------|
| 남 | 7.0 | 36.7 | 41.3 | 15.0 |
| 여 | 7.4 | 38.3 | 43.1 | 11.2 |
| 전체 평균 | 7.2 | 37.4 | 42.2 | 13.2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계속하되 규모 축소’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대체로 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에는 여성이, 남성의 경우는 부정적인 답변에 응답률이 높았다. 평균과의 격차는 ‘현재 존속’과 ‘계속하되 규모 축소’의 경우 남성은 -1.6%, 여성은 +1.8%로 여성의 답변율이 평균과 0.2% 더 큰 격차를 보였다.

라. 국방관

(1) 설문 문항 8 : “귀하께서는 현재의 국방비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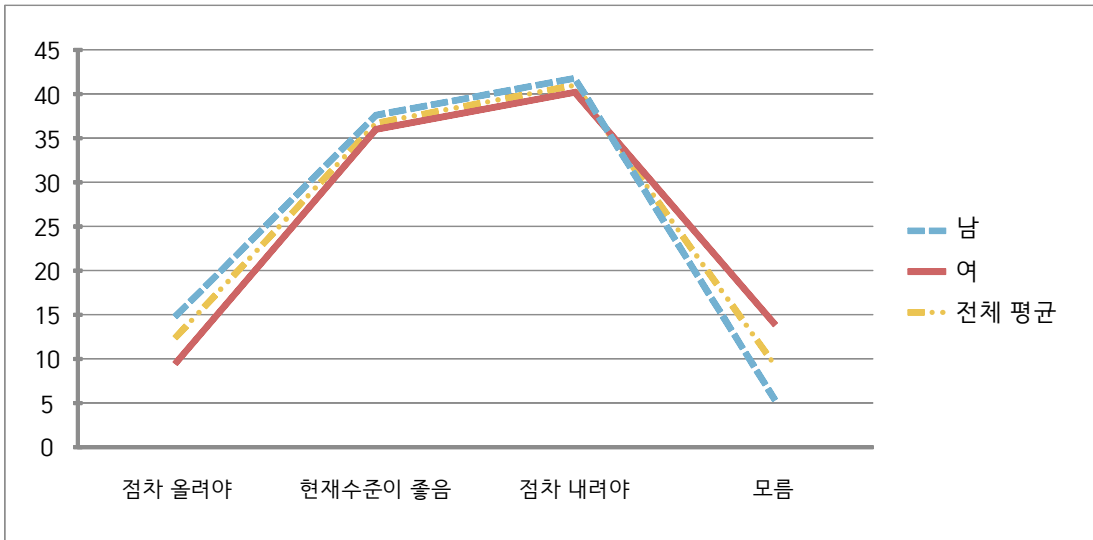
<표 3-15>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X²=29.1, P=0.0000)

| 구분 | 점차 올려야 | 현재수준이 좋음 | 점차 내려야 | 모름 |
|-------|--------|----------|--------|------|
| 남 | 15.0 | 37.6 | 41.8 | 5.6 |
| 여 | 9.7 | 36.0 | 40.2 | 14.1 |
| 전체 평균 | 12.6 | 36.7 | 41.0 | 9.5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현재의 국방비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점차 내려야’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점차 올려야’의 경우는 남성이, ‘모름’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현재 수준이

좋음'도 남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평균과의 격차를 보면 '점차 올려야'의 경우 남성은 +2.4%, 여성은 -2.9%, '모름'의 경우 남성은 -3.9%, 여성은 +4.6%의 격차를 보였으며 두 답변 모두 여성의 답변율이 평균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

(2) 설문 문항 9 : “귀하께서는 국방에 관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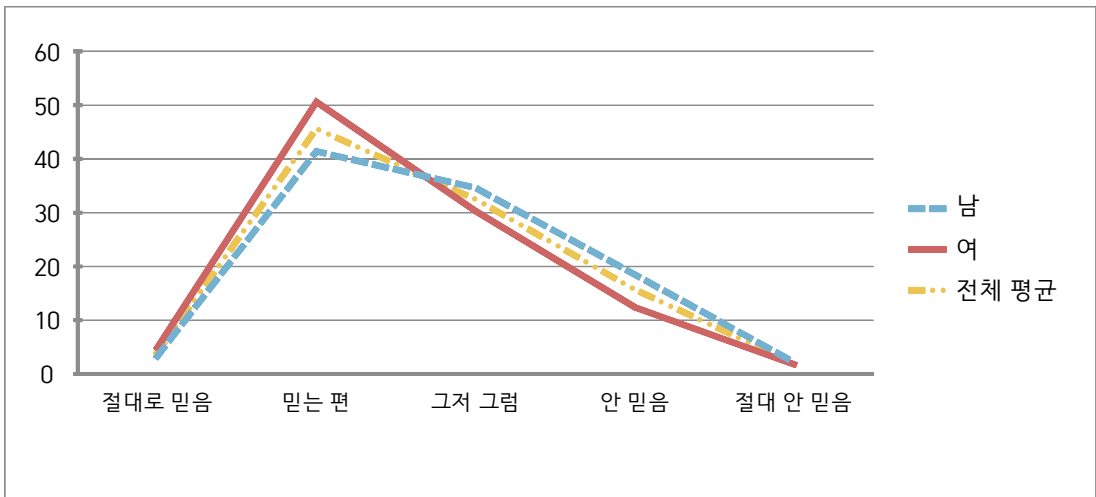
<표 3-16>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X²=16.4, P=0.0026)

| 구분 | 절대로 믿음 | 믿는 편 | 그저 그럼 | 안 믿음 | 절대 안 믿음 |
|-------|--------|------|-------|------|---------|
| 남 | 3.3 | 41.4 | 34.6 | 18.5 | 2.2 |
| 여 | 4.9 | 50.6 | 30.3 | 12.4 | 1.8 |
| 전체 평균 | 4.0 | 45.6 | 32.5 | 15.7 | 2.0 |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에 관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남성의 경우는 부정적인 답변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과반수가 '믿는 편'을 선택하였으며, '절대로 믿음'의 경우도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그저 그럼'이라는 답변은 남성이 많았다. 남녀 답변율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믿는 편'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는 남성은 -4.2%, 여성은 +5%의 차이를 보였

다. ‘그저 그럼’의 경우 남성의 답변율을 +2.8%, 여성은 -3.3%로 나타났고, 두 경우 모두 평균과의 격차는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문민정부(1995)

다음으로 문민정부 3년차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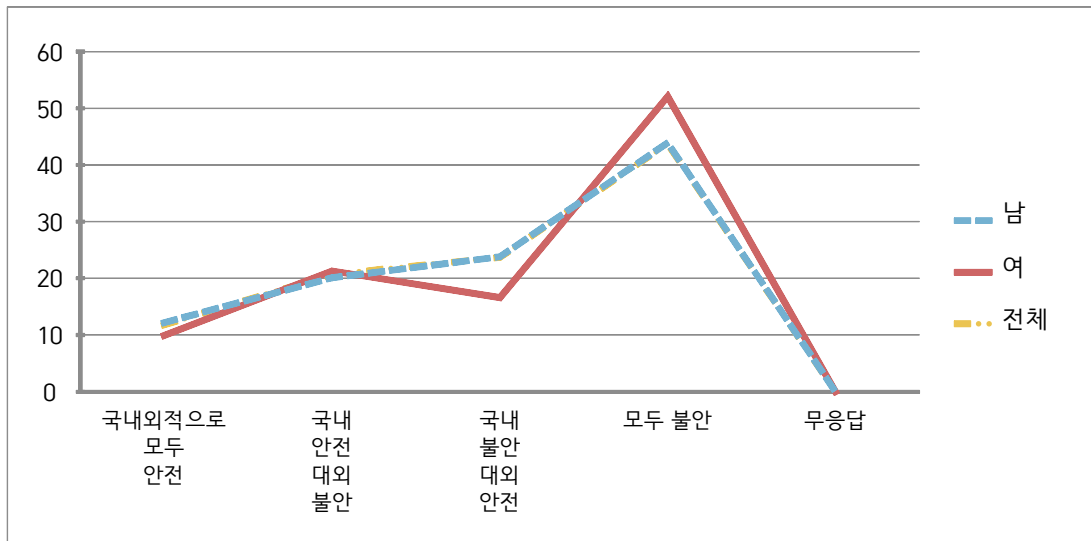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 :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표 3-17>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구분 | 국내외적으로 모두 안전 | 국내 안전, 대외 불안 | 국내 불안, 대외 안전 | 모두 불안 | 무응답 |
|-------|--------------|--------------|--------------|-------|-----|
| 남 | 12.2 | 20.1 | 23.8 | 43.9 | - |
| 여 | 9.9 | 21.3 | 16.6 | 52.1 | - |
| 전체 평균 | 11.8 | 20.7 | 23.7 | 43.7 | -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남녀 모두 국내·외적으로 ‘모두 불안’하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국내 안전, 대외 불안’이라는 답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국내 불안, 대

외 안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내외 모두 안전'하다는 답변은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국내 불안, 대외 안전'이나 '모두 불안'의 경우 각각 평균과의 격차는 남성이 +0.1, +0.2의 차이를, 여성은 -7.1, +8.4의 차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과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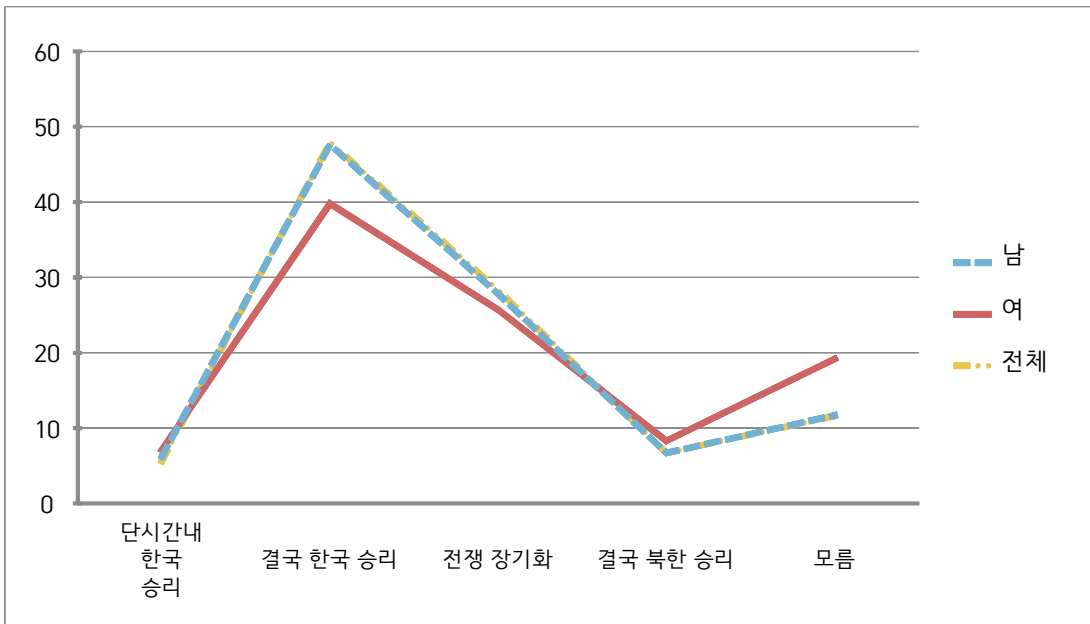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2 :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18>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구분 | 단시간 내 한국 승리 | 처음에는 어려우나 결국 한국 승리 | 전쟁의 장기간 지속화 | 어느 정도 방어하나 결국 북한 승리 | 모름 |
|-------|-------------|--------------------|-------------|---------------------|------|
| 남 | 6.2 | 47.6 | 27.8 | 6.7 | 11.7 |
| 여 | 7.1 | 39.8 | 25.7 | 8.3 | 19.2 |
| 전체 평균 | 5.6 | 47.9 | 28.3 | 6.7 | 11.6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1>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이 남침시 전쟁 결과를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처음에는 어려우나 결국 한국 승리’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히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방어하나 결국 북한 승리’에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모름’의 경우에도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처음에는 어려우나 결국 한국 승리’와 ‘모름’의 경우 평균값과의 차이는 남성은 $\pm 0.5\%$ 이하, 여성은 -8.1% , $+7.6\%$ 의 다소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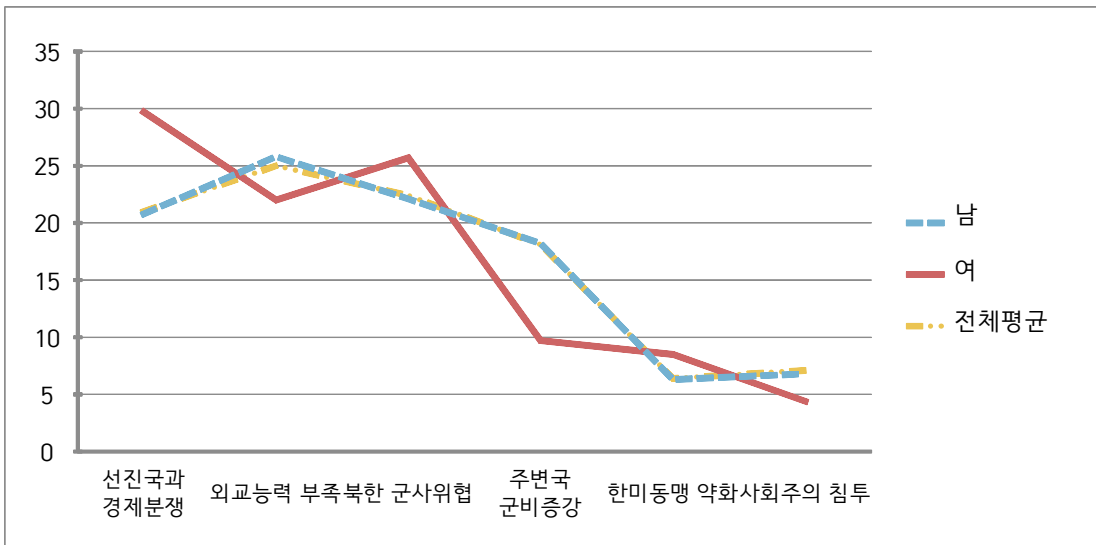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3 :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대외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19>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구분 |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제무역 분쟁 | 한국의 외교·대외 협상능력 부족 | 북한 군사위협 | 주변국의 군비증강 | 한미동맹, 외교관계 약화 |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 침투 |
|-------|--------------------|-------------------|---------|-----------|---------------|--------------------|
| 남 | 20.8 | 25.8 | 22.1 | 18.2 | 6.3 | 6.8 |
| 여 | 29.7 | 22.0 | 25.7 | 9.7 | 8.5 | 4.4 |
| 전체 평균 | 21.0 | 25.0 | 22.4 | 18.1 | 6.4 | 7.1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3-12>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대외적인 요인을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한국의 외교·대외 협상능력 부족’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여성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제무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북한 군사위협’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택하였고, ‘주변국의 군비증강’은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미동맹, 외교관계 약화’는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답변율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답변의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제무역 분쟁’은 남성이 -0.2%, 여성은 +8.7%, ‘주변국의 군비증강’의 경우 남성은 +0.1%, 여성은 -8.4%의 격차를 보였다. 두 경우 모두 여성의 답변율이 남성보다 평균과의 격차가 월등히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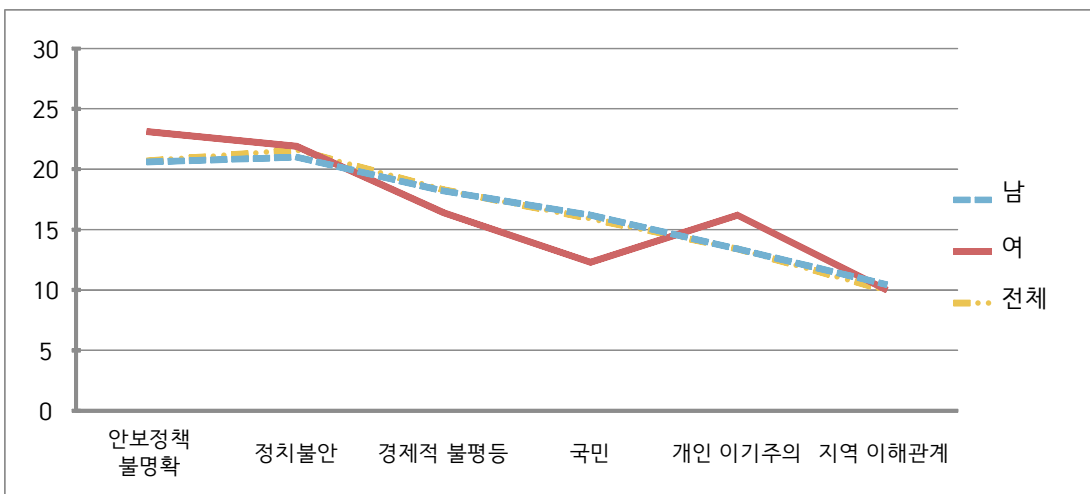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4 : “국내 불안요소 중 한국의 안전보장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20>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구분 |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 | 정치 불안 | 경제적 불평등 | 국민 안보의식 해이 | 개인 이기주의 | 지역 간 이해관계 |
|-------|---------------|-------|---------|------------|---------|-----------|
| 남 | 20.6 | 21.0 | 18.2 | 16.2 | 13.4 | 10.5 |
| 여 | 23.1 | 21.9 | 16.4 | 12.3 | 16.2 | 10.1 |
| 전체 평균 | 20.7 | 21.6 | 18.3 | 15.9 | 13.4 | 10.0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3>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 불안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정치 불안’을, 여성의 경우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 안보의식 해이’의 경우 남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개인 이기주의’의 경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답변율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국민 안보의식 해이’와 ‘개인 이기주의’의 경우 평균치와의 차이는 남성이 +0.3%, 0%, 여성은 -3.6%, +2.8%로 나타났고, 두 경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과의 격차가 더 컸다.

나. 북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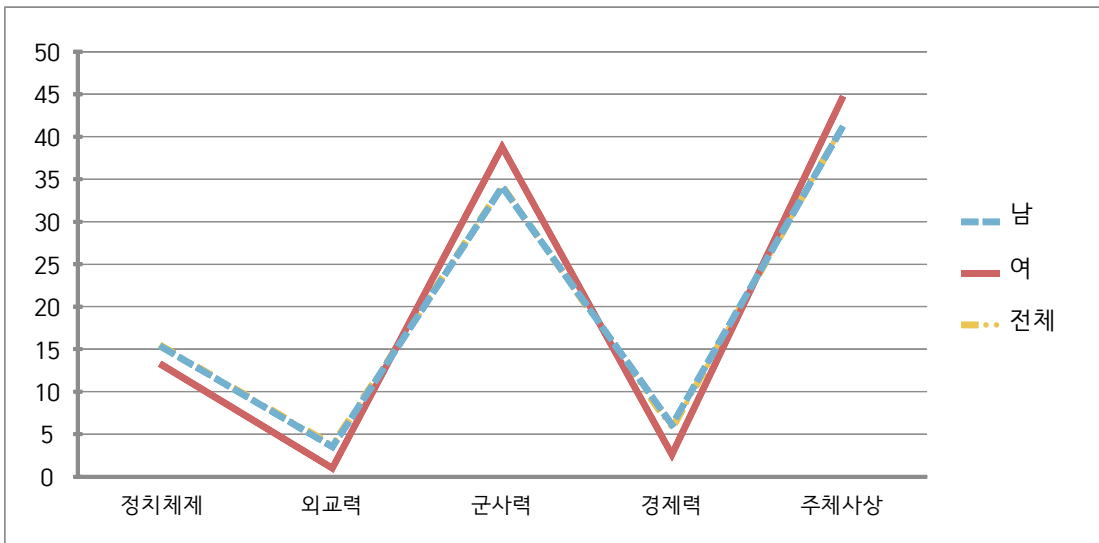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5 : “북한의 어느 측면이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21>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구분 | 정치체제 | 외교력 | 군사력 | 경제력 | 주체사상 |
|-------|------|-----|------|-----|------|
| 남 | 15.2 | 3.5 | 34.1 | 6.1 | 41.0 |
| 여 | 13.1 | 1.0 | 38.8 | 2.6 | 44.4 |
| 전체 평균 | 15.3 | 3.7 | 34.2 | 5.7 | 41.1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4>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측면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주체사상’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군사력’을 꼽았다. 특히 ‘주체사상’과 ‘군사력’은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정치체제’와 ‘경제력’, ‘외교력’의 경우는 남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전체 답변이 ±0.5%의 범위 내에서 평균값과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적게는 -2.2%, 많게는 +4.6%의 차이를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과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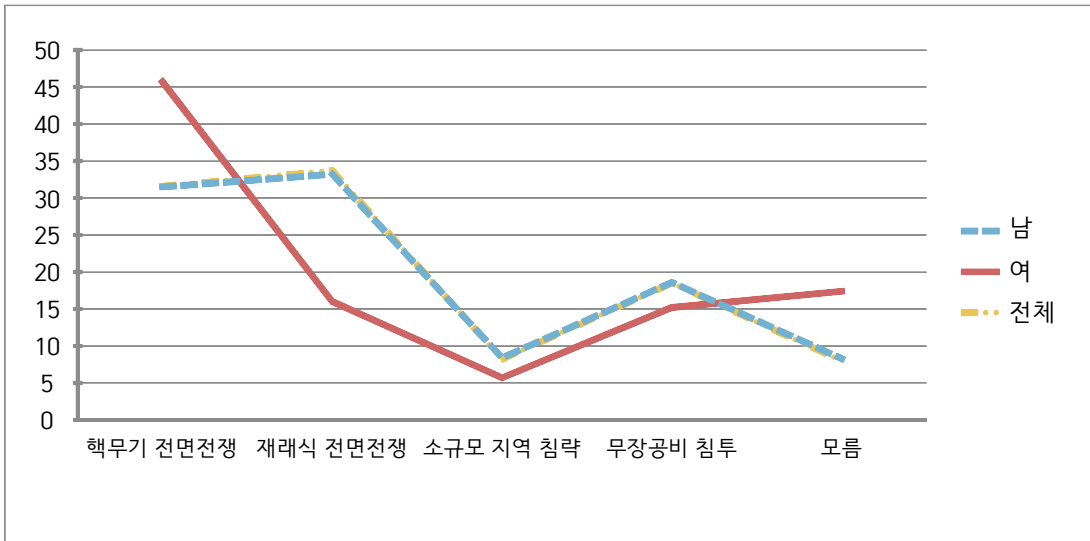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6 : “북한이 남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22>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구분 | 핵무기 전면전쟁 | 재래식 전면전쟁 | 소규모 지역 침략 | 무장공비 침투 | 모름 |
|-------|----------|----------|-----------|---------|------|
| 남 | 31.5 | 33.2 | 8.4 | 18.6 | 8.3 |
| 여 | 45.7 | 16.0 | 5.7 | 15.2 | 17.4 |
| 전체 평균 | 31.6 | 33.7 | 8.2 | 18.5 | 8.0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5>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남침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는 ‘재래식 전면전쟁’을, 여성은 ‘핵무기 전면전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규모 지역 침략’과 ‘무장공비 침투’의 경우,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고, ‘모름’은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평균값과의 격차를 보면, 남성은 전체 답변이 평균값과 ±0.5%의 격차를, 여성은 적게는 -2.7%, 많게는 -17.7%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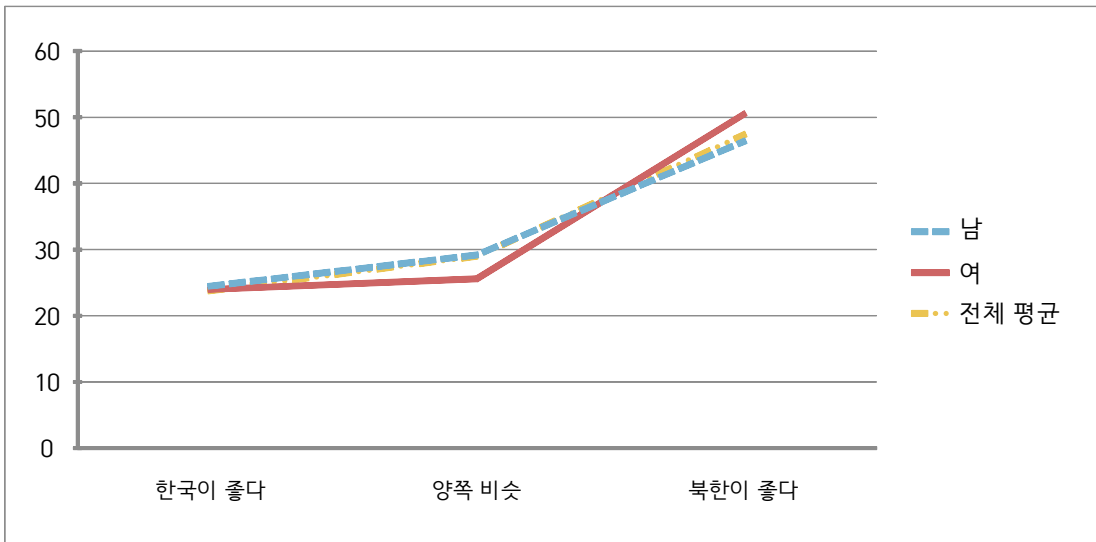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7 : “국군과 북한군을 비교하였을 때 무기, 장비 분야는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23>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구분 | 한국이 좋다 | 양쪽 비슷 | 북한이 좋다 |
|-------|--------|-------|--------|
| 남 | 24.5 | 29.2 | 46.3 |
| 여 | 24.0 | 25.6 | 50.4 |
| 전체 평균 | 23.8 | 29.0 | 47.3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6>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무기·장비 면에서 남북한 비교시 우세한 쪽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좋다’는 응답은 여성이 많았고, ‘양쪽 비슷’의 경우 남성이 많았다. ‘한국이 좋다’는 남녀 모두 가장 낮

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가 의견차를 크게 보인 ‘양쪽 비슷’과 ‘북한이 좋다’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가 +0.2%, -1.0%, 여성의 경우 -3.4%, +3.1%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과 더 큰 격차를 보였다.

다. 동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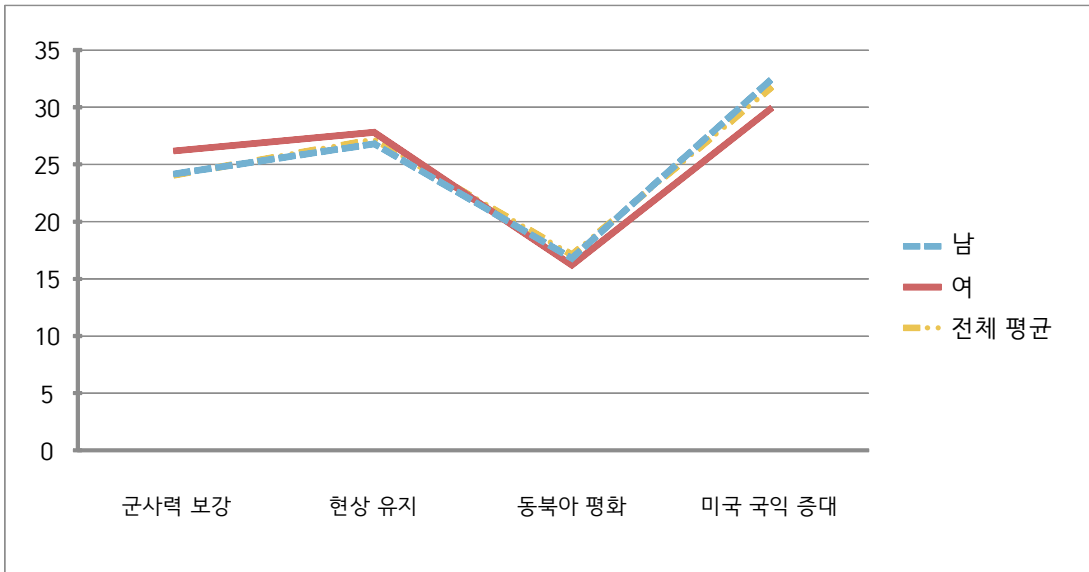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8 :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24>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구분 | 한국군 군사력 보강, 전쟁 방지 | 한반도 군사적 현상 유지 | 동북아 평화와 안전 증진 | 미국의 국가이익 증대 |
|-------|-------------------|---------------|---------------|-------------|
| 남 | 24.2 | 26.8 | 16.8 | 32.3 |
| 여 | 26.2 | 27.8 | 16.2 | 29.8 |
| 전체 평균 | 24.1 | 27.2 | 17.1 | 31.6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7>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미국의 국가이익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한반도 군사적 현상 유지’가 많이 선택되었는

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한국군 군사력 보강, 전쟁방지’라는 답변은 세 번째로 많이 꼽혔으며,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남녀 답변율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한국군 군사력 보강, 전쟁방지’와 ‘미국의 국가이익 증대’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를 보면 남성은 각각 +0.1%, +0.7%, 여성은 +2.1%, -1.8%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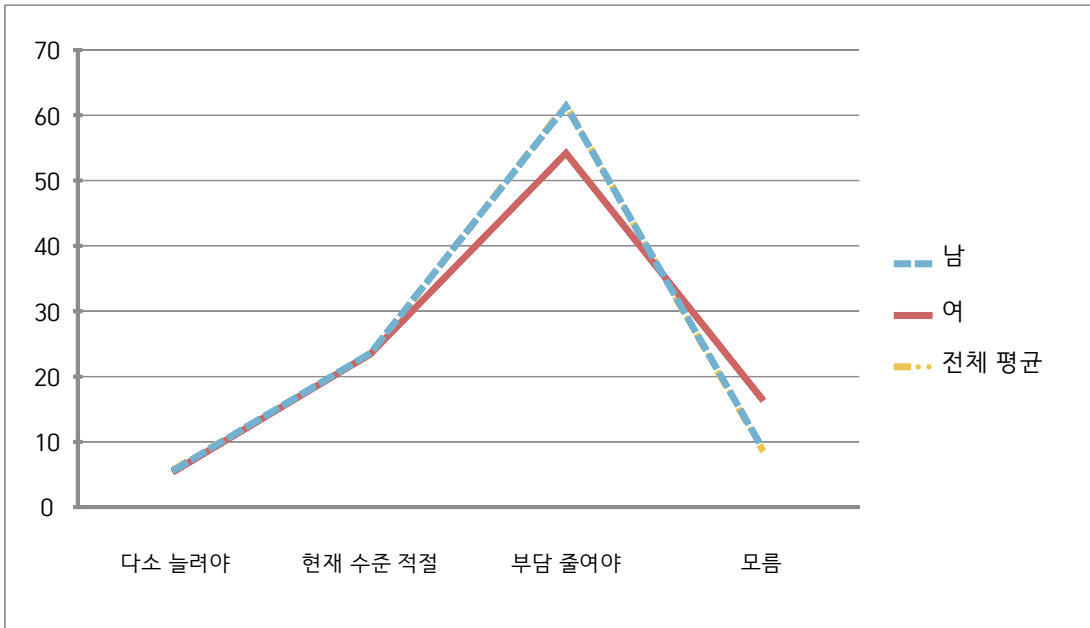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9 : “미국은 주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유지비의 한국 분담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25>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구분 | 주한미군이 안보에 중요하니 다소 늘려도 무방 | 현재 수준 적절 | 현재 부담 줄여야 함 | 모름 |
|-------|--------------------------|----------|-------------|------|
| 남 | 5.8 | 23.6 | 61.4 | 9.3 |
| 여 | 5.6 | 23.5 | 54.2 | 16.7 |
| 전체 평균 | 5.9 | 23.4 | 61.6 | 9.0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8>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유지비의 한국 부담에 대해 남녀 모두 ‘줄여야 함’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현재 수준 적절’과 ‘늘려도 무방’의 경우, 남녀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모름’의 경우는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의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현재 부담 줄여야 함’의 경우 남성은 평균과의 격차가 -0.2%, 여성은 -7.4%로 여성의 경우 평균과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국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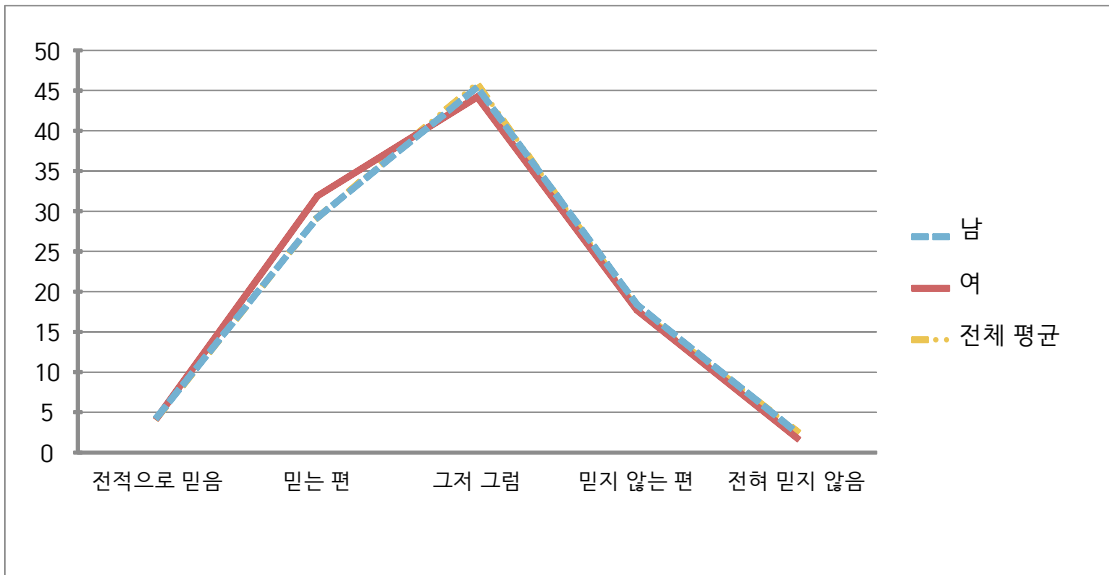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0 :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표 3-26>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구분 | 전적으로 믿음 | 믿는 편 | 그저 그럼 | 믿지 않는 편 | 전혀 믿지 않음 |
|-------|---------|------|-------|---------|----------|
| 남 | 4.5 | 29.2 | 45.4 | 18.4 | 2.5 |
| 여 | 4.4 | 31.9 | 44.2 | 17.7 | 1.8 |
| 전체 평균 | 4.4 | 29.2 | 45.9 | 17.8 | 2.7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9>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부 공식 발표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그저 그럼’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 순위로 ‘믿는 편’이 많이 선택되었는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저

그림'을 제외하고 '믿는다'는 답변이 '믿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0.6%의 격차를, 여성은 적게는 0%에서 크게는 +2.7%의 격차를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과 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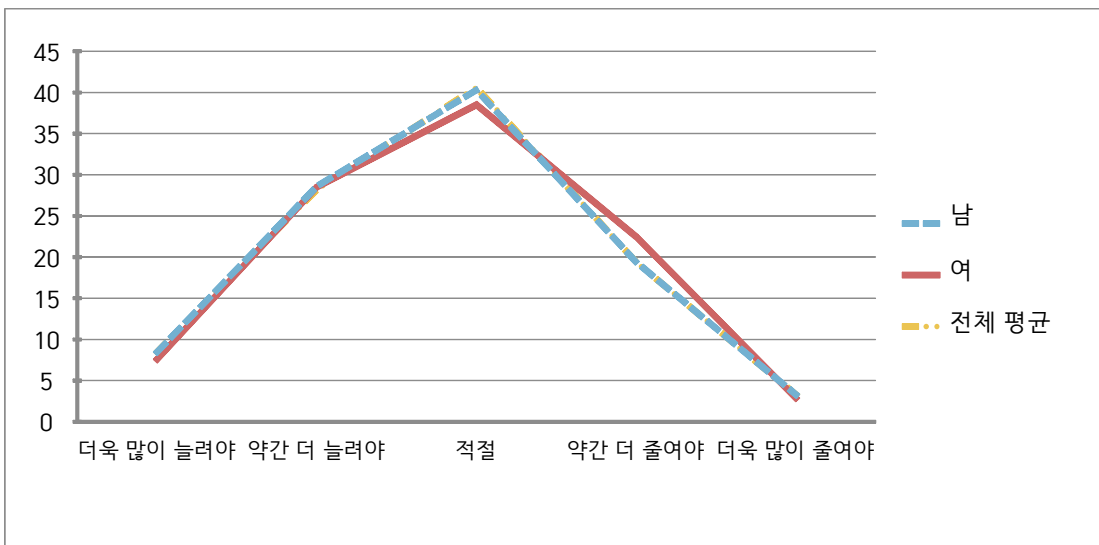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1 : “현재 국방비를 92년부터 95년까지 전체 GNP에서 평균 3.3%를 지출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국방비 지출을 정부예산대비 30%선에서 22.2%로 감축하려는데 더 감축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합니까?”

<표 3-27>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구분 | 더욱 많이 늘려야 | 약간 더 늘려야 | 적절 | 약간 더 줄여야 | 더욱 많이 줄여야 |
|-------|-----------|----------|------|----------|-----------|
| 남 | 8.5 | 28.6 | 40.3 | 19.4 | 3.3 |
| 여 | 7.6 | 28.5 | 38.5 | 22.5 | 2.9 |
| 전체 평균 | 8.5 | 28.2 | 40.6 | 19.4 | 3.3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0>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감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적절'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약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 응답률이 높았고, 전반

적으로 남녀 모두 ‘줄여야’ 보다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pm 0.4\%$ 의 격차를, 여성은 적게는 $+0.3\%$ 에서 크게는 $+3.1\%$ 의 격차를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과 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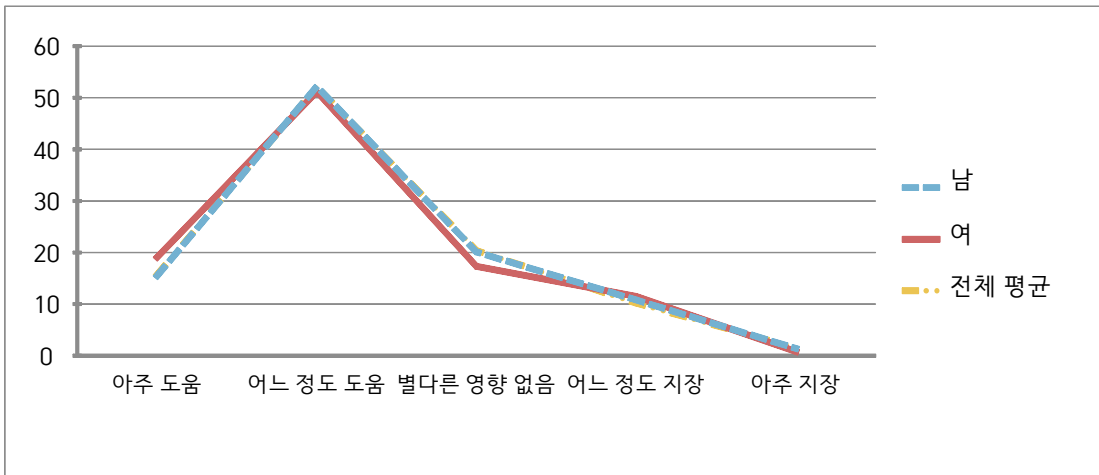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2 :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28>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구분 | 아주 도움 | 어느 정도 도움 | 별다른 영향 없음 | 어느 정도 지장 | 아주 지장 |
|-------|-------|----------|-----------|----------|-------|
| 남 | 15.5 | 52.2 | 20.1 | 10.8 | 1.4 |
| 여 | 19.1 | 51.2 | 17.3 | 11.5 | 0.8 |
| 전체 평균 | 15.7 | 52.1 | 20.4 | 10.2 | 1.5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1>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5.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을 과반수 이상이 선택하였다. 특히 ‘아주 도움’은 여성이, ‘별다른 영향 없음’은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pm 0.6\%$ 의 격차를, 여성은 적게는 -0.7% 에서 크게는 $+3.4\%$ 의 격차를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과 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의 정부(1999)

다음으로 국민의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1999년도 조사 결과에는 전체 평균값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남녀 답변율만 제시하였다.

가. 안보관

(1) 설문 문항 1 :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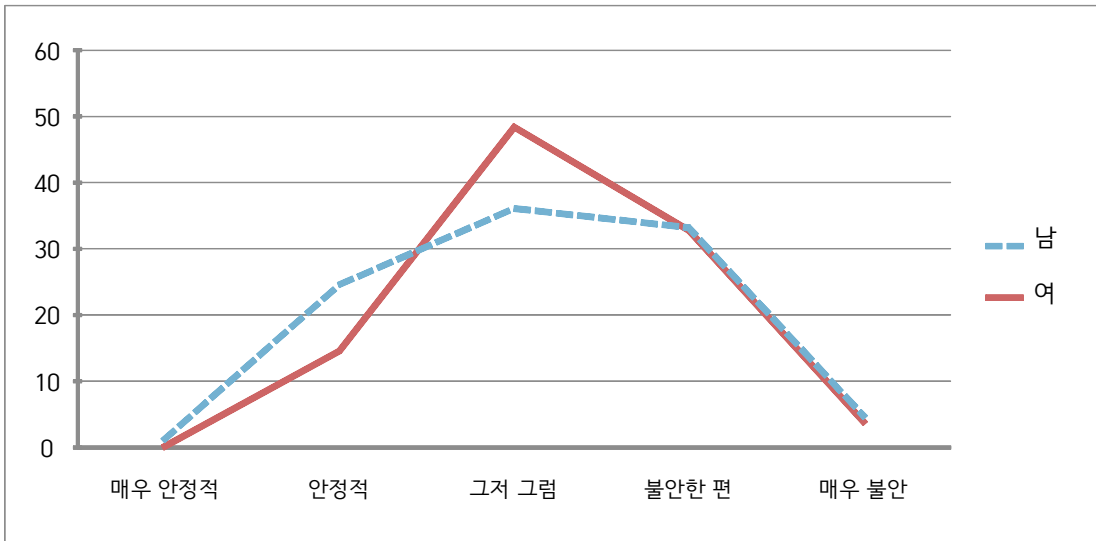
<표 3-29>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X²=29.91, P=0.000)

| 구분 | 매우 안정적 | 안정적 | 그저 그럼 | 불안한 편 | 매우 불안 |
|----|--------|------|-------|-------|-------|
| 남 | 1.3 | 24.6 | 36.1 | 33.2 | 4.8 |
| 여 | 0.2 | 14.6 | 48.4 | 32.8 | 3.9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2>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남녀 모두 ‘불안’ 쪽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저 그럼’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거의 50%를 나타냈고, ‘안정적’이라는 답변은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매우 안정적’은 남녀 모두 1%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설문 문항 2 : “다음 항목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의 상황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중에서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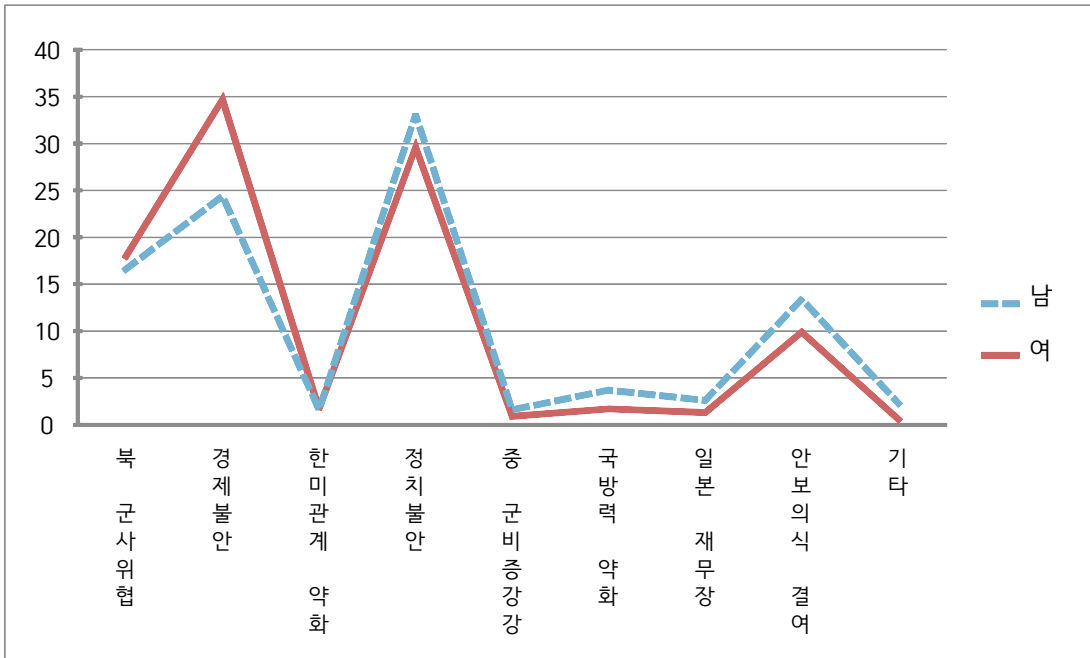
<표 3-30>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X²=28.13, P=0.000)

| 구분 | 북한 군사위협 | 국내 경제 불안 | 한미관계 약화 | 국내 정치 불안 | 중국 군비증강 | 국방력 약화 | 일본 재무장 | 안보의식 결여 | 기타 |
|----|---------|----------|---------|----------|---------|--------|--------|---------|-----|
| 남 | 16.6 | 24.4 | 1.6 | 33.1 | 1.6 | 3.7 | 2.6 | 13.4 | 2.3 |
| 여 | 18.0 | 34.7 | 1.7 | 29.6 | 0.9 | 1.7 | 1.3 | 9.9 | 0.6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3>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가안보 위협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국내 정치 불안’을, 여성의 경우 ‘국내 경제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북한 군사위협’은 여성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안보의식 결여’는 남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 설문 문항 3 :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전보다 해이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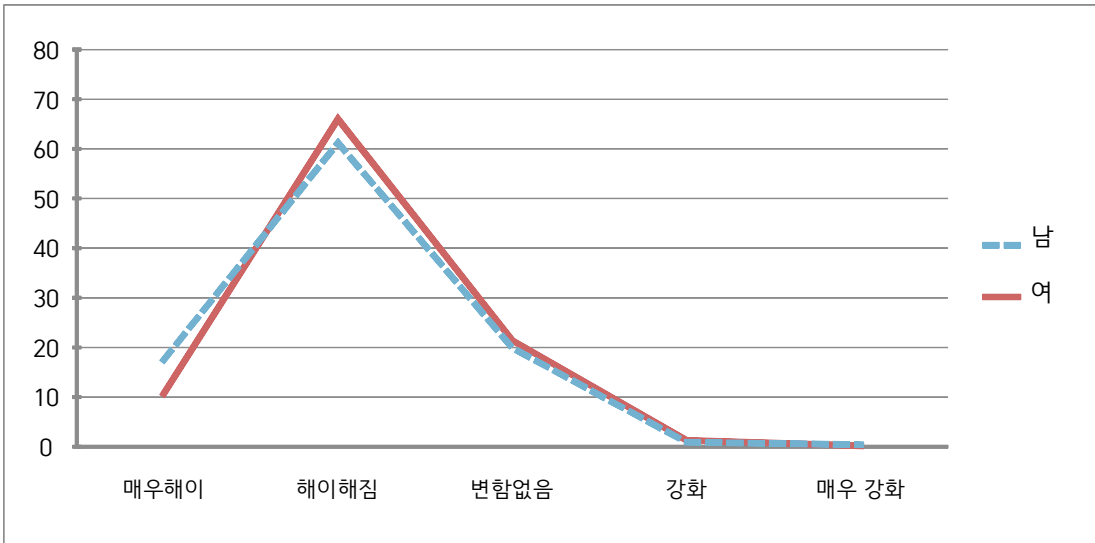
<표 3-31>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X²=11.79, P=0.037)

| 구분 | 매우해이 | 해이해짐 | 변함없음 | 강화 | 매우 강화 |
|----|------|------|------|-----|-------|
| 남 | 17.5 | 61.2 | 19.9 | 0.9 | 0.4 |
| 여 | 10.7 | 66.0 | 21.4 | 1.3 | 0.2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4>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민 안보의식에 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해이해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매우 해이’의 경우 남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변함없음’의 경우는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남녀 모두 ‘강화’라는 답변은 많이 선택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나. 북한관

(1) 설문 문항 4 : “만약 북한이 잠수함의 남파나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력시위, 무력도발 등의 소규모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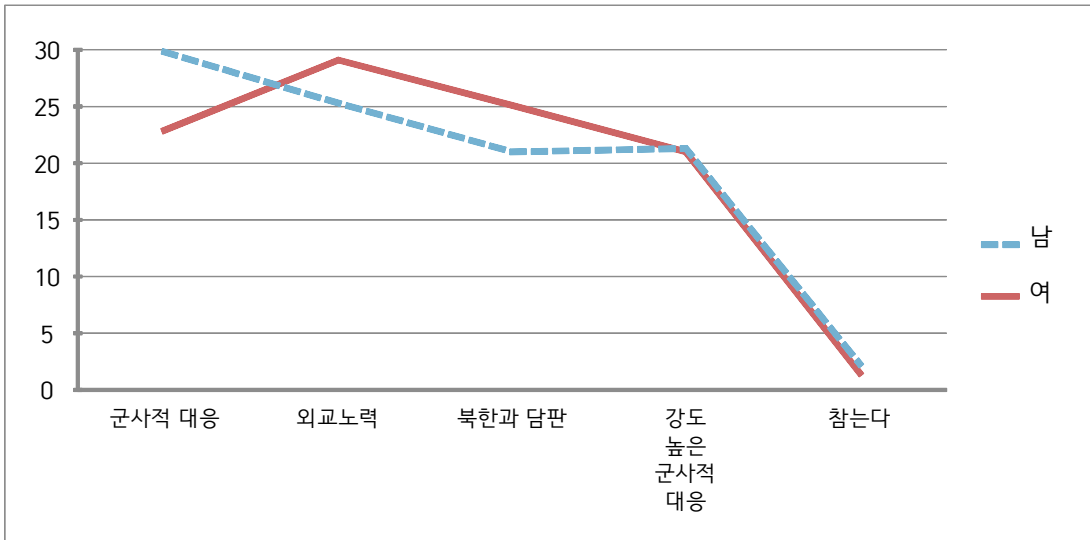
<표 3-32>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X²=9.56, P=0.088)

| 구분 | 상응하는 수준의 군사적 대응 | 외교노력을 통해 사과 언어야 | 북한과 담판을 통한 사과 언어야 | 북한보다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 | 참는다 |
|----|-----------------|-----------------|-------------------|-------------------|-----|
| 남 | 29.8 | 25.3 | 21.0 | 21.3 | 2.3 |
| 여 | 22.9 | 29.1 | 25.1 | 21.0 | 1.5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5>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소규모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여성의 경우 ‘외교적 노력을 통한 사과’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북한과 담판을 통한 사과’는 여성 응답률이,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은 남성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 (2) 설문 문항 5 : “주한 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이 북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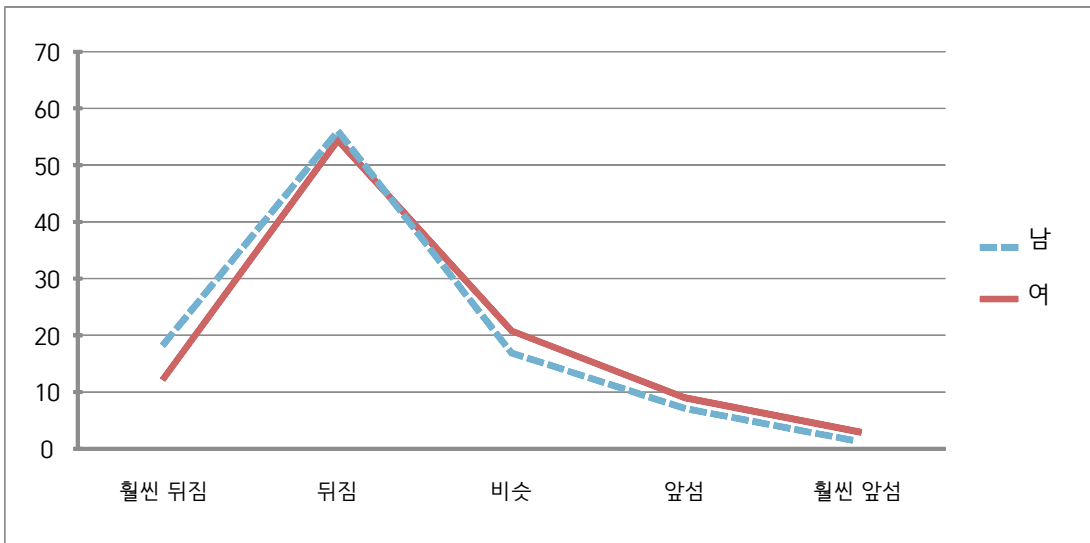
<표 3-33>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X²=14.16, P=0.014)

| 구분 | 훨씬 뒤짐 | 뒤짐 | 비슷 | 앞섬 | 훨씬 앞섬 |
|----|-------|------|------|-----|-------|
| 남 | 18.6 | 56.0 | 16.9 | 7.1 | 1.3 |
| 여 | 12.6 | 54.4 | 20.8 | 9.0 | 3.0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6>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한국이 북한보다 ‘뒤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훨씬 뒤짐’의 경우 남성의 응답률이, ‘앞섬’과 ‘훨씬 앞섬’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비슷’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조사결과는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남녀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다. 동맹관

(1) 설문 문항 6 : “귀하께서는 주한 미군의 주둔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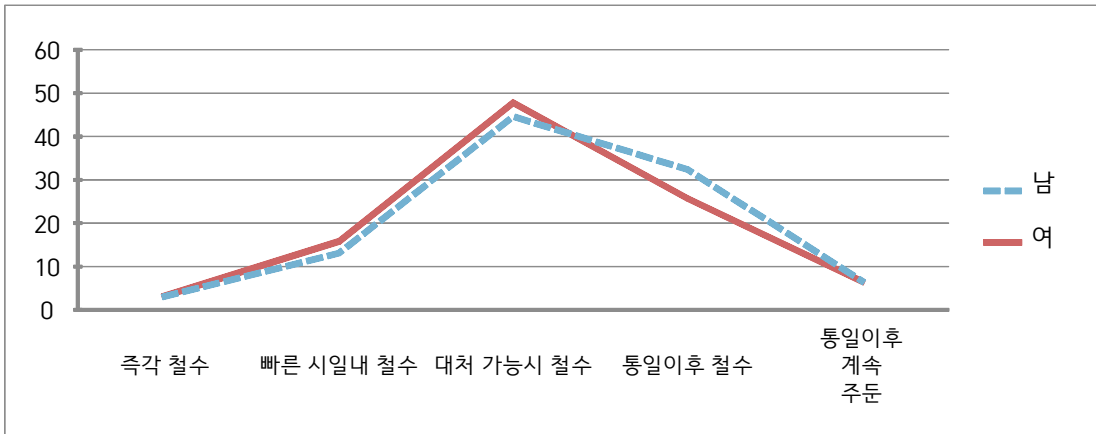
<표 3-34>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X²=9.72, P=0.083)

| 구분 | 즉각 철회 | 빠른 시일 내 철회 | 대처 가능시 철회 | 통일 이후 철회 | 통일 이후 계속 주둔 |
|----|-------|------------|-----------|----------|-------------|
| 남 | 3.1 | 13.1 | 44.6 | 32.4 | 6.7 |
| 여 | 3.2 | 15.8 | 47.8 | 25.7 | 6.6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7>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 미군의 주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대처 가능시 철회’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특히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통일 이후 철회’의 경우는 남성 응답자가 더 많았고, ‘빠른 시일 내 철회’는 여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철회’를, 남성의 경우는 ‘계속 주둔’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설문 문항 7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시도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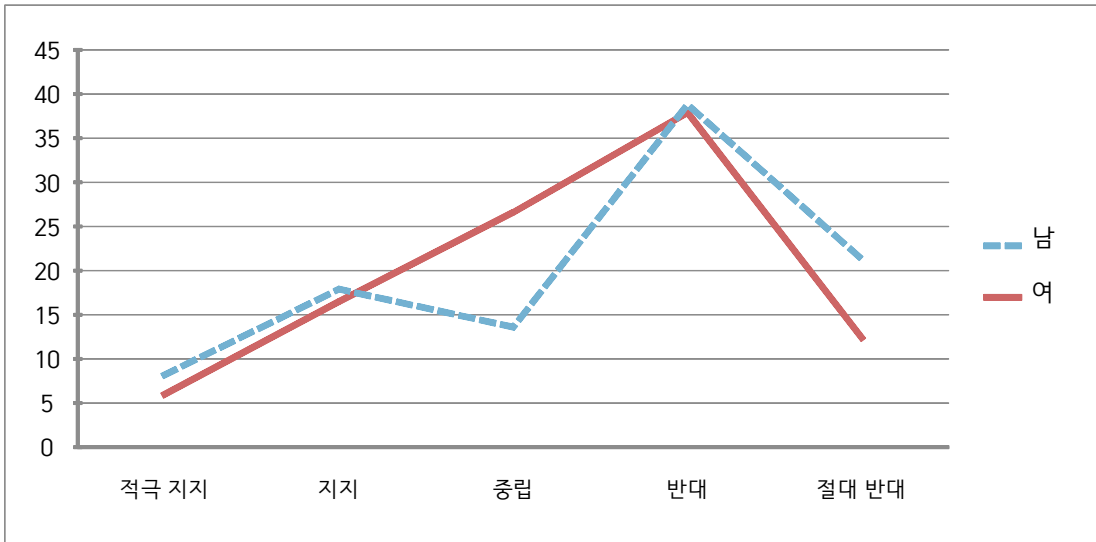
<표 3-35>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X²=45.05, P=0.000)

| 구분 | 적극 지지 | 지지 | 중립 | 반대 | 절대 반대 |
|----|-------|------|------|------|-------|
| 남 | 8.2 | 17.9 | 13.6 | 38.8 | 21.3 |
| 여 | 6.0 | 16.5 | 26.6 | 37.9 | 12.4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8>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미국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반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남성의 경우 '적극 지지'와 '지지'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립'의 경우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절대 반대'의 경우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라. 국방관

- (1) 설문 문항 8 : “올해 GNP(추계치)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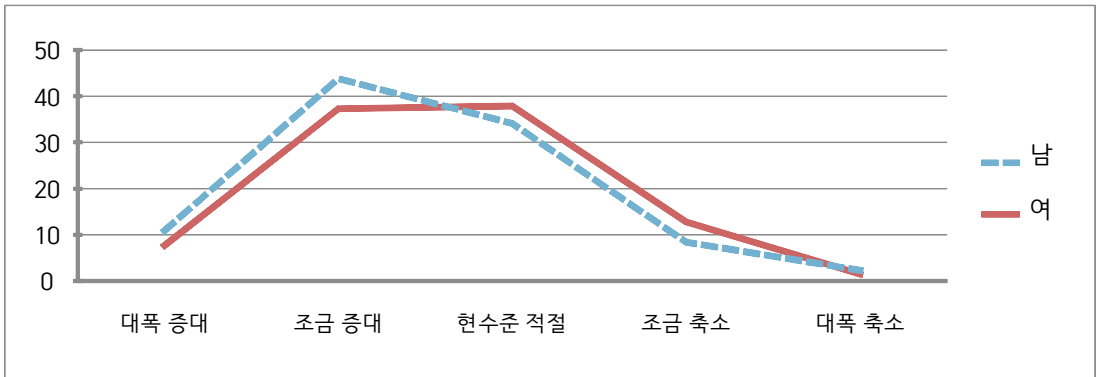
<표 3-36>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X²=25.50 P=0.000)

| 구분 | 대폭 증대 | 조금 증대 | 현 수준 적절 | 조금 축소 | 대폭 축소 |
|----|-------|-------|---------|-------|-------|
| 남 | 10.9 | 43.8 | 34.1 | 8.4 | 2.3 |
| 여 | 7.7 | 37.3 | 37.9 | 12.8 | 1.5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29>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는 ‘조금 증대’를 여성의 경우는 ‘현 수준 적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증대’하는 쪽에, 여성은 ‘축소’하는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설문 문항 9 : “군복무 경험이 제대 후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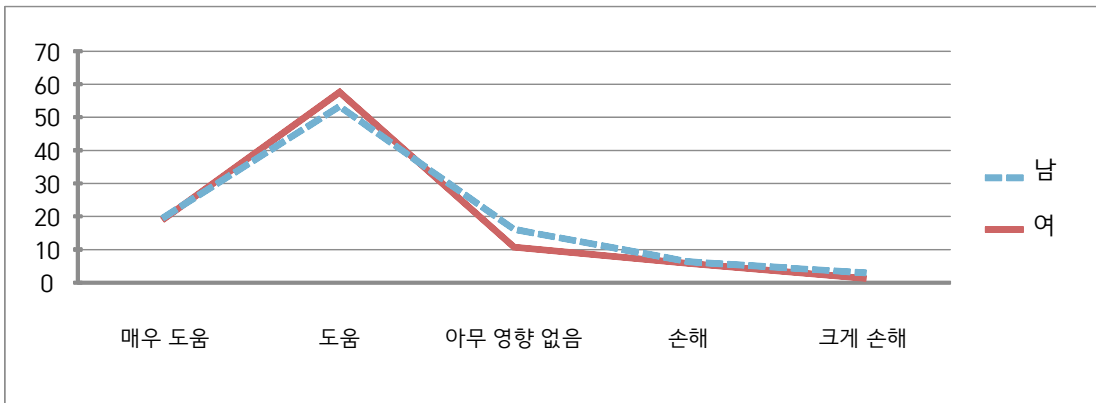
<표 3-37>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X^2=23.74$, $P=0.000$)

| 구분 | 매우 도움 | 도움 | 아무 영향 없음 | 손해 | 크게 손해 |
|----|-------|------|----------|-----|-------|
| 남 | 20.0 | 53.3 | 16.1 | 6.3 | 3.0 |
| 여 | 19.5 | 57.6 | 10.7 | 5.8 | 1.3 |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0>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답변하였고, ‘아무 영향이 없음’과 ‘크게 손해’는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비중이 높았다.

(3) 설문 문항 10 : “군이 과거에 문맹퇴치, 기술교육 등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분야에서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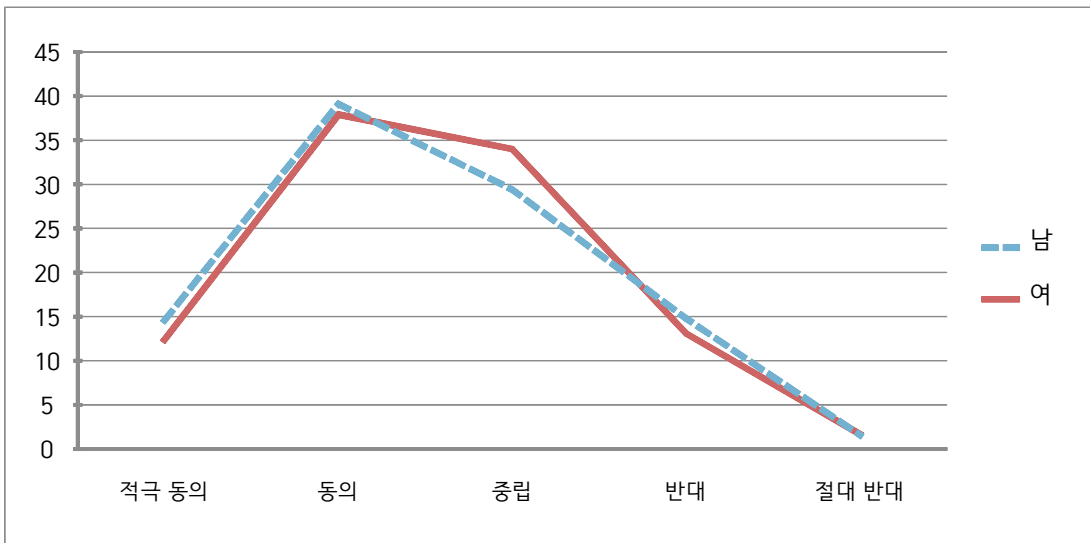
<표 3-38>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X²=3.99, P=0.549)

| 구분 | 적극 동의 | 동의 | 중립 | 반대 | 절대 반대 |
|----|-------|------|------|------|-------|
| 남 | 14.6 | 39.1 | 29.4 | 14.8 | 1.6 |
| 여 | 12.4 | 37.9 | 34.0 | 13.1 | 1.7 |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1>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199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군이 과거처럼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남성의 남녀 모두 ‘동의’가 가장 많았고, ‘중립’은 여성 응답률이 많았다. ‘반대’는 남성 응답률이 높았다.

4. 참여 정부(2004)

가. 안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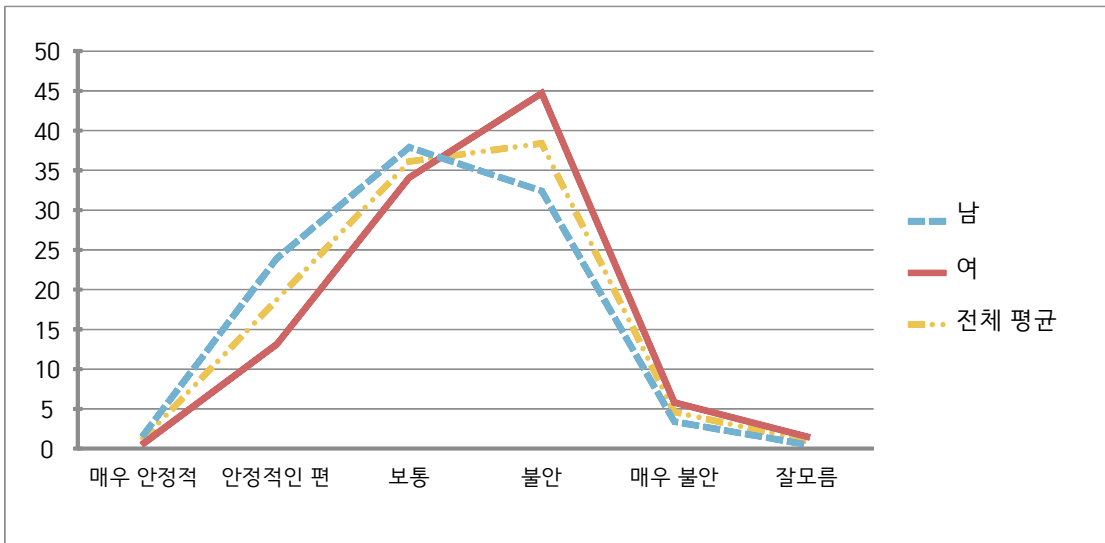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 :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39>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안정적 | 안정적인 편 | 보통 | 불안 | 매우 불안 | 잘 모름 |
|-------|--------|--------|------|------|-------|------|
| 남 | 1.8 | 23.9 | 37.9 | 32.4 | 3.4 | 0.5 |
| 여 | 0.7 | 13.1 | 34.1 | 44.7 | 5.8 | 1.5 |
| 전체 평균 | 1.3 | 18.7 | 36.1 | 38.4 | 4.6 | 1.0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2>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는 ‘보통’을, 여성의 경우는 ‘불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안정적인 편’과 ‘불안’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각각 +5.2%, -6%, 여성은 각각 -5.6%, +6.3%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값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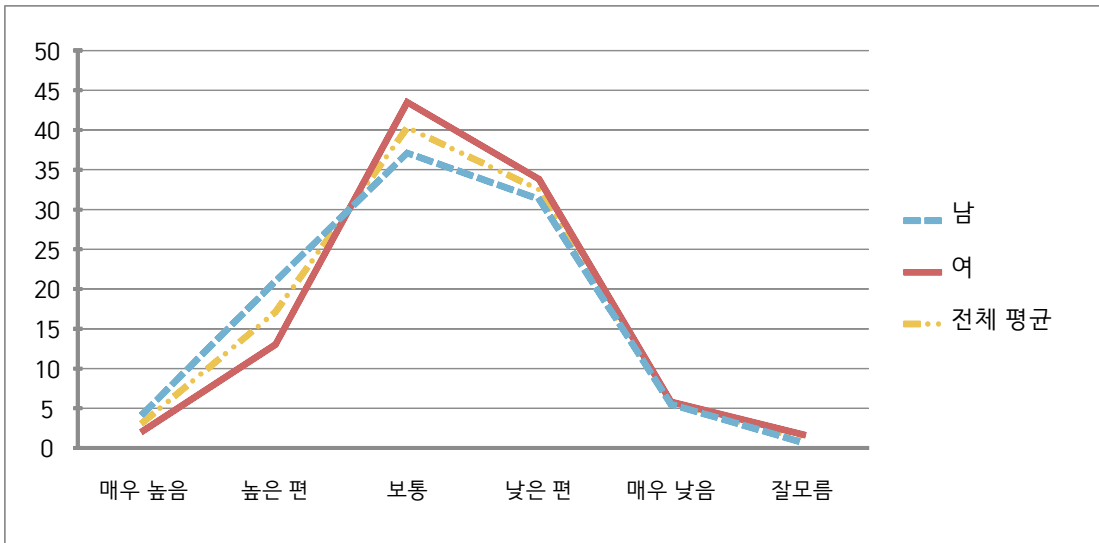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2 :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표 3-40>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높음 | 높은 편 | 보통 | 낮은 편 | 매우 낮음 | 잘 모름 |
|-------|-------|------|------|------|-------|------|
| 남 | 4.4 | 21.0 | 37.1 | 31.3 | 5.5 | 0.7 |
| 여 | 2.2 | 13.0 | 43.5 | 33.8 | 5.8 | 1.7 |
| 전체 평균 | 3.3 | 17.1 | 40.3 | 32.5 | 5.7 | 1.2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3>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높은 편’에, 여성의 경우는 ‘낮은 편’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보통’이라는 답변과 ‘잘 모름’이라는 답변에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높은 편’과 ‘보통’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각각 +3.9%, -3.2%, 여성은 각각 -4.1%, +3.2%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

보다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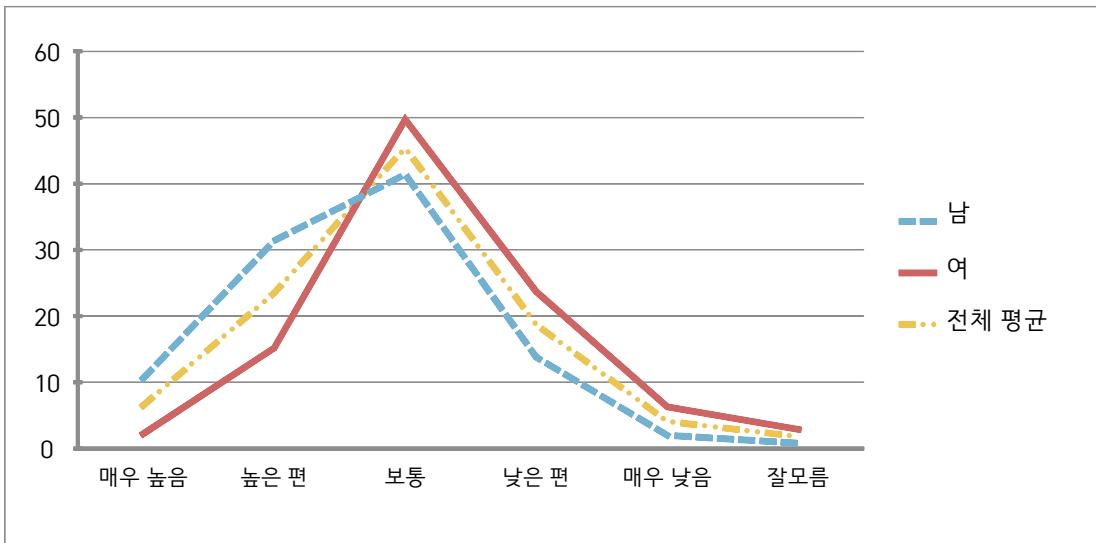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3 : “그렇다면, 귀하의 안보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41>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높음 | 높은 편 | 보통 | 낮은 편 | 매우 낮음 | 잘 모름 |
|-------|-------|------|------|------|-------|------|
| 남 | 10.6 | 31.4 | 41.4 | 13.8 | 2.0 | 0.8 |
| 여 | 2.2 | 15.2 | 49.7 | 23.7 | 6.3 | 2.9 |
| 전체 평균 | 6.5 | 23.5 | 45.4 | 18.7 | 4.1 | 1.8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4>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남성은 ‘높은 편’에, 여성은 ‘낮은 편’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통’과 ‘잘 모름’의 경우 여성의 답변율이 더 높았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높은 편’과 ‘낮은 편’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각각 +7.9%, -4.9%, 여성은 각각 -8.3%, +5%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설문 문항 4 : “다음 항목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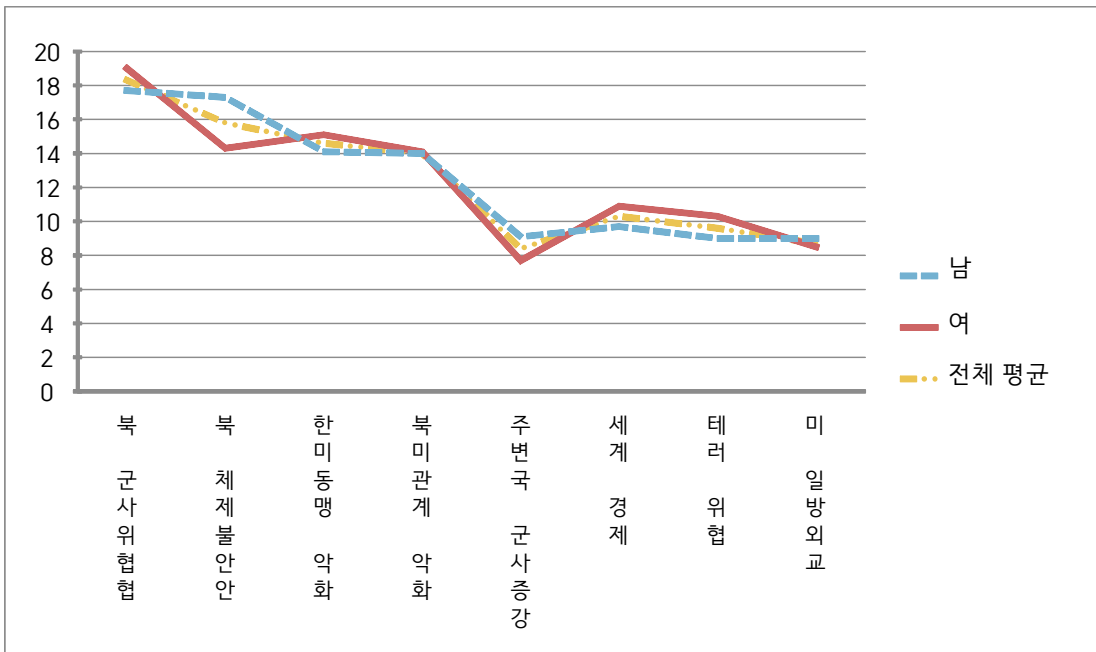
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표 3-42>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구분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북한의 체제 불안 | 한미동맹 약화 | 북미관계 약화 | 주변국 군사력 증강 | 세계 경제 침체 | 전 세계 테러 위협 | 미국의 일방적 외교 |
|-------|------------|-----------|---------|---------|------------|----------|------------|------------|
| 남 | 17.7 | 17.3 | 14.1 | 14.0 | 9.1 | 9.7 | 9.0 | 9.0 |
| 여 | 19.0 | 14.3 | 15.1 | 14.1 | 7.7 | 10.9 | 10.3 | 8.5 |
| 전체 평균 | 18.3 | 15.8 | 14.6 | 14.0 | 8.4 | 10.3 | 9.6 | 8.7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5>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외요인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남성의 경우 다음 순위로 ‘북한의 체제불안’을, 여성의 경우 ‘한미 동맹 약화’를 꼽았다.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세계경제 침체’와 ‘전 세계 테러 위협’은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북한의 체제 불안’과 ‘주변국 군사력 불

안'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각각 $\pm 1.5\%$, $\pm 0.7\%$ 의 격차를 보였으며 남녀 모두 평균과 동일한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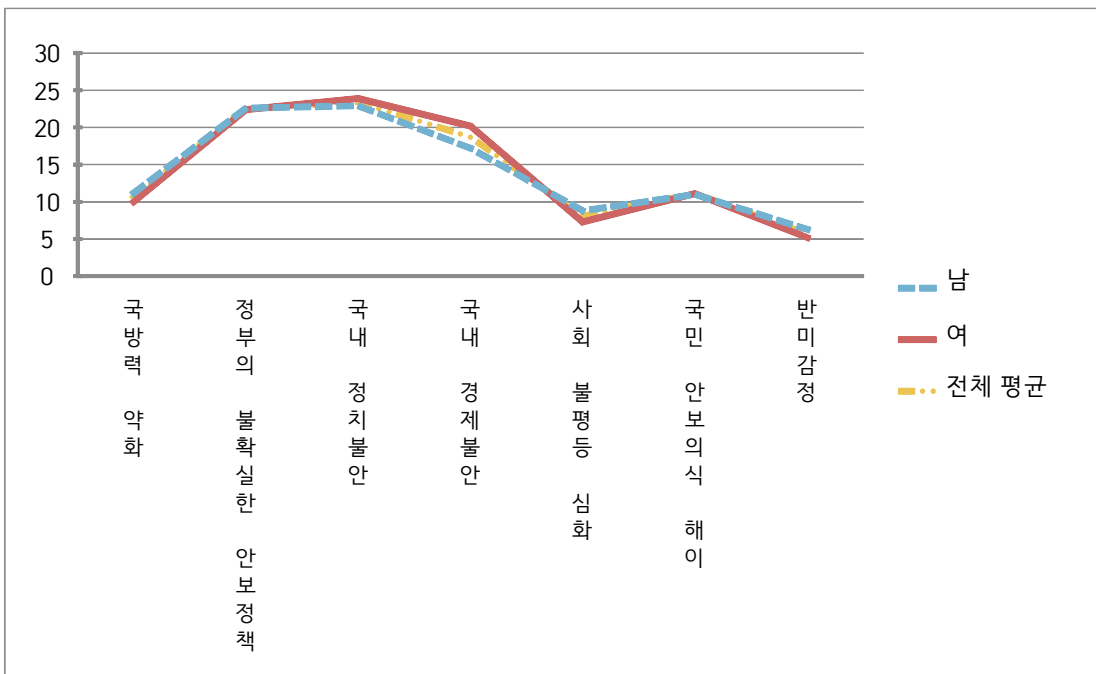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5 : “다음 항목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표 3-43>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구분 | 국방력 약화 |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정책 | 국내 정치 불안 | 국내 경제 불안 | 사회 불평등 심화 | 국민 안보의식 해이 | 반미감정 |
|-------|--------|---------------|----------|----------|-----------|------------|------|
| 남 | 11.2 | 22.6 | 22.9 | 17.2 | 8.8 | 11.0 | 6.3 |
| 여 | 10.0 | 22.4 | 23.9 | 20.2 | 7.3 | 11.1 | 5.2 |
| 전체 평균 | 10.6 | 22.5 | 23.4 | 18.7 | 8.1 | 11.1 | 5.7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6>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대내적 안보 위협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국내 정치 불안’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정책’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국내 경제 불안’ 또한 안보위협요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꼽았고, 남성의 경우 ‘국방력 약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에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국내 경제 불안’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pm 1.5\%$ 로, 동일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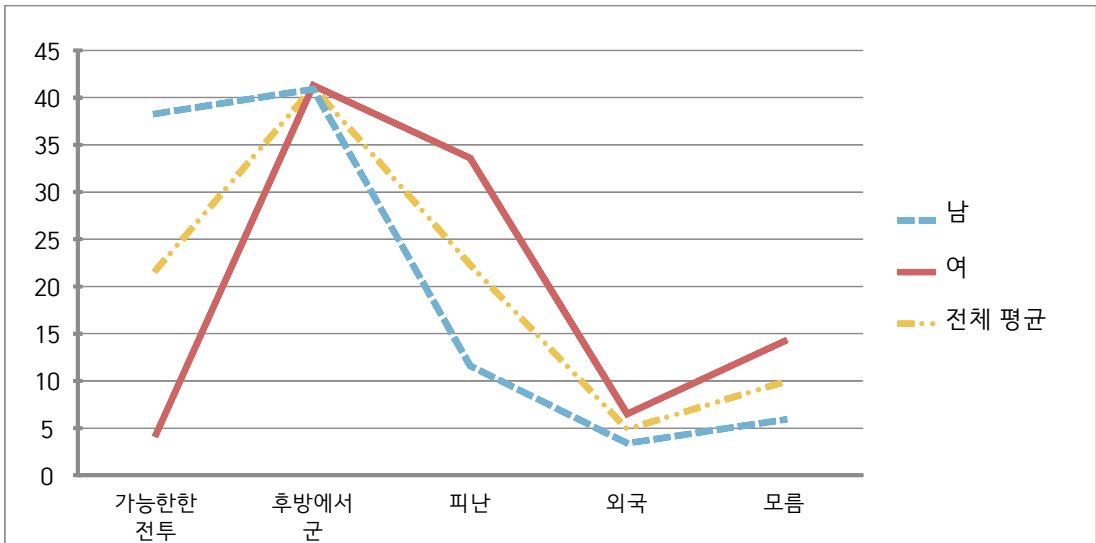
(6) 설문 문항 6 :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 3-44>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구분 | 가능한 한 전투 참여 | 후방에서 군 지원 | 피난 | 외국 | 모름 |
|-------|-------------|-----------|------|-----|------|
| 남 | 38.3 | 40.9 | 11.6 | 3.4 | 5.9 |
| 여 | 4.4 | 41.3 | 33.6 | 6.5 | 14.2 |
| 전체 평균 | 21.8 | 41.1 | 22.3 | 4.9 | 9.9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7>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전쟁 발발시 행동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응답률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남녀 모두 ‘후방에서 군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나 ‘가능한 한 전투 참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34% 정도 차이가 있었고, ‘피난’의 경우 22%의 차이가 있었다. ‘모름’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가능한 한 전투참여’와 ‘피난’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각각 +16.5%, -10.7%, 여성은 각각 -17.4%, +11.3%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북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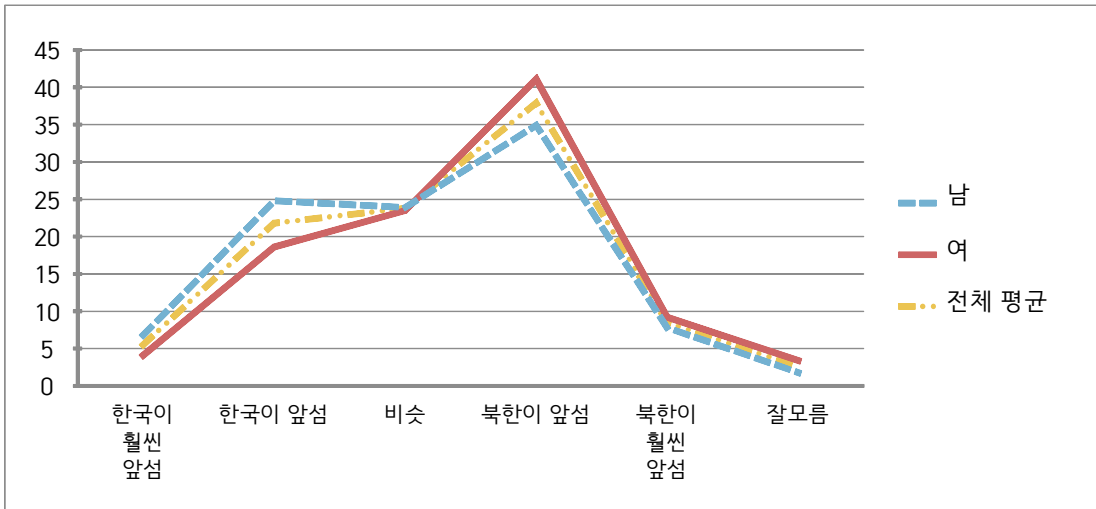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7 :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을 북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45>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구분 | 한국이 훨씬 앞섬 | 한국이 앞섬 | 비슷 | 북한이 앞섬 | 북한이 훨씬 앞섬 | 잘 모름 |
|-------|-----------|--------|------|--------|-----------|------|
| 남 | 6.8 | 24.8 | 23.9 | 34.9 | 7.8 | 1.8 |
| 여 | 4.1 | 18.6 | 23.5 | 41.1 | 9.2 | 3.4 |
| 전체 평균 | 5.5 | 21.8 | 23.8 | 37.9 | 8.5 | 2.6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8>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의 군사력 비교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북한이 앞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특히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한국이 앞섬’의 경우에는 남성

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북한이 앞섬)이 많았다. ‘잘 모름’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한국이 앞섬’과 ‘북한이 앞섬’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각각 +3%, -3%, 여성은 각각 -3.2%, +3.2%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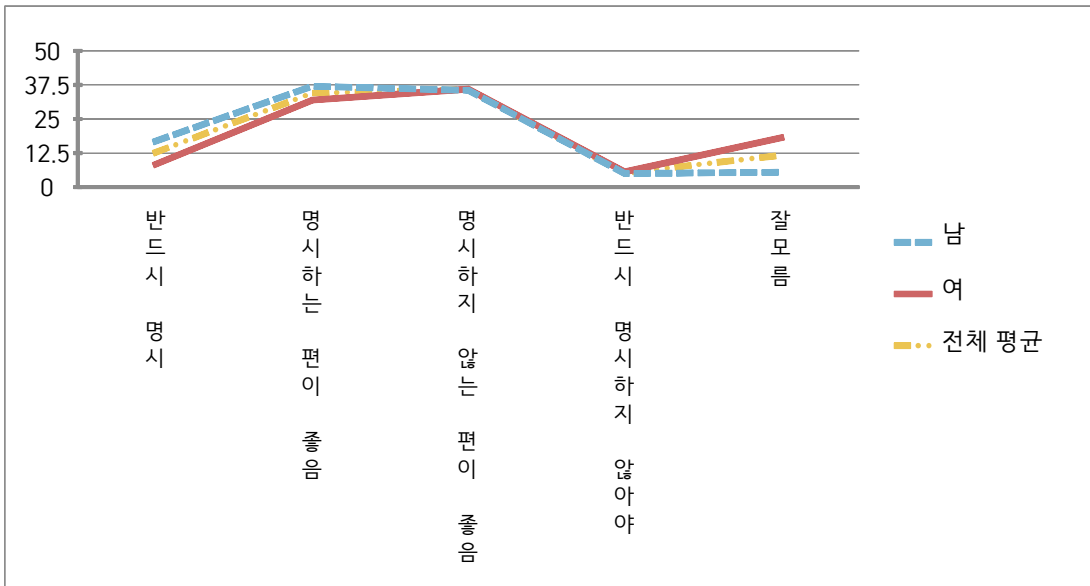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8 : “귀하는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46>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구분 | 반드시 명시 | 명시하는 편이 좋음 | 명시하지 않는 편이 좋음 |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야 | 잘 모름 |
|-------|--------|------------|---------------|--------------|------|
| 남 | 16.9 | 37.0 | 35.5 | 5.0 | 5.5 |
| 여 | 8.4 | 31.9 | 36.0 | 5.6 | 18.1 |
| 전체 평균 | 12.8 | 34.5 | 35.8 | 5.3 | 11.7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39>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백서의 ‘주적 명시’에 대해 남녀 응답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는 ‘명시하는 편이 좋음’을, 여성의 경우 ‘명시하지 않는 편이 좋음’을 선택하였고, 전반적으

로 명시하는 쪽은 남성이 많이 선택하였다. ‘잘 모름’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남녀 답변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답변인 ‘반드시 명시’와 ‘명시하는 편이 좋음’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6.6%, 여성은 -7%의 격차를 보였고, ‘잘 모름’의 경우 남성은 -6.2%, 여성은 +6.4%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평균에서 벗어난 격차가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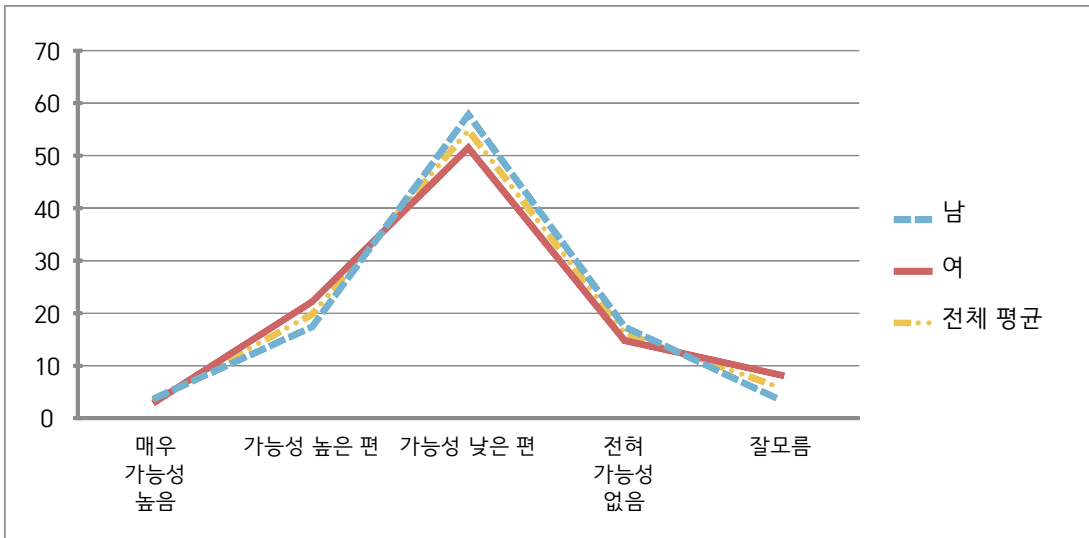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9 : “귀하는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표 3-47>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가능성 높음 | 가능성 높은 편 | 가능성 낮은 편 | 전혀 가능성 없음 | 잘 모름 |
|-------|-----------|----------|----------|-----------|------|
| 남 | 3.9 | 17.4 | 57.8 | 17.4 | 3.4 |
| 여 | 3.2 | 22.2 | 51.5 | 14.8 | 8.2 |
| 전체 평균 | 3.6 | 19.8 | 54.8 | 16.2 | 5.8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0>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남녀 모두 ‘가능성 낮은 편’에 가장 많은 답변율을 보였고, 여성은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잘 모름’

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가능성 높은 편’과 ‘가능성 낮은 편’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4%, +3.0%, 여성의 경우 +2.4%, -3.3%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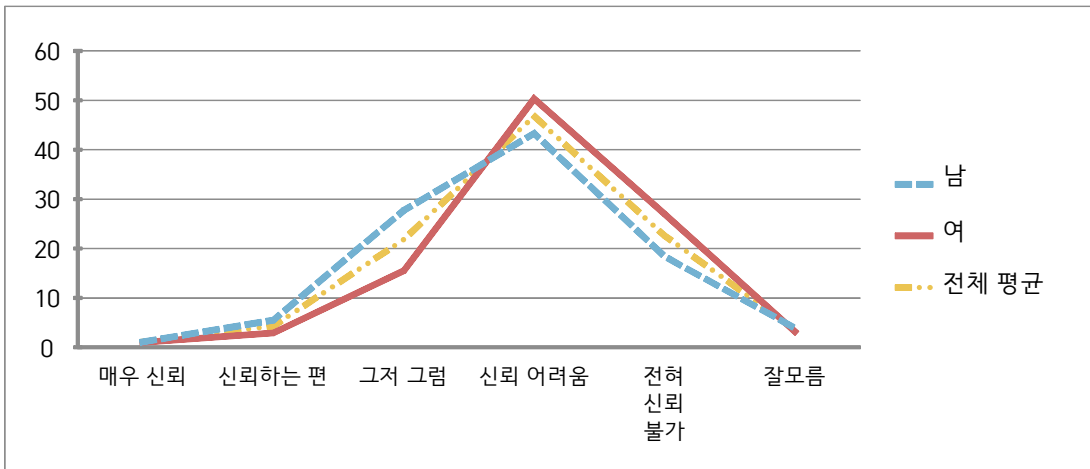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10 : “귀하는 북한의 김정일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48>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신뢰 | 신뢰하는 편 | 그저 그림 | 신뢰 어려움 | 전혀 신뢰 불가 | 잘 모름 |
|-------|-------|--------|-------|--------|----------|------|
| 남 | 1.1 | 5.5 | 27.7 | 43.3 | 18.4 | 3.9 |
| 여 | 1.0 | 2.9 | 15.5 | 50.3 | 27.0 | 3.2 |
| 전체 평균 | 1.1 | 4.3 | 21.8 | 46.8 | 22.6 | 3.6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1>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신뢰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쪽은 남성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쪽은 여성이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신뢰 어려움’은 여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그저 그림’과 ‘신뢰 어려움’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9%, -3.5%, 여성의 경우 -6.3%, +3.5%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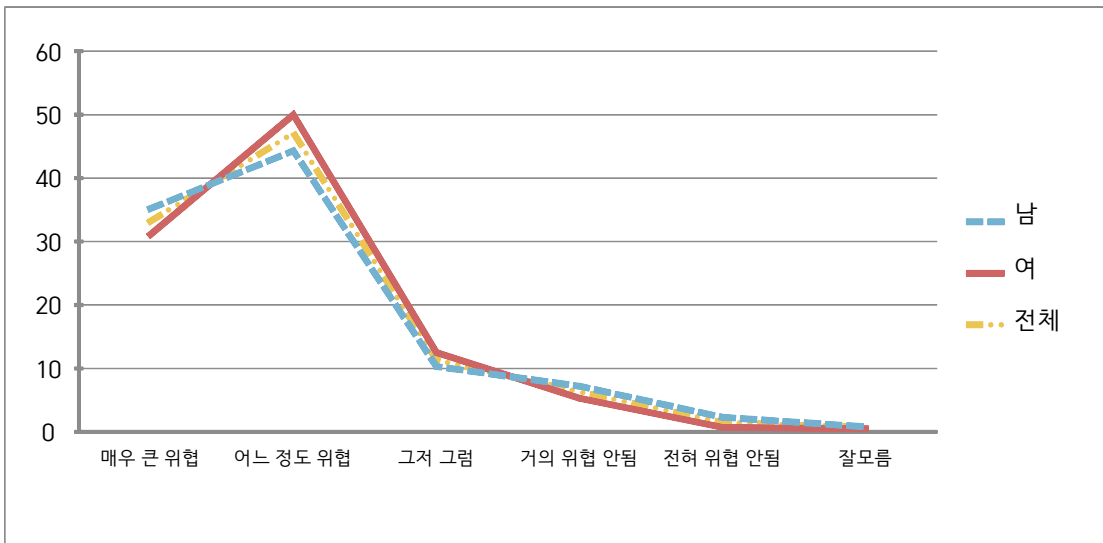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11 :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49>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큰 위협 | 어느 정도 위협 | 그저 그림 | 거의 위협 안 됨 | 전혀 위협 안 됨 | 잘 모름 |
|-------|---------|----------|-------|-----------|-----------|------|
| 남 | 35.2 | 44.3 | 10.3 | 7.2 | 2.3 | 0.8 |
| 여 | 31.1 | 50.0 | 12.5 | 5.3 | 0.7 | 0.5 |
| 전체 평균 | 33.2 | 47.1 | 11.3 | 6.3 | 1.5 | 0.7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2>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위협’을 가장 많이 꼽았고, ‘매우 큰 위협’은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그저 그림’의 경우는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고, 전반적으로 위협이 안 된다는 의견은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어느 정도 위협’의 경우 평균치와의 격차를 살펴보면, -2.8%, 여성은 +2.9%의 격차를 보였다.

다. 동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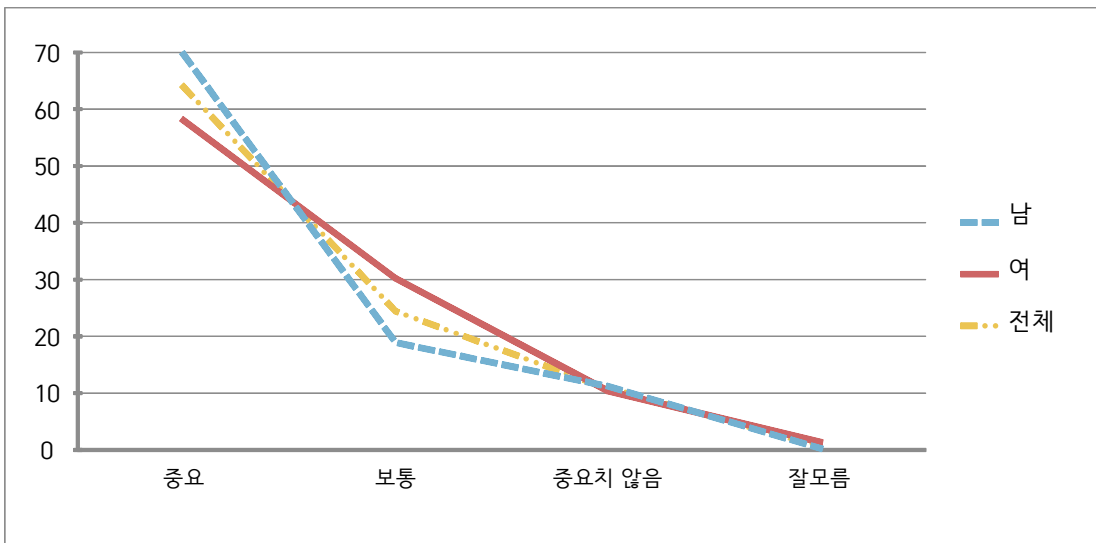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2 :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50>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구분 | 중요 | 보통 | 중요치 않음 | 잘 모름 |
|-------|------|------|--------|------|
| 남 | 69.6 | 18.9 | 11.2 | 0.3 |
| 여 | 58.0 | 30.2 | 10.4 | 1.4 |
| 전체 평균 | 63.9 | 24.4 | 10.8 | 0.8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3>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남녀 모두 ‘중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나 남성이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통’은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잘 모름’의 경우는 여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중요’와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7%, -5.3%, 여성의 경우 -5.9%, +6.0%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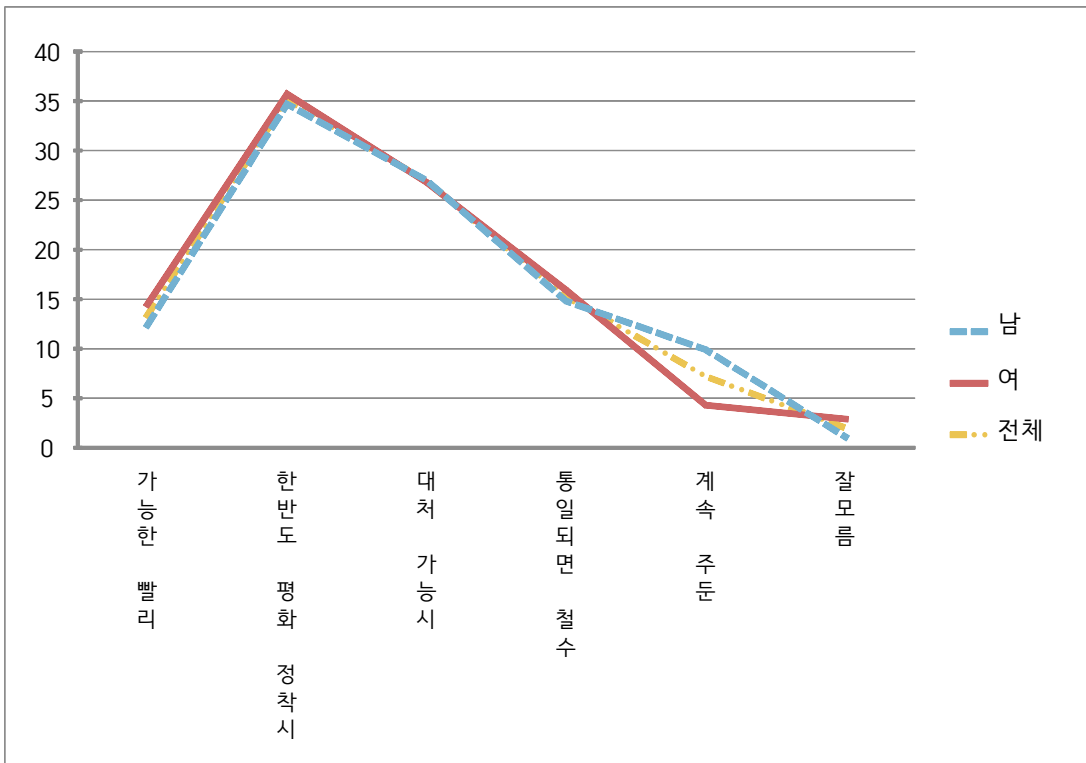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3 : “귀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51> 설문 문항 13에 대한 답변

| 구분 | 가능한 빨리 철수 | 한반도 평화 정착시 철수 | 우리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 철수 | 통일이 되면 철수 | 통일 이후 계속 주둔 | 잘 모름 |
|-------|-----------|---------------|---------------------|-----------|-------------|------|
| 남 | 12.4 | 34.7 | 27.0 | 14.8 | 9.9 | 1.1 |
| 여 | 14.5 | 35.7 | 26.8 | 15.9 | 4.3 | 2.9 |
| 전체 평균 | 13.4 | 35.2 | 26.9 | 15.3 | 7.2 | 2.0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4> 설문 문항 1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시 철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계속 주둔’이라는 답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으며, ‘가능한 빨리 철수’와 ‘잘 모름’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통일 이후 계속 주둔’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2.7%, 여성의 경우는 -2.9%의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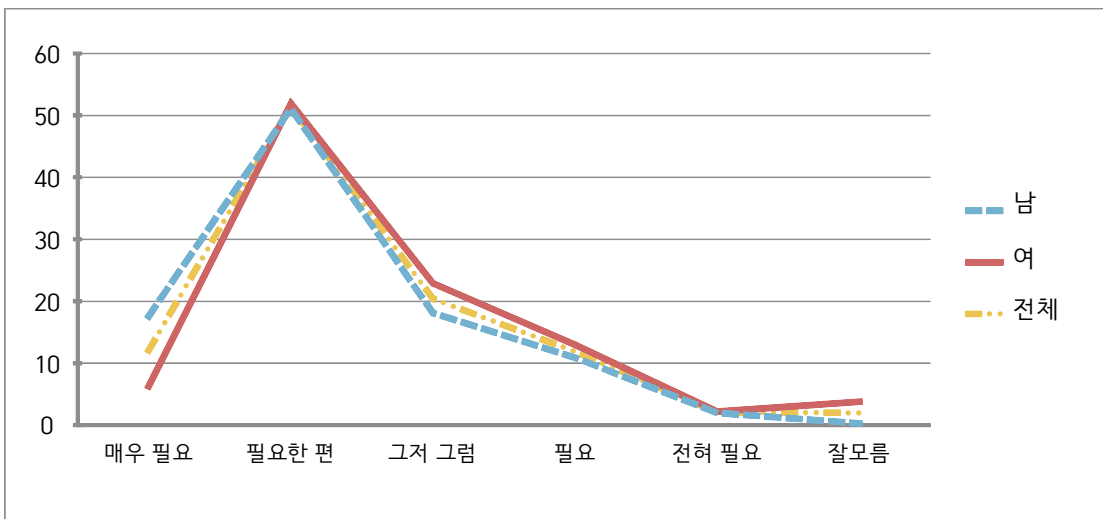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4 : “귀하는 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52> 설문 문항 14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필요 | 필요한 편 | 그저 그럼 | 필요 없음 | 전혀 필요 없음 | 잘 모름 |
|-------|-------|-------|-------|-------|----------|------|
| 남 | 17.6 | 51.1 | 18.1 | 10.9 | 2.0 | 0.3 |
| 여 | 6.3 | 51.9 | 22.9 | 13.0 | 2.2 | 3.8 |
| 전체 평균 | 12.1 | 51.5 | 20.4 | 11.9 | 2.1 | 2.0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5> 설문 문항 1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서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남녀 모두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필요’의 경우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는 의견은 여성이 더 많았고, ‘잘 모름’의 경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매우 필요’와 ‘그저 그럼’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5%, -2.3%, 여성의 경우 -5.8%, +2.5%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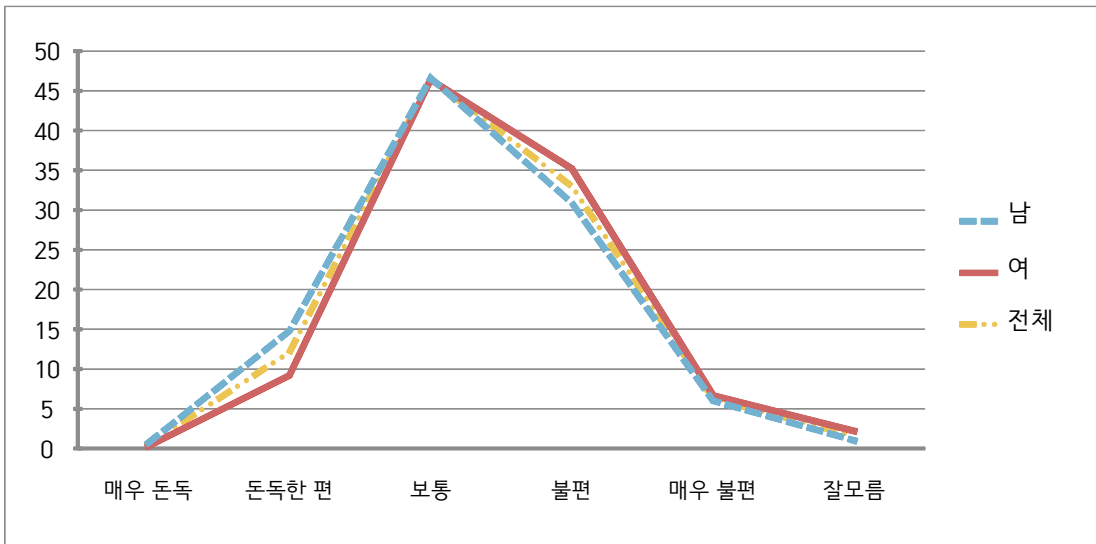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15 :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53> 설문 문항 15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돈독 | 돈독한 편 | 보통 | 불편 | 매우 불편 | 잘 모름 |
|-------|-------|-------|------|------|-------|------|
| 남 | 0.7 | 14.8 | 46.6 | 30.9 | 6.0 | 1.0 |
| 여 | 0.3 | 9.2 | 46.4 | 35.2 | 6.7 | 2.2 |
| 전체 평균 | 0.5 | 12.1 | 46.5 | 33.0 | 6.3 | 1.6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6> 설문 문항 1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미동맹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돈독)을, 여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불편)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잘 모름’의 경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돈독한 편’과 ‘불편’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7%, -2.1%, 여성의 경우 -2.9%, +2.2%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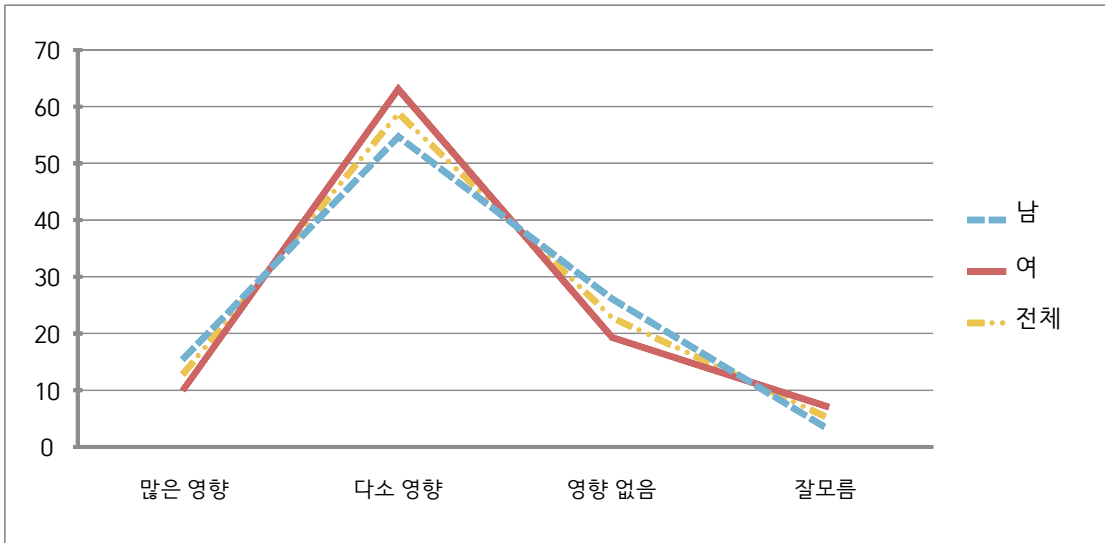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16 : “귀하는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전쟁 억제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표 3-54> 설문 문항 16에 대한 답변

| 구분 | 많은 영향 | 다소 영향 | 영향 없음 | 잘 모름 |
|-------|-------|-------|-------|------|
| 남 | 15.8 | 54.7 | 26.1 | 3.4 |
| 여 | 10.4 | 63.1 | 19.3 | 7.2 |
| 전체 평균 | 13.2 | 58.8 | 22.8 | 5.3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7> 설문 문항 1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전쟁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영향’이 남녀 모두 가장 많은 답변으로 선택되었고,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많은 영향’은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고, ‘영향 없음’의 경우도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잘 모름’의 경우는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다소 영향’과 ‘영향 없음’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1%, +3.3%, 여성의 경우 +4.3%, -3.5%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국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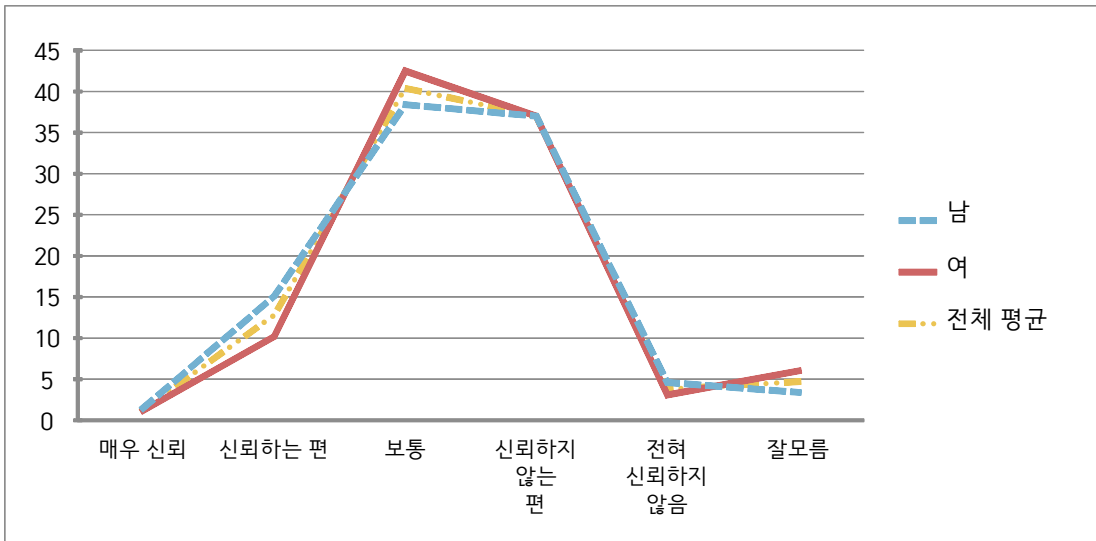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7 : “귀하는 국방부의 제반 발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표 3-55> 설문 문항 17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신뢰 | 신뢰하는 편 | 보통 | 신뢰하지 않는 편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잘 모름 |
|-------|-------|--------|------|-----------|------------|------|
| 남 | 1.5 | 15.1 | 38.4 | 37.0 | 4.6 | 3.4 |
| 여 | 1.2 | 10.2 | 42.5 | 37.0 | 3.1 | 6.0 |
| 전체 평균 | 1.3 | 12.8 | 40.4 | 37.0 | 3.8 | 4.7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8> 설문 문항 1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부의 제반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에,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잘 모름’의 경우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신뢰하는 편’과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3%, -2.0%, 여성의 경우 -2.6%, +2.1%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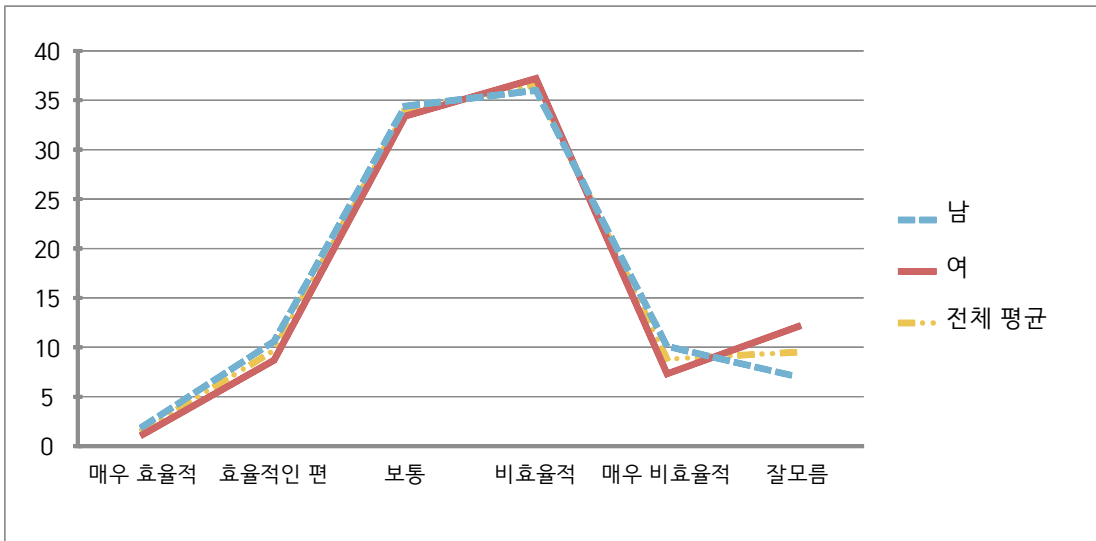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8 : “귀하는 현재 국방비의 운용상태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56> 설문 문항 18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효율적 | 효율적인 편 | 보통 | 효율적이지 않음 |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 | 잘 모름 |
|-------|--------|--------|------|----------|-------------|------|
| 남 | 2.0 | 10.6 | 34.4 | 36.0 | 10.1 | 7.0 |
| 여 | 1.2 | 8.7 | 33.4 | 37.2 | 7.3 | 12.1 |
| 전체 평균 | 1.6 | 9.7 | 33.9 | 36.6 | 8.8 | 9.5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49> 설문 문항 1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운용의 효율성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효율적이지 않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의 경우는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잘 모름’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과 ‘잘 모름’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3%, -2.5%, 여성의 경우 -1.5%, +2.6%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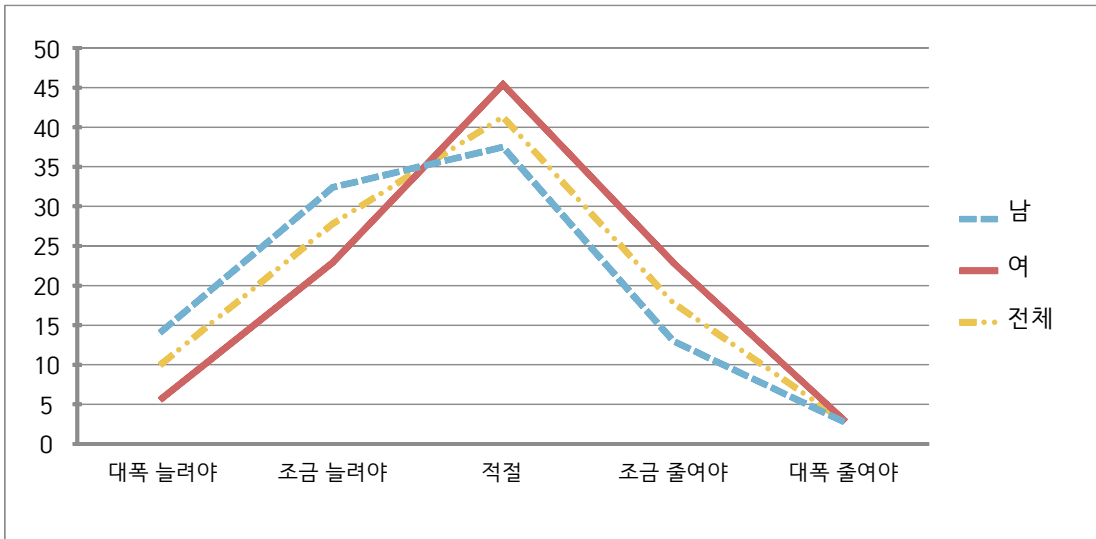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9 :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57> 설문 문항 19에 대한 답변

| 구분 |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 현재수준 적절 |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
|-------|-------------|-------------|---------|-------------|-------------|
| 남 | 14.3 | 32.4 | 37.5 | 13.0 | 2.8 |
| 여 | 5.8 | 22.9 | 45.4 | 22.9 | 3.1 |
| 전체 평균 | 10.2 | 27.8 | 41.3 | 17.8 | 2.9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0> 설문 문항 1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현재수준 적절’을 우선적으로 택하였고,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쪽에, 여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현재보다 늘려야’, ‘현재보다 줄여야’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8.7%, -4.9%, 여성의 경우 -9.3%, +5.3%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명박 정부(2009)

가. 안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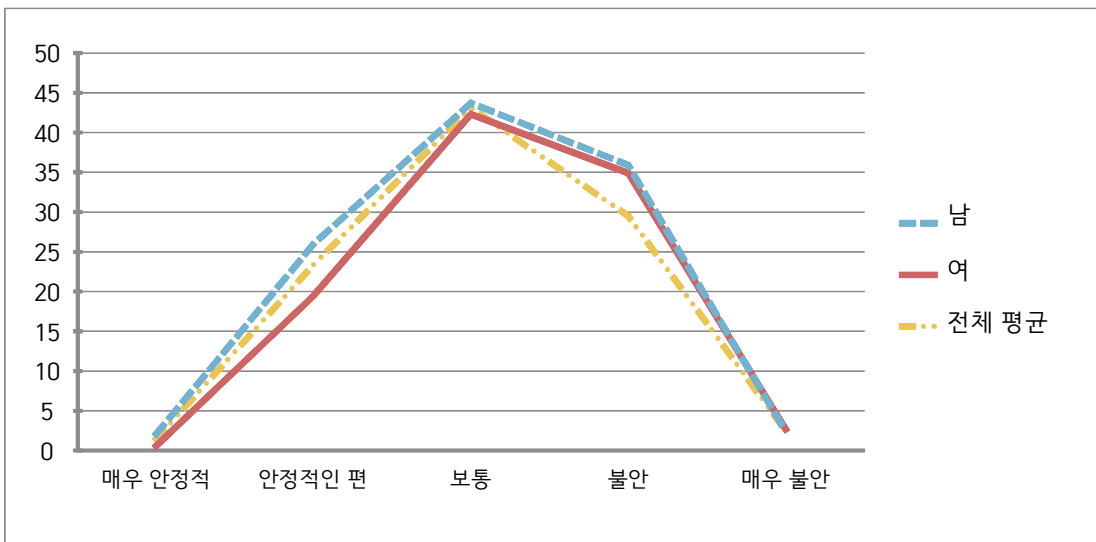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 : “최근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58>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안정적 | 안정적인 편 | 보통 | 불안 | 매우 불안 |
|-------|--------|--------|------|------|-------|
| 남 | 2.1 | 26.0 | 43.7 | 35.9 | 2.4 |
| 여 | 0.6 | 19.5 | 42.3 | 34.9 | 2.7 |
| 전체 평균 | 1.5 | 23.4 | 43.1 | 29.5 | 2.5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1>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보통’을 우선적으로 택하였고, 남녀 모두 불안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매우 안정적’과 ‘안정적인 편’이라는 답변에는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안정적인 편’과 ‘불안’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6%, +6.4%, 여성의 경우 -2.9%, +5.4%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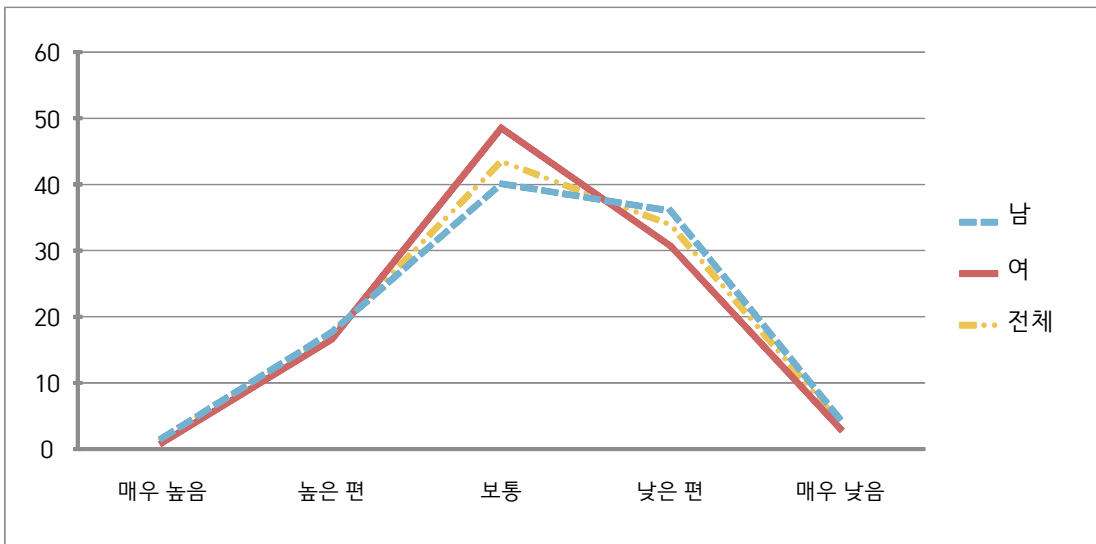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2 :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59>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높음 | 높은 편 | 보통 | 낮은 편 | 매우 낮음 |
|-------|-------|------|------|------|-------|
| 남 | 1.7 | 17.7 | 40.1 | 36.0 | 4.5 |
| 여 | 1.0 | 16.6 | 48.5 | 30.7 | 3.1 |
| 전체 평균 | 1.4 | 17.2 | 43.5 | 33.9 | 3.9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2>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민안보의식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택하였고, 여성의 경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낮은 편’과 ‘매우 낮음’은 남성의 경우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국민안보의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보통’과 ‘낮은 편’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4%, +2.1%, 여성의 경우 +5.0%, -3.2%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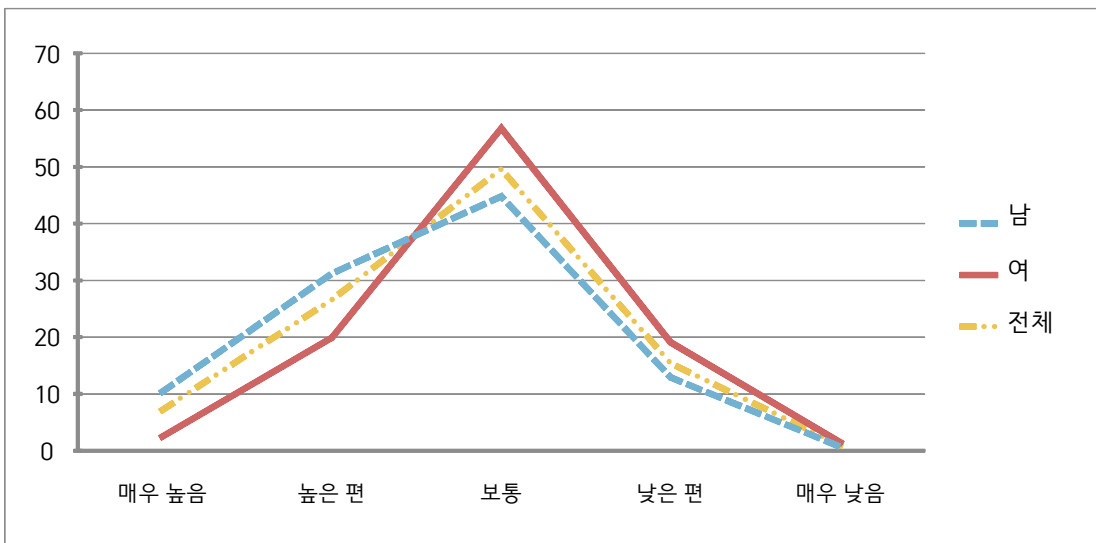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3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60>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높음 | 높은 편 | 보통 | 낮은 편 | 매우 낮음 |
|-------|-------|------|------|------|-------|
| 남 | 10.4 | 31.2 | 44.8 | 12.9 | 0.7 |
| 여 | 2.5 | 19.9 | 56.8 | 19.1 | 1.5 |
| 전체 평균 | 7.2 | 26.6 | 49.6 | 15.4 | 1.0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3>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택하였고, 여성이 ‘보통’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높은 쪽에, 여성의 경우는 낮은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편’과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6%, -4.8%, 여성의 경우 -6.7%, +7.2%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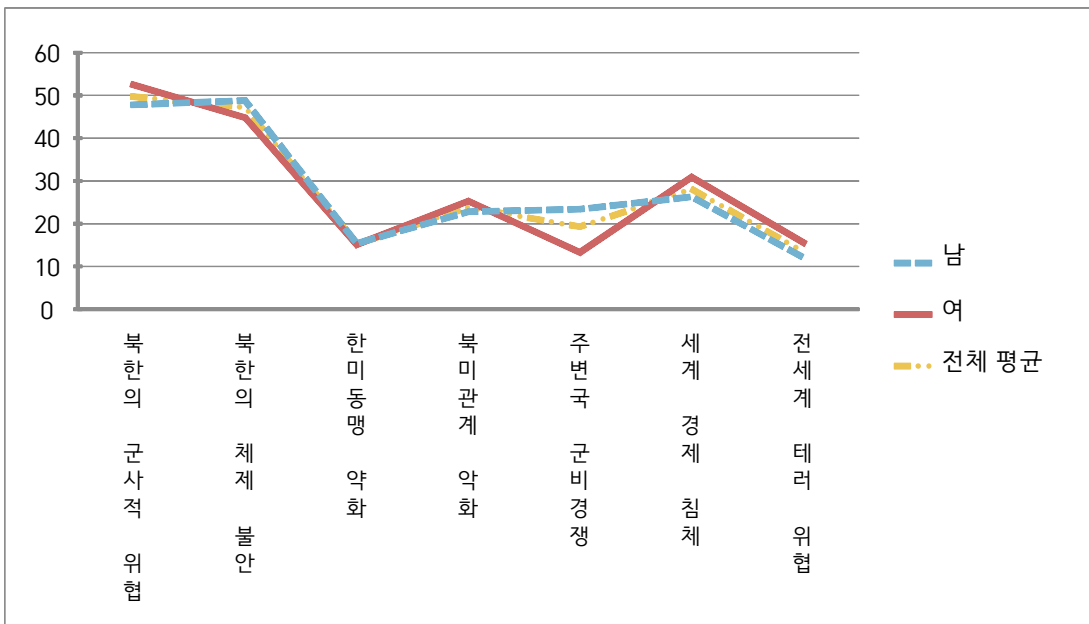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4 :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골라 “V”표시를 해 주십시오.”

<표 3-61>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구분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북한의 체제 불안 | 한미동맹 약화 | 북미관계 악화 | 주변국 군비경쟁 | 세계경제침체 | 전 세계 테러 위협 |
|-------|------------|-----------|---------|---------|----------|--------|------------|
| 남 | 47.8 | 48.8 | 15.4 | 22.8 | 23.4 | 26.3 | 12.1 |
| 여 | 52.5 | 44.8 | 15.1 | 25.3 | 13.3 | 30.9 | 15.6 |
| 전체 평균 | 49.7 | 47.2 | 15.3 | 23.8 | 19.3 | 28.1 | 13.5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4>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안보 위협요인 중 국외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북한의 체제 불안’을, 여성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 모두 북한 요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주변국 군비경쟁’은 남성이 ‘세계경제침체’와 ‘전 세계 테러 위협’은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주변국 군비경쟁’과 ‘세계경제침체’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1%, -1.8%, 여성의 경우 -6.0%, +2.8%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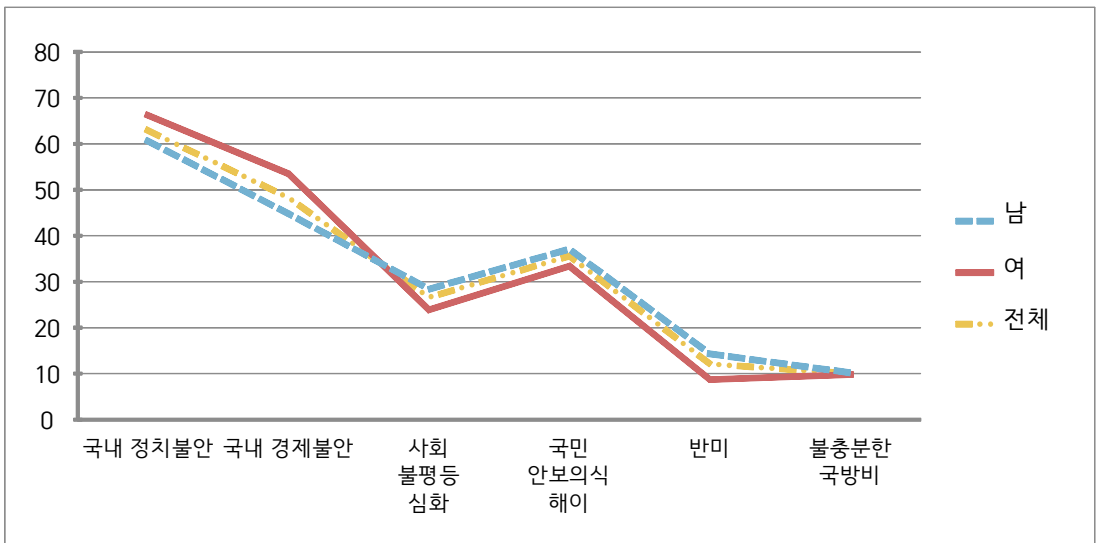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5 :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골라 “V”표시를 해 주십시오.”

<표 3-62>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구분 | 국내 정치 불안 | 국내 경제 불안 | 사회 불평등 심화 | 국민 안보의식 해이 | 반미 감정 | 불충분한 국방비 |
|-------|----------|----------|-----------|------------|-------|----------|
| 남 | 60.6 | 44.8 | 28.4 | 37.1 | 14.3 | 10.2 |
| 여 | 66.2 | 53.5 | 23.9 | 33.4 | 8.7 | 9.8 |
| 전체 평균 | 62.9 | 48.3 | 26.6 | 35.6 | 12.1 | 10.0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5>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안보 위협요인 중 국내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국내 정치 불안’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 불안’, ‘국민안보의식 해이’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국내 정치 불안’은 여성이, ‘사회 불평등 심화’와 ‘국민 안보의식 해이’, ‘반미감정’은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내 경제 불안’과 ‘반미감정’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5%, +2.2%, 여성의 경우 +5.2%, -3.4%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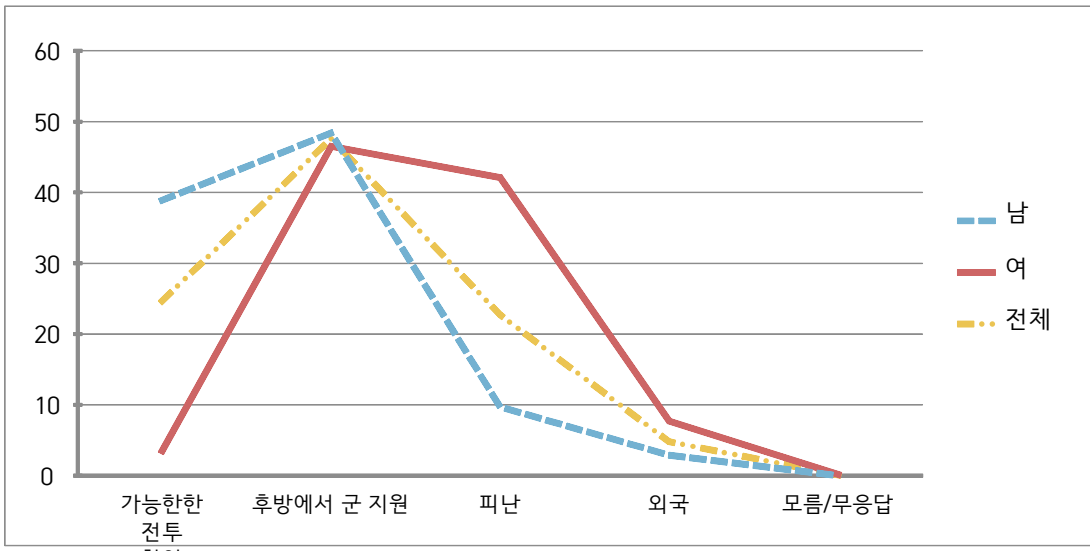
(6) 설문 문항 6 :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 3-63>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구분 | 가능한 한 전투 참여 | 후방에서 군 지원 | 피난 | 외국 | 모름/무응답 |
|-------|-------------|-----------|------|-----|--------|
| 남 | 38.9 | 48.4 | 9.7 | 2.9 | 0 |
| 여 | 3.5 | 46.5 | 42.1 | 7.7 | 0.2 |
| 전체 평균 | 24.7 | 47.6 | 22.7 | 4.8 | 0.1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6>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전쟁 발발시 행동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의 확연한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모두 ‘후방에서 군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가능한 한 전투 참여’는 남성이, ‘피난’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외국’의 경우는 여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가능한 한 전투참여’와 ‘피난’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4.2%, -13.0%, 여성의 경우 -21.2%, +19.4%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북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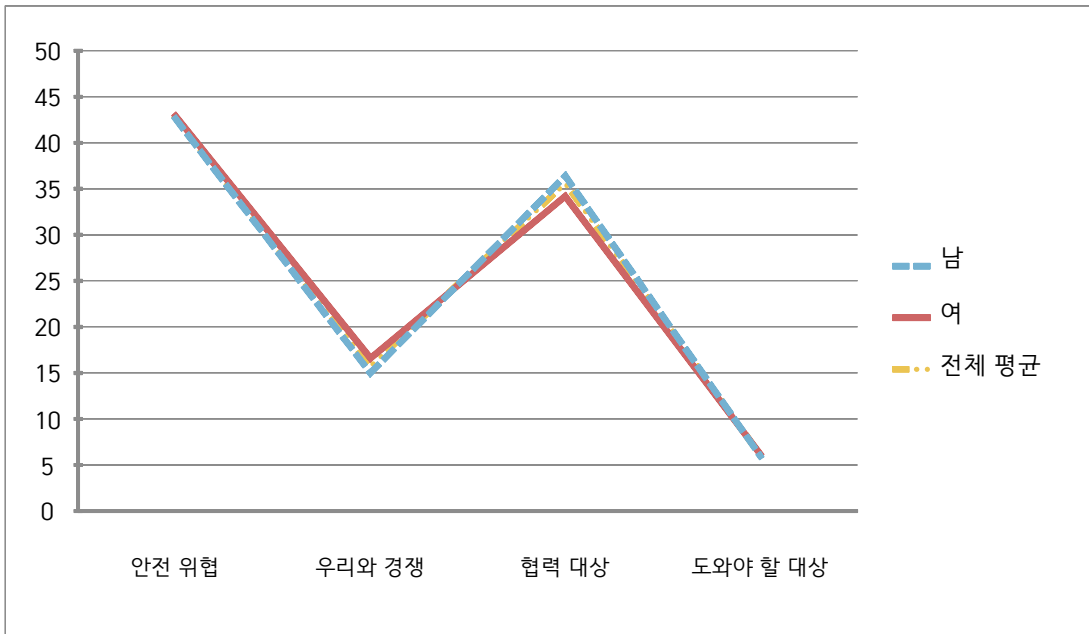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7 :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 3-64>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구분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
|-------|----------------------|----------------|---------------------|----------------|
| 남 | 42.6 | 15.0 | 36.4 | 6.0 |
| 여 | 42.9 | 16.6 | 34.2 | 6.2 |
| 전체 평균 | 42.7 | 15.7 | 35.6 | 6.1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7>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남녀 모두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유사한 비율로 선택하였으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답변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0.1%에서 +0.8%, 여성의 경우는 +0.1에서 +0.9%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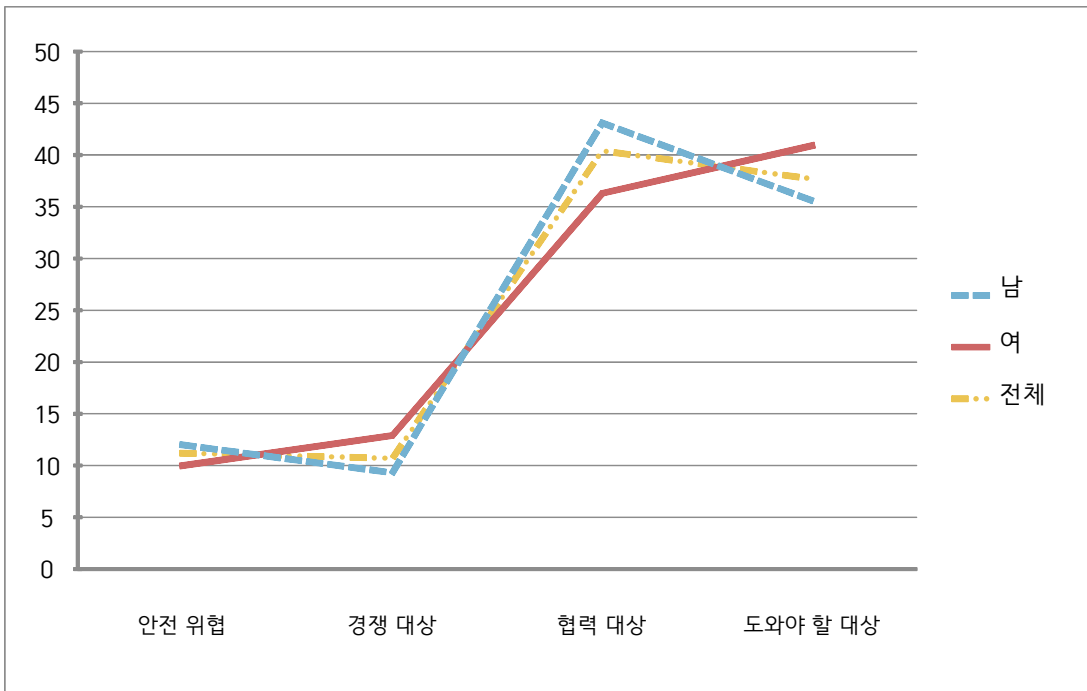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8 : “북한 주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 3-65>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구분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
|-------|----------------------|----------------|---------------------|----------------|
| 남 | 12.0 | 9.3 | 43.1 | 35.6 |
| 여 | 10.0 | 12.9 | 36.3 | 40.9 |
| 전체 평균 | 11.2 | 10.7 | 40.4 | 37.7 |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8>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답변은 여성이 더 많았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의견은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5%, +2.2%, 여성의 경우 +5.2%, -3.4%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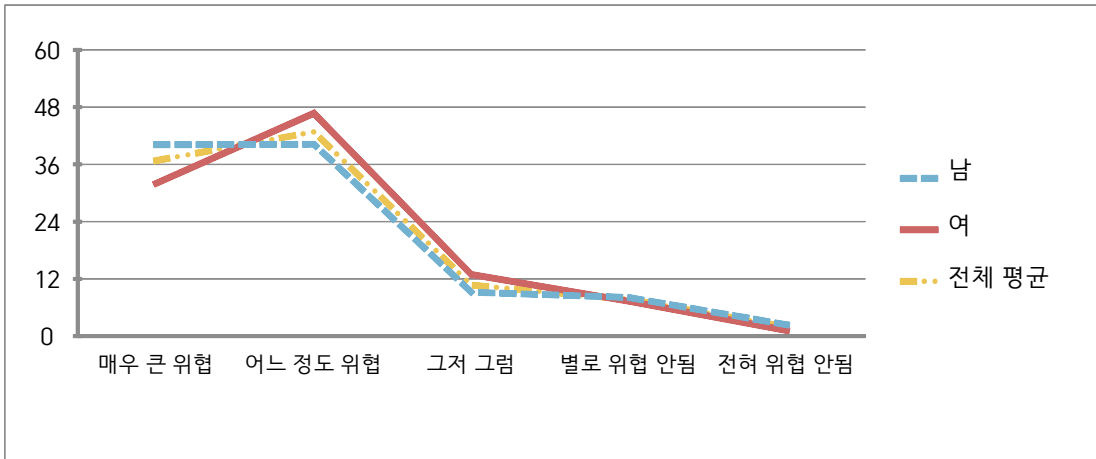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9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66>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큰 위협 | 어느 정도 위협 | 그저 그림 | 별로 위협 안 됨 | 전혀 위협 안 됨 |
|-------|---------|----------|-------|-----------|-----------|
| 남 | 40.1 | 40.2 | 9.2 | 8.1 | 2.4 |
| 여 | 32.0 | 46.7 | 12.9 | 7.3 | 1.2 |
| 전체 평균 | 36.8 | 42.8 | 10.7 | 7.7 | 1.9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59>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성의 경우 ‘매우 큰 위협’과 ‘어느 정도 위협’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하였고,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위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위협이 안 된다’는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그저 그림’은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매우 큰 위협’과 ‘어느 정도 위협’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0.7%, 여성의 경우 +0.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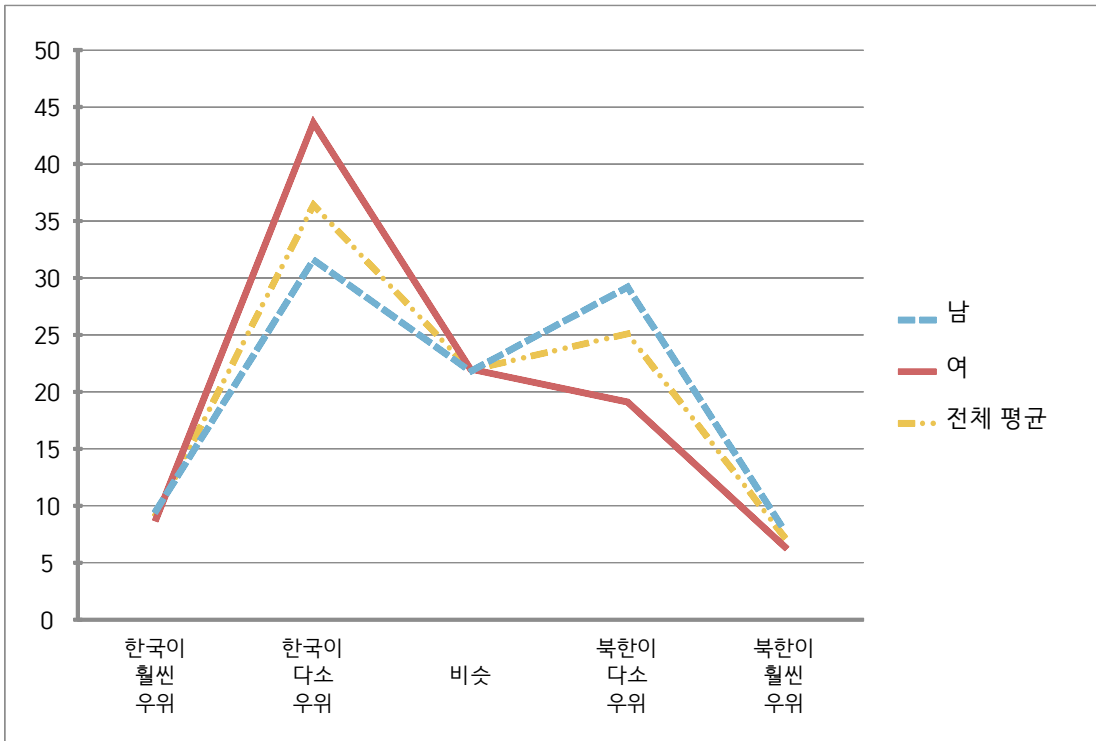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10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67>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구분 | 한국이 훨씬 우위 | 한국이 다소 우위 | 비슷 | 북한이 다소 우위 | 북한이 훨씬 우위 |
|-------|--------------|--------------|------|--------------|--------------|
| 남 | 9.6 | 31.6 | 21.8 | 29.2 | 7.8 |
| 여 | 8.9 | 43.6 | 22.0 | 19.1 | 6.4 |
| 전체 평균 | 9.3 | 36.4 | 21.9 | 25.1 | 7.2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0>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는 한국이 우위라는 의견과 북한이 우위라는 의견의 비율이 비슷하나 여성의 경우는 북한이 우위

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이 미치는 영향을 남녀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이 다소 우위’와 ‘북한이 다소 우위’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8%, +4.1%, 여성의 경우 +7.2%, -6.0%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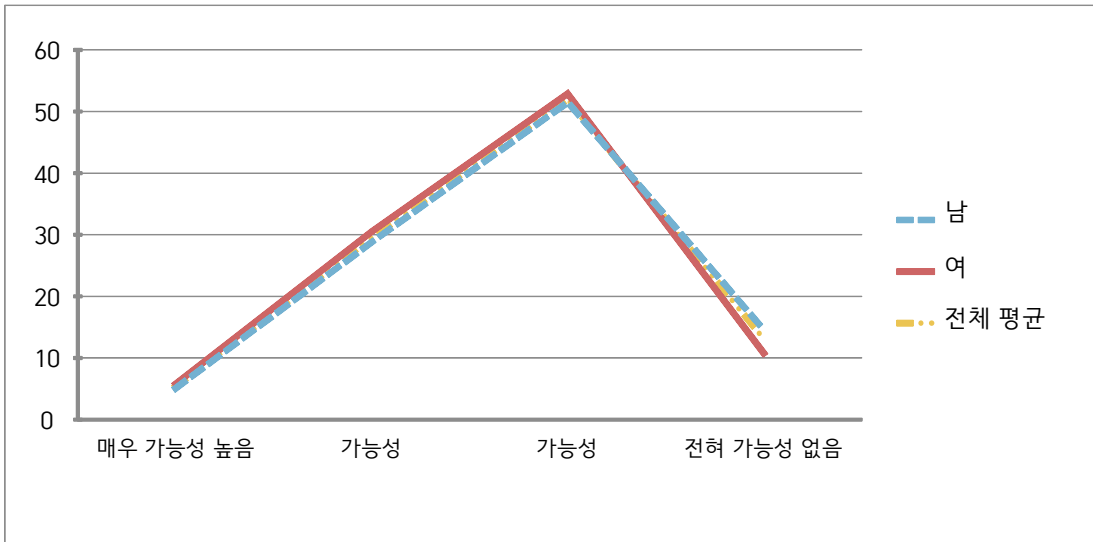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11 : “향후(5년 이내)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68>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가능성 높음 | 가능성 높은 편 | 가능성 낮은 편 | 전혀 가능성 없음 |
|-------|-----------|----------|----------|-----------|
| 남 | 5.1 | 28.8 | 51.5 | 14.6 |
| 여 | 5.8 | 30.5 | 52.9 | 10.8 |
| 전체 평균 | 5.4 | 29.5 | 52.0 | 13.1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1>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가능성 낮은 편’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전혀 가능성 없음’은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가능성

이 낮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남녀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는 남성의 경우 -0.7~+1.5%, 여성의 경우는 -2.3~+1.0%의 격차를 보였다.

다. 동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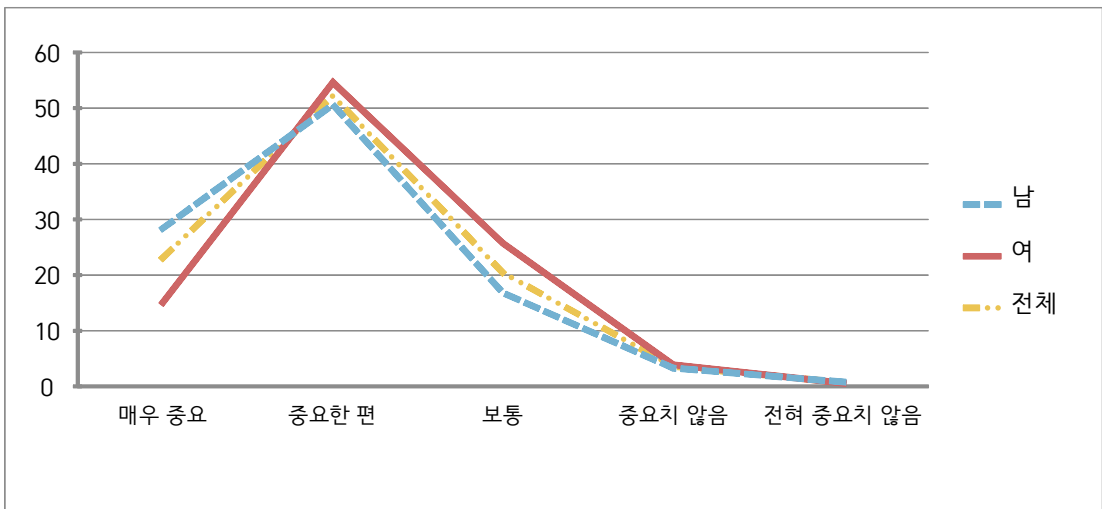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2 :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69>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중요 | 중요한 편 | 보통 | 중요치 않음 | 전혀 중요치 않음 |
|-------|-------|-------|------|--------|-----------|
| 남 | 28.4 | 50.6 | 16.8 | 3.3 | 0.8 |
| 여 | 15.1 | 54.6 | 25.7 | 3.9 | 0.6 |
| 전체 평균 | 23.1 | 52.2 | 20.4 | 3.6 | 0.7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2>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녀 모두 ‘중요한 편’을 가장 많이 꼽았고, ‘매우 중요’의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보통’은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매우 중요’와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3%, -3.6%, 여성의 경우 -8.0%, +5.3%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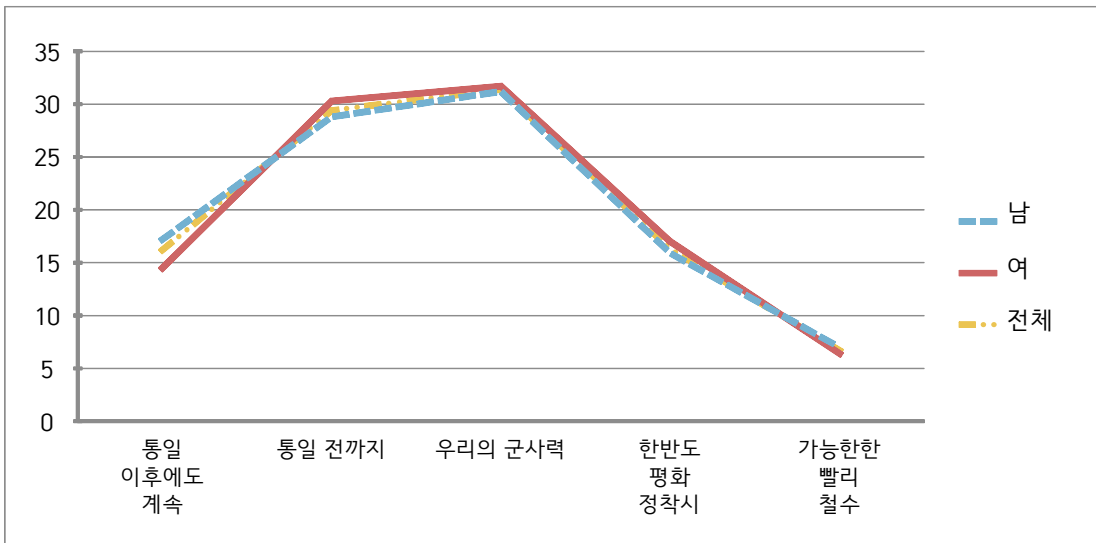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3 :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70> 설문 문항 13에 대한 답변

| 구분 | 통일 이후에도 계속 | 통일 전까지 |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 | 한반도 평화 정착시 | 가능한 한 빨리 철수 |
|-------|------------|--------|-------------------|------------|-------------|
| 남 | 17.2 | 28.8 | 31.2 | 15.9 | 7.0 |
| 여 | 14.5 | 30.3 | 31.7 | 17.0 | 6.4 |
| 전체 평균 | 16.2 | 29.4 | 31.4 | 16.3 | 6.7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3> 설문 문항 1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 미군의 주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통일 전까지’는 여성 응답률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은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과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0.6~+1.0%, 여성의 경우는 -1.7~0.9%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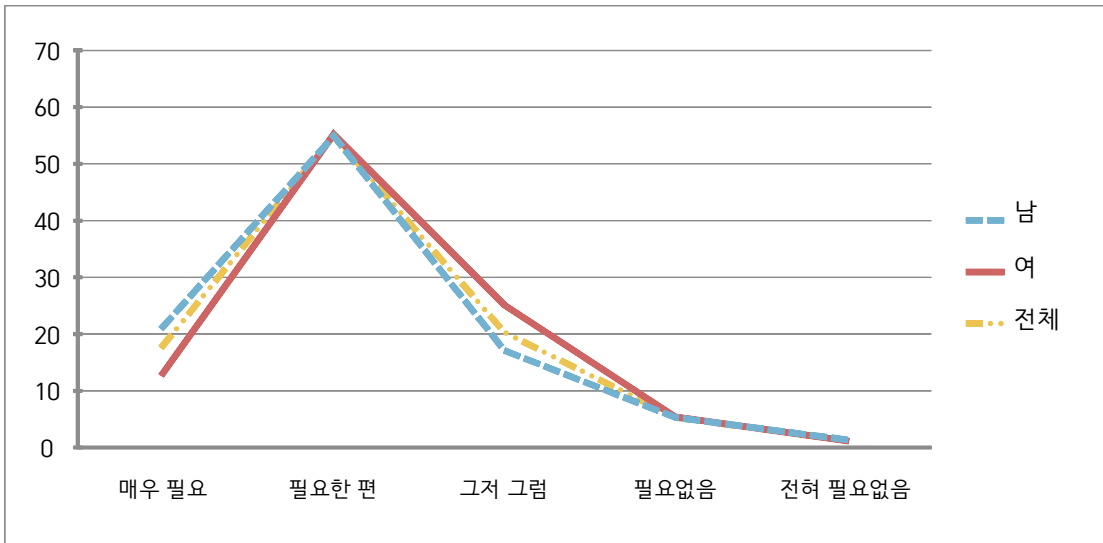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4 :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71> 설문 문항 14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필요 | 필요한 편 | 그저 그럼 | 필요 없음 | 전혀 필요 없음 |
|-------|-------|-------|-------|-------|----------|
| 남 | 21.3 | 54.9 | 17.1 | 5.3 | 1.4 |
| 여 | 13.1 | 55.2 | 25.1 | 5.4 | 1.2 |
| 전체 평균 | 18.0 | 55.0 | 20.3 | 5.3 | 1.3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4> 설문 문항 1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필요한 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매우 필요’의 경우는 남성이 ‘그저 그럼’은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매우 필요’와 ‘그저 그럼’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3%, -3.2%, 여성의 경우 -4.9%, +4.8%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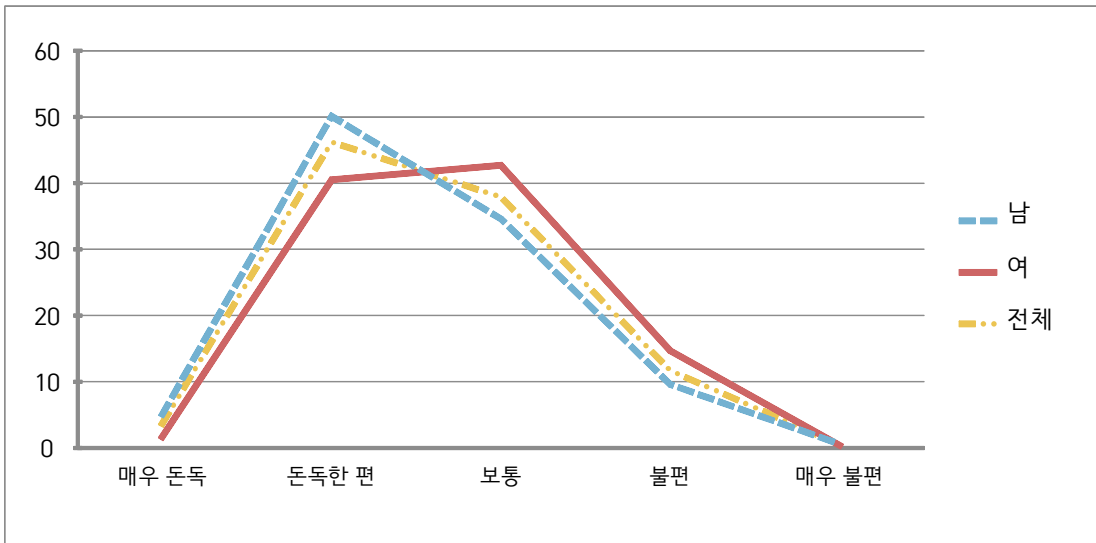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15 :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72> 설문 문항 15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돈독 | 돈독한 편 | 보통 | 불편 | 매우 불편 |
|-------|-------|-------|------|------|-------|
| 남 | 5.1 | 50.1 | 34.6 | 9.6 | 0.6 |
| 여 | 1.7 | 40.5 | 42.7 | 14.7 | 0.4 |
| 전체 평균 | 3.7 | 46.2 | 37.9 | 11.7 | 0.5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5> 설문 문항 1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돈독한 편’을, 여성의 경우는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매우 돈독’은 남성이, ‘불편’은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답변(돈독)을, 여성의 경우는 부정적인 답변(불편)율이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돈독한 편’과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9%, -3.3%, 여성의 경우 +5.7%, +4.8%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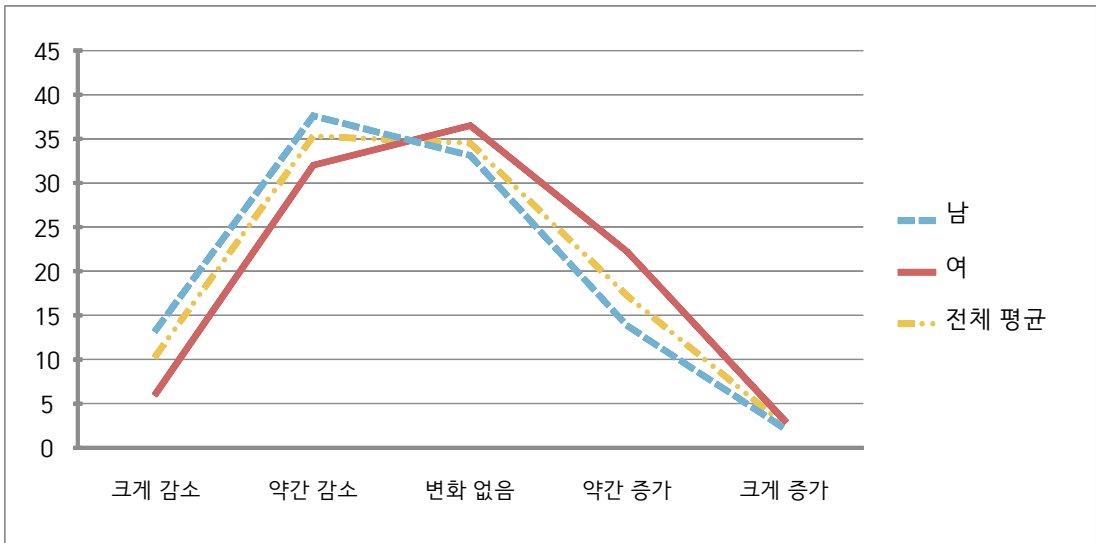
- (5) 설문 문항 16 :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대북 전쟁억지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표 3-73> 설문 문항 16에 대한 답변

| 구분 | 크게 감소 | 약간 감소 | 변화 없음 | 약간 증가 | 크게 증가 |
|-------|-------|-------|-------|-------|-------|
| 남 | 13.4 | 37.6 | 33.1 | 13.8 | 2.2 |
| 여 | 6.2 | 32.0 | 36.5 | 22.2 | 3.1 |
| 전체 평균 | 10.5 | 35.3 | 34.5 | 17.2 | 2.6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6> 설문 문항 1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 전쟁억지 능력의 변화에 대해 남성은 ‘약간 감소’를, 여성은 ‘변화없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크게 감소’는 남성이, ‘약간 증가’는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감소’ 쪽에, 여성의 경우는 ‘증가’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감소’와 ‘증가’에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2%, -3.8%, 여성의 경우 -7.6%, +5.5%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국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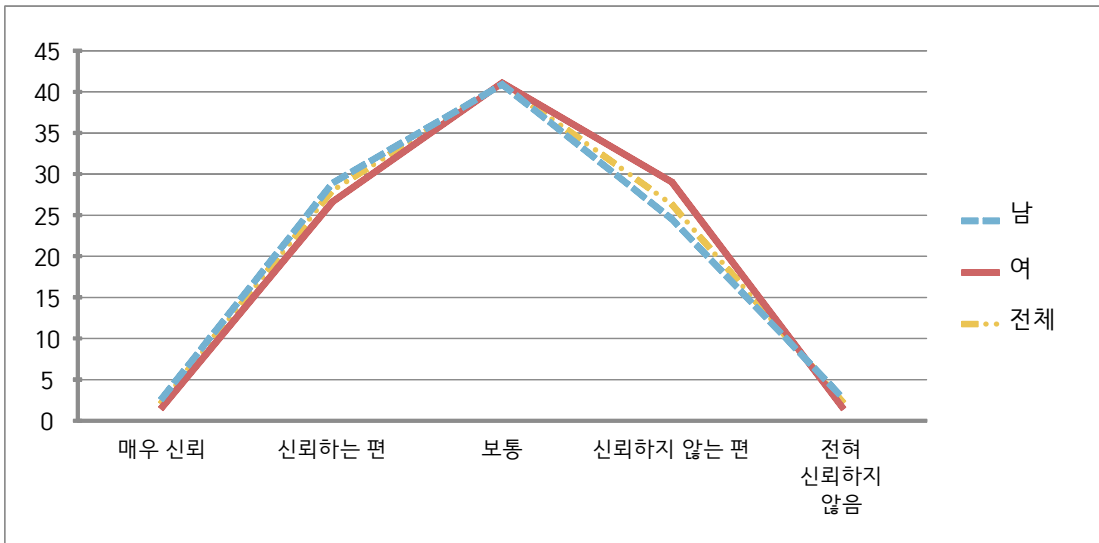
- (1) 설문 문항 17 :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국방백서, 대변인 성명 등)에 대하여 신뢰하십니까?”

<표 3-74> 설문 문항 17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신뢰 | 신뢰하는 편 | 보통 | 신뢰하지 않는 편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
| 남 | 2.8 | 28.9 | 40.9 | 24.5 | 2.9 |
| 여 | 1.7 | 26.6 | 41.1 | 29.0 | 1.7 |
| 전체 평균 | 2.3 | 28.0 | 41.0 | 26.3 | 2.4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7> 설문 문항 1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보통’을 많이 꼽았고, ‘신뢰하는 편’은 남성 응답률이, ‘신뢰하지 않는 편’은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긍정적인 답변이, 여성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신뢰하는 편’과 ‘신뢰하지 않는 편’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0.9%, -1.8%, 여성의 경우 -1.4%, +2.7%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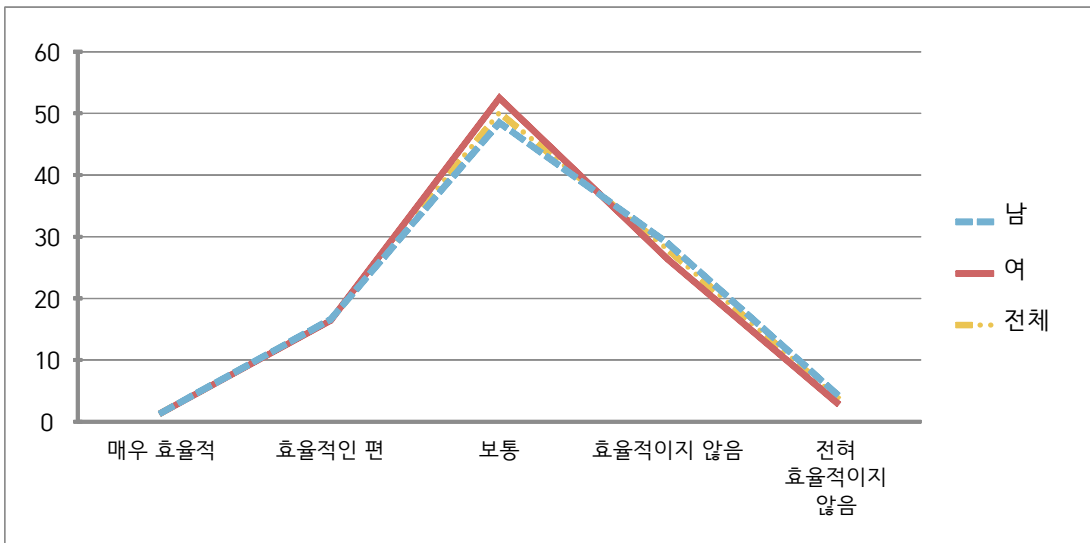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8 : “국방부는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75> 설문 문항 18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효율적 | 효율적인 편 | 보통 | 효율적이지 않음 |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 |
|-------|--------|--------|------|----------|-------------|
| 남 | 1.5 | 16.6 | 48.5 | 28.9 | 4.5 |
| 여 | 1.5 | 16.4 | 52.5 | 26.3 | 3.1 |
| 전체 평균 | 1.5 | 16.5 | 50.1 | 27.9 | 3.9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8> 설문 문항 1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택하였고,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효율적이지 않음’과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은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보통’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1.6%, 여성은 +2.4%의 차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균과 벌어진 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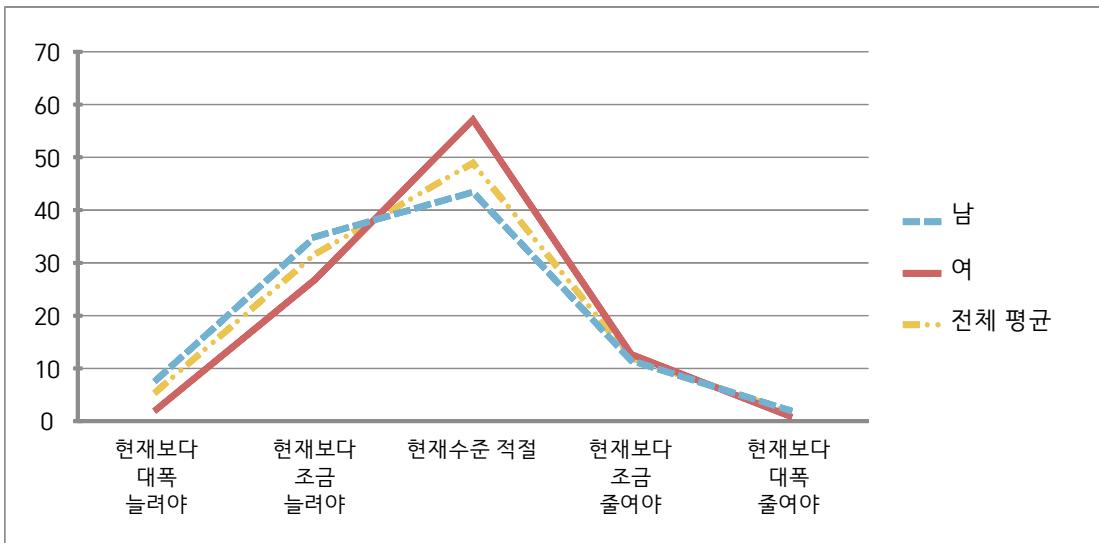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9 : “한국의 국방비 수준('08년 기준 GDP 대비 2.7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76> 설문 문항 19에 대한 답변

| 구분 |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 현재수준 적절 |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
|-------|----------------|----------------|------------|----------------|----------------|
| 남 | 7.9 | 34.9 | 43.4 | 11.5 | 2.1 |
| 여 | 2.3 | 26.8 | 57.1 | 12.7 | 1.0 |
| 전체 평균 | 5.7 | 31.6 | 48.9 | 12.0 | 1.7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69> 설문 문항 1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09.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현재수준 적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여성 응답률은 57%에 육박하였다.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많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와 ‘현재수준 적절’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3%, -5.5%, 여성의 경우 -4.8%, +8.2%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박근혜 정부(2014)

가. 안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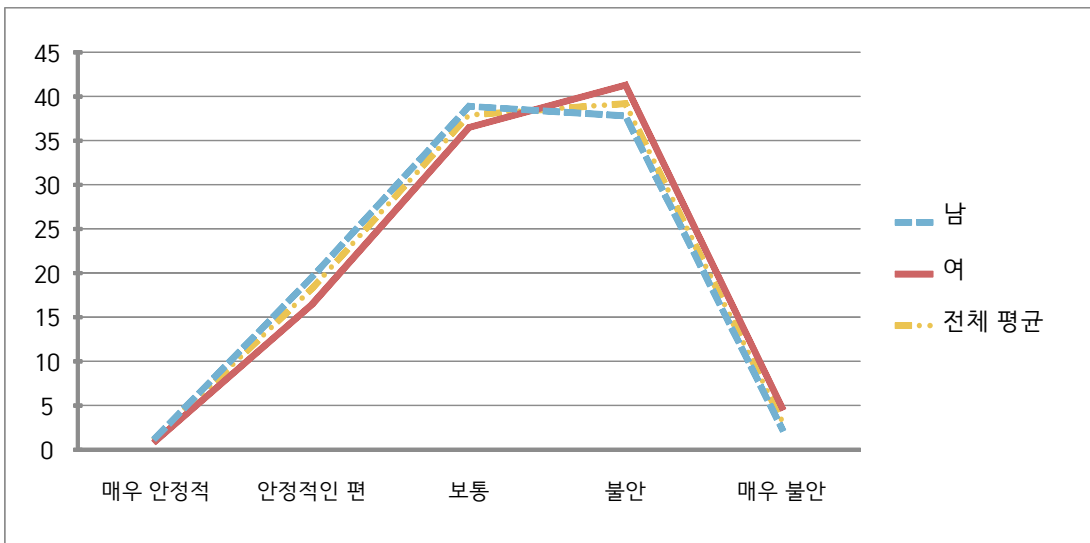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 : “최근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77> 설문 문항 1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안정적 | 안정적인 편 | 보통 | 불안 | 매우 불안 |
|-------|--------|--------|------|------|-------|
| 남 | 1.4 | 19.6 | 38.9 | 37.8 | 2.4 |
| 여 | 1.0 | 16.5 | 36.5 | 41.3 | 4.8 |
| 전체 평균 | 1.3 | 18.3 | 37.9 | 39.2 | 3.3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0> 설문 문항 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남성의 경우 ‘보통’을, 여성의 경우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에, 여성의 경우 불안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여 남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보통’과 ‘불안’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0%, -1.4%, 여성의 경우 -1.4%, +2.1%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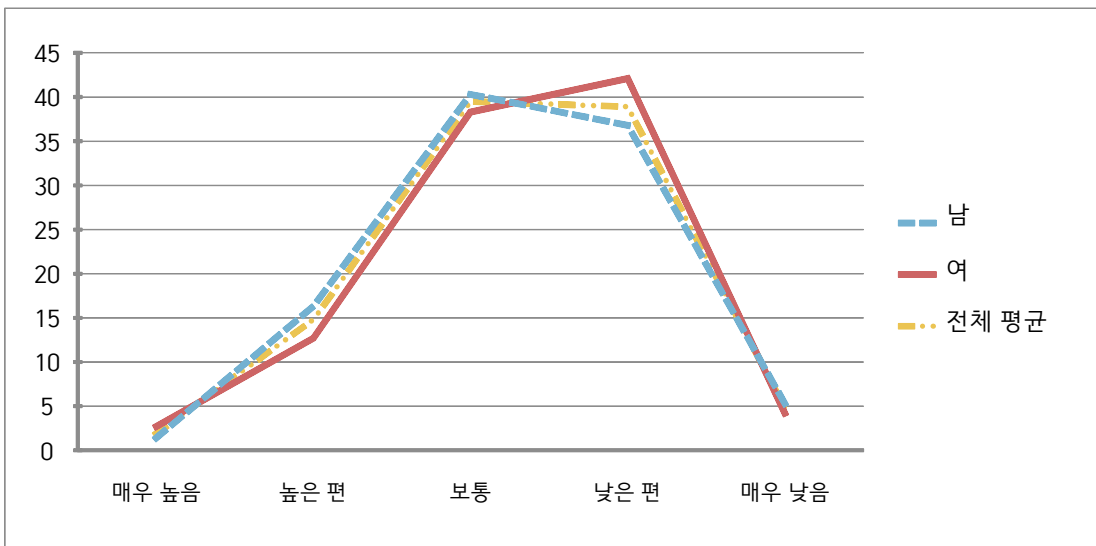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2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78> 설문 문항 2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높음 | 높은 편 | 보통 | 낮은 편 | 매우 낮음 |
|-------|-------|------|------|------|-------|
| 남 | 1.4 | 16.3 | 40.3 | 36.8 | 5.3 |
| 여 | 2.7 | 12.7 | 38.3 | 42.1 | 4.2 |
| 전체 평균 | 1.9 | 14.8 | 39.5 | 38.9 | 4.8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1> 설문 문항 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보통’을, 여성은 ‘낮은 편’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매우 높음’과 ‘낮은 편’은 여성 응답률이, ‘높은 편’은 남성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높은 쪽에, 여성은 낮은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보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편’과 ‘낮은 편’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5%, -2.1%, 여성의 경우 -2.1%, +3.2%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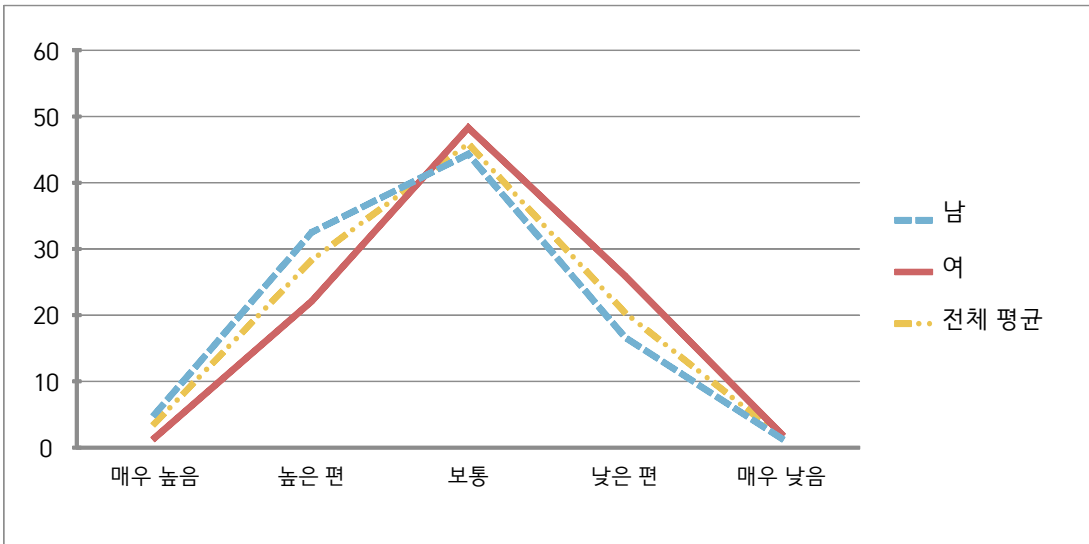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3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79> 설문 문항 3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높음 | 높은 편 | 보통 | 낮은 편 | 매우 낮음 |
|-------|-------|------|------|------|-------|
| 남 | 5.1 | 32.5 | 44.3 | 16.7 | 1.4 |
| 여 | 1.5 | 22.1 | 48.3 | 26.0 | 2.1 |
| 전체 평균 | 3.7 | 28.3 | 45.9 | 20.4 | 1.7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2> 설문 문항 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은 ‘매우 높음’과 ‘높은 편’에, 여성은 ‘낮은 편’과 ‘매우 낮음’에 더 많은 응답률을 모여 전반적으로 남성은 본인의 안보의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으며, 여성은 반대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편’과 ‘낮은 편’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2%, -3.7%, 여성의 경우 -6.2%, +5.6%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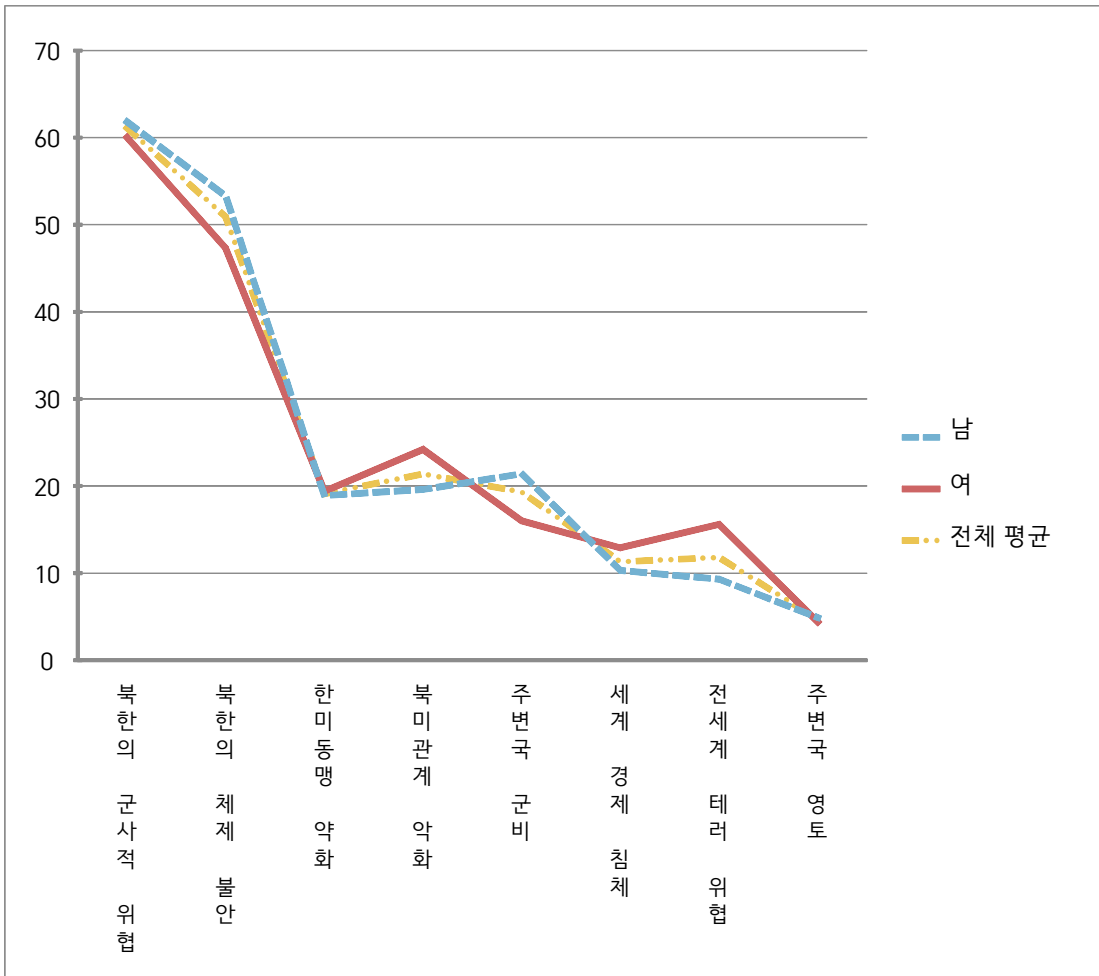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4 :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표 3-80> 설문 문항 4에 대한 답변

| 구분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북한의 체제 불안 | 한미 동맹 약화 | 북미 관계 악화 | 주변국 군비 경쟁 | 세계 경제 침체 | 전 세계 테러 위협 | 주변국 영토 분쟁 |
|-------|------------|-----------|----------|----------|-----------|----------|------------|-----------|
| 남 | 61.8 | 53.3 | 18.9 | 19.6 | 21.4 | 10.3 | 9.3 | 4.9 |
| 여 | 60.0 | 47.3 | 19.4 | 24.2 | 16.0 | 12.9 | 15.6 | 4.4 |
| 전체 평균 | 61.1 | 50.9 | 19.1 | 21.4 | 19.3 | 11.3 | 11.8 | 4.7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3> 설문 문항 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요인들에 대해 남녀 모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을 꼽았다. 남성의 경우는 ‘주변국 군비경쟁’을, 여성의 경우 ‘북미관계 악화’를 다음 순위로 꼽았고, 전 세계 테러 위협은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모두 북한 요인을 강한 위협요소로 꼽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주변국 군비경쟁’과 ‘전 세계 테러 위협’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1%, -2.5%, 여성의 경우 -2.7%, +3.8%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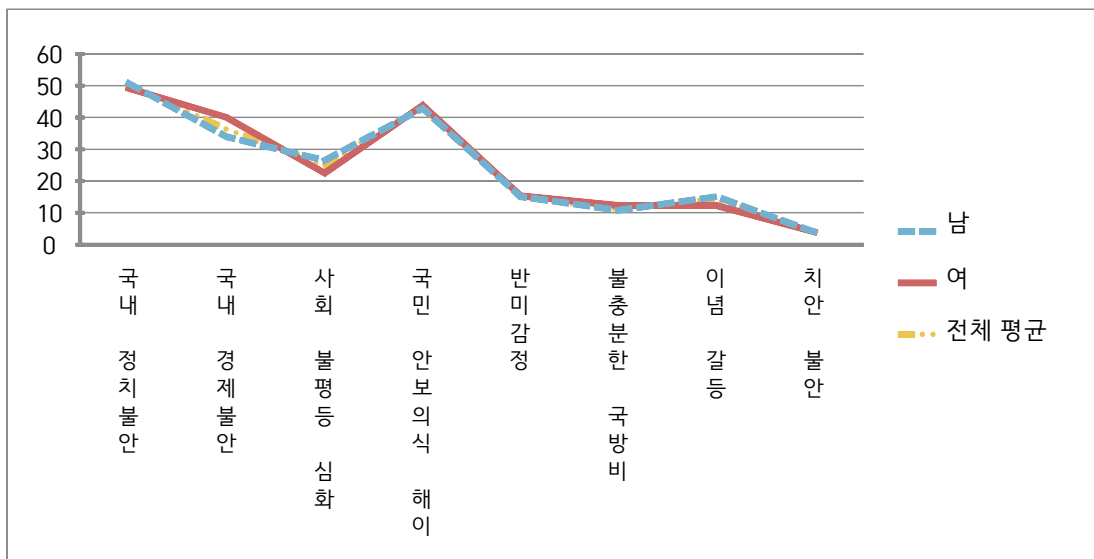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5 :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표 3-81> 설문 문항 5에 대한 답변

| 구분 | 국내 정치 불안 | 국내 경제 불안 | 사회 불평등 심화 | 국민 안보의식 해이 | 반미 감정 | 불충분한 국방비 | 이념 갈등 | 치안 불안 |
|-------|----------|----------|-----------|------------|-------|----------|-------|-------|
| 남 | 50.7 | 33.9 | 26.5 | 42.9 | 15.1 | 10.8 | 15.1 | 4.0 |
| 여 | 49.2 | 40.0 | 22.5 | 43.8 | 15.4 | 12.3 | 12.3 | 4.0 |
| 전체 평균 | 50.1 | 36.3 | 24.9 | 43.3 | 15.3 | 11.4 | 14.0 | 4.0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4> 설문 문항 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내요인으로 남녀 모두 ‘국내 정치 불안’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국민 안보의식 해이’를 들었다. ‘국내 경제 불안’의 경우는 여성 응답자가, ‘이념 갈등’은 남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내 경제 불안’과 ‘사회 불평등 심화’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4%, +1.6%, 여성의 경우 +3.7%, -2.4%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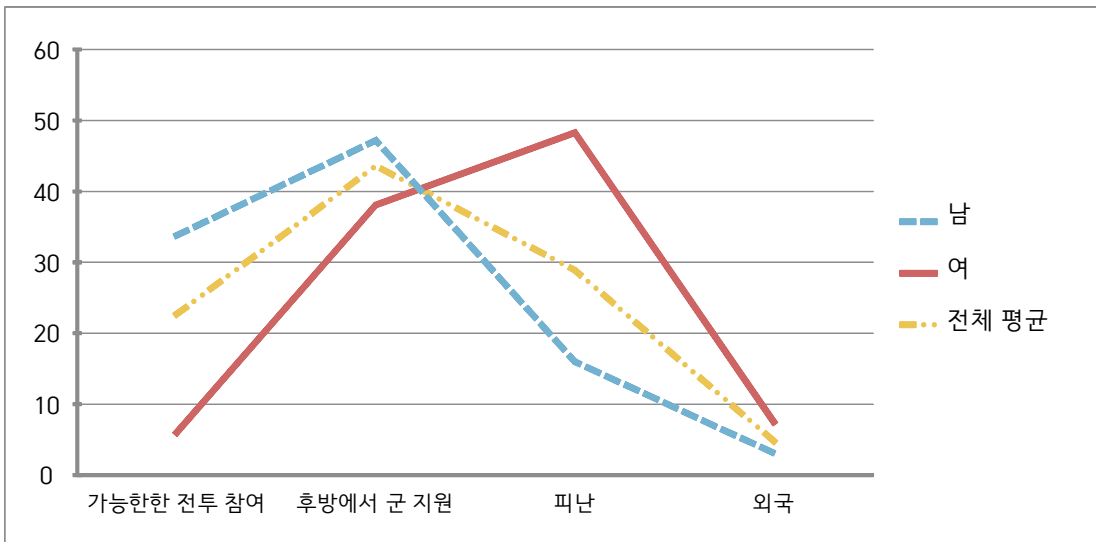
(6) 설문 문항 6 :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 3-82> 설문 문항 6에 대한 답변

| 구분 | 가능한 한 전투 참여 | 후방에서 군 지원 | 피난 | 외국 |
|-------|-------------|-----------|------|-----|
| 남 | 33.8 | 47.2 | 16.0 | 3.1 |
| 여 | 6.0 | 38.1 | 48.3 | 7.5 |
| 전체 평균 | 22.7 | 43.6 | 28.9 | 4.8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5> 설문 문항 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전쟁발발시 행동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의견차가 확연히 나타났다. 남성은 ‘후방에서 군 지원’을, 여성은 ‘피난’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능한 한 전투 참여’는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외국’은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가능한 한 전투참여’와 ‘피난’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1.1%, -11.1%, 여성의 경우 -16.7%, +19.4%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북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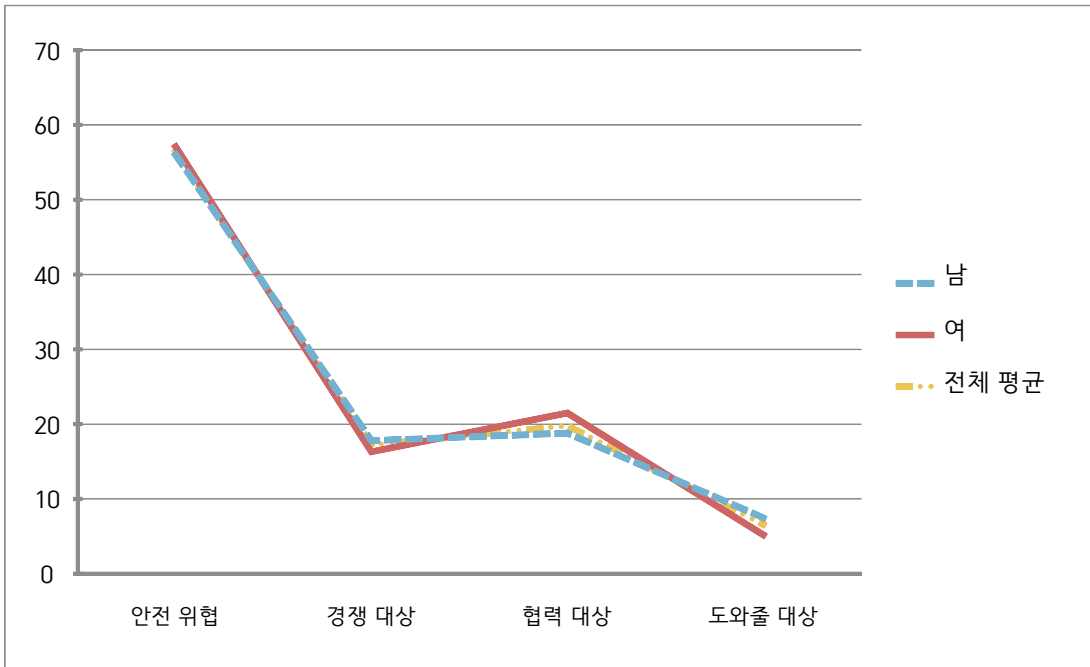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7 :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 3-83> 설문 문항 7에 대한 답변

| 구분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
|-------|----------------------|----------------|---------------------|----------------|
| 남 | 56.0 | 17.8 | 18.8 | 7.5 |
| 여 | 57.1 | 16.3 | 21.5 | 5.2 |
| 전체 평균 | 56.4 | 17.2 | 19.8 | 6.6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6> 설문 문항 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은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은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평균과는 남성이 -1.0%, 여성이 +1.7%의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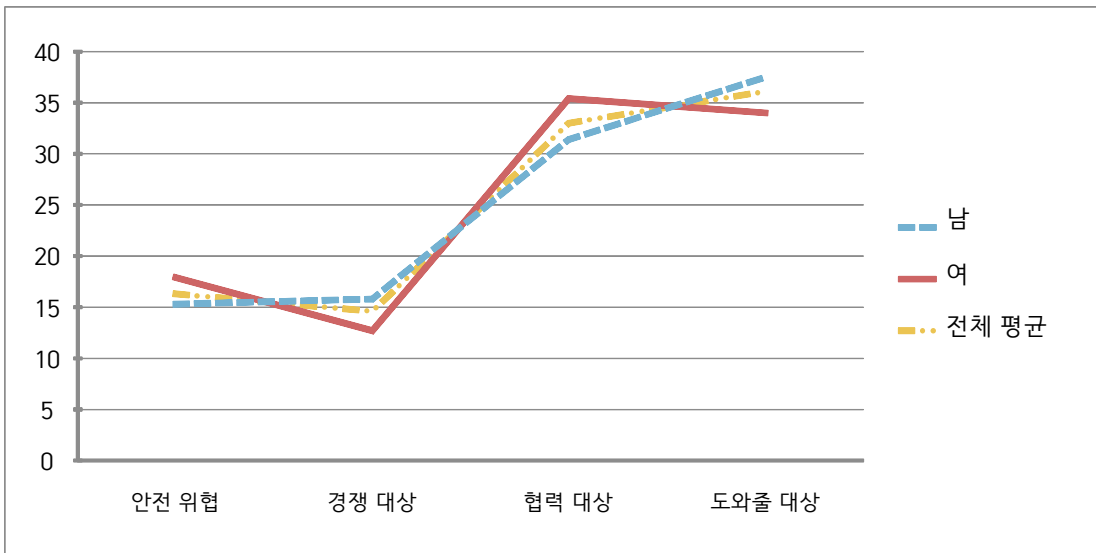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8 : “북한 주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 3-84> 설문 문항 8에 대한 답변

| 구분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
|-------|----------------------|----------------|---------------------|----------------|
| 남 | 15.3 | 15.8 | 31.4 | 37.5 |
| 여 | 17.9 | 12.7 | 35.4 | 34.0 |
| 전체 평균 | 16.3 | 14.6 | 33.0 | 36.1 |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7> 설문 문항 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남성의 경우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을, 여성의 경우는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의 안전

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답변은 여성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우리과 서로 경쟁하는 대상'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2%, -1.6%, 여성의 경우 -1.9%, +2.4%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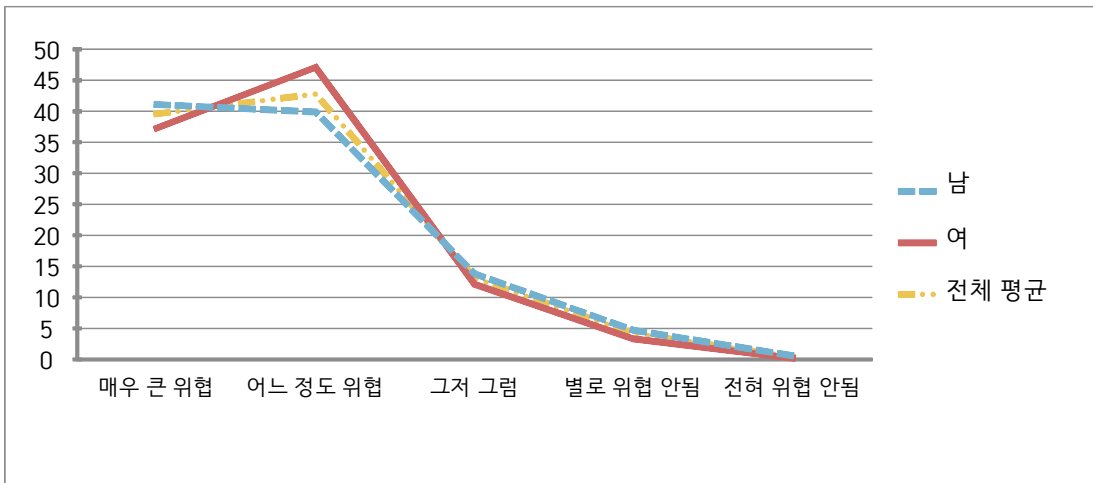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9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85> 설문 문항 9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큰 위협 | 어느 정도 위협 | 그저 그럼 | 별로 위협 안 됨 | 전혀 위협 안 됨 |
|-------|---------|----------|-------|-----------|-----------|
| 남 | 41.1 | 39.9 | 13.8 | 4.7 | 0.6 |
| 여 | 37.3 | 47.1 | 12.1 | 3.3 | 0.2 |
| 전체 평균 | 39.6 | 42.8 | 13.1 | 4.2 | 0.4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8> 설문 문항 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위협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경우 ‘매우 큰 위협’을, 여성은 ‘어느 정도 위협’을 가장 많이 택하였다. 남녀 모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저 그럼’은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어느 정도 위협’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는 남성이 -2.9%, 여성이 +4.3%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에서 더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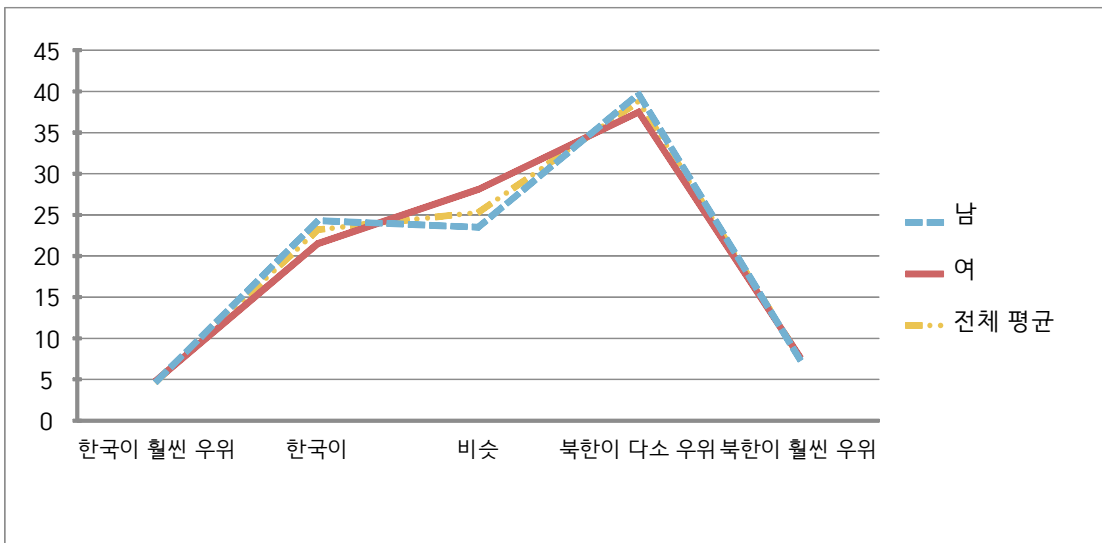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10 : “한국의 군사력(주한미군 제외)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86> 설문 문항 10에 대한 답변

| 구분 | 한국이 훨씬 우위 | 한국이 다소 우위 | 비슷 | 북한이 다소 우위 | 북한이 훨씬 우위 |
|-------|-----------|-----------|------|-----------|-----------|
| 남 | 4.9 | 24.3 | 23.5 | 39.7 | 7.6 |
| 여 | 5.0 | 21.5 | 28.1 | 37.5 | 7.9 |
| 전체 평균 | 4.9 | 23.2 | 25.3 | 38.8 | 7.8 |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79> 설문 문항 1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북한이 다소 우위’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한국이 다소 우위’는 남성이, ‘비슷’은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전반적으로 군사력이 비슷하거나 북한이 우위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비슷’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는 남성이 -1.8%, 여성이 +2.8%를 보이며 여성이 평균값과 더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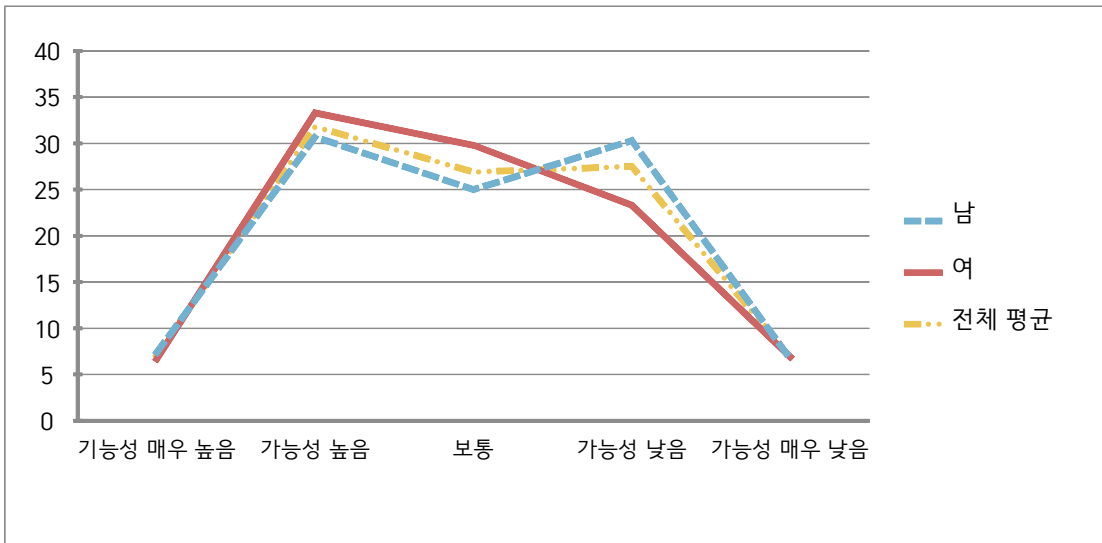
(5) 설문 문항 11 : “귀하는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가능성(2-3년 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 3-87> 설문 문항 11에 대한 답변

| 구분 | 가능성 매우 높음 | 가능성 높음 | 보통 |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매우 낮음 |
|-------|-----------|--------|------|--------|-----------|
| 남 | 7.4 | 30.7 | 25.0 | 30.3 | 6.7 |
| 여 | 6.7 | 33.3 | 29.8 | 23.3 | 6.9 |
| 전체 평균 | 7.1 | 31.8 | 26.9 | 27.5 | 6.8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0> 설문 문항 11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남녀 모두 ‘가능성 높음’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가능성 높음’과 ‘가능성 낮음’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 하였으며, 여성은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보통’과 ‘가능성 낮음’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9%, +2.8%, 여성의 경우 +2.9%, -4.2%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동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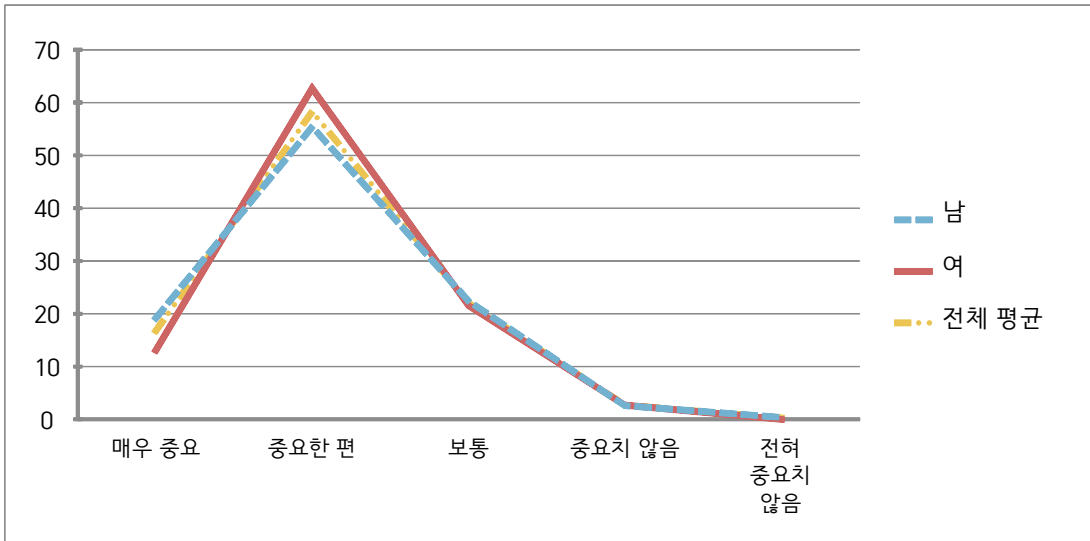
(1) 설문 문항 12 :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88> 설문 문항 12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중요 | 중요한 편 | 보통 | 중요치 않음 | 전혀 중요치 않음 |
|-------|-------|-------|------|--------|-----------|
| 남 | 19.2 | 55.4 | 22.4 | 2.6 | 0.4 |
| 여 | 13.1 | 62.7 | 21.5 | 2.7 | 0.0 |
| 전체 평균 | 16.8 | 58.3 | 22.0 | 2.7 | 0.3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1> 설문 문항 12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의 한국안보에의 중요성에 대해 남녀 모두 ‘중요한 편’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매우 중요’는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녀 모두 중요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편’이라는 답변과 평균값과의 격차는 남성의 경우 -2.9%, 여성의 경우 +4.4%의 격차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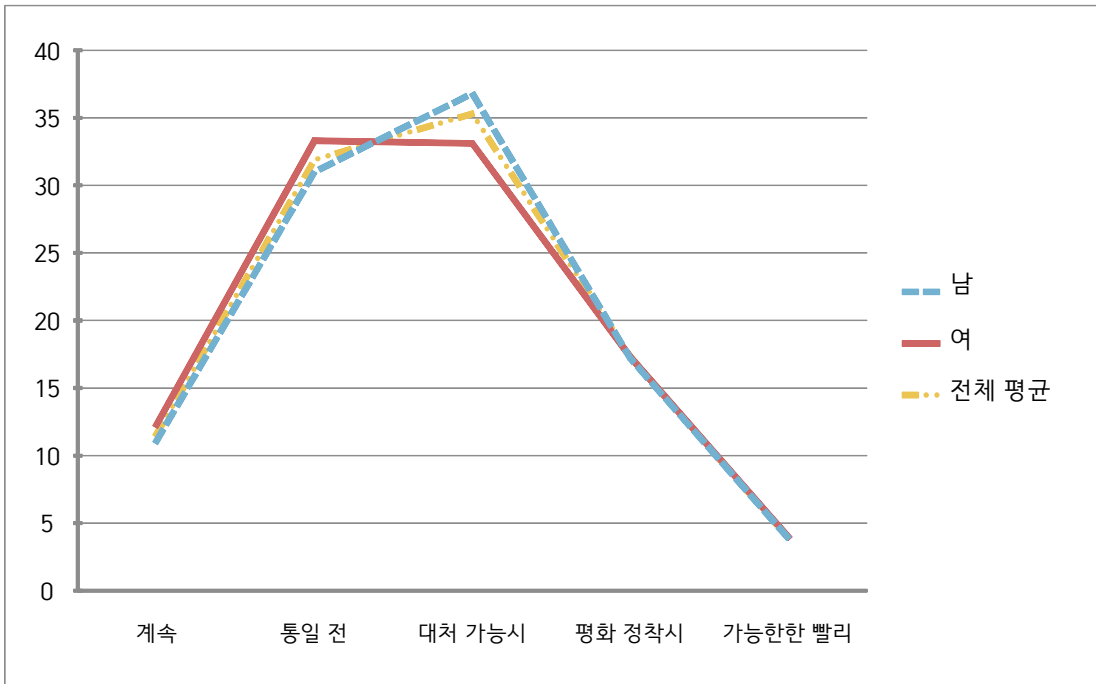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3 :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89> 설문 문항 13에 대한 답변

| 구분 | 통일 이후에도 계속 | 통일 전까지 |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 | 한반도 평화 정착시 | 가능한 한 빨리 철수 |
|-------|------------|--------|-------------------|------------|-------------|
| 남 | 11.1 | 31.0 | 36.8 | 17.2 | 3.9 |
| 여 | 12.3 | 33.3 | 33.1 | 17.3 | 4.0 |
| 전체 평균 | 11.6 | 31.9 | 35.3 | 17.3 | 3.9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2> 설문 문항 13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 남성의 경우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까지를, 여성의 경우 ‘통일 전까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계속’은 여성 응답률이, ‘가능한 한 빨리 철수’는 남성과 여성 응답률이 비슷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라는 답변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는 남성이 +1.5%, 여성이 -1.8%로, 여성의 경우 평균값과 더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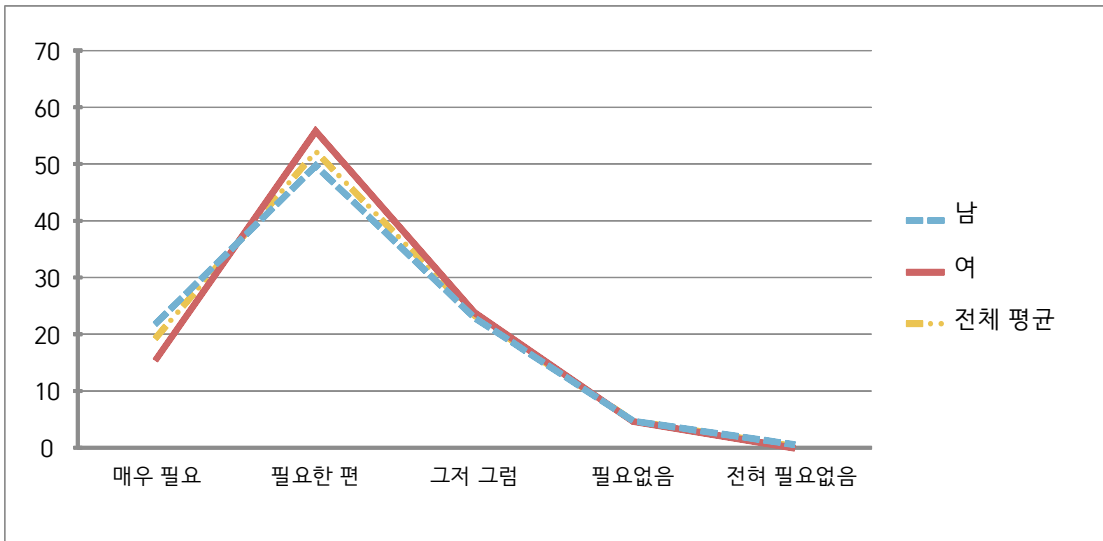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4 :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을지-프리덤 가디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90> 설문 문항 14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필요 | 필요한 편 | 그저 그럼 | 필요 없음 | 전혀 필요 없음 |
|-------|-------|-------|-------|-------|----------|
| 남 | 22.1 | 49.7 | 22.9 | 4.7 | 0.6 |
| 여 | 15.8 | 55.8 | 23.8 | 4.6 | 0.0 |
| 전체 평균 | 19.6 | 52.2 | 23.3 | 4.7 | 0.3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3> 설문 문항 14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필요한 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매우 필요’는 남성 응답률이 높았다. ‘그저 그럼’은 여성 응답률이 약간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 응답률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매우 필요’와 ‘필요한 편’의 경우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과 일치, 여성의 경우 -0.2%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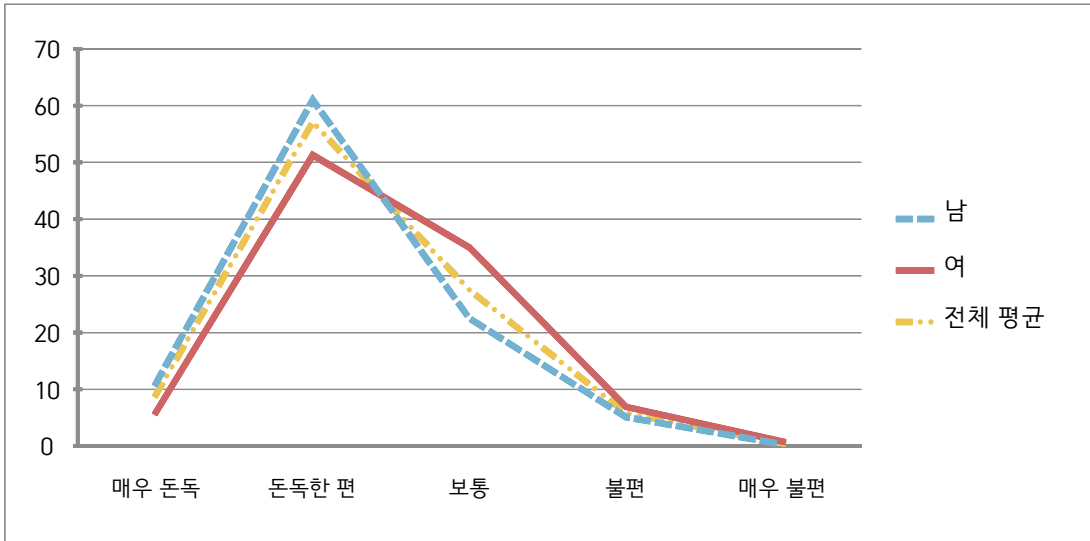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15 :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91> 설문 문항 15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돈독 | 돈독한 편 | 보통 | 불편 | 매우 불편 |
|-------|-------|-------|------|-----|-------|
| 남 | 11.1 | 61.0 | 22.5 | 5.1 | 0.3 |
| 여 | 6.0 | 51.3 | 35.0 | 6.9 | 0.8 |
| 전체 평균 | 9.1 | 57.1 | 27.5 | 5.8 | 0.5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4> 설문 문항 15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돈독한 편’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보통’은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고, ‘불편’ 또한 여성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돈독한 편’과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9%, -5.0%, 여성의 경우 -5.8%, +6.5%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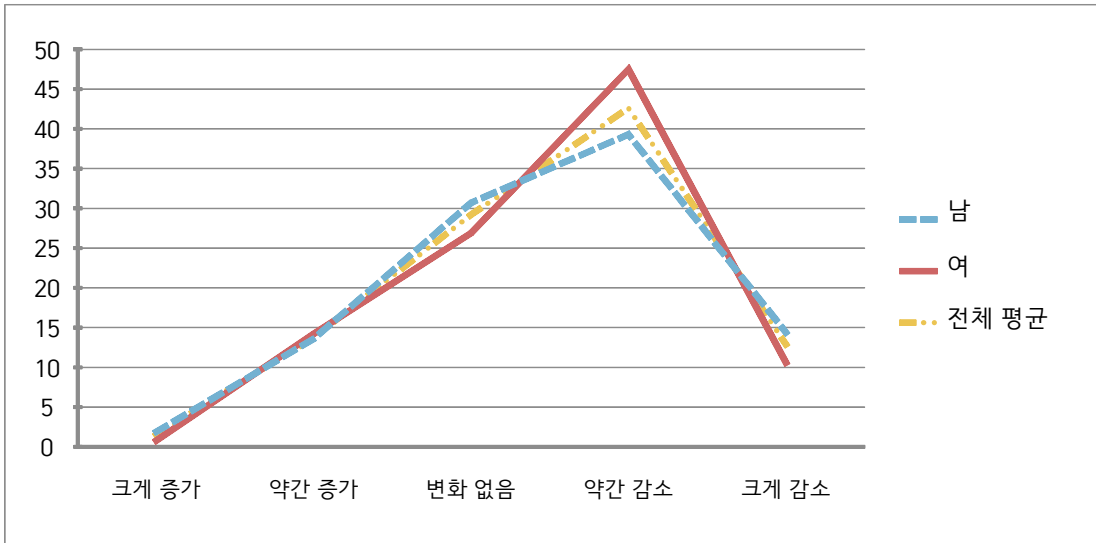
- (5) 설문 문항 16 :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표 3-92> 설문 문항 16에 대한 답변

| 구분 | 크게 증가 | 약간 증가 | 변화 없음 | 약간 감소 | 크게 감소 |
|-------|-------|-------|-------|-------|-------|
| 남 | 1.9 | 13.6 | 30.7 | 39.3 | 14.4 |
| 여 | 0.8 | 14.2 | 26.9 | 47.5 | 10.6 |
| 전체 평균 | 1.5 | 13.8 | 29.2 | 42.6 | 12.9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5> 설문 문항 16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 감축시 우리 군의 북한 전쟁 도발 억제력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감소’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은 답변으로 채택되었다. ‘변화 없음’은 다음 순위로,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크게 증가’와 ‘크게 감소’는 남성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약간 감소’라는 답변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는 남성이 -3.3%, 여성이 +4.9%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과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국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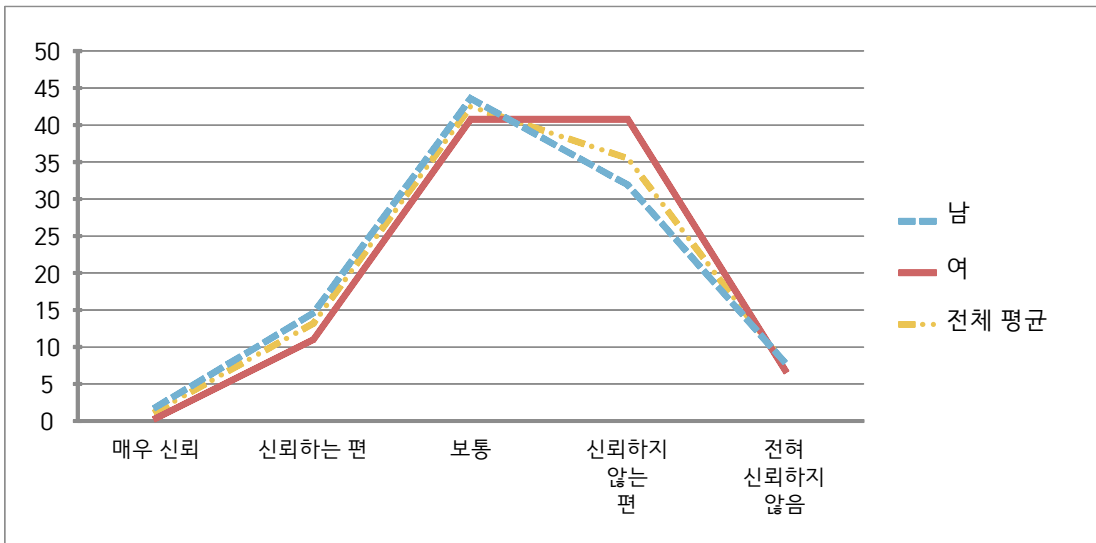
- (1) 설문 문항 17 :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국방백서, 대변인 성명 등)에 대하여 신뢰하십니까?”

<표 3-93> 설문 문항 17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신뢰 | 신뢰하는 편 | 보통 | 신뢰하지 않는 편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
| 남 | 1.9 | 14.6 | 43.6 | 31.9 | 7.9 |
| 여 | 0.4 | 11.0 | 40.8 | 40.8 | 6.9 |
| 전체 평균 | 1.3 | 13.2 | 42.5 | 35.5 | 7.5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6> 설문 문항 17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부 발표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이 ‘보통’과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타나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6%, 여성의 경우 +5.3%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균값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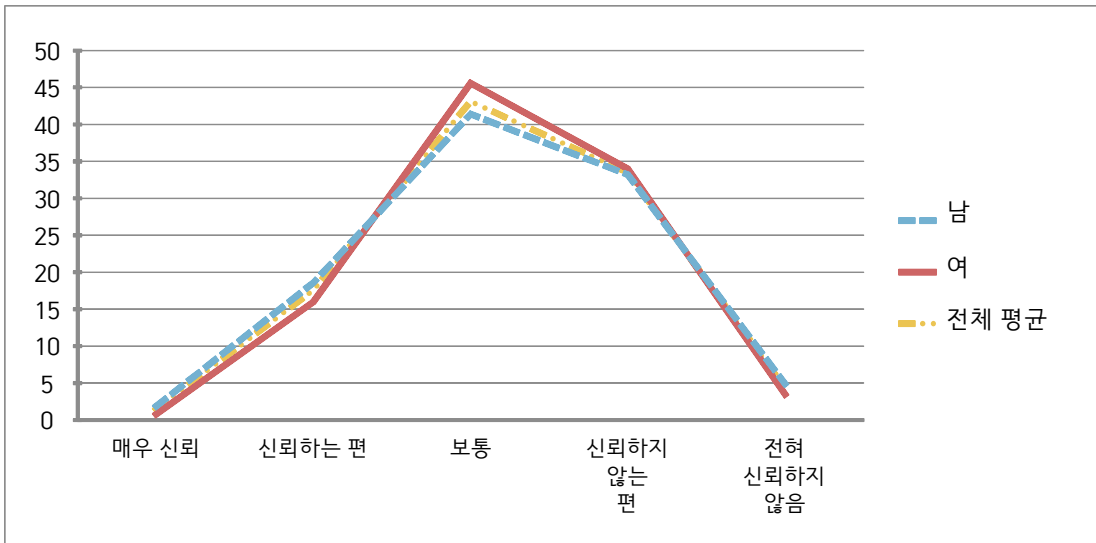
(2) 설문 문항 18 :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표 3-94> 설문 문항 18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신뢰 | 신뢰하는 편 | 보통 | 신뢰하지 않는 편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
| 남 | 1.9 | 18.6 | 41.4 | 33.2 | 4.9 |
| 여 | 0.8 | 16.0 | 45.6 | 34.0 | 3.5 |
| 전체 평균 | 1.5 | 17.6 | 43.1 | 33.5 | 4.3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7> 설문 문항 18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우리 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 남녀 모두 가장 많은 답변으로 채택되었고,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다음 순위로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 꼽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보통’이라는 답변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7%, 여성의 경우 +2.5%의 격차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균값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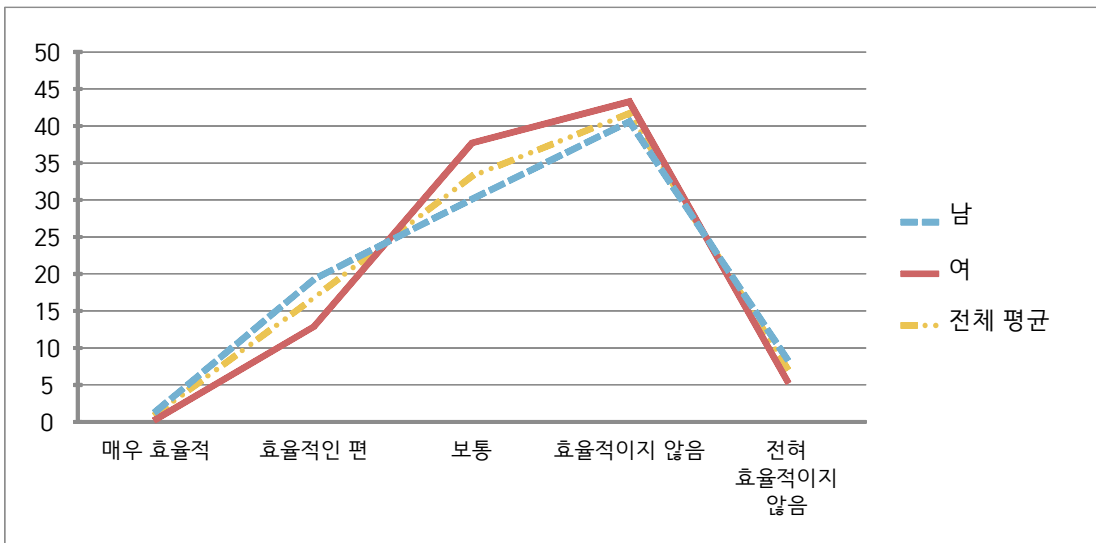
(3) 설문 문항 19 : “국방부는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95> 설문 문항 19에 대한 답변

| 구분 | 매우 효율적 | 효율적인 편 | 보통 | 효율적이지 않음 |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 |
|-------|--------|--------|------|----------|-------------|
| 남 | 1.5 | 19.3 | 30.1 | 40.6 | 8.5 |
| 여 | 0.4 | 12.9 | 37.7 | 43.3 | 5.6 |
| 전체 평균 | 1.1 | 16.8 | 33.2 | 41.7 | 7.3 |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8> 설문 문항 19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효율적이지 않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은 여성 응답률이 더 많았으며, ‘효율적인 편’은 남성 응답률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국방비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녀 응답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효율적인 편’과 ‘보통’의 응답률과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5%, -3.1%, 여성의 경우 -3.9%, +4.5%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평균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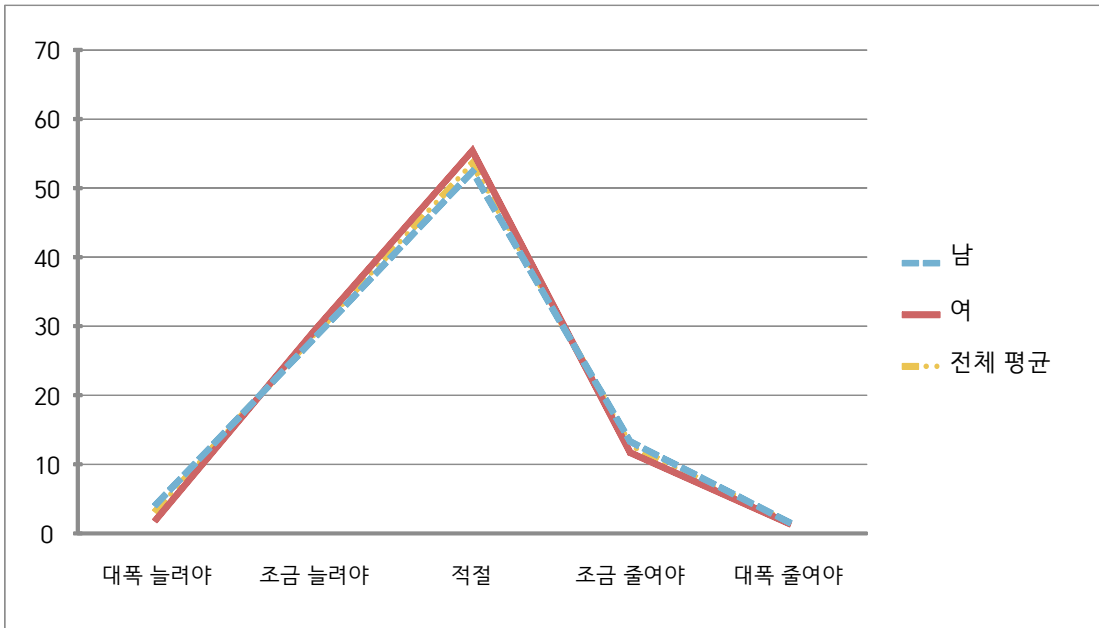
(4) 설문 문항 20 : “한국의 국방비 수준(14년 기준 GDP 대비 2.5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96> 설문 문항 20에 대한 답변

| 구분 |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 현재수준 적절 |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
|-------|----------------|----------------|------------|----------------|----------------|
| 남 | 4.3 | 28.3 | 52.4 | 13.3 | 1.7 |
| 여 | 2.1 | 29.4 | 55.4 | 11.7 | 1.5 |
| 전체 평균 | 3.4 | 28.8 | 53.6 | 12.7 | 1.6 |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89> 설문 문항 20에 대해 답변한 남녀 비율



* 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4.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수준에 대해 남녀 모두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남녀 응답률과 평균값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적격은 0.8%에서 많게는 +0.9%, 여성의 경우 적격은 -1.3%, 많게는 +1.8%로 평균과의 격차는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안보의식 성별차 분석 결과

1. 평균값과의 격차로 본 조사결과 분석

제2절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연구의 대상이 된 6개 년도에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를 토대로 남녀 응답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격차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니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별한 문항 전체의 여성 답변율이 남성보다 평균과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표본을 일반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과 안보의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남녀 응답률이 평균값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면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전쟁 참여 의지’에 관한 것으로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가능한 한 전투 참여’를, 여성의 경우는 ‘피난’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물론 문항의 특성상 여성의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 점, 자원하지 않으면 군 경험이 전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예상 가능한 답변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투 참여’라는 답변에 대해 남녀 차이가 34%, ‘피난’은 22%의 차이를 보였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각각 35.4%, 32.4%,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27.8%, 32.3%의 차이를 보였다. ‘가능한 한 전투 참여’의 경우 남녀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거나, ‘피난’은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평균값에서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 문항은 노태우 정부의 경우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귀하께서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민정부의 경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금년 들어 국방비 지출을 감축하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전보다 해이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여 정부는 “귀하는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향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모두 평균과 2% 이내의 격차를 보였고 남녀 간의 격차도 근소한 수준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문민정부에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에서 선별한 12개의 문항 모두가 남성의 응답률이 평균과 1.0% 이내의 격차를 보이며 거의 유사한 답변 형태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평균과의 격차가 남성에 비해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모름’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남녀 수 분석

저자는 안보의식에 있어서 남녀가 어떤 응답률을 보이는지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역대 정부별 안보의식 조사의 설문조사 내용 중 안보의식 분석모형에 따라 선정된 문항들의 답변에 ‘모름’ 또는 ‘잘 모름’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만을 대상으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였다. 역대 정부 2년차(단, 문민정부는 3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7> ‘모름’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남녀 응답률 분석표

| 정 부 | 설문 번호 | 설문 요약 | 비율(%) | | |
|--------|----------|----------------------------------|------------|------------|-----|
| | | | 남 | 여 | |
| 노태우 정부 | 5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인식 | 1.0 | 6.3 | |
| | 8 | 현재의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 5.6 | 14.1 | |
| 문민정부 | 2 | 북한 남침시 전쟁 결과 예측 | 11.7 | 19.2 | |
| | 6 | 북한 남침의 방식 | 8.3 | 17.4 | |
| | 9 |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유지비 한국 분담에 대한 인식 | 9.3 | 16.7 | |
| 국민의 정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 참여 정부 | 1 |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 0.5 | 1.5 | |
| | 2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0.7 | 1.7 | |
| | 3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0.8 | 2.9 | |
| | 6 | 전쟁발발시 행동양상 | 5.9 | 14.2 | |
| | 7 | 주한미군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 1.8 | 3.4 | |
| | 8 | 국방백서에 북한군 ‘주적’ 표기 | 5.5 | 18.1 | |
| | 9 |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 3.4 | 8.2 | |
| | 10 | 북한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 | 3.9 | 3.2 | |
| | 11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 0.8 | 0.5 | |
| | 12 | 한국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 | 0.3 | 1.4 | |
| | 13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인식 | 1.1 | 2.9 | |
| | 14 |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인식 | 0.3 | 3.8 | |
| | 15 |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 | 1.0 | 2.2 | |
| | 16 |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전쟁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 3.4 | 7.2 | |
| | 17 | 국방부 제반 발표의 신뢰도 | 3.4 | 6.0 | |
| | 18 | 국방비 운용상태의 효율성 | 7.0 | 12.1 | |
| | 이명박 정부 | 6 | 전쟁발발시 행동양상 | 0.0 | 0.2 |
| | 박근혜 정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름’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남녀 비율은 대체적으로 남성이 낮았고 여성이 높았다. 단, 참여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중 북한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와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름’을 택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각각 0.7, 0.3% 높았다.

결론적으로 위 분석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안보문제에 대해 여성의 인식이 남성보다 낮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성의 답변율과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진보 정권 vs. 보수 정권의 안보의식 비교

흔히들 진보 정권이라 일컫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그리고 보수 정권이라 일컫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녀 안보의식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국민의 정부의 ‘안보관’의 경우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남녀 모두 불안하다고 보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안정적이라는 답변을 많이 선택하였다. 국가안보 위협요소의 경우 여성은 국내 경제 불안을, 남성은 국내 정치 불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안보의식 해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해이해졌다는 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북한관’의 경우 북한의 소규모 군사도발에 대해 남성은 군사적 수준의 대응을, 여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과를 받아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남녀 모두 한국이 북한보다 뒤진다고 생각하였다. ‘동맹관’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대처 가능시 또는 통일 이후 철수하는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지지하느냐의 질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를 더 많이 선택하였으나 반대나 절대 반대는 남성의 답변율이 더 많았다. ‘국방관’의 경우 국방비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은 증대해야 한다는 쪽에, 여성은 축소하는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남성은 여성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더 선택하였다. 군의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남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중립’이라는 답변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참여정부의 ‘안보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 남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답변을, 여성은 불안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 남성은 높은 편 또는 보통이라는 의견을, 여성은 보통 또는 낮은 편이라는 의

견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은 높은 편, 여성은 보통 또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외부 요인에 대해 남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 불안을, 여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동맹 약화를 꼽았다. 내부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우 국내 정치 및 경제 불안이라고 보았고, 남성의 경우는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정책을 높게 꼽았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성의 1/3 이상은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를, 여성의 1/3 이상은 피난을 선택하였다. ‘북한관’의 경우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남성은 한국이 앞선다는 쪽에 여성보다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여성은 북한이 앞선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방백서의 주적 명시에 대해 남성은 명시하는 편이 많다는 쪽에, 여성은 명시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남성은 낮은 편에, 여성은 높은 편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더 찬성하였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남녀 모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동맹관’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시 철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남성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성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돈독하다고 보았고, 여성은 불편하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전쟁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많았고,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남성이 더 많았다. ‘국방관’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제반 발표에 대해 남녀 모두 신뢰하는 편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방비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국방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안보관’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남녀 모두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불안’이 ‘안정’보다 더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 또는 낮은 편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서는 남성은 ‘높은 편’을, 여성은 ‘보통’ 또는 ‘낮은 편’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남녀 모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 불안을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북미관계 악화와 세계경제 침체를 선택하였다.

국내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및 경제 불안을 높게 인식하였고, 국민 안보의식 해이가 다음 순이었다. 전쟁발발시 남성은 가능한 한 전투 참여를, 여성은 후방에서 군 지원과 피난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북한관’에서는 남녀 모두 북한 정권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이라는 의견에 남녀 모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위협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여성은 한국이 다소 우위라고, 남성은 북한이 다소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동맹관’에서 주한미군의 영향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주둔시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통일 전까지와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은 돈독한 편을, 여성은 보통 또는 불편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 전쟁억지 능력 변화에 대해서는 남성은 감소 쪽에 여성은 변화 없거나 증가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방관’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남녀 모두 신뢰 또는 신뢰하지 않는 편에 반반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방비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은 늘려야 한다는 쪽에, 여성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안보관’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남성은 안정적이라는 쪽에, 여성은 불안 쪽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남성은 높은 편에, 여성은 낮은 편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남성은 높은 편에, 여성은 낮은 편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요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 불안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안과 국민 안보의식 해이에 대해 남녀 모두 높게 인식하였다. 전쟁발발시 행동은 남성의 경우 ‘가능한 한 전투 참여’와 ‘후방에서 군 지원’을, 여성은 ‘피난’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북한관’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북한이 다소 우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동맹관’의 경우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은 남녀 모두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주둔 시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통일 전까지와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돈독한 편이라고 생각하되 불편하다는 의견은 여성 응답률이 더 많았다. 주한미군 감축시 우리 군의 북한 전쟁 도발 억제력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은 답변으로 채택되었으나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국방관’에 있어서 국방부 발표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신뢰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여성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군에 대한 신뢰도는 남녀 모두 보통 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은 남녀 모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 효율적인 편이라는 의견을 여성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국방비 수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50% 이상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남녀 안보의식 비교를 위해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방관에 선정된 문항 중 네 개 연도에 공통적으로 선정된 문항에 대한 답변율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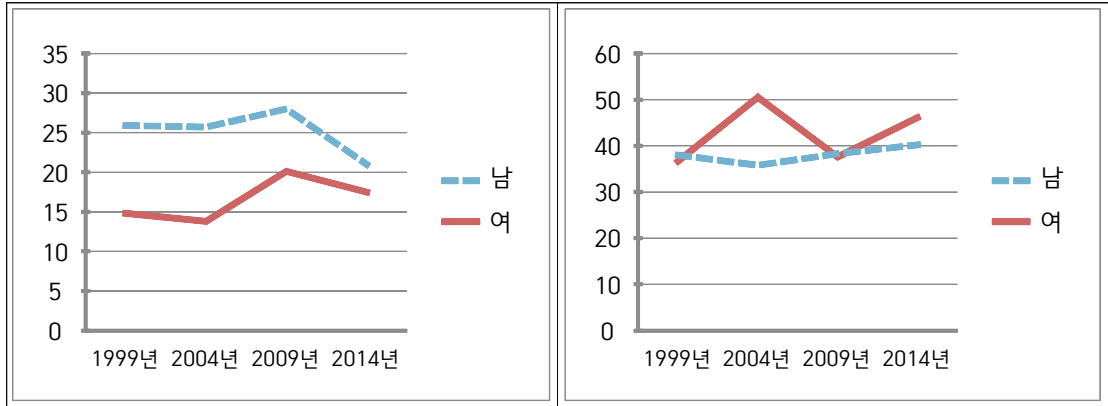
가. 안보관 공통 문항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표 3-98>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안정적인 편 | 보통 | 불안한 편 |
|--------|----|--------|------|-------|
| 국민의 정부 | 남 | 25.9 | 36.1 | 38.0 |
| | 여 | 14.8 | 48.4 | 36.7 |
| 참여 정부 | 남 | 25.7 | 37.9 | 35.8 |
| | 여 | 13.8 | 34.1 | 50.5 |
| 이명박 정부 | 남 | 28.0 | 43.7 | 38.3 |
| | 여 | 20.1 | 42.3 | 37.6 |
| 박근혜 정부 | 남 | 21.0 | 38.9 | 40.2 |
| | 여 | 17.5 | 36.5 | 46.1 |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0>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안정적인 편”을 선택한 남녀 비율 “불안정한 편”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보 정권의 경우보다 보수 정권의 경우, 한국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높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참여정부의 경우, 여성 과반수 이상이 특히 불안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진보, 보수 정권 모두 여성의 경우는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남성보다 많거나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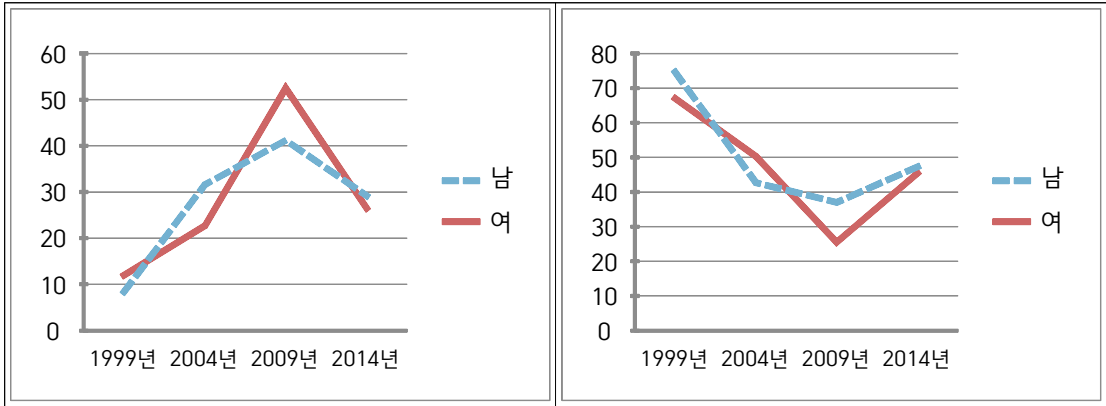
나. 북한관 공통 문항 : 남북한 군사력 비교

<표 3-99>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한국 우위 | 비슷 | 북한 우위 |
|--------|----|-------|------|-------|
| 국민의 정부 | 남 | 8.4 | 16.9 | 74.6 |
| | 여 | 12.0 | 20.8 | 67.0 |
| 참여 정부 | 남 | 31.6 | 23.9 | 42.7 |
| | 여 | 22.7 | 23.5 | 50.3 |
| 이명박 정부 | 남 | 41.2 | 21.8 | 37.0 |
| | 여 | 52.5 | 22.0 | 25.5 |
| 박근혜 정부 | 남 | 29.2 | 25.3 | 47.3 |
| | 여 | 26.5 | 28.1 | 45.4 |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1>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한국 우위”를 선택한 남녀 비율

“북한 우위”를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보 정권의 경우 한국 우위를 선택한 남녀 응답률 보다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정부를 제외하고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대로 북한 우위를 선택한 경우는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이 더 많았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 시기가 가장 높았다. 참여 정부를 제외하고는 북한 우위를 선택한 남성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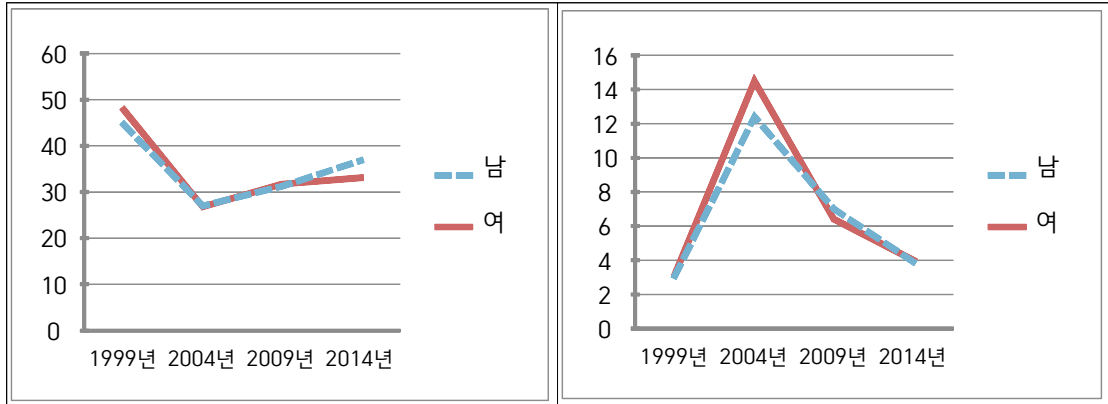
다. 동맹관 공통 문항 : 주한미군 철수 시기

<표 3-100> ‘주한미군 철수시기’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 | 통일 전까지 주둔 | 우리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까지 | 한반도 평화 정착시 | 가능한 한 빨리 철수 |
|--------|----|---------------|-----------|--------------------|------------|-------------|
| 국민의 정부 | 남 | 6.7 | 32.4 | 44.6 | 13.1 | 3.1 |
| | 여 | 6.6 | 25.7 | 47.8 | 15.8 | 3.2 |
| 참여 정부 | 남 | 9.9 | 14.8 | 27.0 | 34.7 | 12.4 |
| | 여 | 4.3 | 15.9 | 26.8 | 35.7 | 14.5 |
| 이명박 정부 | 남 | 17.2 | 28.8 | 31.2 | 15.9 | 7.0 |
| | 여 | 14.5 | 30.3 | 31.7 | 17.0 | 6.4 |
| 박근혜 정부 | 남 | 11.1 | 31.0 | 36.8 | 17.2 | 3.9 |
| | 여 | 12.3 | 33.3 | 33.1 | 17.3 | 4.0 |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2> ‘주한미군 철수시기’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우리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를 선택한 남녀 비율

“가능한 한 빨리 철수”를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지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보 정권, 특히 국민의 정부의 경우 남녀 모두 우리 군사력만으로 대처 가능시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정권에 비해 남녀 모두 가장 많았고 특히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남녀 응답률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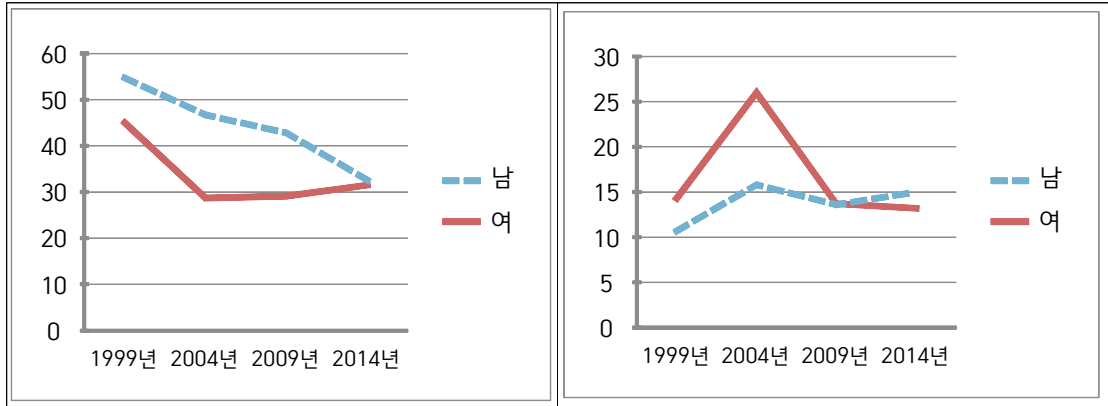
라. 국방관 공통 문항 :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의견

<표 3-101> ‘국방비 수준’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분 | 성별 | 현재보다 늘려야 | 적절 | 현재보다 줄여야 |
|--------|----|----------|------|----------|
| 국민의 정부 | 남 | 54.7 | 34.1 | 10.7 |
| | 여 | 45.0 | 37.9 | 14.3 |
| 참여 정부 | 남 | 46.7 | 37.5 | 15.8 |
| | 여 | 28.7 | 41.3 | 26.0 |
| 이명박 정부 | 남 | 42.8 | 43.4 | 13.6 |
| | 여 | 29.1 | 57.1 | 13.7 |
| 박근혜 정부 | 남 | 32.6 | 52.4 | 15.0 |
| | 여 | 31.5 | 55.4 | 13.2 |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지표로 재구성

<그림 3-93> ‘국방비 수준’ 관련 정권별 남녀 응답률 그래프



“현재보다 늘려야”를 선택한 남녀 비율 “현재보다 줄여야”를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방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진보 정권의 경우가 보수 정권보다 더 많았고, 국민의 정부 때가 남녀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찬성하였다. 현재보다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참여 정부의 경우 남녀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여성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늘려야 한다는데, 여성은 줄여야 한다는데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보, 보수 정권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와 남녀 응답률 비교를 통해 정부의 국방 및 안보정책 방향에 따라 응답률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수 정권의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우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견해가 진보정권보다 많았고, 국방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진보정권보다 더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진보 정권의 경우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 우위가 많았다.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국방비 증가에 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4. 남녀 안보의식 차이

남녀 안보의식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역대

정부별 안보의식 조사의 설문조사 내용 중 안보의식 분석모형에 따라 선정된 문항들의 남녀 답변율을 비교해 보았다. 단, 전반적인 답변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인 답변 또는 부정적인 답변은 응답률을 합산하여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아주 높다’와 ‘높은 편’을 합쳐서 ‘높다’로, ‘아주 낮다’와 ‘낮은 편’을 ‘낮다’로 표기하여 경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가.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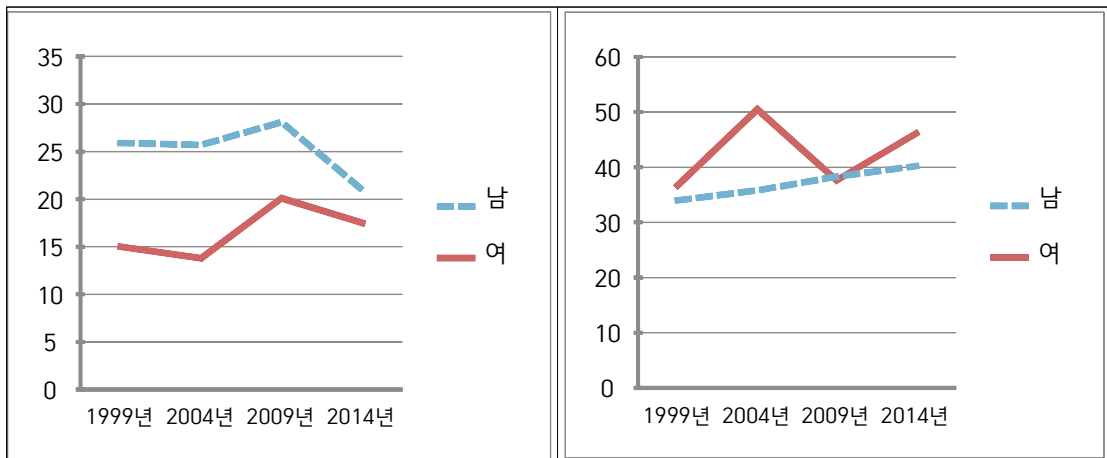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2>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분 | 성별 | 안정적 | 보통 | 불안 |
|--------|----|------|------|------|
| 국민의 정부 | 남 | 25.9 | 36.1 | 34 |
| | 여 | 15 | 48.4 | 36.7 |
| 참여 정부 | 남 | 25.7 | 37.9 | 35.8 |
| | 여 | 13.8 | 34.1 | 50.5 |
| 이명박 정부 | 남 | 28.1 | 43.7 | 38.3 |
| | 여 | 20.1 | 42.3 | 37.6 |
| 박근혜 정부 | 남 | 21 | 38.9 | 40.2 |
| | 여 | 17.5 | 36.5 | 46.1 |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4>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안정적”을 선택한 남녀 비율

“불안”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답변한 남녀 비율은 네 개 정부를 통틀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불안’을 선택한 남녀 비율은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참여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5%의 여성이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위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성은 여성보다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여성은 불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여성의 경우 안보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다.

나. 국민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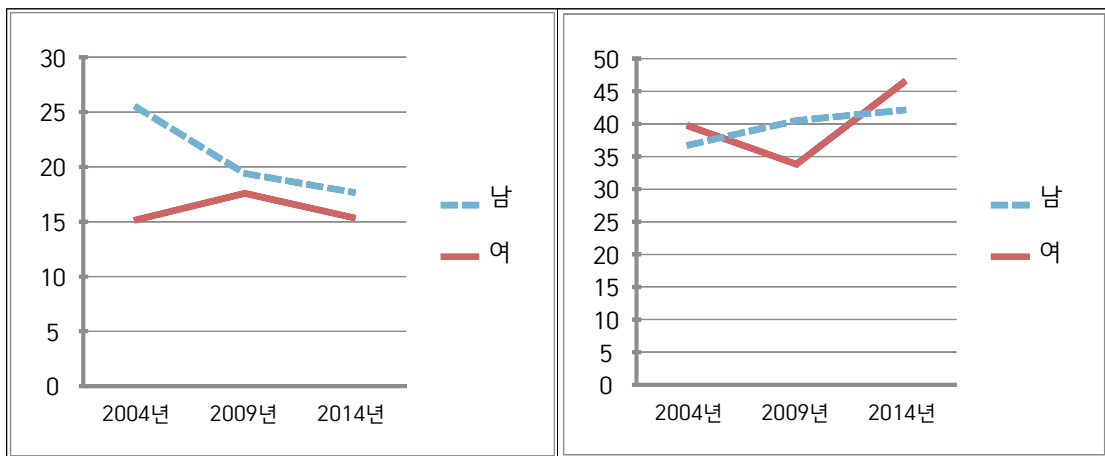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3> ‘국민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높음 | 보통 | 낮음 |
|--------|----|------|------|------|
| 참여 정부 | 남 | 25.4 | 37.1 | 36.8 |
| | 여 | 15.2 | 43.5 | 39.6 |
| 이명박 정부 | 남 | 19.4 | 40.1 | 40.5 |
| | 여 | 17.6 | 48.5 | 33.8 |
| 박근혜 정부 | 남 | 17.7 | 40.3 | 42.1 |
| | 여 | 15.4 | 38.3 | 46.3 |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5> ‘국민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높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낮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세계 정부 통틀어서 남성이 많았다. 특히 참여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남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낮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은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제외하고 여성 응답률이 높고,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률이 46.3%를 나타내었다.

위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성은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여성의 경우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본인 안보의식 수준

본인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4> ‘본인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높음 | 보통 | 낮음 |
|--------|----|------|------|------|
| 참여 정부 | 남 | 42.0 | 41.4 | 15.8 |
| | 여 | 17.4 | 49.7 | 30.0 |
| 이명박 정부 | 남 | 41.6 | 44.8 | 13.6 |
| | 여 | 22.4 | 56.8 | 20.4 |
| 박근혜 정부 | 남 | 37.6 | 44.3 | 18.1 |
| | 여 | 23.6 | 48.3 | 28.1 |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6> ‘본인 안보의식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높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낮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본인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세 개 정부 통틀어서 ‘높음’을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높았고, ‘낮음’을 선택한 비율은 여성이 높았다. 특히 ‘높음’은 참여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고, ‘낮음’ 또한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본인 안보의식에 대해 ‘높다’는 인식을, 여성은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북한 핵무기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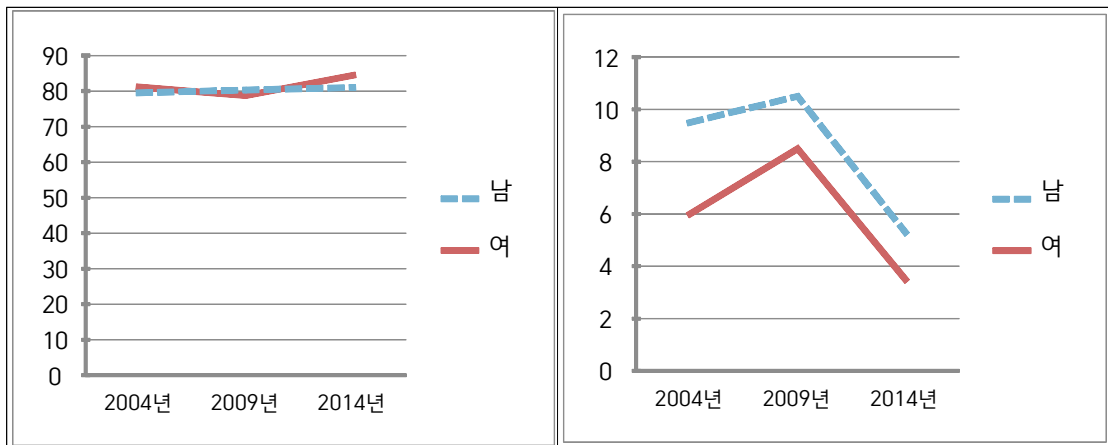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5>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위협적 | 그저 그림 | 위협 안 됨 |
|--------|----|------|-------|--------|
| 참여 정부 | 남 | 79.5 | 10.3 | 9.5 |
| | 여 | 81.1 | 12.5 | 6.0 |
| 이명박 정부 | 남 | 80.3 | 9.2 | 10.5 |
| | 여 | 78.7 | 12.9 | 8.5 |
| 박근혜 정부 | 남 | 81.0 | 13.8 | 5.3 |
| | 여 | 84.4 | 12.1 | 3.5 |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7>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위협적”을 선택한 남녀 비율

“위협 안 됨”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비율은 여성이 더 많았다. 단,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 ‘위협 안 됨’이라고 판단한 비율은 세 개 정부 통틀어 남성이 많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남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북한 핵의 위험성을 여성보다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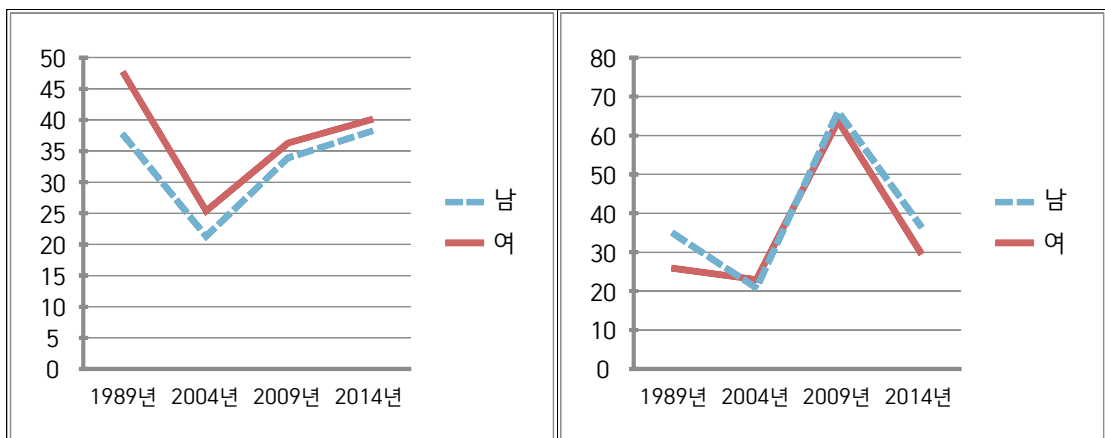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6> ‘북한의 전쟁(군사적) 도발 가능성’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큼(높음) | 보통 | 적음(낮음) |
|--------|----|-------|------|--------|
| 노태우 정부 | 남 | 37.4 | 28.0 | 34.6 |
| | 여 | 47.3 | 26.9 | 25.8 |
| 참여 정부 | 남 | 21.3 | 57.8 | 20.8 |
| | 여 | 25.4 | 51.5 | 23.0 |
| 이명박 정부 | 남 | 33.9 | . | 66.1 |
| | 여 | 36.3 | . | 63.7 |
| 박근혜 정부 | 남 | 38.1 | 25.0 | 37.0 |
| | 여 | 40.0 | 29.8 | 30.2 |

* 자료 : 198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8> ‘북한의 전쟁(군사적) 도발 가능성’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크(높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적(낮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8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전쟁(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네 개 정부 통틀어 여성이 ‘큼(높음)’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특히 노태우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도발 가능성을 적게(낮게) 보고 있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참여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만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북한의 전쟁(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남성보다 높게 보고 있고, 남성은 낮게 보고 있다. 즉, 여성이 북한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바. 남북한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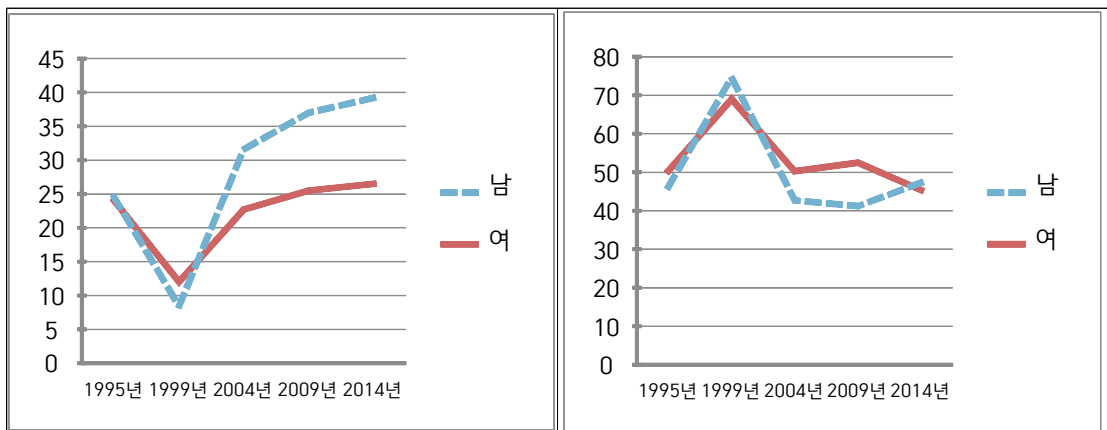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7>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분 | 성별 | 한국 우세 | 비슷 | 북한 우세 |
|--------|----|-------|------|-------|
| 문민정부 | 남 | 24.5 | 29.2 | 46.3 |
| | 여 | 24.0 | 25.6 | 50.4 |
| 국민의 정부 | 남 | 8.4 | 16.9 | 74.6 |
| | 여 | 12.0 | 20.8 | 69.0 |
| 참여 정부 | 남 | 31.6 | 23.9 | 42.7 |
| | 여 | 22.7 | 23.5 | 50.3 |
| 이명박 정부 | 남 | 37.0 | 21.8 | 41.2 |
| | 여 | 25.5 | 22.0 | 52.5 |
| 박근혜 정부 | 남 | 39.2 | 23.5 | 47.3 |
| | 여 | 26.5 | 28.1 | 45.4 |

* 자료 :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99> ‘남북한 군사력 비교’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한국 우세”를 선택한 남녀 비율 “북한 우세”를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 요소를 제외할 때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높았다. 단, 국민의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반대로 ‘북한이 우세’하다고 생각한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는데, 다섯 개 정부 중 국민의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주한미군이 없어도 군사력에서 한국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 여성은 북한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주한미군 요인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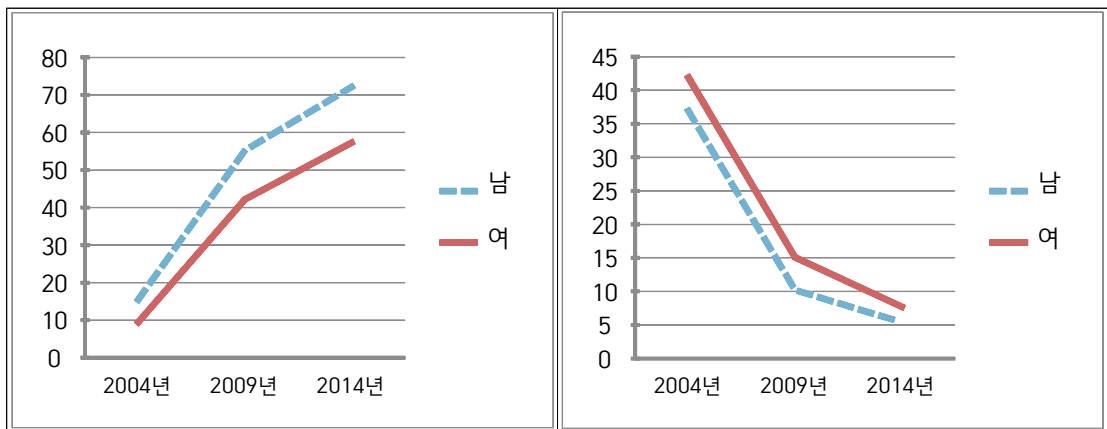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8> ‘한·미동맹 관계’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돈독함 | 보통 | 불편함 |
|--------|----|------|------|------|
| 참여 정부 | 남 | 15.5 | 46.6 | 36.9 |
| | 여 | 9.5 | 46.4 | 41.9 |
| 이명박 정부 | 남 | 55.2 | 34.6 | 10.2 |
| | 여 | 42.2 | 42.7 | 15.1 |
| 박근혜 정부 | 남 | 72.1 | 22.5 | 5.4 |
| | 여 | 57.3 | 35.0 | 7.7 |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0> ‘한·미동맹 관계’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돈독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

“불편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볼 때,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세 개 정부 모두 ‘돈독함’은 남성 응답률이, ‘불편함’은 여성 응답률이 더 많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 조사 시 ‘돈독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불편함’은 참여 정부 때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여성의 경우는 부정적인 인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주한미군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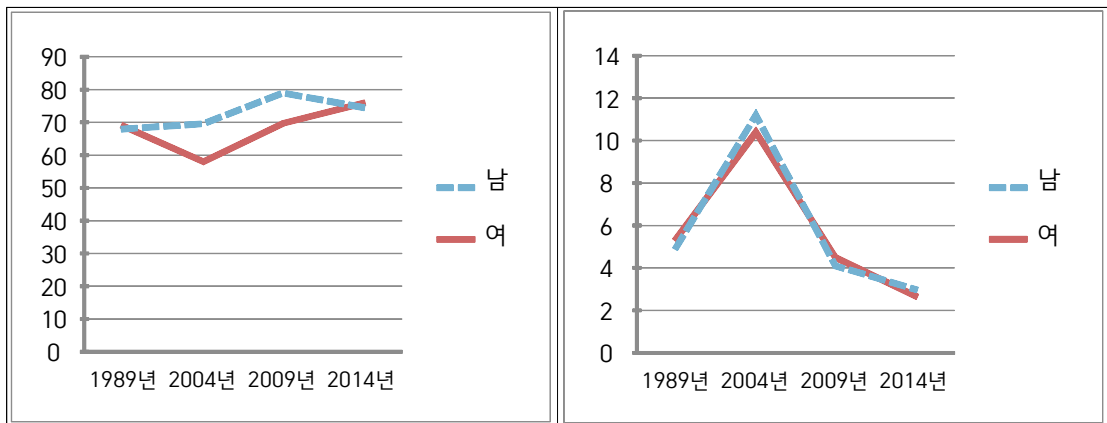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09> ‘주한미군의 중요성’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중요함 | 보통 | 중요치 않음 |
|--------|----|------|------|--------|
| 노태우 정부 | 남 | 68.0 | 17.8 | 5.0 |
| | 여 | 68.8 | 19.1 | 5.4 |
| 참여 정부 | 남 | 69.6 | 18.9 | 11.2 |
| | 여 | 58.0 | 30.2 | 10.4 |
| 이명박 정부 | 남 | 79.0 | 16.8 | 4.1 |
| | 여 | 69.7 | 25.7 | 4.5 |
| 박근혜 정부 | 남 | 74.6 | 22.4 | 3.0 |
| | 여 | 75.8 | 21.5 | 2.7 |

* 자료 : 198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1> ‘주한미군의 중요성’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중요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

“중요치 않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8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남녀 모두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노태우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요치 않음’의 경우는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여성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고, 참여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특히 참여 정부 때는 ‘중요치 않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이 네 개 정부 통틀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녀 응답률에서 경향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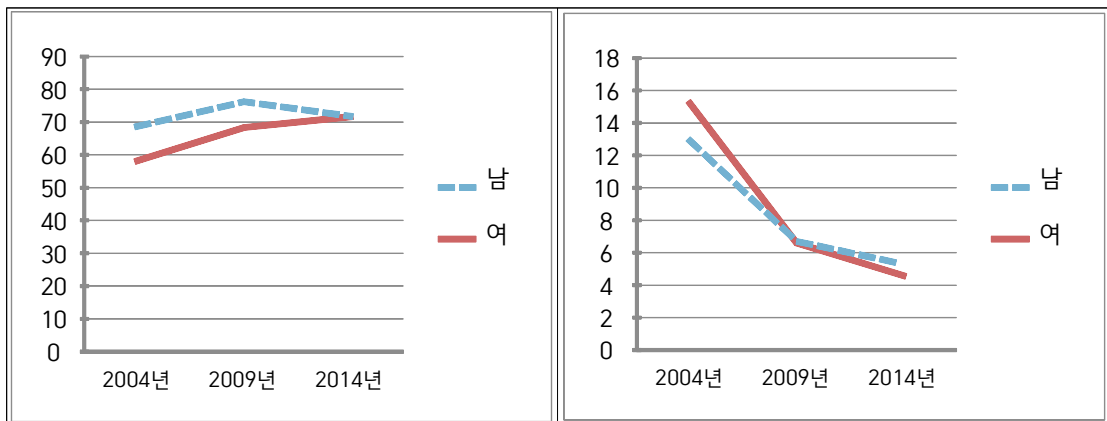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10>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필요함 | 보통 | 필요 없음 |
|--------|----|------|------|-------|
| 참여 정부 | 남 | 68.7 | 18.1 | 12.9 |
| | 여 | 58.2 | 22.9 | 15.2 |
| 이명박 정부 | 남 | 76.2 | 17.1 | 6.7 |
| | 여 | 68.3 | 25.1 | 6.6 |
| 박근혜 정부 | 남 | 71.8 | 22.9 | 5.3 |
| | 여 | 71.6 | 23.8 | 4.6 |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2>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필요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

“필요 없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세 개 정부 통틀어 남성 응답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참여 정부를 제외하고 두 개 정부에서 모두 남성 응답률이 높았다. 참여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남성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남녀 비율상 큰 차이는 없었다.

차.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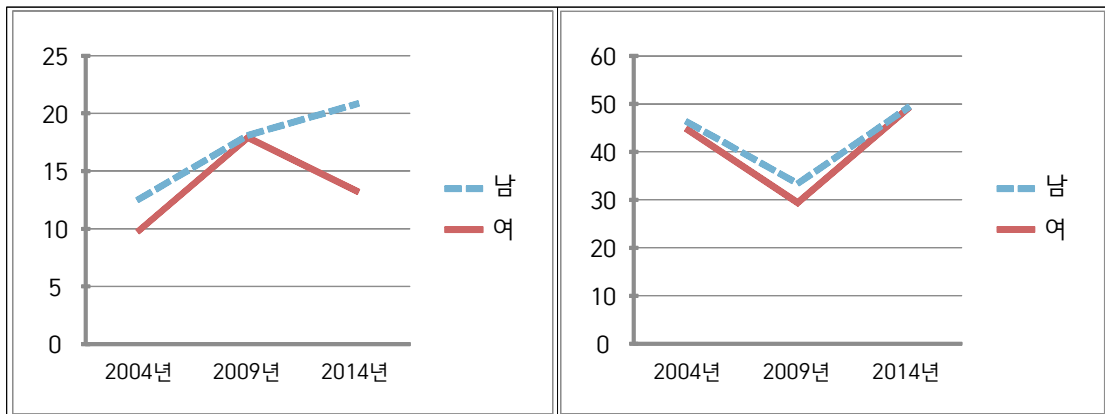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11>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효율적 | 보통 | 비효율적 |
|--------|----|------|------|------|
| 참여 정부 | 남 | 12.6 | 34.4 | 46.1 |
| | 여 | 9.9 | 33.4 | 44.5 |
| 이명박 정부 | 남 | 18.1 | 48.5 | 33.4 |
| | 여 | 17.9 | 52.5 | 29.4 |
| 박근혜 정부 | 남 | 20.8 | 30.1 | 49.1 |
| | 여 | 13.3 | 37.7 | 48.9 |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3>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효율적”을 선택한 남녀 비율

“비효율적”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남녀 모두 ‘비효율적’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효율

적’을 선택한 비율은 세 정부 통틀어 남성이 더 높았고, ‘비효율적’ 역시 남성이 높았다. 참여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효율적’이라는 답변의 남녀 비율 차이가 ‘비효율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남녀 모두 높았다.

카.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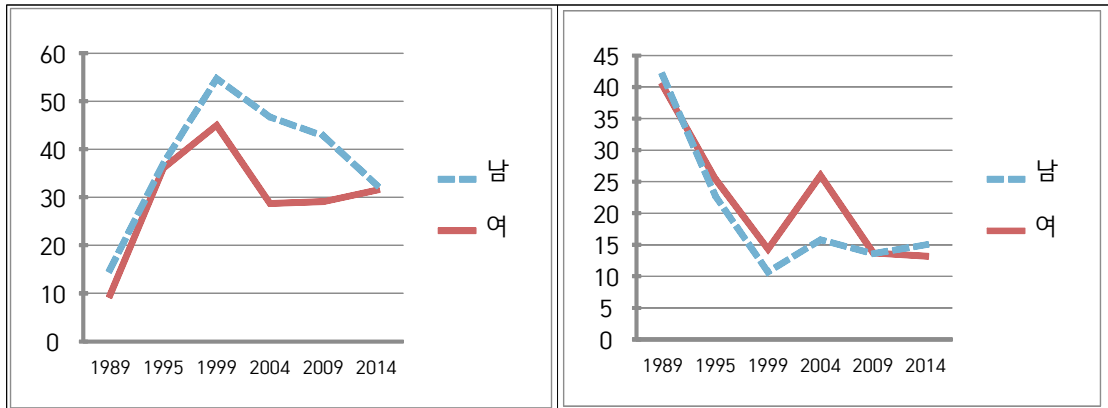
국방비 수준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12> ‘국방비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늘려야 함 | 현재 적절 | 줄여야 함 |
|--------|----|-------|-------|-------|
| 노태우 정부 | 남 | 15.0 | 37.6 | 41.8 |
| | 여 | 9.7 | 36.0 | 40.2 |
| 문민정부 | 남 | 37.1 | 40.3 | 22.7 |
| | 여 | 36.1 | 38.5 | 25.4 |
| 국민의 정부 | 남 | 54.7 | 34.1 | 10.7 |
| | 여 | 45.0 | 37.9 | 14.3 |
| 참여 정부 | 남 | 46.7 | 37.5 | 15.8 |
| | 여 | 28.7 | 45.4 | 26.0 |
| 이명박 정부 | 남 | 42.8 | 43.4 | 13.6 |
| | 여 | 29.1 | 57.1 | 13.7 |
| 박근혜 정부 | 남 | 32.6 | 52.4 | 15.0 |
| | 여 | 31.5 | 55.4 | 13.2 |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4> ‘국방비 수준’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늘려야 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

“줄여야 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89, 1995, 1999,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국방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늘려야 함’을 선택한 남녀 비율은 6개 정부 통틀어서 남성이 높았고, 특히 국민의 정부 2년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줄여야 함’은 노태우 정부,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는 네 개 정부에서 모두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참여 정부에서 여성 응답률이 네 개 정부에서는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여성은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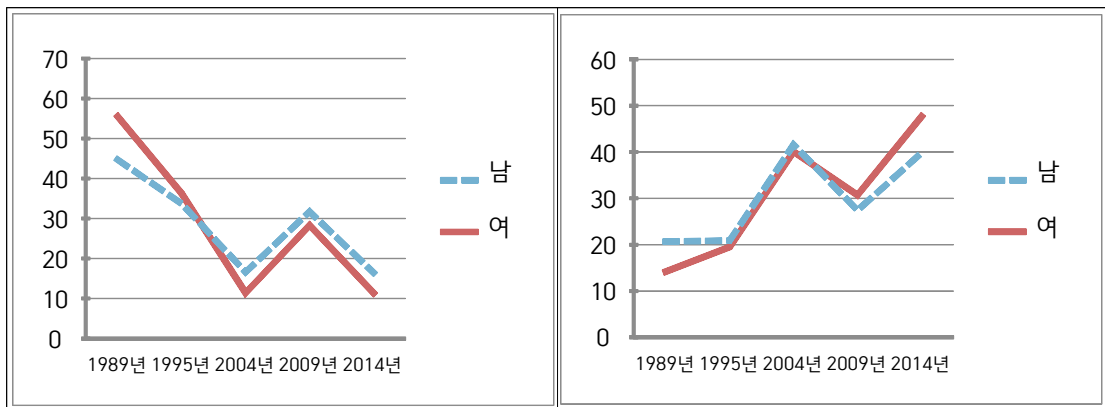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였다.

<표 3-113>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관련 남녀 응답률 분석표

| 구 분 | 성별 | 믿음 | 그저 그림 | 믿지 않음 |
|--------|----|------|-------|-------|
| 노태우 정부 | 남 | 44.7 | 34.6 | 20.7 |
| | 여 | 55.5 | 30.3 | 14.2 |
| 문민정부 | 남 | 33.7 | 45.4 | 20.9 |
| | 여 | 36.3 | 44.2 | 19.5 |
| 참여 정부 | 남 | 16.6 | 38.4 | 41.6 |
| | 여 | 11.4 | 42.5 | 40.1 |
| 이명박 정부 | 남 | 31.7 | 40.9 | 27.4 |
| | 여 | 28.3 | 41.1 | 30.7 |
| 박근혜 정부 | 남 | 16.5 | 43.6 | 39.8 |
| | 여 | 11.4 | 40.8 | 47.7 |

* 자료 : 1989, 1995,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그림 3-105>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관련 남녀 응답률 그래프



“믿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믿지 않음”을 선택한 남녀 비율

* 자료 : 1989, 1995, 2004, 2009, 2014년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성별요인만 별도 발췌하여 도표로 재구성

위 그래프를 통해 볼 때, 국방부 발표에 대해 ‘믿음’을 선택한 비율이 남성이 높았다. 단,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믿지 않음’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를 제외하고 모두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노태우 정부와 문민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믿지 않음’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최근 들어서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불신도가 남녀 모두 높으며, 특히 여성의 불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국방부 발표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2개 공통 문항에 대한 남녀 응답률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안보관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남녀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국민 안보의식 수준이나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표 1-5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를 통해 분석해 보건데 여성의 안보의식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관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또한 더 높게 보았다. 주한미군 요소를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여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표 1-5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를 통해 분석해 보건데 남성의 안보의식이 여성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맹관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남녀의 차별적인 경향성을 찾기는 힘들었다.

국방관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방비 수준의 경우 또한 남성은 ‘늘려야’ 한다는 데, 여성은 ‘줄여야’ 한다는 데 더 많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정부 들어 여성의 불신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표 1-5 안보의식 수준 분석표>를 통해 분석해 보건데 여성의 안보의식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동맹관을 제외하고는 안보관, 북한관, 국방관과 관련된 문항의 남녀 응답률 비교를 통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의 안보관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여성 안보의식수준 분석 결과

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문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성별차가 나타났다. 즉, 역대 정부별 안보의식조사 결과 ‘모름’ 또는 ‘잘 모름’ 이라고 답변한 수는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여성의 안보의식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제기하였듯이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 여성의 안보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여성의 경우 군 복무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일부 여성의 경우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희망하여 군 간부(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로 근무하게 되지만 수적으로는 미미한 비중¹²⁷⁾을 차지한다. 군은 과거부터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문맹자 교육,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입대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관, 역사관, 군인정신 교육을 시켜 군 복무의지를 고취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국가정체성 확립, 나라사랑 정신 함양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입대 전에도 남성의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면접과 선발, 임용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정신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 복무의 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므로 안보의식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우 국방을 지키는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남성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국방, 안보 관련 뉴스나 이슈들을 수동적으로 접하기 쉽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적극성이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정권수립일에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연합뉴스 기사에 대해 남성은 90%, 여성은 10%가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또한 네이버 랭킹 뉴스에 따르면 같은 날 14시 기준, 남녀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남성의 경우 10위권 안에 북핵 관련 뉴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대부분 날씨와 추석명절 관련 뉴스가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모름’을 선택하는 비

127) 2016년 9월 기준, 여군 비율은 전체의 1.5%(1만여 명) 차지

128) 연합뉴스, 2016년 9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074853014.HTML?input=1195m>(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율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높은 현상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경우 임신과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된 경우가 많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경력 단절된 여성이 34만 8699명에 이른다고 한다.¹²⁹⁾ 구직을 시도하지 않은 여성을 포함한다면 상당수 여성이 사회생활 보다는 가정생활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또는 남성에 비해 국방,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안보의식 또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넷째, 안보나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위직에 종사하는 여성 수 또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포럼 2016년 8월호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젠더 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은 전체 145개국 중 115위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참여 기회 125위, 정치적 권한 101위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GCI)¹³⁰⁾에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¹³¹⁾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여성의 비율이 극히 낮은 안보나 국방 분야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 중·고교 교육과정 중 안보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탈냉전과 남북관계 변화 등 국제사회 및 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약화되었다.¹³²⁾ 이념 논쟁 속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중·고교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은 통일교육(통일문제 및 남북분단 극복 우선시)과 인접 군부대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안보교육(강연, 부대초청행사 등)이 전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군 복무 의무가 없고, 의무교육기간 중에도 안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학생의 경우는 어쩌면 평생 안보나 국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129) 김창경, 「여자의 창업」, 『웰스매니지먼트』, 2015년 4월호.

130) 유리천장(Glass ceiling) :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invisible barrier)'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11636&cid=40942&categoryId=31614>(검색일 : 2017년 11월 23일).

131) 한겨레, 2016년 8월 24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140.html(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132) 김용현·박영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2011. 2, p. 207.

여섯째, 국가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보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은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초·중·고교의 경우 요청에 의해 인접 군부대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해 주거나 지역주민을 군부대로 초청해서 민·관·군 한마음 행사 등의 형태로 안보의식 고취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에 노출되기 힘든 여성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업주부라든지, 생계형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여성들의 경우, 별도로 안보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을 함께 수용할 장소와 인력,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안보 및 국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여성의 참여 및 관심이 배제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일부 페미니즘 안보 연구자들은 여성이 평화나 반군사주의와 연결되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방, 군사적 의미의 안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¹³³⁾ 또한 여성은 안보의 주체라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안보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그와 관련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토대로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의 대상, 즉 남녀를 차별화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3) 황영주, 앞의 글. p. 62-63.

제 4 장 여성 안보의식 제고방안

제 1 절 안보 및 국방 관련분야 여성인력의 확대

여성을 안보 및 국방 관련분야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젠더 이데올로기 전문가들은 세 가지 이론을 든다. 전통주의와 제한적 평등주의, 완전 평등주의가 그것이다. 전통주의는 남녀의 차이가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한적 평등주의는 남녀 차이는 인정하나 제한적으로 의무와 권리가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평등주의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동등한 존재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¹³⁴⁾ 이러한 이론적 흐름에 기초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완전 평등주의적 입장이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가들의 설명과는 별개로 여성의 안보의식이 높은 것과 안보 및 국방 관련 분야에 여성인력을 확대하는 문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국방을 지키는 군인,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안보의식이 높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군을 예로 들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이 군인, 특히 직업군인을 택하게 되지만 한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 반면 여성은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지원하는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안보의식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안보의식을 가지고 국방을 지켜내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위기발생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군 생활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경우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하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의무이행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 잦은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희생했던 여성들과 같이, 남북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대치상태를 이어오고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현재, 군 입대를 자원하는 마음가짐은 높은 안보의식과 직결된다. 매년 경쟁률이 갱신되는 여군 입대를 보아도 한국 여성의 높은 안보의식을 엿볼 수 있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성 못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내 여성인력 확대는 함께 근무하는 남성인력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134) 독고순, 앞의 글. pp. 39-40.

있다. 자격훈련이나 체력측정 등 남녀가 달성해야 할 기준은 다르나, 여성의 적극적이고, 하고자하는 열정을 보고 남성들이 자극을 받거나 더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인력 확대는 남성의 복무의지가 제고될 수 있는 효과도 가진다.

안보 관련 직종으로 경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2022년까지 여경의 수를 전체의 1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¹³⁵⁾ 물론 찬반 여론이 있지만,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남자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인 조건을 제외하고는 결코 뒤처지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치안 및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크므로 여성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보수집은 물론 대공수사, 사이버안보, 국제범죄, 방첩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 중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 여성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병무청이나 국방부 산하 법인체(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등)들도 국방 및 안보 관련 분야로 여성 인력의 확대가 요구된다.

안보 및 국방 분야에 여성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상태¹³⁶⁾로, 이대로 간다면 2020년대 초반부터 입영하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하락하여 병력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 보도된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3만 2586명으로 이 중 여자는 2589만 2225명(50.1%), 남자는 2584만 361명(49.9%)이다. 지난 2015년 6월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를 초과한 이래 그 차이 폭이 커지고 있다.¹³⁷⁾ 이러한 현상은 전체 병력의 90%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는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테러,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방개혁의 일환

135) 뉴스1, 2017년 11월 21일, <http://news1.kr/articles/?3158968>(검색일 : 2017년 12월 21일).

136)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할 때 지난 4년간 프랑스, 영국, 일본은 각각 1.9, 1.8, 1.4를 꾸준히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24→1.17→1.03으로 해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군인의 경우 올해 입대자는 25만 명이었으나 올해 태어난 출생아가 22년 뒤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12만 6천 명으로 현재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보임. 경성매일신문, 2017년 11월 7일,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89474&part_idx=271(검색일 : 2017년 12월 13일).

137) 이데일리, 2017년 6월 15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30886615962048&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으로 군 구조 개편과 국방인력 감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선진 국방 목표에 부합하고 경직된 군 조직에 유연성과 다원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여성 인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¹³⁸⁾

이러한 대내외 안보 및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 남성 중심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더 나아가 국방안보 분야에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국방의 의무 또한 남녀가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¹³⁹⁾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발전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 및 국방 관련 분야에 여성인력, 특히 안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여군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 내부에서의 인식 변화 필요

전체 조직의 80~90%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는 안보 및 국방 관련 분야의 경우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안보나 국방은 남성들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일반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녀 역할의 전통주의적 해석 및 가부장적, 유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여성 인력의 확대가 남성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나 승진 또는 진급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여군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3 이상의 응답자가 군에서 상급자들은 남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남군의 경우 여군이 같은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다.¹⁴⁰⁾ 이러한 인식의 개선,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여성 인력의 단순 확대는 시행착오 또는 한낱 해프닝만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외부로부터의 정책적으로 여성 인력 확대를 추진하기보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

138) 홍규덕,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한 4가지 쟁점,”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한국국방연구원, 2009), p. 48.

139) 김현경, 앞의 글. p. 3.

140) 김규현, “외국 여군의 전투 분야 활용 동향 및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21호(한국국방연구원, 2012), p. 7.

견을 버리고, 조직 내부로부터 여성 확대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여성 인력 확대의 장점으로는 우수 인력 획득, 상대적으로 부정이나 비리가 많지 않다는 점, 남성 위주의 딱딱하고 경직된 군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41) 여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여성이 주변인이거나 보호 및 관리 대상이 아닌 조직 구성원이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함께 싸울 전우로서 남성과 동등한 임무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조직 내부의 문화가 바뀌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경 승진 목표제’ 제도의 경우처럼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보장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¹⁴²⁾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병과선택의 범위와 진급기회 확대, 전역자 인센티브 부여

여군이 선택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군에서도 ‘금녀의 벽’은 이미 무너졌다는 증거로, 헬기 조종사, 대형트럭 운전사, DMZ 수색대대 정보과장 등 1990년부터 남군과 동일하게 일반 병과로의 보직이 활발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부터는 군중, 포병, 방공 병과에도 여군이 선발되는 등 병과 선택에서도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되었다.¹⁴³⁾ 또한 국방개혁에 따라 여군 초임 간부의 경우 올해 5.5%였던 것이 2020년까지 8.8%까지 확대되고 남녀 차별화되어 적용되던 보직 제한 규정도 바뀌어 지휘관 자격 기준이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여군 지휘관 보직도 전부대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¹⁴⁴⁾

물론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고, 향후 시행착오에 따라 정책 수정의 여지가 크긴 하나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다면 군내 여성 인력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고, 병력 감축 및 출산인구 저하에 따른 대안 측면에서도 여군 활용이 힘들어질 것이다. 새로 여군에게 문호를 개방한 병과의 사례나 외국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장점을 널리 알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우리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 벌써 2000년에 남녀 보직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

141) 독고순, 앞의 글, p. 27.

142) 최미애·이상열, “특정직 여성인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3호(충남 :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pp. 168-169.

143) 이데일리, 2016년 3월 7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07846612581024&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144) 국방부 보도자료, 2017년 12월 20일,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L_669&newsSeq=L_10759&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검색일 : 2017년 12월 21일).

하기로 하였고, ‘와이드 캣’이라는 남녀 혼성 중대가 남부 작전구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¹⁴⁵⁾

국내 여성의 양적인 확대에 못지않게 질적인 개선도 중요하다.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을 향상이 질적인 개선과 연관이 있는데, 미군의 경우 2008년에 이미 군수담당 합참차장(4성 장군)에 여성이 보직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준장이 최고이다.¹⁴⁶⁾ 국방 정책에 영향력이 큰 장성급에 여성 보직이 확대된다면, 여성 안보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간접 여군 홍보로 이어져 더 우수한 인력들이 군에 앞 다투어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여군의 활용률은 상당히 높다. 미국이 16%, 영국은 8.1%, 프랑스는 13%에 이른다. 이들 국가에서도 여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 보고 향후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¹⁴⁷⁾ 우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방 및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을 앞설 날이 올 것이다. 다만, 여성 인력의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이들을 활용한 ‘여성 안보의식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더욱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군내 여성 인력의 능력과 역량은 군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사회활동시에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에서 배운 조직관리 및 리더십, 책임감과 열정은 사회생활에서 여군 전역자 채용 시 적지 않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롯데그룹은 여군 장교 출신 전역자를 적극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매년 채용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삼성그룹, 동원그룹, 교보생명 등 다른 기업체로도 확산되어 오고 있으며 군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과 안보의식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김선욱¹⁴⁸⁾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미래사회의 관리자로서 남성보다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책결정과 조직 활동에서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경쟁적 분위기 완화, 협조적 분위기 유도 등 문제 해결방안 모색 과정에서 여군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¹⁴⁹⁾

145) 송명진, “여군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8권 1호(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4), p. 101.

146) 위의 책, p. 100.

147) 독고순, 앞의 책, p. 35.

148) 김선욱,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군의 역할,” '98 미래 여군 발전 세미나 논문집(1998년 6. 3), p. 19.

149) 홍규덕, 앞의 글. p. 57.

최근에는 여군으로 전역 후 재입대를 통해 군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군 지원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육군은 2013년부터 예비역의 현역 재입대 제도¹⁵⁰⁾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시행 초기 10명이던 여군의 수가 2017년에는 3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안보 일선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들을 적극 채용하여 직업 군인의 가치를 높이고 군 복무의 의미를 배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꼭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무원, 국방연구원 등 안보 및 국방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로 올린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¹⁵¹⁾ 앞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5.5%인 여군 간부 비율이 8.8%로 높아지고 병과선택의 제한도 없어지는 변화의 분위기는 여군뿐만이 아니라 관련 여러 분야에도 전파될 것이다.

남성 중심의 정부부처 중 가장 대표적인 국방부에서 여성 인력이 확대되어 여성 안보 의식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을 하는 것은 안보의식 향상과 직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위직으로의 진출까지 보장된다면 국방과 안보에 대한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여성 직업 선택 시 매력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비군 및 전역자 활용, 민방위 활동과 민·관·군 통합훈련

여성 예비군의 역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령도에 첫선을 보였던 여성 예비군은 2014년 9월 기준, 6,300여 명에 이른다.¹⁵²⁾ 여성 예비군의 창설 목적 및 배경은 전쟁 등 유사시 예비 작전 지원전력, 북한의 핵실험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국민 안보의식 강화, 재해발생시 대민 지원 및 봉사활동,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다.¹⁵³⁾ 여성 예비군의 창설 목적에도 나타나듯이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안보교육의 확산, 군 홍보활동 등에 여성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자녀들과 친족·친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150) 예비역 장교(대위·중위)와 부사관(중사) 가운데 전역 이후 3년 이내인 사람이 다시 현역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 중앙일보, 2017년 6월 30일, <http://news.joins.com/article/21716362>(검색일 : 2017년 12월 1일).

151) 한국경제, 2017년 11월 2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146671>(검색일 : 2017년 11월 22일).

152)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14), p. 90.

153) 서울신문, 2009년 8월 3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3009021>(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아울러 군복무 후 전역을 택한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전·평시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전역 여군의 경우 예비역과 퇴역의 두 가지 전역 방법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퇴역자가 예비역자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비역이 되면 전시 예비전력으로 소집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이점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앞으로 병력 감축 추세에 따라 예비역도 당연히 감소될 것이므로 여군 전역자를 예비전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리 대비하게 하거나 응급적인 방재 등 수습복구활동을 자위적으로 수행하는 안보기능과 재난대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활동”이다.¹⁵⁴⁾ 민방위가 지역 안보와 큰 연관성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 확대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방위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소 민방위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여성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지역 내 노인,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여성들이 여성 특유의 장점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가담하며 지역문제의 해결에도 앞장설 수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¹⁵⁵⁾

아울러 군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관·군 통합훈련시 지역 내 여성단체가 참가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힘든 훈련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생존능력 배양과 군 이해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4.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직장여성의 경우 사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애 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보고서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는 이유로 결혼(58.5%), 임신과 출산(28.4%)이 80%를 웃돌았다.¹⁵⁶⁾ 하물며 여군의 경우는 잦은 보직 이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훈련과 당직 근무, 격오지 근무, 양육 보조자 부재, 양육시설 부재 등 일반인보다 출산, 육아의 조건이 훨씬 열악하다.

154) 소방방재청, 『한국의 민방위 30년』 (서울 : 소방방재청, 2006), p. 98.

155) 양기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pp. 51-52.

156) 데일리한국, 2017년 11월 21일,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711/dh20171121113238137780.htm> (검색일 : 2017년 12월 21일).

2013년 2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던 故 이신애 중위의 사례도 있었듯이, 앞으로 다양한 보직에 남녀가 차별 없이 고루 보직된다는 인사원칙이 적용된다면 더욱 시급한 것이 일을 하면서 출산이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근무지내 양육시설을 보강하고 국가 차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유급 출산휴가를 3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해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져야 여군이 더욱 경쟁력 있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더불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군에 대한 군 내부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도 필요하다. 사실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여군이 누리는 혜택이자 남군의 입장에서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누군가는 대신 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출산율이 최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병력 자원의 수도 급감하는 가운데 국방을 지키는 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을 병행하고 있는 여군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태도도 선진 군대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이며, 더 큰 자긍심과 명예심을 가진 여성 인력이 확대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 2 절 안보관 함양을 위한 시스템 구축

1.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부와 연계, 각종 안보관 함양 프로그램 시행

2016년 기준, 한국여성단체연합¹⁵⁷⁾에는 7개 지부와 30개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¹⁵⁸⁾에는 49개 회원단체와 16개 협동회원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여성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친목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여성 단체를 통해 안보교육 또는 부대초청행사, 전시회, 병영체험 등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안보 공감대 형성과 전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안보관광 상품이 각 지역 관광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DMZ, 판문점, 땅굴, 전망대 등 대한민국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쟁과 분단의 유산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연결점으로 하여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군인 자녀를 둔 부모나 여자 친구 등을

157)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검색일 : 2017년 2월 8일).

15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kncw.or.kr(검색일 : 2017년 2월 8일).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친군화(親軍化) 활동을 병행한다면 상당한 안보의식 제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지역단위 소규모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부녀회, 산악회, 친목회, 학부모 모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안보의식 확산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적인 모임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안보교육을, 동적인 모임인 경우에는 안보관광, 병영체험, 군부대 자원봉사 등을 계획하여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안보라는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과거 수많은 외침과 6·25전쟁을 겪은 결과 지역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적지와 유서 깊은 장소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장소를 찾아보고 선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겨보는 활동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일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에 효과적이며, 비용대 효과면, 효과 확산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 복무 체험 활동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장차 군에 입대할 대상이 될 자녀의 어머니 또한 함께 군 복무 체험 활동을 한다면 군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녀를 이해하고 세대차를 극복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중 군에서 제공하는 안보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한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며, 군에 대한 거리감, 경계심을 버리게 하고 바람직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 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¹⁵⁹⁾ 따라서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여성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 함께 해 나간다면 상승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의 여학교(중·고교)에 월 1회 안보교육 시간을 반영하여 지역내 군 부대 간부를 초청하여 안보교육 또는 안보 글짓기, 표어 짓기 대회, 여군 활동상 소개 등을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군 출신 간부를 채용해 국방 및 안보, 통일 관련 과목을 담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15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def.go.kr(검색일 : 2017년 2월 8일).

2. 군 관련 행사시 여성 초대, 군 입대 설명회 개최

국방 또는 안보에 대해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했기 때문일 수 있다. 군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 예를 들어 매년 실시하는 국군의 날, 지상군 페스티벌, 에어쇼, 부대개방행사 등에 여성 단체 초대권을 배부하여 별도의 좌석을 마련한다면 여성들로 하여금 군을 대하는 또 다른 시각과 긍정 여론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 취향에 맞는 기념품 제작과 다양한 홍보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안보의식 및 관심 제고에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군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대학교마다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듯이 군 또한 자녀를 군에 보내는 부모들에게 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친군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기회를 안보교육과 군 홍보의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내 자녀를 믿고 맡긴다는 편안함과 함께 올바른 안보의식까지 심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SNS를 활용한 홍보도 필요하다. 국방일보는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군사 전문 일간신문으로, 1964년 11월 16일에 창간하였다.¹⁶⁰⁾ 2013년 기록으로 매일 150,000부를 인쇄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배부되는 부수는 극히 적다. 내용을 보면 국방정책과 군 활동상, 기고, 장병문예, 광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방부 정신전력 정책과에서 작성한 정훈교육 자료가 주 1회 포함된다.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된 양질의 신문을 군에 자녀를 보낸 가정에게 최소 군 복무기간 동안이라도 배부해 준다면 군을 보는 시각이 새롭게 변할 것이며, 국방이나 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만 놓고 보더라도 여성들은 안보 및 국방 관련 문제에 대해 남성들과는 다른 경험과 관심도를 가진다. 프랑스에서는 ‘소집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매년 청소년에게 국가방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정치·사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¹⁶¹⁾ 이러한 활동은 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오픈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관련 정책의 지지를 도모할

160) 네이버 ‘국방일보’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551&cid=40942&categoryId=31734>
(검색일 : 2017년 12월 5일).

161) 독고순, 앞의 글. pp. 42-43.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대상과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통해 막연히 국방은 어렵고 먼 이야기, 몰라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 주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네이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의 모임인 일명 곰신 카페가 2003년에 오픈하여 5만여 명이 넘는 멤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육·해·공·해병대 곰신 카페, 밴드,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있다.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운용하며 군에 보낸 자녀들의 다양한 활동상을 확인하고, 게시판을 통해 가족의 편지를 군에 간 병사들에게 전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소통 문화가 이미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과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군 관련 소식을 전해주고, 웹툰이나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교육자료를 제작 및 게시하여 활용한다면 간접 홍보효과는 물론 안보교육과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KBS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의 경우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종영하였다. 가상 국가이긴 하나 낮은 땅에 파병된 군인과 의사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싹트는 사랑을 송중기와 송혜교라는 초특급 인기 배우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방송 드라마 사상 많은 기록과 유행을 남기며 사랑받은 이와 같은 드라마를 통해 군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극중 송중기가 소속된 특전사에 대한 인기는 사상 최고에 달하였다. 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들을 상대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간접 홍보효과와 대군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또한 7백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흥행을 기록하였다. 리암 니슨을 전격 캐스팅해 헐리웃 영화에 맞먹는 질적 수준을 보여주었고, 이정재, 이범수 등 걸출한 연기파 배우들을 주연으로 내세워 역사의 그날을 스크린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뮤지컬로는 ‘안중근’, ‘The Promise’ 등이 감동과 교훈을 선사하며 관객의 심금을 울리며 새로운 시각으로 국가에 대한 고마움과 국가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담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문화콘텐츠들을 여성들을 타겟으로 더욱 개발해 나간다면, 거부감 없이 안보와 국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20대 여성 대상 최소 기초 군사훈련 참가 제도화

얼마 전 한 기사에서 국방부가 여군 병사제도를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돼 한바탕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¹⁶²⁾ 결국 국방부가 그러한 제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표명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여성의 국방 분야 참여를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성 모병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군인의 5%를 약간 웃도는 비율의 여군의 복무여건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측면에 없지 않고, 여군이 진출할 수 있는 병과제한을 없애겠다는 국방 정책 또한 장단점 논의가 분분한 현실에서 준비 없이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성과 동일한 연령대인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소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육·해·공군의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초 군사훈련을 축소하여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개념이다.

처음에는 취업 시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이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 안보의식도 낮다는 사회 일각의 오해와 편견 또한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정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여성으로서 안보를 위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 생존법 체득을 위해서도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여성 안보전문가 육성 및 안보정책 참여 확대

1. 여성 안보전문가 육성

지난 10월, 새로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에 안보전문가 커스틴 닐슨이 지명된 바 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그녀는 "국토 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 안보, 중요 사회기반 시설, 긴급 상황 대응 분야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변호사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활동해 온 경력이 있었다.¹⁶³⁾ 닐슨 외에도 미국의 정치

162)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109451171159>(검색일 : 2017년 11월 3일).

계는 유리천장을 깨고 각 분야에 최고 지위에 오른 여성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16년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70.7%였고, 지난 8월, 판사 임용자 중 여성이 64%를 차지하며 세간을 놀라게 했으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6.1%, 그 중 여성 임원은 2.4%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6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국 중 29위로 5년 연속 꼴찌였다.¹⁶⁴⁾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수는 남성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70년 가까이 정전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 안보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성의 시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많은 연구 영역이 있다. 탈북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민주주의 교육 등은 소프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도 국제법적인 해결만을 주장하기보다 여성의 시각으로 더욱 깊이 있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통일을 군사적 통합이 아닌 비군사적 통합의 시각에서 지향할 때, 여성의 경우 경제·사회·문화 교류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내 상담관이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여군 정책 발전과 군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 관련 범죄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안보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의견수렴, 소집교육 시행 등을 통해 안보 전문가가 확산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여성 안보의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2. 여성의 안보정책참여 확대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외교·국방·통일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는 극소수이다.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왔다는 방증이다. 외교·국방·통일 관련 부처에서 여성 공무원의 보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 교수나 국방 연구원, 고급 장교, 언론사 상위직, 종군기자, UN 소속 직원 등을 선발할 때도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163) 한국일보, 2017년 10월 12일, <http://www.hankookillbo.com/v/d8608f38f05d4b309a959bde72994629>(검색일 : 2017년 11월 30일).

164) 이데일리, 2017년 11월 20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20966616128016&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 2017년 11월 30일).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면 국민의 반 이상인 여성의 안보의식을 끌어올리는 일은 소원한 일이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325호에서 여성의 평화·안보 관련 정책 결정 및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과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¹⁶⁵⁾ 우리 또한 이에 발맞추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함, 평화주의적 특성을 국가 중요 정책 결정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보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육기회 확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안보적 측면에서 여성 활용 비전 설계 및 추진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였다.¹⁶⁶⁾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의 유리천장지수가 가장 높은 통일이나 국방, 안보 분야에서 여성 활용에 대한 비전은 구체화된 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진 목표제’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군 초급 간부 확대’는 한 쪽은 고위직 여성의 확대, 다른 한 쪽은 초급 간부 비율 확대라는 부분적인 개선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군의 경우 초급 간부-장기 선발 인원-진급자-장성-예비역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여군 인력 활용 비전이 나와야 진정한 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제도 개선은 포퓰리즘에 기초한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165) 메디컬투데이, 2017년 11월 27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2957>(검색일 : 2017년 12월 5일).

166) 뉴시스, 2017년 12월 20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0_0000181989&cID=10201&pID=10200(검색일 : 2017년 12월 21일).

제 5 장 결 론

최근 여성 최초로 외교부장관 직에 임명되어 국제외교무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은 모 TV 프로그램¹⁶⁷⁾에 출현해 외교부 내의 뿌리 깊은 관료문화와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또한 “여성이라 안보의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사실 전통적인 안보의 접근법이나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이 국방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국가적 위기시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분연히 나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희생한 많은 선인들이 계셨던 역사를 기억한다면 단지 국방의 의무이행 여부가 안보의식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주변국의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추어 내·외부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와 국민은 운명공동체로서 국가의 존폐는 국민 안보의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안보관, 북한관, 동맹관, 국방관으로 나누어 살펴 본 관련 문제에 관해 전체 평균 값과 남녀 응답률이 각각 다른 분포를 나타내었고,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평균값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정 안보이슈에 관해 ‘모름’을 선택한 비율도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컸고,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과 보수 정권(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의 비교에서도 남녀 안보의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남녀 사이에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안보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지난 28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에 소중한 활용가치를 지녔으며,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었던 성별 안보의식 분석을 함에 있어 유용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료가 가진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기관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였으나 국방부 예하의 국가기관인 만큼 당시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문항 구성이 두드러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둘

167)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017. 11. 5 방송분

째, 매년 문항수와 설문내용의 변경에 따라 조사 내용의 유사성과 일관성이 떨어져 정부 간 비교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인 남녀의 성비가 고르지 못해 성별 비교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넷째,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용역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일관성,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민 안보의식을 분석하는데 새로운 연구의 흐름도를 적용하여 안보의식 수준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연구방법은 향후 지속될 관련 연구에 경험적·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전 연구에는 없었던 ‘여성 안보의식’ 개념과 ‘안보의식 분석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별 비교를 하여 역대 정부 간 남녀 안보의식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여성의 안보의식에 대해서 남성과는 차별화된 안보의식 제고 노력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남녀의 안보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여성의 안보의식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일부 여성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연구결과일 수 있으나, 향후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대상을 달리하여 시행될 때 더욱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임을 밝힌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한 개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둘째, 정부 간 비교를 하였으나, 매 정부 2년차 자료만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연구범위를 확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여성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10.
-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1997.
- ,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여군 참전사』, 서울, 국방부, 2012.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 ,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 ,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 김열수, 『국가안보』, 경기도, 법문사, 2013.
- 김옥이,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 확대방안-전국 여대생 여론조사 결과 및 정책제안』, 김옥이 의원실, 2008.
- 김충남·문순보,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3.
- 김학옥, 『정신전력의 개발』, 서울, 배영사, 1989.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서강대학교, 1995. 8.
- ,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서강대학교, 1999. 8.
- 성신여자대학교, 『2014년도 성신안보포럼 : 여성안보 전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2014.
- 송영선 외,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 여성의 안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서울, 송영선의원실, 2005.
- 소방방재청, 『한국의 민방위 30년』, 서울, 소방방재청, 2006.
- 심영희 외, 『세계화와 여성안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염지혜,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여성인력 활용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오경조 외, 『군내 여성 인력활용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 이민수, 『군 여성인력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 인적자원 개발 모델 축 : 군 인력

개발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여성가족부, 2012.

정용범,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 사회복지무역 운용 전망 분석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7.

주재선,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최창섭 등, 『국민안보의식조사』, 서울, 국방부 안보문제연구소, 1989. 6.

황원갑, 『연수영』, 경기 수원, 바움, 2010.

나. 논문

고성진·박효선, “군과 연계한 안보교육 강화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0권 6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권김현영, “평화의 정치학을 위한 모성적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7권, 한국여성철학회, 2007.

권인숙, “징병제의 여성참여,” 『여성연구』 통권 제7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김경순, “국방환경의 변화와 여군의 역할 확대,” 『민족연구』 45호, 한국민족연구원, 2011.

김관호·김순태, “국민 안보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결과 (1989년~2013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7권 3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김광식, “유럽병역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적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1401호, 한국 국방연구원, 2012.

김규현, “외국 여군의 전투 분야 활용 동향 및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2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김기정, “국민 안보의식 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회의 총서』 (2004(7)).

김동원, “한국 여군 증가의 효과성 분석 :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3권 제3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김민정 외,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형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3년.

김병조,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국민안보의식 분석,” 『국방연구』 37(2),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4.

김선옥,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군의 역할,” 『98 미래 여군 발전 세미나 논문집』, 1998년 6월 3일.

김성영, “6·25 참전 여군의 활약상과 국가안보,” 『한국보훈논총』 제9권 제2호, 경기도

- 화성시 : 한국보훈학회, 2010.
- 김용현·박영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 2011.
- 김종영·황중호·이규웅,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전략논단』 9,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8.
- 김재철, “한(韓) 민족의 군사사상과 흥망성쇠의 교훈,” 『동북아연구』 Vol. 22 No. 2,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 김재홍,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방위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6권 1호,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2.
- 김창경, “여자의 창업,” 『웰스매니지먼트』, 2015년 4월호.
- 김충남, “국가안보와 국민의식 : 역사적 교훈과 현실적 과제,” 『한국군사』 28호,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2012.
- 김태열, “대학생들의 애국심·통일·안보 의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9.
- 김현경, “한국여성의 국방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박사논문, 2015.
- 나태중, “한국의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연구,” 『군사』 8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독고순, “여성의 안보 참여,” 『국방정책연구』 19, 한국국방연구원, 2005. 7.
- 민무숙, “양성평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미래정책포커스』 제3호, 경제·인문사회연구원, 2009.
- 민형기, “현대전에 있어서의 국민정신전력,” 『국회보』 332, 국회사무처, 94. 6.
- 박경범, “진정한 남녀평등의 길 : 브레이크 벗는 여성공화국-병역의무의 남녀평등도 이루어야 한다,” 『한국논단』 187호, 2005.
- 박균열,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14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4. 3.
- 백계근, “여군 활용 활성화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2011.
- 백승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4.
- 백주인, “국민 안보의식 향상 위한 정책 발전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2012.
- 송명진, “여군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8권 1호,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4.
- 양기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 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 양동안·강길진·강옥경, “국가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도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 11. 15.
- 양정훈, “한국인의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현황과 과제,” 『한국보훈논총』 제14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15.
- 양철호·정상완,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위기 관리논집』 제10권 제6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9.
- 어수영,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3권 3호, 한국정치학회, 1996.
- 염지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활용방안,” 『Issue & Focus』 4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윤미숙,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2010.
- 이상수, “역대정부의 대북 안보관 변천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논집』 제47집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 이성춘,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분석,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 이미경·임혜란, “한국 여성정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창립 50주년 학술대회 발표, 2000. 10. 26.
- 이영균, “입대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지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6(1): 47-74(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 이옥연,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담론,” 『국방연구』 47권 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12.
- 이정자, “한국 여성지도층의 안보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1995.
-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임현진·박순열, “한국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의 모색,” 『사회와 이론』 제21-2집, 이학사, 2012.
- 전상조, “대학생의 안보의식 영향요인과 성별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 2014년 겨울.
- 전재성,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 논의,” 『국제관계연구』 제 11권 2호, 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정영진, “민주화 이후 한국 안보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정치 박사논문』, 2013.
- 조승연,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와 국방정책,” 『군사발전연구』 7권 1호,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3.
- 추순삼, “여군인력의 복무 증진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2006.
- 최미애·이상열, “특정직 여성인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 경호경비학회지』, 제4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 홍규덕,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한 4가지 쟁점,”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홍길선,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군 인력 충원과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발전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영』 제22권 1호, 충북대 산업경영연구소, 2009.
- 홍창국, “육군 여군 초급간부의 양성평등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황영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3.

2. 외국문헌

-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0.
- Barry Buzan, “*New Patterns of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1991.
- Bem, S, “*The Lenses of Gender : Transforming the Debate on Sexual Inequ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Binkin M. and Bach S. J., “*Women and Military*,” The Brookings Institution.
- Holsti, Ole & James Rosenau(1981), “*The Foreign Policy Beliefs of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Journal of Politics, 43: 326.
- Mady Wechsler Segal, “*Women’s Military Roles Cross-Nationally, Pas, Present and Future*,” Gender & Society, v.9, 1995.
- Nicholas Machiavelli, “*The Prince*,” Vineland, NJ: Hendricks House, 1961.

Porter & Adside, *"Women in combat :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U.S. Military Officers and Enlisted Personnel,"* Master the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Dec. 2001.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Wirls, Daniel(1986), *"Reinterpreting the Gender Gap,"* Public Opinion Quarterly, 50.

3. 기타자료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017. 11. 15.
- 『경상매일신문』 2017. 11. 7.
- 『경향신문』 2016. 7. 24.
- 『국민일보』 2016. 1. 13, 2016. 8. 31.
- 『국방일보』 2017. 12. 10.
- 『노컷뉴스』 2017. 9. 26.
- 『뉴스1』 2016. 5. 19, 2017. 11. 21.
- 『뉴시스』 2017. 12. 20.
- 『데일리한국』 2017. 11. 1.
- 『동아일보』 2016. 8. 1.
- 『머니투데이』 2016. 9. 6.
- 『메디컬투데이』 2017. 11. 27.
- 『서울신문』 2009. 8. 3.
- 『신동아』 2016. 6. 17.
- 『서울신문』 2009. 8. 3.
- 『아시아경제』 2017. 11. 1
- 『연합뉴스』 2016. 9. 9.
- 『이데일리』 2016. 2. 16, 2016. 3. 7, 2017. 6. 15, 2017. 11. 20.
- 『조선일보』 2016. 8. 2.
- 『중앙일보』 2016. 1. 13, 2011. 3. 29, 2017. 6. 30, 2017. 11. 21.
- 『한겨레』 2016. 8. 24.
- 『환경비즈니스』 2015. 1. 5
- 『한국경제』 2016. 6. 23, 2017. 11. 21, 2017. 11. 22.

『한국일보』 2017. 10. 12.

『헤럴드경제』 2016. 3. 30.

『기타 인터넷 자료』 여성가족부(www.modef.go.kr),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www.kncw.or.kr), 네이버 검색(‘강소사’, ‘국방일보’, ‘남모와 준정’, ‘논개’, ‘소서노’, ‘안보’, ‘여성 의식 함양’, ‘연수영’, ‘유리천장’, ‘윤희순’, ‘1인 미디어’), 미국토안보부 홈페이지 검색 ‘national security’, 옥스퍼드 영어사전 검색 ‘national security’.